

2024 추계공동학술대회

# 통합, 다양성, 다자주의를 통한 현대 중동의 이해

일시

2024. 11. 30. 토 PM 12:30-17:20

장소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 MCC관

10120호, 10119호, 10118호, 10116호

주관



한국중동학회  
Korea Association of Middle Eastern Studies



한국아랍어 아랍문학회  
Korea Association of Arabic Language & Literature



한국이슬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Islamic Studies

공동주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INSTITUTE OF MIDDLE EASTERN AFFAIRS



GCC국가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 연구소  
Institute of Middle East Studies, HUFS

후원



한국-아랍소사이어티  
Korea-Arab Society



명지대학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국연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0S1A5C2A01093123)

2024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 〈 통합, 다양성, 다자주의를 통한 현대 중동의 이해 〉

- 일시 : 2024년 11월 30일(토), 12:30-17:20
- 장소: 명지대학교 MCC관 10120호, 10119호, 10118호, 10116호
- 주최: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한국중동학회, 한국이슬람학회
- 공동주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후원: 한국-아랍소사이어티, 명지대학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 Program

12:30-13:00

### 등록

13:00-13:30

### 개회식

장소: 10120호

[ 사회 ] 안현주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총무이사, 육군사관학교)

#### ▪ 개회사

이종화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 ▪ 환영사

곽순례 (한국중동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 ▪ 축사

김창모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 ▪ 단체사진 촬영

##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세션 1

〈통합적 언어 교육, 이주 문학, 문화적 다양성 및 언어 교육〉

장소: 10119호

[ 좌장 ] 이인섭 (한국외국어대학교)

## ▪ 아랍어 문장 구조에 대한 최소주의 접근

발 표 최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안희연 (단국대학교)

## ▪ دراسة حول هويات الدياسبورة في الترجمتين الكورية والعربية للرواية الإنجليزية بـ"باتشينكو"

(영어 소설 『파친코』의 한국어와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 연구)

발 표 이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Mohamed Ibrahim El Askary (한국외국어대학교)

## ▪ AI 시대 아랍어 듣기 교육 도구로서 음성합성기술(TTS: Text to Speech)의 적용 가능성 연구

발 표 조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양희정 (한국외국어대학교)

## ▪ تحليل أوجه الصعوبة في تعل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لدى ا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الأسباب والحلول

(한국 학생들의 아랍어 문법 학습 어려움에 대한 분석: 원인과 해결 방안 연구)

발 표 Reham Abdelsalam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문지영 (명지대학교)

## 한국중동학회 세션 1

〈다자주의 세계 질서와 중동의 변화: 도전과 미래 전망〉

장소: 10120호

[ 좌장 ] 오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 ▪ Decentralizing Power: The Impact of the Gaza Conflict on the Emergence of a Spontaneous Order in the Middle East

(권력의 분산화: 가자 분쟁이 중동내 임의적인 질서 출현에 미친 영향)

발 표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Robert Lawrence (동덕여자대학교)

## ▪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함의점

발 표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 론 안소연 (서울대학교)

## ▪ 튀르키예어(터키어) 페르시아어 차용 양상 연구

발 표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곽새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이슬람학회 세션 1  
〈취향, 계급, 구별, 혐오에 대한 저항과 해체〉

장소: 10116호

[ 좌장 ] 박재양 (부산외국어대학교)

- 레바논 기독교 언론에 나타난 시아파 관련 보도행태  
    발 표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김은지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븐 타이미야의 저서에 나타난 기독교와 시아파 유사성 비교  
    발 표 김정명 (명지대학교)  
    토 론 김형훈 (한국외국어대학교)
- 레반트 지역 시아 공동체 현황과 순니파 무슬림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발 표 안정국 (명지대학교)  
    토 론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시리아 내전에서 나타난 시아파 정체성의 안보화와 정권 유지  
    발 표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이주성 (한국외국어대학교)

15:00-15:15

휴식

15:15-16:45

세션 2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세션 2  
〈통합적 언어 교육, 이주 문학, 문화적 다양성 및 언어 교육〉

장소: 10119호

[ 좌장 ] 장세원 (단국대학교)

-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변화과정  
    발 표 구미란 (선문대학교)  
    토 론 윤현호 (단국대학교)
- **أزمنة الفعل النحوي في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لغسان كنفاني - دراسة أسلوبية**  
(갓산 카나파니의 소설 『태양 속의 남자들』에 나타난 동사의 시제에 대한 문체적 연구)  
    발 표 Nagwa Khodiri Ahmed (명지대학교)  
    토 론 Salaheldin Abdelaziz Ali Elgebily (한국외국어대학교)
- **سردية المهرة في الأدب المصري**  
(이집트 문학 속 이주의 서사)  
    발 표 Mohamed Talaat El-Gendy (시안대학교, 중국)  
    토 론 Abdul Rahman Ballo (한국외국어대학교)
- 근대 아랍, 서구 문학의 조화 및 발전 - "무함마드 무웨일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발 표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김정아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중동학회 세션 2  
다자주의 세계 질서와 중동의 변화: 도전과 미래 전망 (좌담회)

장소: 10120호

[ 좌장 ] 곽순례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표 흥미정 (단국대학교)
  - 발표 안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표 마영삼 (고려대학교)
  - 발표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표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이슬람학회 세션 2  
취향, 계급, 구별, 혐오에 대한 저항과 해체

장소: 10116호

[ 좌장 ] 윤용수 (부산외국어대학교)

- Iranian Identity and Ethnic Diversity:  
National Unity in the Face of Modern Challenges  
(이란의 정체성과 인종의 다양성: 현대 이란이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 국가 단합)  
발 표 Motahare Mozafari (부산외국어대학교)  
토론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 중동지역 이주민에 대한 교사의 수용적 태도를 위한 수학교육의 방향  
: 청동기 중동수학사를 중심으로  
발 표 박제남 (인하대학교)  
토론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 레바논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  
발 표 김성환 (명지대학교)  
토론 이은경 (선문대학교)
  - 이슬람과 동성애  
발 표 이지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강원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학문후속세대 세션

자유주제

장소: 10118호

[ 좌장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스라엘 지정학적 위협이 한국-중동 무역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비선형 ARDL 접근법을 통한 분석

발 표 김호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노다솔 (한국외국어대학교)

- 카타르의 소프트파워: 독일 내 펀드 지원의 영향과 복합적 결과에 대한 고찰

발 표 안찬혁 (독일 에르푸르트대학교)  
토 론 안소연 (서울대학교)

-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현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포함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속이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Humanitarian Realities in Palestine: The Unending Impact of the Ongoing Israel-Palestine Conflict on Palestinians' Humanitarian Issues)

발 표 김도현 (성균관대학교)  
토 론 황의현 (서울대학교)

-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저항 방식 유형 - 『뜨거웠던 봄』을 중심으로 -

발 표 이슬아 (명지대학교)  
토 론 하주형 (단국대학교)

16:50-17:20

폐회식

장소: 10120호

[ 사회 ] 이경수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이슬람학회 우수논문상 시상
-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전임회장 감사패 전달식
- 폐회사  
김수완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 단체사진 촬영



# Contents

## [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세션 1 ] 통합적 언어 교육, 이주 문학, 문학적 다양성 및 언어 교육

장소: 10119호

▪ 아랍어 문장 구조에 대한 최소주의 접근	.....	15
발 표	최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 دراسة حول هويات الدياسبورا في الترجمتين الكورية والعربية للرواية الإنجليزية بـ "باتشينيكو"	.....	27
(영어 소설 『파친코』의 한국어와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 연구)		
발 표	이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 AI 시대 아랍어 듣기 교육 도구로서 음성합성기술(TTS: Text to Speech)의 적용 가능성 연구	.....	35
발 표	조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 تحليل أوجه الصعوبة في تعل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لدى ا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الأسباب والحلول	.....	41
(한국 학생들의 아랍어 문법 학습 어려움에 대한 분석: 원인과 해결 방안 연구)		
발 표	Reham Abdelsalam (한국외국어대학교)	

## [ 한국중동학회 세션 1 ] 다자주의 세계 질서와 중동의 변화: 도전과 미래 전망

장소: 10120호

▪ Decentralizing Power: The Impact of the Gaza Conflict on the Emergence of a Spontaneous Order in the Middle East	.....	51
(권력의 분산화: 가자 분쟁이 중동내 임의적인 질서 출현에 미친 영향)		
발 표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합의점	.....	59
발 표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튀르키예어(터키어) 페르시아어 차용 양상 연구	.....	75
발 표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이슬람학회 세션 1 ] 취향, 계급, 구별, 혐오에 대한 저항과 해체

장소: 10116호

▪ 레바논 기독교 언론에 나타난 시아파 관련 보도행태	87
발 표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븐 타이미야의 저서에 나타난 기독교와 시아파 유사성 비교	97
발 표 김정명 (명지대학교)	
▪ 레반트 지역 시아 공동체 현황과 순니파 무슬림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113
발 표 안정국 (명지대학교)	
▪ 시리아 내전에서 나타난 시아파 정체성의 안보화와 정권 유지	127
발 표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세션 2 ] 통합적 언어 교육, 이주 문학, 문화적 다양성 및 언어 교육

장소: 10119호

▪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변화과정	137
발 표 구미란 (선문대학교)	
▪ <i>أزمنة الفعل النحوية في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لغسان كنفاني - دراسة أسلوبية</i> (갓산 카나파니의 소설 『태양 속의 남자들』에 나타난 동사의 시제에 대한 문체적 연구)	155
발 표 Nagwa Khodiri Ahmed (명지대학교)	
▪ <i>سردية الهجرة في الأدب المصري</i>	165
(이집트 문학 속 이주의 서사)	
발 표 Mohamed Talaat El-Gendy (시안대학교, 중국)	

- 근대 아랍, 서구 문학의 조화 및 발전 – "무함마드 무웨일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 ..... 183  
발 표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중동학회 세션 2 ] 다자주의 세계 질서와 중동의 변화: 도전과 미래 전망 (좌담회)

장소: 10120호

- 발 표 흥미정 (단국대학교) ..... 187
- 발 표 안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 193
- 발 표 마영삼 (고려대학교) ..... 197
- 발 표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 201
- 발 표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205

[ 한국이슬람학회 세션 2 ] 취향, 계급, 구별, 혐오에 대한 저항과 해체

장소: 10116호

- Iranian Identity and Ethnic Diversity: National Unity in the Face of Modern Challenges ..... 209  
(이란의 정체성과 인종의 다양성: 현대 이란이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 국가 단합)  
발 표 Motahare Mozafari (부산외국어대학교)
- 중동지역 이주민에 대한 교사의 수용적 태도를 위한 수학교육의 방향: 청동기 중동수학사를 중심으로 ..... 219  
발 표 박제남 (인하대학교)
- 레바논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 ..... 231  
발 표 김성환 (명지대학교)
- 이슬람과 동성애 ..... 241  
발 표 이지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학문후속세대 세션 ] 자유주제

장소: 10118호

- 이스라엘 지정학적 위협이 한국-중동 무역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비선형 ARDL 접근법을 통한 분석 … 251  
발 표 김호년 (한국외국어대학교)
- 카타르의 소프트파워: 독일 내 펀드 지원의 영향과 복합적 결과에 대한 고찰 ..... 259  
발 표 안찬혁 (독일 에르푸르트대학교)
-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현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포함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속이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 275  
(Humanitarian Realities in Palestine: The Unending Impact of the Ongoing Israel-Palestine Conflict on Palestinians' Humanitarian Issues)  
발 표 김도현 (성균관대학교)
-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저항 방식 유형 - 『뜨거웠던 봄』을 중심으로 - ..... 287  
발 표 이슬아 (명지대학교)

##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세션 1

### <통합적 언어 교육, 이주 문학, 문화적 다양성 및 언어 교육>

장소: 10119호

[ 좌장 ] 이인섭 (한국외국어대학교)

#### ■ 아랍어 문장 구조에 대한 최소주의 접근

발 표 최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안희연 (단국대학교)

#### ■ دراسة حول هويات الدياسپورا في الترجمتين الكورية وال العربية للرواية الإنجليزية بـ"باتشينكو"

(영어 소설 『파친코』의 한국어와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 연구)

발 표 이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Mohamed Ibrahim El Askary (한국외국어대학교)

#### ■ AI 시대 아랍어 듣기 교육 도구로서 음성합성기술(TTS: Text to Speech)의 적용 가능성 연구

발 표 조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양희정 (한국외국어대학교)

#### ■ تحليل أوجه الصعوبة في تعل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لدى ا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الأسباب والحلول

(한국 학생들의 아랍어 문법 학습 어려움에 대한 분석: 원인과 해결 방안 연구)

발 표 Reham Abdelsalam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문지영 (명지대학교)



# 아랍어 문장 구조에 대한 최소주의 접근

최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 I. 최소주의 이론(The Minimalist Theory)

### 1. Chomsky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TG Grammar)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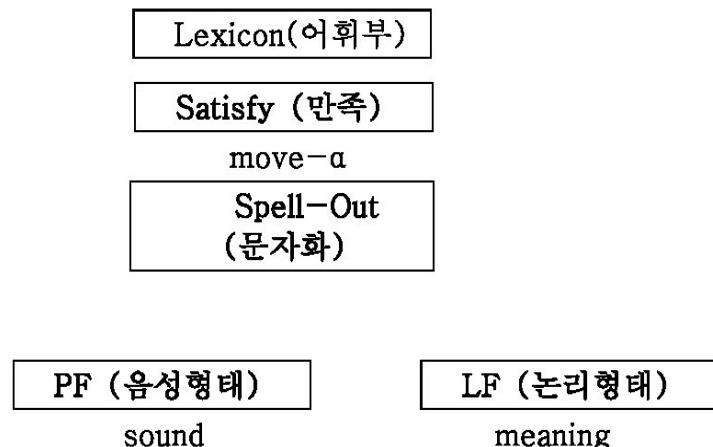
1981년 'Lectures on Government & Binding'  
(GB-Theory: 지배-결속 이론): 원리주의 이론  
예) 지배원리, 결속원리, 한계원리, 공범주 원리, 통제원리

1995년 'The Minimalist Program' (최소주의 이론)

2013년-2015년 'Problems of Projection' (투사 이론)

- 철학적 배경: 합리주의(이성주의) 철학, 언어는 인간의 이성의 발현, 언어 연구는 인간의 내적 정신세계를 탐구
- 지배-결속이론과 최소이론의 목표: 인간의 내재적 언어능력 (linguistic competence)의 명시적 규명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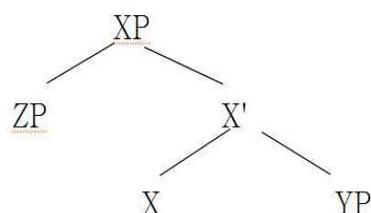
## 2. 최소주의 이론의 문법체계



### 1) 만족(satisfy) 규칙

어휘부에서 입력된 어휘 항목들이 다음 같은 최소 핵계층구조 (minimal X-bar structure)를 만족시키면서 자동 투사(project) 되는 과정

#### ① 최소 핵계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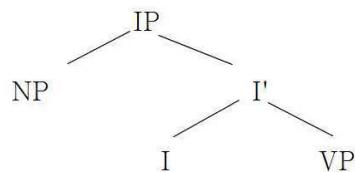
X: 핵(head) – N, V, P 등의 어휘범주 + 줄절소

I(inflection=Agr+Tense), 보문소 C(complimentizer)등 기능범  
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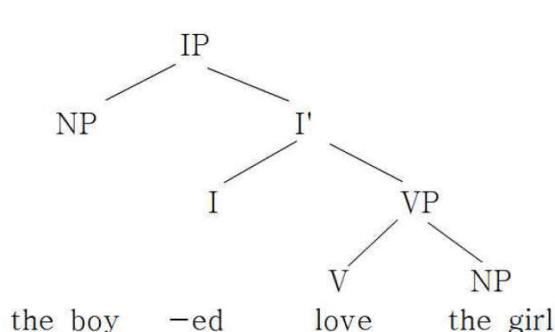
YP: 보충어(complement)

ZP: 지정어(specifier)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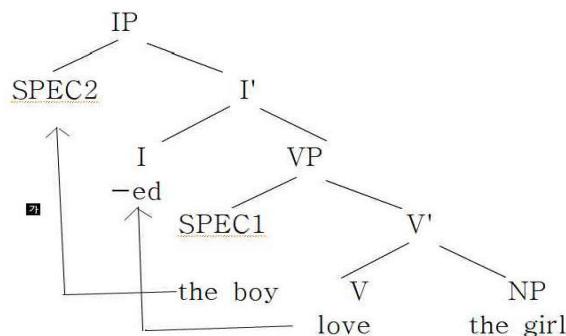
③ The boy loved the girl.



– 동사구내 주어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주어는 VP의 지정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가설

(Kitagawa(1986), Fukui and Speas(1986), Larson(1988), Sportiche(1988), Koopman and Sportiche(1988))

④



2) Spell-Out (문자화) 규칙: 자질 점검(checking)

- ① 일치자질(agreement feature) : 성, 수, 인칭의 일치자질
- ② 격자질(case feature)
- ③ [+WH]자질([+WH] feature): 의문사 자질
- ④ 시제자질(tense feature)

■ The boy 는 I로부터 격을 점검받기 위해 SPEC2로 이동, love는 I로부터 일치, 시제를 점검받기 위해 I로 이동 → PF 와 LF에서 음성과 의미로 해석됨

## II. 동사문의 핵계층 구조

### 1. 기본 구조 SVO에 대한 논증

#### - 논증의 근거

- 1) 아랍어 문장 어순 VSO 와 SVO 의 분류 방법이 기술적 방법에 의존해서 설명적 충족성이 결여됨
- 2) 대부분의 인간 언어가 명사로 시작하는 어순을 갖고 있는데 아랍어만이 동사로 시작하는 어순을 갖고 있다는 사실
- 3) 명사문은 주어와 술어 간의 완전일치가 일어나는 반면 동사문은 동사와 주어 간의 불완전 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

#### - 변형 규칙의 적합성(plausibility): 변형 규칙의 적용 최소화

(1) al-kitābu al-rajulu qaraʔa-hu

$s'[\underline{al}-\underline{kitābu} \ s[al-rajulu \ qaraʔa \ t]] \leftarrow$  명사구 이동  
 $s'[al-\underline{kitābu} \ \ s[al-\underline{rajulu} \ \ qaraʔa-hu]] \leftarrow$  복귀대명사 규칙

(2) al-kitābu qaraʔa-hu al-rajulu

s[al-kitābu] s[qaraʔa al-rajul t] ← 명사구 이동  
s[al-kitābu s[qaraʔa al-rajulu hu]] ← 복귀대명사 규칙  
s[al-kitābu s[qaraʔa-hu al-rajulu]] ← 복귀 대명사 부착  
의무규칙

(3) wāfaqa al-rajulu ŋalā al-qarār

wāfaqa ŋalā al-rajulu al-qarār - 기저구조  
wāfaqa al-rajulu ŋalā al-qarār ← 주어 전치 이동규칙

그러나 기저구조로 SVO 어순을 취할 경우, 기저구조 al-rajulu wāfaqa ŋalā al-qarār에서 주어 전치 이동규칙이 적용안됨

(4) ?akhadha al-rajulu yaqraʔu al-kitāba (시작동사)

kāda al-rajulu yaqraʔu al-kitāba (근접동사)

?akhadha yaqraʔu al-rajulu al-kitāba - 기저구조

kāda yaqraʔu al-rajulu al-kitāba - 기저구조

← 주어 전치 의무규칙

그러나 SVO를 기저구조로 설정하면 위와 같은 의무 규칙이 적

## 용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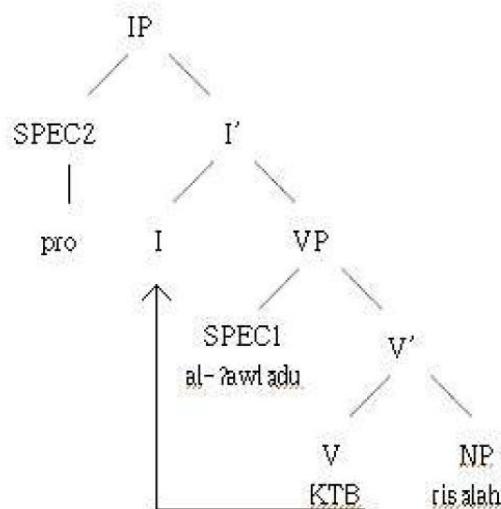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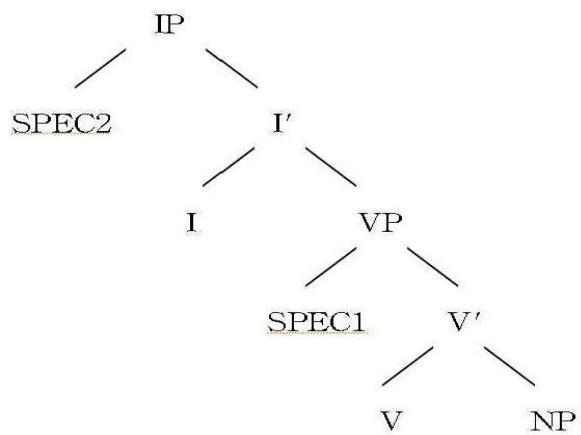
al-rajulu ?akhadha yaqra?u al-kitāba -기저구조  
al-rajulu kāda yaqra?u al-kitāba -기저구조

(5) SVO를 기저구조로 주장하는 이유는 언어학적 이론과 관계가 있음. 최소 구조 분석(Minimalist Analysis)에 따르면 어린 아이는 애초에 어휘 범주인 VP를 먼저 습득하면서 문장구조가 발달됨. 이러한 점에서, 아랍어를 배우는 어린아이들도 어휘 범주인 VP를 시작으로 문장구조를 습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SVO의 설정은 동사구를 포함하지 않는 VSO 어순보다 언어학적 이론의 차원에서 더 설득력이 있음

## 2. 동사문(VSO)의 핵계층 구조와 불완전 일치

### 1) 동사문의 핵계층 구조

동사문 kataba al-?awlādu risālah 는 만족 규칙과 문자화 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투사됨



- 주어 *al-?awlād*는 동사 어근에서 의미역을, I로부터 주격을 부여받음
- 동사 어근 KTB는 일치와 시제 자질을 점검받기 위해 굴절 소 I로 상향 이동해 공범주 대명사(empty pronoun) *pro*와 일치 함.

2) 공범주 대명사 pro의 존재 근거와 3인칭 단수형 자질

- 전통 문법의 숨어있는 대명사 (qamīr mustatir)

① jalasa salā al-kursī.

yadhabu ?ilā al-madrasa.

② zaydun ?abūhu karīmun.

zaydun (huwa)karīmun.

예문 ① 동사의 주어는 3인칭, 남성, 단수형의 숨어있는 대명사 /huwa/ (qamīr mustatir taqdīruhu huwa)이며, 예문 ②의 경우 술어(al-khabar)의 주어(al-mubtada?) 자리에 숨어있는 대명사 /huwa/를 추정할 수 있음.

그렇다면 pro의 자질을 3인칭, 단수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pro가 종속절 구문에서 음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③ ?iddaſā ?anna-hu jā?a al-?awlādu.

qāla ?inna-hu jā?at al-banā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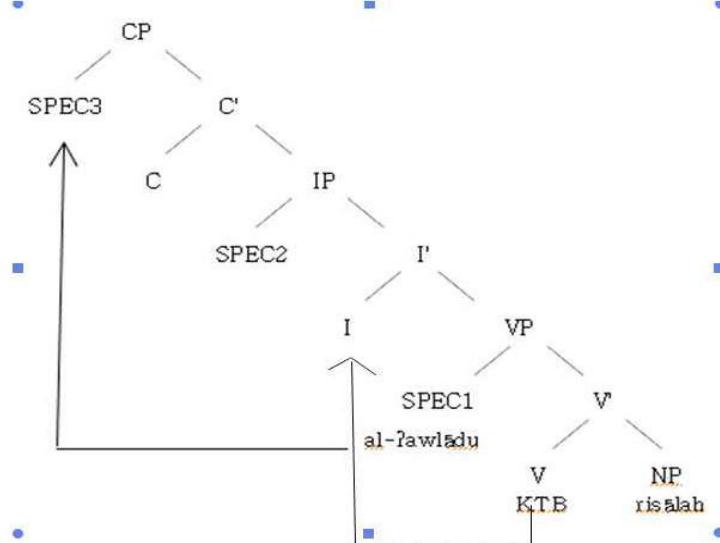
예문 ③에서 공범주 대명사 pro는 ?inna 와 ?anna의 하위 범주화 특성 때문에 3인칭 단수형의 대명사 형태로 어휘화되었음. 따라서 상기 예문은 공범주 대명사 pro의 3인칭, 단수형 자질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됨. 따라서 동사가 SPEC2 자리에 있는 pro와 일치함으로써 동사문의 동사가 항상 단수형을 취하는

불완전 일치현상을 근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III. 명사문(SVO)의 핵계층 구조와 명사구 이동

① al-?awladu katabū risalah.

②



- 핵계층 구조②는 보문소 C의 지정어 자리에 SPEC3가 투사됨으로써 동사문의 핵계층 구조보다 확대되었음.
- 동사 어근 KTB는 시제와 일치자질을 점검받기 위해 굴절소 I

로 이동.

- 주어 al-?awlādu는 IP 영역을 벗어나 C의 지정어 자리인 SP EC3 자리 즉, 주제어(topic) 자리로 좌측전위(left-dislocation) 하는 상향 이동을 함. 이때 주어는 IP 영역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비논항이 되어 항상 주격을 취함-자질을 점검받기 위한 통사적 이동이 아니라 의미규칙인 초점(focus)규칙에 의해 이동됨.
- 의미 연쇄를 위해 동사어근에 3인칭 남성 복수형 공범주 주어를 나타내는 주어 표지어 al-wāw가 활용됨.

#### IV. 결론

1. 동사문의 기저 구조를 최소주의 핵계층 구조를 통해 SVO로 규정.
2. 동사의 주어는 동사구내 지정어 자리 SPEC1에서 생성.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받고 굴절소 I로부터 주격을 부여받음.
3. 동사 어근은 일치와 시제 자질을 점검받기 위해 굴절소 I로 상향 이동되어 VSO 구문이 도출되고, 이때 동사는 3인칭, 단수형 공범주 대명사 pro 와 일치하여 단수형을 취함- 동사문의 불완전 일치를 근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4. 명사문의 주어 즉, 주제어는 IP 영역의 주어가 좌측 전위해서 생성되고 의미연쇄를 위해 동사어근에 주어 표지어가 활용됨.



# دراسة حول هويات الدياسبورة في الترجمتين الكورية والعربية للرواية الإنجليزية بـ"باتشينكو"

이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دراسة حول هويات الدياسبورة الكوريين في الترجمتين  
الكورية والعربية للرواية الإنجليزية بـ"باتشينكو"

**A Study on Korean diasporic identities in the Korean  
and Arabic translations of the English novel *Pachinko***

30<sup>th</sup> November

**Dr. Kye Youn LEE**

## مقدمة : خلفية البحث ودوافعه

1. وضع الرئيس الأمريكي السابق باراك أوباما رواية "باتشينكو" في قائمة الكتب التي يجب قراءتها في الإجازة ونقل هذا القول على الشبكة الاجتماعية أي الفيسبوك وقد وصفها باراك أوباما بأنه «قصة قوية عن المرونة والرحمة».
2. اختارت "نيويورك تايمز" الإصدارات الأفضل عام 2017 وعام 2024 (في يوم 13 من يوليو عام 2024م). كما اختارت "يو أس أي اليوم" ومحطة الإذاعة بي بي سي وأفادت "نيويورك تايمز" أن "باتشينكو" لمين جين لي وهي رواية رائعة تتبع فيها الكاتبة حياة أربعة أجيال من عائلة واحدة من أصل كوري يعيشون في اليابان، وتركز فيها على الغربة وعدم الانتماء وأمور أخرى عديدة.
3. كما اختارت "يو أس أي اليوم" ومحطة الإذاعة بي بي سي

| 1

## مقدمة : خلفية البحث ودوافعه

1. تبدأ هذه القصة بجملة كما تلي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Min Jin Lee - 2017:3)**

**هذا يعني** : قد فشل التاريخ الكوري تحت الفترة الاستعمارية اليابانية ولكن كان يعيش المهاجرون الكوريون من أربعة أجيال في اليابان، الذين تغلبوا على جروح التمييز والكراهية في التاريخ الفاشل وتمت ترجمة كتاب "باتشينكو" لمين جين لي إلى 33 لغة ونشر فجذب انتباه القراء في العالم. كما اهتم النقاد في جميع أنحاء العالم بكتاب "باتشينكو" لأنه تناول قضايا الحدود الوطنية والهوية (إيم جين هي 2019:275)

| 2

## مقدمة: خلفية البحث ودوافع للبحث

— سبب عُرف "باتشينكو" للكوريين وللمجتمع الكوري

— عُرض مسلسل باتشينكو الموسم الأول : يوم 25 من مارس- يوم 29 من أبريل عام 2022 م على أبل تي . كما عُرض مسلسل باتشينكو الموسم الثاني: يوم 23 من أغسطس - يوم 11 من أكتوبر عام 2024 م

— "باتشينكو" مبني على رواية تحمل نفس الاسم للكاتبة مين جين لي .



| 3

## أهداف البح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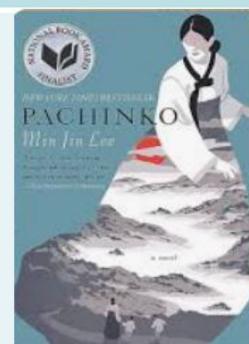
— يهدف هذا البحث إلى أن يقارن عن **أنماط الترجمة الخاصة بالاسم والموقع والكلمات الرئيسية** من الأصل الإنجليزي إلى الترجمة الكورية وإلى الترجمة العربية لكي ندور قضايا هوية الشتات والكرامة الإنسانية ومسائل الوجود في رواية باتشينكو الإنجليزية. سيقارن أيضا غلاف الرواية الإنجليزية الأصلية وغلاف الترجمة الكورية وغلاف الترجمة العربية من منظور سيميائي.

| 4

## رموز غلاف الكتاب الأصلي والكتابين المترجمين

1. ترمز الفراشات إلى السعادة والحب والنمو الداخلي في الثقافة الكورية . كما ترمز الملابس التقليدية النسائية الكورية المسمى بـ "هان بوك" إلى سونجا وهي صاحبة هذه القصة. وفي تنورة "هان بوك" صور منظر الطبيعة الكورية وملامح صاحبة سونجا وولديها "نواه" و"مزاس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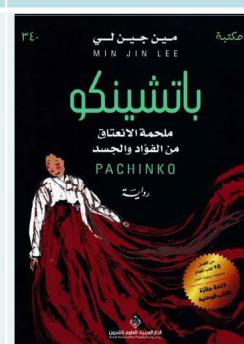
غلاف كتاب  
الأصلي الكوري  
ST



غلاف كتاب  
المترجم الكوري  
TT1



غلاف كتاب  
المترجم العربي  
TT2



| 5

## مسألة تغيير "الاسم" عند انتقال "المكان" وحسب هوية الشخص

النص الأصلي	الترجمة الكورية	الترجمة العربية
Junko Kaneda في أوساكا بعد الزواج:	선자 손자 في جزيرة يونغ دو ببوسان	جونكو كانيدا (O) سونجا باك (X) في بطاقة هوية: جونكو باندو
	=باك    백 모세 موسي ابن ثانى سونجا	بكو موزاسو في ملف المدرسة: باندو موزاسو

| 6

## كون الإنسان والموقع

1. ننتهي إلى المجتمع عن طريق "الضيافة" ونصبح إنساناً. إن كون شخصاً هو يعني أن يكون لديك مكان ما. إذا لم يكن هناك مكان في المجتمع الذي يعيش فيه فهذا يعني أنه سيموت موتاً اجتماعياً.

■ [ST, 341]

■ She could not see his humanity, and Noa realized that this was what he wanted most of all: to be seen as human.

■ "He's your father, isn't he?" Akiko said, "He looks exactly like you. You told me your father died, but he's not died. You just didn't want him to meet me, because you didn't want me to meet your yakuza papa.

| 7

## كون الإنسان والموقع

1. استيراتجية الوضوح: رجل عصابات مسمى بـ"ياكوجا" في عصر الاستعمار الياباني (بدلاً من رجل عصاباتٍ)

الترجمة العربية	الترجمة الكورية
فهي لا ترى إنسانيته، وأظن أنه لا يرغب شيء آخر باستثناء أن يعامل كإنسان. سأله أكيكو إنه والد، صحيح؟ إنه يشبهك كثيراً. لقد أهربتني إنه توفي لكن هذا غير صحيح. أنت فقط لم ترغب في أن إنتهى بوالدك حتى لا أعرفحقيقة كونه رجل عصاباتٍ.	[TT1-2, 105] 아키코는 노아를 한 인간으로 볼 수 없었고, 노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저 한 인간으로 여겨지고 싶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분이 네 아빠잖아, 안 그래?" 아키코가 말했다. "너랑 꼭 닮았던데. 넌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돌아가시지 않았어, 넌 그냥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야. 내가 네 야쿠자 아빠를 만나는 게 싫어서. 그리고 너 네 아빠가 폭력배라는 것을 나한테 알리기 싫었겠지."

, 8

## كون الإنسان والموقع

1. ننتهي إلى المجتمع عن طريق "الضيافة" ونصبح إنساناً. إن كون شخصاً هو يعني أن يكون لديك مكان ما. إذا لم يكن هناك مكان في المجتمع الذي يعيش فيه فهذا يعني أنه سيموت موتاً اجتماعياً.

[ST, 515]

"Solomon, the lady died of natural causes. The niece said it was the heart. She was ninety-three years old. I had nothing to do with her death. Listen, your boss doesn't actually think I killed the old lady. If he did, he'd be too scared to fire you. What would keep me from killing him? This is crazy stuff from television. He used your connections, then he fired you by making up some excuse. The client just wanted the Korean staff to go away."

| 9

## هوية الدياسبورة: سوجا وسولومون

2. هوية سولومون : سولومون أو سليمان؟

الترجمة العربية	الترجمة الكورية
<p>توفيت السيدة بشكل طبيعي. قالت ابنة أخيها إن قلبها كان السبب. كانت بعمر الثالثة والستين. ليس لي علاقة بموتها. اسمع، لا يعتقد مديرك أني قتلت تلك السيدة، فلو ظن ذلك، لما كان تجرا على طردك. فما الذي قد يمنعني من قتلها؟ هذا هراء درامي. لقد اقتل على معارفك ثم طردك مستخدماً أذراً واهية. كل أراده الزبون إلا تكون له صلة مع أي كوري في تلك الصفة"</p>	<p>[TT1-2, 345] "솔로몬, 그 부인은 자연사했어. 조카 딸이 심장 때문이라고 했단다. 아흔 세 살이었잖아. 난 부인의 죽음과 아무 상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무서워서 널 해고하지도 못했겠지. 자기를 죽이면 어쩌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친 짓이야. 그놈은 네 연줄을 이용한 후에 적당한 구실로 널 자른 거야. 그 고객은 귀찮은 조선인을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고."</p>

| 10

## خواتم Conclusion

في عملية الترجمة وتعليم الترجمة، يجب أن تتعكس النغمة المقصودة للمؤلف الأصلي بشكل كامل، ويجب أن يلعب المترجم دور المنسق والتواصل في ترجمة الأسماء والأماكن وكلمات الموضوع التي تمثل الهوية عند ترجمة أعمال الشتات مثل كتاب باتشينكو.

يتماشى هذا مع الترجمة الثقافية الموجهة لـ Bassnett and Lefevere (1990)، والتي تتطلب قبول مفهوم التغريب من قبل Venuti (1995) أو التحول الثقافي بواسطة Snell-Hornby (1990).

| 11

# ألف شكر على حسن استماعكم!

| 12



# AI 시대 아랍어 듣기 교육 도구로서 음성합성기술(TTS: Text to Speech)의 적용 가능성 연구

조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 AI 시대 아랍어 듣기 교육 도구로서 음성합성기술(TTS: Text to Speech)의 적용 가능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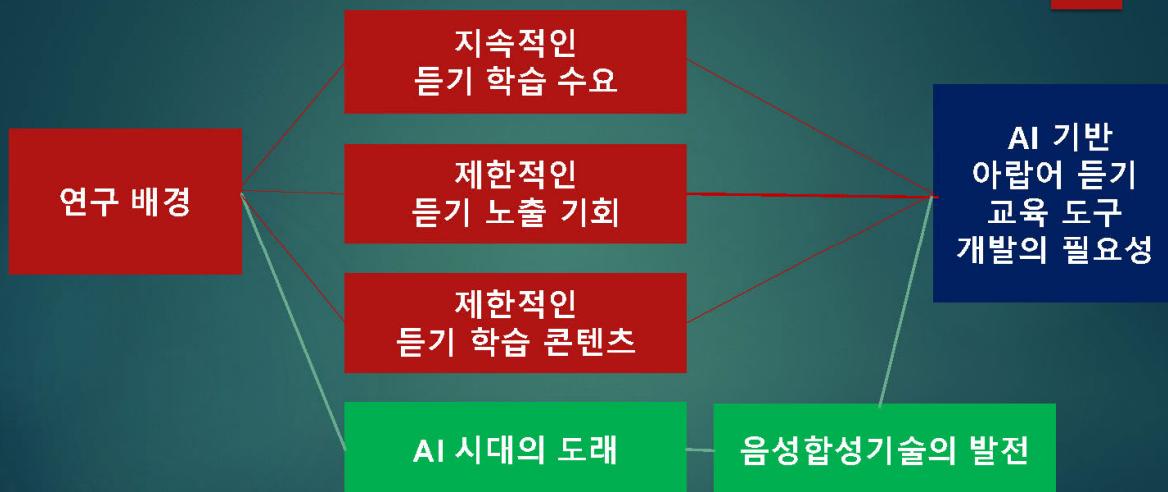
조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 목 차

- I. 서론
- II. 선행 연구
- III. 연구 내용
  - 1. 연구대상
  - 2. 연구방법
- IV. 연구 결과
- V. 참고 문헌

## I. 서론



## II. 선행 연구

최진영(2003). 아랍어 듣기전략과 교수법에 대한 연구

문지영(2022a). 문항 유형이 아랍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도 및 듣기 전략에 미치는 영향

\_\_\_\_\_ (2022b). 빙칸 채우기와 오류 수정 받아쓰기 활동이 아랍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_\_\_\_\_ (2020). 아랍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활동이 듣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_\_\_\_\_ (2016a). 명시적인 학습전략 훈련이 아랍어 듣기 및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 CALLA 모델 적용 효과

\_\_\_\_\_ (2016b). TV광고를 활용한 아랍어 수업이 아랍어 듣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_\_\_\_\_ (2014).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아랍어 듣기 수업의 효과 연구 : 정의적 요인을 중심으로

## II. 선행 연구

- 박선희(2008). 영어 청해 교육을 위한 TTS 활용 가능성
- \_\_\_\_\_(2006). 영어 청해 교육을 위한 TTS 활용 가능성 연구 : 듣기 평가와 받아쓰기를 중심으로
- 박진철(2021a).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자료 제작 연구 -음성합성기술(TTS) 활용을 중심으로-
- \_\_\_\_\_(2021b).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의 음성합성기술(TTS) 활용 사례 연구  
-‘발표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 이월미(2010). 받아쓰기에서 TTS(Text-to-Speech)프로그램의 활용 효과

## III. 연구 내용

### 1. 연구 대상

#### 1) 선정된 텍스트:

- 아랍어 중급(윤은경 저) 교재 본문 & 회화 테스트

#### 2) 선정된 음성합성 기술 애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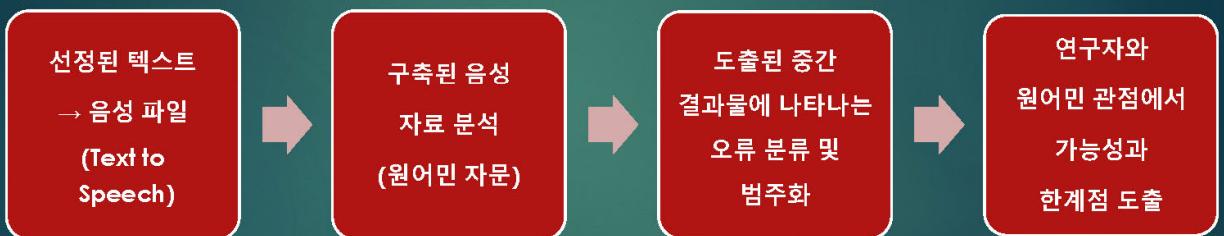
- Narakeet(<https://www.narakeet.com/>)

#### 3) 선정된 연구 참여자 그룹:

- (1) 원어민 10명 (2) 교수자 10명 (3) 학습자 80명

### III. 연구 내용

#### 2. 참여자 그룹별 연구 절차: (1) 원어민



### III. 연구 내용

#### 2. 참여자 그룹별 연구 절차: (2) 교수자 & (3) 학습자



## IV. 연구 결과

### AI 시대 아랍어 듣기 교육 도구로서 음성합성기술(TTS: Text to Speech)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 : 원어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 V. 참고 문헌

- 공지현(2011). “아랍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요구에 관한 연구”, *『아랍어 아랍문학』*, 15(2), 49-92.
- 문지영(2022a). “문항 유형이 아랍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도 및 듣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2(1), 175-208.
- \_\_\_\_\_ (2022b). “빈칸 채우기와 오류 수정 받아쓰기 활동이 아랍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동학회논총』*, 42(3), 159-194.
- \_\_\_\_\_ (2020). “아랍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활동이 듣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연구』*, 34(2), 247-276.
- \_\_\_\_\_ (2016a). “영시적인 학습전략 훈련이 아랍어 듣기 및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CALLA 모델 적용 효과”, *『중동연구』*, 35(2), 115-149.
- \_\_\_\_\_ (2016b). “TV광고를 활용한 아랍어 수업이 아랍어 듣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동학회논총』*, 37(1), 245-274.
- \_\_\_\_\_ (2014).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아랍어 듣기 수업의 효과 연구 : 정의적 요인을 중심으로”, *『중동정치·사회연구』*, 13(2), 177-224.
- 박선희(2008). “영어 청해 교육을 위한 TTS 활용 가능성”, *『English Language Assessment』*, 2, 91-118.
- \_\_\_\_\_ (2006). “영어 청해 교육을 위한 TTS 활용 가능성 연구 : 듣기 평가와 받아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철(2021a).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자료 제작 연구 -음성합성기술(TTS) 활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82, 61-84.
- \_\_\_\_\_ (2021b). “학문 육적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의 음성합성기술(TTS) 활용 사례 연구 -‘발표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32(3), 141-160.
- 이규철(2014). “한국인 학생 대상 아랍어 교육을 위한 음운론 연구”, *『외국어 교육』*, 21(4), 333-354.
- 이월미(2010). “받아쓰기에서 TTS(Text-to-Speech)프로그램의 활용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정민(2023). “음성 녹음 과제 기반 아랍어 학습에 대한 인식 연구”, *『중동정치·사회연구』*, 22(3), 219-244.
- 최정숙(2013). “대화 암기와 DVD 더빙을 이용한 영어 수업 사례 연구: 만족도와 자신감 향상을 중심으로.”,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8(1), 247-274.
- 최진영(2003). “아랍어 듣기전략과 교수법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3(1), 177-196.
- <웹사이트>  
<https://ar.vidnoz.com/artificial-intelligence/text-to-speech-arabic.html>  
<https://www.narakeet.com/>



# تحليل أوجه الصعوبة في تعل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لدى ا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الأسباب والحلول

Reham Abdelsalam (한국외국어대학교)



# تحليل أوجه الصعوبة في تعل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لدى ا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الأسباب والحلول

"جامعة هانكوك للدراسات الأجنبية نموذجاً"

한국 학생들의 아랍어 문법 학습 어려움에 대한 분석: 원인과 해결 방안 연구

إعداد

د. ريهام عبد السلام



## محاور الدراسة



سيتم التطرق في الدراسة الحالية إلى ما يلي:

1. مشكلة الدراسة.
2. أهداف الدراسة.
3. حدود الدراسة.
4. منهج الدراسة.
5. خطوات الدراسة وإجراءاتها.
6. تحليل نتائج الدراسة.
7. الخاتمة.
8. قائمة المراجع.

### ١. مشكلة الدراسة:

1. مواجهة ا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للعديد من الصعوبات في استخدا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وتطبيق ما تعلموه من قواعد في المهارات الإنتاجية للغة.
2. افتقار الميدان لاستراتيجيات وطرق تعليمية تسهم في تسهيل تعلي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للناطقين بغيرها.

### ٢. أهداف الدراسة:

تعرف أسباب صعوبة قواعد اللغة من وجهة نظر المعلمين وا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وتحليل تلك الأسباب، ومن ثم محاولة إيجاد الحلول التي من شأنها التغلب على تلك الصعوبات.

### ٣. حدود الدراسة:

1. المجموعة الأولى: الأساتذة والمحاضرون الكوريون الذين يقومون بتعلي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في قسم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الجامعات الكورية الأربع وهي: جامعة هانكوك للدراسات الأجنبية بحرميهما، وجامعة ميونغ جي، وجامعة بوسان للدراسات الأجنبية، وجامعة تانغكوك والأكاديمية العسكرية.

2. المجموعة الثانية: طلاب جامعة هانكوك للدراسات الأجنبية من الفرق الأولى حتى الرابعة بحرميهما (سيول، بونغ إن).

### ٤. منهج الدراسة:

المنهج الوصفي التحليلي.

## ٥. خطوات الدراسة وإجراءاتها

- الاطلاع على الأدبيات التربوية، والدراسات السابقة التي تناولت أسباب صعوبة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النسبة للناطقين بها والناطقين بغيرها.
- الاطلاع على الأدبيات والدراسات التي تناولت كيفية بناء الاستبيانات.
- بناء استبيانين إحداهما خاصة بالمعلمين والأخرى خاصة با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وذلك لتعرف أسباب صعوبة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ليس من وجهة نظر ا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فحسب، بل كذلك من وجهة نظر الأساتذة والمحاضرين في أقسا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في الجامعات الكورية المختلفة.
- التوصل إلى الصورة النهائية للاستبيانين.
- رفع الاستبيانين على الموقع الإلكتروني [googleform.com](http://googleform.com) وإرسال الرابط لكل من الأساتذة والمحاضرين والدارسين.
- تحليل نتائج الاستبيانين لمعرفة أسباب صعوبة قواعد اللغة من وجهة نظر كل من الأساتذة والدارسين وأهمية إيجاد إستراتيجيات تعليمية تعمل على تيسير تعليم قواعد العربية.

## ٦. تحليل نتائج الدراس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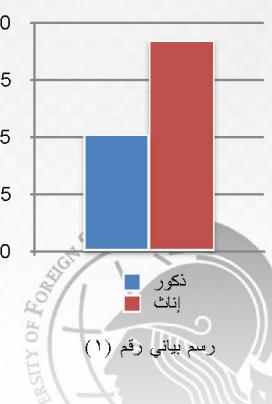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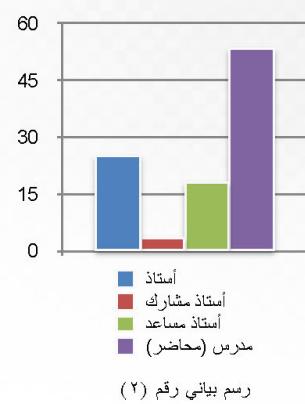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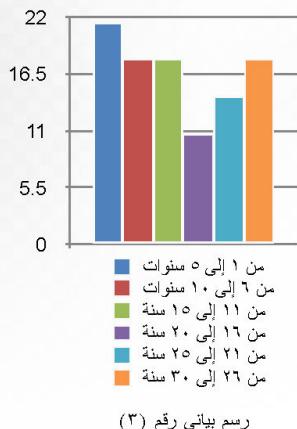
**أولاً: استبيان المعلمين:** شارك في هذه الاستبيان ٢٨ من الأساتذة والمحاضرين في أقسام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أربع جامعات كورية.

١. البيانات العامة:

- **السؤال الأول:** النوع.

- **السؤال الثاني:** الرتبة الأكاديمية.

- **السؤال الثالث:** عدد سنوات الخبر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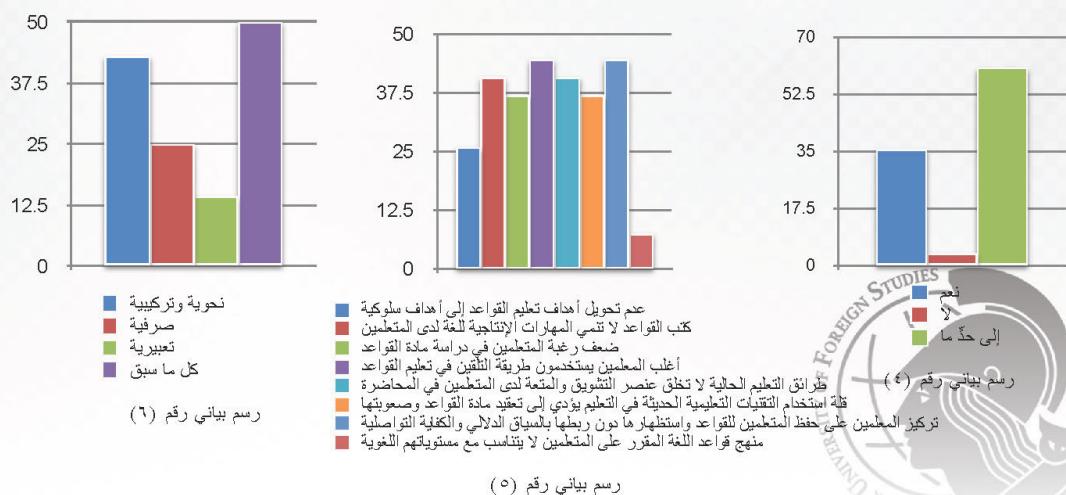
## ٦. تحليل نتائج الدراسة

### ٢. أداء المتعلمين:

- **السؤال الأول:** هل ترى أن المتعلمين بعد دراستهم للقواعد قد أصبحوا قادرين بالفعل على توظيفها تواصلياً في العديد من المواقف اللغوية المختلفة بشكل سليم؟

- **السؤال الثاني:** ما أسباب ضعف المتعلمين في مادة قواعد اللغة في رأيك؟

- **السؤال الثالث:** أي من الأخطاء التالية يرتكبها المتعلمون بكثر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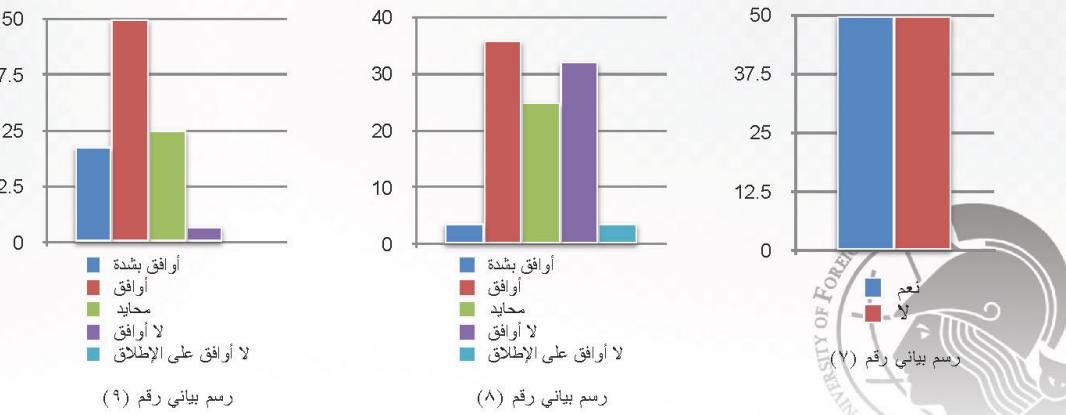
## ٦. تحليل نتائج الدراسة

### ٣. المحتوى:

- **السؤال الأول:** هل توجد بعض القواعد النحوية تعتقد أنها غير مهمة ولا يحتاجها المتعلم في استخدامه الفعلي للغة العربية؟

- **السؤال الثاني:** هل تعتقد أنه يجب إعطاء الإعراب الأولوية في تعليم القواعد للمتعلمين الناطقين بغير اللغة العربية، وأنه يساعد المتعلم في التواصل باللغة العربي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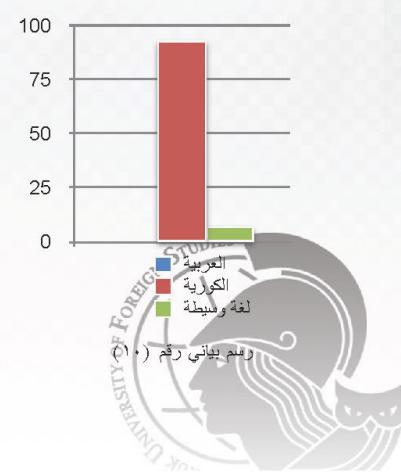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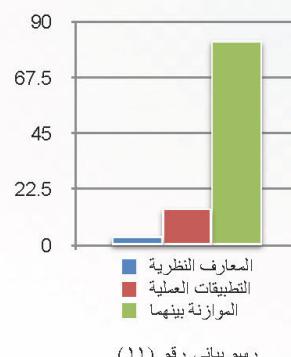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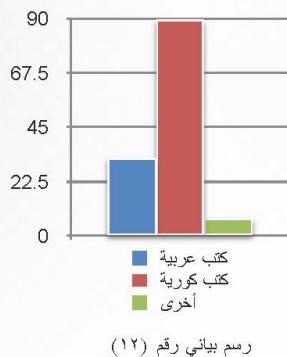
- **السؤال الثالث:** هل تعتقد بأن المتعلم الناطق بغير العربية بحاجة إلى قواعد تركيبية (نحوية، صرفية) جاهزة مقسمة حسب المعنى الدلالي لتساعده في التواصل مع أبناء اللغة بشكل سليم، وذلك بدلاً من تعلم القواعد التقليدية المعتادة؟



## ٦. تحليل نتائج الدراسة

### ٣. كفاءة المعلم:

- السؤال الأول:** بأي لغة تستعين عند شرح القواعد؟
- السؤال الثاني:** على أي مما يلي ترکز عند تعليم القواعد؟
- السؤال الثالث:** أي نوع من الكتب تستخدم عند تعلي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 ٦. تحليل نتائج الدراسة

**ثانيًا: استبيان المتعلمين:** شارك في هذه الاستبيان 91 طالبًا وطالبة من طلاب قس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والترجمة في جامعة هانكوك للدراسات الأجنبية بحرميها (سيول وبيونغ إن).

### ١. البيانات العامة:

- السؤال الأول:** الجنس.
- السؤال الثاني:** الفرقة الدراسية.



## ٦. تحليل نتائج الدراسة

### ٢. قواعد اللغة:

- **السؤال الأول:** ما تقييمك لدرجة صعوبة مادة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مقارنةً مع غيرها من اللغات؟

- **السؤال الثاني:** ما أسباب صعوبة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في رأي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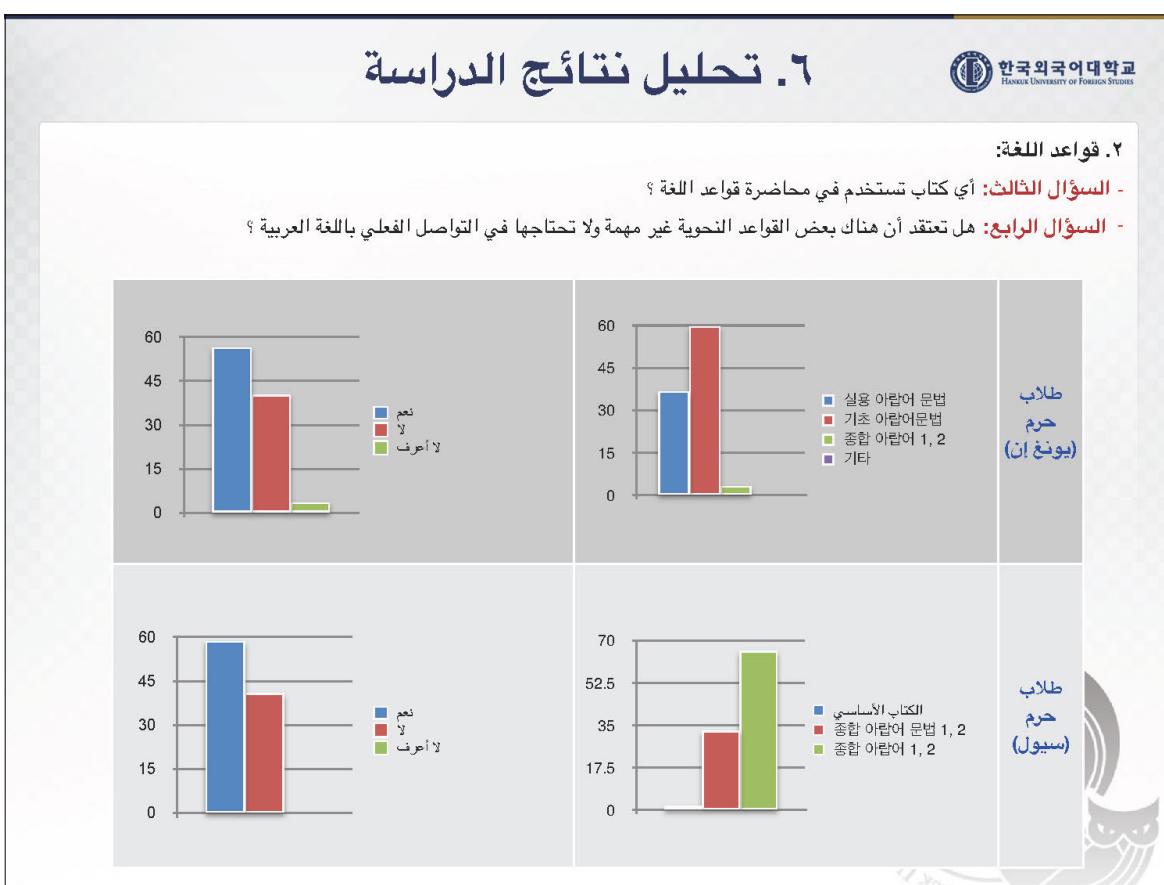


## ٦. تحليل نتائج الدراسة

### ٢. قواعد اللغة:

- **السؤال الثالث:** أي كتاب تستخدم في محاضرة قواعد اللغة؟

- **السؤال الرابع:** هل تعتقد أن هناك بعض القواعد التحوية غير مهمة ولا تحتاجها في التواصل الفعلي باللغة العربية؟



## ٦. تحليل نتائج الدراسة

### ٢. قواعد اللغة

- السؤال الخامس:** ما هو أصعب جزء في دراسة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النسبة لك ؟
- السؤال السادس:** هل تستطيع استخدا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شكل صحيح في جميع المهارات اللغوية الأخرى كالتحدث والكتابة ؟
- السؤال السابع:** هل تعتقد أنه إذا تم ربط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القدرة التواصيلية والتعبيرية ستحسن قدرتك اللغوية ؟



## ٧. الخاتمة

وبناء على تحليل نتائج الاستبيانتين، فقد خلصت الباحثة إلى بعض النتائج التالية:

١. هناك العديد من الصعوبات التي تواجه دارسي اللغة العربية الناطقين بالكورية، وهذه الصعوبات تؤدي بدورها إلى ضعفهم في مادة قواعد اللغة، ويرجع ذلك إلى الأسباب التالية:

• **المناهج التعليمية:** فكتب القواعد سواء العربية أو الكورية لا تبني المهارات الإنتاجية للغة لدى المتعلمين، مما يؤدي إلى ضعف رغبة المتعلمين في دراسة مادة القواعد. هذا بالإضافة إلى أن بعض القواعد والأساليب التي لم تتم مداولتها في الاستعمال اللغوي المعاصر لا تزال تدرس في الكتب التعليمية.

• **المعلمين:** فأغلب المعلمين يعتمدون على التقين في تدريس القواعد، ويركزون على حفظ واستظهار المتعلمين لقواعد دون ربطها بالكافية التواصيلية.

• **طريق التدريس:** فمعظم طرائق تدريس القواعد الحالية لا تساعد في تيسير تعليم قواعد اللغة، كما أنها لا تخلق عنصر التسويق والمتعة لدى المتعلمين.

• **الأنشطة التعليمية:** فقلة الأنشطة التعليمية والألعاب اللغوية في مادة القواعد يؤدي إلى عدم تثبيت المعرفة النظرية في ذهن المتعلم، ومن ثم عدم توظيفها في تنمية المهارات الإنتاجية للغة، مما يؤدي إلى عدم قدرة المتعلم على استخدام اللغة في العديد من المواقف التواصيلية سواء أكانت شفهية أم كتابية.

• **التقنيات التعليمية الحديثة:** فرغم وجود العديد من التقنيات التعليمية الحديثة إلا أنها لا تستخدم في صفحات اللغة العربية.

• **محظى قواعد العربية:** فاعطاء الأولوية للإعراب في تعليم القواعد، وبالتالي تعليم بعض الأدوات النحوية معاً لاشتراكتها في العمل (نظريه العامل)، وعدم الاهتمام باختلاف المعنى الدلالي الذي تؤديه تلك الأدوات. بالإضافة إلى وجود بعض قواعد اللغة التي لم تتم مداولتها في الاستعمال اللغوي المعاصر، ورغم ذلك يتم تدريسها للمتعلمين.

٢. أهمية إستراتيجية القوالب التركيبية التي يمكنها أن تساهم بشكل كبير في تيسير تعليم قواعد اللغة العربية للدارسين الكوريين.

## ٨. قائمة المراجع

### • المراجع العربية:

- حبيب بوزوادة (٢٠١٦): مشكلات تعلم وتعلي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لغير الناطقين بها: بين تشخيص الواقع واقتراح البديل، مركز الملك عبد الله بن عبد العزيز الدولي لخدمة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حوث وأوراق عمل المؤتمر السنوي العاشر لمعهد ابن سينا.
- علي سامي الحلاق، علي الشوملي (٢٠١٥): مشكلات تدريس النحو في اقسا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من وجهة نظر المدرسین والطلبة في الجامعات الاردنية: دراسة وصفية تحليلية، مجلة جامعة جدارا للدراسات والبحوث، مج. ١، ع. ١.
- محمد كامل الناقة (١٩٨٥): تدريس القواعد في برامج تعلي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للناطقين بغيرها، المجلة العربية للدراسات اللغوية، المنظمة العربية للتربية والثقافة والعلوم، معهد الخطوط الدولي، مج. ٣، ع. ٢.
- الفضل إبراهيم الصادق علي (٢٠١٨): صعوبات استيعاب قواعد النحو العربي بالتعليم الجامعي لغير المختصين كمتطلب دراسي من وجهة نظر الطلاب "كلية التربية نموذجاً"، المجلة الدولية للعلوم الإنسانية والاجتماعية، مج. ١، ع. ٢.

### • المراجع الأجنبية:

- Ismail Akzam, Adham Muhammad Ali Hamawi (2020): Theoretical problems in teaching grammar and morphology for non-Arabic speakers in Indonesia, Arabiyatuna, Jurnal Bahasas Arab, Vol.4, No.1.

- M. Pawlak (2009): Grammar Learning strategies and Language Attainment “Seeking a Relationship”, Research in Language V7.

#### الرابط الخاص بنتائج استبيان المعلمين:

[https://docs.google.com/forms/d/1\\_I99oi0Ahp-\\_uOhFcP3rUWMTLXpOrndt15txXfVQLe7s/viewanalytics](https://docs.google.com/forms/d/1_I99oi0Ahp-_uOhFcP3rUWMTLXpOrndt15txXfVQLe7s/viewanalytics)

#### الرابط الخاص بنتائج استبيان المعلمين (حيم يونغ ان):

<https://docs.google.com/forms/d/1FAIpQLSdx1y5VXja-ZnCaYcLUE4FGvN-wbnJCL99-pCO-W-rCx53zA/viewanalytics>

#### الرابط الخاص بنتائج استبيان المعلمين (حزم سيلو):

<https://docs.google.com/forms/d/1k2A2gfNQXkK8vBtBpdpBNrnKOqs36GFWJmBiB8MY9Kng/viewanalytics>

**Come to HUFS**  
**Meet the World!**

**شكراً على حسن استماعكم**

**CREATIV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Global HUFS Graduates**

# 한국중동학회 세션 1

## <다자주의 세계 질서와 중동의 변화: 도전과 미래 전망>

장소: 10120호

[ 좌장 ] 오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 Decentralizing Power: The Impact of the Gaza Conflict on the Emergence of a Spontaneous Order in the Middle East  
(권력의 분산화: 가자 분쟁이 중동내 임의적인 질서 출현에 미친 영향)

발 표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Robert Lawrence (동덕여자대학교)

-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합의점

발 표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 론 안소연 (서울대학교)

- 튀르키예어(터키어) 페르시아어 차용 양상 연구

발 표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곽새라 (한국외국어대학교)



# Decentralizing Power: The Impact of the Gaza Conflict on the Emergence of a Spontaneous Order in the Middle East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 Introduction

The Gaza conflict has transformed the Middle Eastern political order from a U.S.-centric, structured system to a fragmented and decentralized environment. Historically, U.S. hegemony post-Gulf War supported authoritarian regimes to maintain regional stability and security in exchange for international backing. The weakening of these regimes post-Arab Spring, coupled with increased public mobilization for the Palestinian cause, presents new challenges for regional actors. The paper uses Hayek's theory of spontaneous order to analyze the evolving dynamics among states and non-state actors in this new regional context.

Literature underscores the role of U.S. hegemony in establishing a state-centric, hierarchical order in the Middle East after the Cold War. The U.S. pivot to Asia has led to a diminished focus on the Middle East, resulting in a power vacuum filled by local state and non-state actors. Regional middle powers like Iran,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now pursuing independent agendas, showcasing the limits of U.S. influence.

The rise of non-state actors post-Arab Spring, such as militias and insurgent groups, challenges the authority of traditional states and reshapes regional dynamics. Non-state actors like Hezbollah, Hamas, and the Houthis highlight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military power and operate within networks that states find hard to control. The increasing influence of these non-state actors undermines formal state institutions, creating a multi-nodal order with dispersed power and ongoing challenges to traditional state sovereignty.

## The Concept of Spontaneous Order and Hayekian Theory

Hayek's concept of spontaneous order, describing systems emerging organically without central authority, is now applied to Middle Ea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showing how regional order forms from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s. Luban adapts Hayek's theory to the Middle East, arguing that regional order resembles a spontaneous equilibrium shaped by actions rather than planned hegemony. Spontaneous order in the Middle East explains the organic development of alliances, rivalries, and power structures among various actors, independent of traditional global power structures.

Andreas Krieg notes that in the Middle East, states and non-state actors form ad-hoc, situational alliances rather than fixed ones, reflecting the limitations of U.S. influence. This dynamic, adaptive order allows actors like Iran, the UAE, and Qatar to form flexible alliances, effectively navigating the region's volatile political landscape beyond rigid hierarchies.

## Authoritarian Stability, and the Palestinian Cause

Marc Lynch highlights how the Arab Spring exposed the vulnerability of authoritarian regimes in the Middle East, with public mobilization around issues like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freedom challenging their stability. The Palestinian cause has become a central point of public dissent, unifying various ideological groups in opposition to authoritarian practices and perceived injustices. Ramzy Baroud notes that this cause has transcended borders and political affiliations, turning into a broad rallying point against state failures in the region.

The pressure from domestic constituencies on governments like those of Egypt and Jordan to address the Gaza conflict shows the challenges to authoritarian resilience from pro-Palestinian public mobilization. Regional middle powers like Qatar and Oman have gained influence by acting as mediators in conflicts, engaging with both state and non-state actors, and filling diplomatic voids left by the U.S. The UAE's strategy of forming alliances with non-state actors in Libya, Sudan, and Yemen exemplifies a shift towards using informal networks for political influence, moving away from traditional, state-centered diplomacy.

This shift indicates the growing importance of being able to navigate informal networks and leverage non-state actors for regional influence. The Middle Eastern order is increasingly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and networked interactions, moving away from traditional state-centric models and diminishing U.S. hegemony. Scholars recognize the rise of non-state actors and the limits of U.S. power but there is still a gap in research on how these dynamics form a coherent regional order. This

study aims to apply Hayek's theory of spontaneous order to the Middle East, analyzing how conflicts like those in Gaza have accelerated the regional shift towards fragmentation and decentralization.

## **Decline of the U.S.-Led Regional Order**

The study employs a qualitative, mixed-methods approach, including document analysis, case studies, and network analys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Gaza conflict on Middle Eastern power dynamics. Case studies of Egypt, Jordan, Yemen, Lebanon, and Iraq provide insights into the interactions between state actors and non-state networks within a decentralized regional order. Utilizing Hayek's theory of spontaneous order, the study explores how individual actions of state and non-state actors shape a regional order based on reciprocal interactions. Network analysis maps out connections, alliances, and patterns of influence among actors, highlighting the role of non-state networks as informal power levers in the region.

## **Emergence of a Spontaneous, Networked Regional Order**

The Gaza conflict has highlighted a power vacuum in the Middle East, leading to a spontaneous order where ad-hoc alliances and interactions among state and non-state actors are prevalent. Iran has utilized its "Axis of Resistance" network to challenge U.S. and Israeli influence, gaining leverage through rising anti-Israel sentiment. The Houthis in Yemen have gained domestic and regional support by positioning themselves as defenders of the Palestinian cause. Middle powers like Qatar, Oman, and the UAE have adapted by engaging with non-state actors and mediating in conflicts, enhancing their roles in the regional order. The limitations of U.S. power in the region are evident as local actors gain legitimacy and challenge traditional power structures, leading to a fragmented and decentralized power dynamic.

## **Discussion**

The transformation in the Middle East sees state actors challenged by non-state actors driven by

ideological motivations and popular support, particularly around the Palestinian cause. The U.S. has responded with symbolic gestures rather than substantive interventions, diminishing its influence and allowing regional middle powers to redefine their roles. The concept of “authoritarian stability” is weakening under the pressures of public dissatisfaction and demands for accountability in states like Saudi Arabia and the UAE.

The diminishing U.S. role leads to a “nonpolar” regional environment without a single hegemonic power, aligning with Realist theory predictions of instability in such settings. Middle powers like Iran, Qatar, and the UAE are defining their regional roles independently, often diverging from U.S. interests. The U.S. faces challenges in maintaining credibility as a stabilizing force, necessitating a shift towards indirect engagement through proxies or diplomatic backchannels. The rise of non-state actors aligned with Iran’s “Axis of Resistance” underscores the effectiveness of decentralized networks in shaping regional geopolitics.

The Gaza conflict highlights a shift toward “spontaneous order” where stability emerges from the dynamic interactions of diverse actors without central authority. Regional stability may increasingly depend on the ability of states to navigate and leverage informal networks rather than exert hierarchical control. Traditional power structures, such as those used by the U.S. and Israel, struggle to adapt to the decentralized, network-based dynamics that favor agile, non-state actors.

## **The Palestinian Cause as Catalysts for Mobilization**

The resurgence of the Palestinian cause has revealed the vulnerability of “authoritarian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with public sentiment on Palestine challenging long-standing regime assurances of stability and economic opportunity. In Egypt and Jordan, internal pressures to address Israeli actions in Gaza have intensified, testing these countries’ relationships with the U.S. and their dependency on American aid. The Houthis in Yemen have used Iranian support to enhance their role as defenders of Palestine, implementing a quasi-naval blockade and increasing their regional appeal despite ongoing U.S. and U.K. airstrikes.

In Iraq, Iran-backed militias have responded to the Gaza conflict by targeting U.S. bases, prompting retaliatory U.S. airstrikes that bypass Iraqi sovereignty and strengthen militia positions. Hezbollah in Lebanon has bolstered its domestic credibility by engaging in confrontations with Israel, despite significant losses, positioning itself as a key defender of Lebanese security. The Gaza conflict exacerbates Egypt's economic woes, with potential refugee influxes and declining Suez Canal revenue due to regional instability impacting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Sisi government.

Jordan faces increased domestic pressure to actively support Gazans, challenging its capacity to

provide more than symbolic aid and highlighting the limitations of its geopolitical influence. The evolving Middle Eastern order is characterized by fluid stability, with shifting alliances and informal power structures that challenge traditional expectations of regional stability. This decentralized and networked order introduces a new kind of interdependence among state and non-state actors, creating a resilient “multi-nodal” system that can withstand unilateral actions from major powers. Smaller states and non-state entities find new opportunities for agency within this model but also face increased risks as they become more involved in transnational conflicts.

## Conclusion

The Gaza War has expedited the erosion of the traditional U.S.-led regional order, leading to a volatile Middle East characterized by decentralized and fluid power dynamics, where public opinion and the Palestinian cause increasingly challenge the notion of “authoritarian stability.” This shift ha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military and hierarchical approaches, exemplified by the challenges faced by Israel and the U.S., and highlights the need for more adaptive strategies as regional powers recalibrate their roles amidst shifting alliances and the rising influence of non-state actors. While this study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these emerging dynamics, it recognizes limitations due to its reliance on qualitative data and the narrow focus on the Gaza conflict, suggesting that future research include quantitative analyses and consider other significant factors like economic crises and external powers like China and Russia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gion’s evolving geopolitical landscape.

## Bibliography

- Aulia Marcella, Rina. "The Implementation of U.S Foreign Policy towards Gaza Strip." *Aptisi Transactions on Technopreneurship (ATT)* 4, no. 1 (January 19, 2022): 26–35. <https://doi.org/10.34306/att.v4i1.220>.
- Baroud, Ramzy. "'Solidarity of Action:' Is Africa Reclaiming Its Historic Role as the Center of Palestinian Solidarity?" *Insight Turkey* 26, no. Summer 2024 (October 4, 2024): 39–50. <https://doi.org/10.25253/99.2024263.4>.
- Byman, Daniel. "Passive Sponsors of Terrorism." *Survival* 47, no. 4 (December 2005): 117–44. <https://doi.org/10.1080/00396330500433399>.
- Carothers, Thomas, and Benjamin Feldman. "Examining U.S. Relations with Authoritarian Countries," December 2023. [https://carnegie-production-assets.s3.amazonaws.com/static/files/Carother\\_Feldman\\_-\\_Authoritarian\\_Relations.pdf](https://carnegie-production-assets.s3.amazonaws.com/static/files/Carother_Feldman_-_Authoritarian_Relations.pdf).
- Cook, Steven A. "How Sisi Ruined Egypt." *Foreign Policy*, August 9,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08/09/egypt-economy-debt-imf-sisi-mega-projects/>.
- Cursino, Malu . "Israel Has Gone beyond Self-Defence in Gaza, Tory MP Alicia Kearns Says." *Www.bbc.com*, December 18, 2023. <https://www.bbc.com/news/uk-67745408>.
- Davidson, Christopher. "Gulf States and Sharp Power: Allies to Adversaries." *Journal of Democracy* 35, no. 1 (January 2024): 102–17. <https://doi.org/10.1353/jod.2024.a915352>.
- Davidson, Janine. "The U.S. 'Pivot to Asia.'" *American Journal of Chinese Studies* 21 (2014): 77–82. <https://www.jstor.org/stable/44289339>.
- El-Dessouki, Ayman, and Ola Rafik Mansour. "Small States and Strategic Hedging: The United Arab Emirates' Policy towards Iran." *Review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head-of-print, no. ahead-of-print (February 14, 2020). <https://doi.org/10.1108/reps-09-2019-0124>.
- Erlanger, Steven. "Netanyahu, Defiant, Appears to Have Gone Rogue, Risking a Regional War." *The New York Times*, August 2, 2024, sec. World. <https://www.nytimes.com/2024/08/02/world/europe/israel-defiant-gaza-war.html>.
- Faris Tanyos. "U.S. Conducts New Airstrikes on Houthi Targets in Yemen with B-2 Bombers." *Cbsnews.com*. CBS News, October 17, 2024. <https://www.cbsnews.com/news/u-s-new-airstrikes-houthi-targets-yemen-b-2-bombers/>.
- Freedman, Lawrence D., Robert Pape, and Mia Bloom. "Dying to Win: The Strategic Logic of Suicide Terrorism." *Foreign Affairs* 84, no. 5 (2005): 172. <https://doi.org/10.2307/20031726>.
- Friedman, Brandon. "The Northern Tier and Great Power Competition in West Asia," March 12, 2019. [https://mei.nus.edu.sg/wp-content/uploads/2019/03/Northern-Tier\\_BrandonFriedman\\_final\\_10Mar2019-converted-1.pdf](https://mei.nus.edu.sg/wp-content/uploads/2019/03/Northern-Tier_BrandonFriedman_final_10Mar2019-converted-1.pdf).

- Gause, F. Gregory. “‘Hegemony’ Compared: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Middle East.” *Security Studies* 28, no. 3 (May 27, 2019): 565–87.  
<https://doi.org/10.1080/09636412.2019.1604987>.
- Gerges, Fawaz A. *Making the Arab World : Nasser, Qutb, and the Clash That Shaped the Middle East*. S.L.: Princeton Univ Press, 2019.
- Grajewski, Nicole . “Iran Is at a Strategic Crossroad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4.  
<https://carnegieendowment.org/emissary/2024/10/iran-israel-missile-attack-nuclear-strategy-what-now?lang=en>.
- h\_papachristou, Harry Papachristou. “Houthis Vow to Enforce Red Sea ‘Blockade’ with Sold Ships Stuck on Target List.” TradeWinds | Latest shipping and maritime news, November 4, 2024.  
<https://www.tradewindsnews.com/casualties/houthis-vow-to-enforce-red-sea-blockade-with-sold-ships-stuck-on-target-list/2-1-1733919>.
- Hudson, Michael C. “16. The United States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May 5, 2016. <https://doi.org/10.1093/hepl/9780198708742.003.0017>.
- Jones, Seth G. “War by Proxy Iran’s Growing Footprint in the Middle Eas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rch 2019.  
<https://www.jstor.org/stable/pdf/resrep22351.pdf?acceptTC=true&coverpage=false&addFooter=false>.
- Kley, Roland. “The General Idea of a Spontaneous Social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EBooks*, December 1, 1994, 111–31.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8279167.003.0006>.
- KRIEG, ANDREAS. “Externalizing the Burden of War: The Obama Doctrine and US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Affairs* 92, no. 1 (January 2016): 97–113.  
<https://doi.org/10.1111/1468-2346.12506>.
- Krieg, Andreas. “A New Regional Fault Line: The Middle East Divided in Search of a Post-Revolutionary Order.” [www.elgaronline.com](http://www.elgaronline.com). Edward Elgar Publishing, October 13, 2023.  
<https://www.elgaronline.com/edcollchap/book/9781802205633/book-part-9781802205633-19.xml>.
- . “Security Assistance to Surrogates – How the UAE Secures Its Regional Objectives.” *Mediterranean Politics*, February 24, 2023, 1–24.  
<https://doi.org/10.1080/13629395.2023.2183659>.
- Kristian Coates Ulrichsen. “Fire and Fury in the Gulf.” *IndraStra Global* 4, no. 2 (February 1, 2018): 8. <https://doi.org/10.5281/zenodo.1164059>.
- Lee, Sophie Tanno, Kevin Liptak, MJ. “Netanyahu Again Rejects Palestinian Sovereignty amid Fresh US Push for Two-State Solution.” CNN, January 21, 2024.  
<https://edition.cnn.com/2024/01/21/middleeast/netanyahu-palestinian-sovereignty-two-state-solution-intl/index.html>.

- Luban, Daniel. "What Is Spontaneous Ord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4, no. 1 (February 1, 2020): 68–80. <https://doi.org/10.1017/S0003055419000625>.
- Lynch, Marc. *The Arab Uprisings Explained*. Columbia University Press EBook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https://doi.org/10.7312/lync15884>.
- Mearsheimer, John J. "America Unhinged."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2, 2014. <https://nationalinterest.org/article/america-unhinged-9639>.
- Schochet, Gordon J. "Thomas Hobbes on the Family and the State of Natur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82, no. 3 (September 1967): 427. <https://doi.org/10.2307/2146773>.
- Shiban, Baraa . "Bombing Yemen's Houthis: Not a Long-Term Strategy." Rusi.org, 2024. <https://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bombing-yemens-houthis-not-long-term-strategy>.
- Supervisor, Ch, and Trampus. "The Brand of Peace: The Relations between Qatar, Palestine and Israel," 2015. <http://dspace.unive.it/bitstream/handle/10579/9199/855551-1202833.pdf?sequence=2>.
- Talebi, Tessa. "The Impact of the Gaza War on Jorda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 Project on Middle East Political Science." Project on Middle East Political Science, April 18, 2024. <https://pomeps.org/the-impact-of-the-gaza-war-on-jordans-domestic-and-international-politics>.
- Tramontana, Felicita. "Facilitating, Controlling and Excluding from Movement: Religious Orders, Organizational Networks and Mobility Infrastructure in the Early Modern Mediterranean." *Social History* 48, no. 4 (October 2, 2023): 397–425. <https://doi.org/10.1080/03071022.2023.2246800>.
- Ulrichsen, Kristian Coates. "Implications of the Qatar Crisis for 'Post-GCC' Regional Poli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EBooks*, July 13, 2023, 154–73. <https://doi.org/10.1515/9781399518246-010>.
- Universidad de Navarra. "Handling Israel-Hamas War Mediation: The Role of Qatar." Global Affairs and Strategic Studies, March 2024. <https://www.unav.edu/web/global-affairs/handling-israel-hamas-war-mediation-the-role-of-qatar>.
- Wasserman, Stanley, and Katherine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Whyte, Jessica. "The Invisible Hand of Friedrich Hayek: Submission and Spontaneous Order." *Political Theory* 47, no. 2 (November 7, 2017): 156–84. <https://doi.org/10.1177/0090591717737064>.
- Wilkinson, David. "Unipolarity without Hegemon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 no. 2 (September 1999): 141–72. <https://doi.org/10.1111/1521-9488.00158>.
- Zakaria, Fareed. "The Self-Doubting Superpower." *Foreign Affairs*, December 12, 2023.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self-doubting-superpower-america-fareed-zakaria>.

#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함의점<sup>1)</sup>

강문수<sup>2)</sup>, 이지은<sup>3)</sup>

## 1. 서론

중동과 동아시아는 1973년 글로벌 오일 쇼크 이후 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교역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미국의 대외 정책 핵심 지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중동은 미국 중심의 경제 및 안보 관계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다각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2018~21년 사이 발생한 예멘 후티반군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시설 공격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미국이 2018년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면서 미국은 안보를, 중동을 원유를 제공하는 카터 독트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와의 전쟁을 단행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으며 이후 정권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중동 개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났다(Mueller 2017). 미국이 중동에 대한 협력을 줄인 또다른 이유는 미국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급증하고 세일오일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중동이 가지고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중동이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균형적인 외교를 지향하면서 대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중동은 아랍에미리트를 필두로 국가 비전을 발표하고 화석연료 기반 경제를 탈피하여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첨단산업 및 제조업을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부펀드와 국영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아부다비 투자청(ADIA)의 홍콩 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2021년 카타르 투자청(QIA)이 싱가포르에,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PIF)이 홍콩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대아시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2020년대 들어 의료(휴젤, 오스템 임플란트), IT(NC 소프트, 네슨), 소매(쿠팡), 배터리(SK온), 건설엔지니어링(쌍용) 등을 중심으로 걸프 지역 주요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sup>4)</sup> 중동의 대아시아 협력 강화는 Janardhan(2022)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동 안보 정책의 일관성이 낮아지고 인도의 주변국 정책(Neighborhood Policy)이 중동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걸프-아시아 국가 상호 간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글로벌 외교에 있어 중추국가로

1) 본 고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발간 예정)」을 바탕으로 한국중동학회 주제학술대회 발표용 자료로 재구성함.

2) 주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kangms@kiep.go.kr

3) 공동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4) SWFI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각되고 있으며 페트로 달러 협의가 종료되는 등 2020년대 들어 중동 지역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우디라아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추진, 아랍에미리트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벨 알리 항만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미·EU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과 아시아 간 협력의 확대는 에너지, 첨단기술 및 산업 등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걸프 지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독자적으로 균형적 외교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는 2024년 초에 **BRICS+**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회원국 가입을 두고 막판까지 협의했으며 최근 들어 한-GCC FTA 타결을 기점으로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점 등 대아시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경제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과의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으며 Nonneman(2006)은 걸프 국가의 교역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 시도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Qian and Fulton(2017)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2013년부터 추진되고 중국-GCC FTA 추진 등과 같은 중국의 대중동 정책 구상이 중국과 중동 지역 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중동이 경제적으로 밀착되면서 중동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혹은 기울기 정책이라는 개념이 재부각되고 있으나 중동의 아시아 협력 강화가 아시아 기울기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동 주요국이 어떤 관점에서 대아시아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치외교적·경제적 흐름의 변화가 어떤 함의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의 확장을 통해 한-중동 간 경제 협력의 방향성에 관해 진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1) 중동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존재하는가? 2) 존재한다면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대중동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동 지역 중에서도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동 지역 내 협력 다변화 경향은 특히 GCC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핵심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아시아 중시 정책이 중동에서 주목받은 계기는 200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 아시아 4개국(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순방과 함께 동방 정책(**Look East Policy**) 추진이다(Azmi 2006).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걸프 지역 국가의 아시아 협력 강화가 이어진 결정적인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가

중동 내에서 무너지고 아시아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원유 수요 역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zmi(2006)**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 증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대중동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더 살펴보자면, 중동 내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전략의 축을 움직이면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Hudson(2013)**은 중동 내에서 발생한 미국의 공백을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가 메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Janardhan(2022)**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인도의 주변국 정책이 확장되고 미국의 대중동 개입이 축소되면서 중동 국가의 대아시아 외교 협력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도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인도를 통한 헛정을 위한 대인도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아시아-중동 간 협력은 경제적 동기에서 상호 간 수요가 맞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요인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아시아 국가의 수요와 함께 경제 다각화를 위한 중동 국가의 수요이다. 아시아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Qian and Fulton(2017)**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확장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시도, 중국-GCC 간 FTA 추진 등이 중국-중동 경제 협력에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Houghton(2022)** 역시 중국 정부의 경제적 동기를 꼽고 있는데,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중국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중동 지역 정세 안정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라크, 사우디-이란 등의 외교적 안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요에 힘입어 중국-중동 간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Kondo(2023)<sup>5)</sup>**는 수소 공급망 구축으로까지 논의를 확장하였다.

중동의 경제 다각화 측면에서는 **Young(201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Young(2019)**은 중동 산유국이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여 경제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Nonneman(2006), Blarel(2022)** 등도 중동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이 확대된 주된 이유로 경제 다각화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 내 인도계 이주민 디아스포라를 통한 인도-중동 간 경제협력 역시 활발해졌다.

다만 결프 국가 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논의이다. 예를 들어 **Kateb(2024)**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브릭스 회원국 가입 시도의 배경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아랍에미리트는 외교적 영향력보다는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 브릭스 가입에 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프 국가와 아시아 간 협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의 추이가 한국의 대중동 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정치외교적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본 고에서는 아시아-결프 국가 간 협력의 경제적 동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5) "Towards new horizons between the Middle East and Japan(2023. 11. 30)." *Arab News Japa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 11. 13).

### 3. 결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확대 요인

결프 국가가 대아시아 협력을 확대한 요인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내부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경제 발전 기반인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정부가 소유하는 사회적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정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프 국가는 2010년대 중반까지 저유가를 경험하면서 경기 침체를 경험한 바 있으며 에너지 가격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고자 결프 지역 내 산유국들은 1970년대부터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였다([Al Naimi 2021; Mishrif 2018](#)). 다만, 2000년대 이전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 대한 경제협력 의존도가 높았으며 대아시아 협력은 에너지 자원 수출 혹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중동 지역 내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 성장에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아시아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결프 국가 역시 왕정 통치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협력 전략을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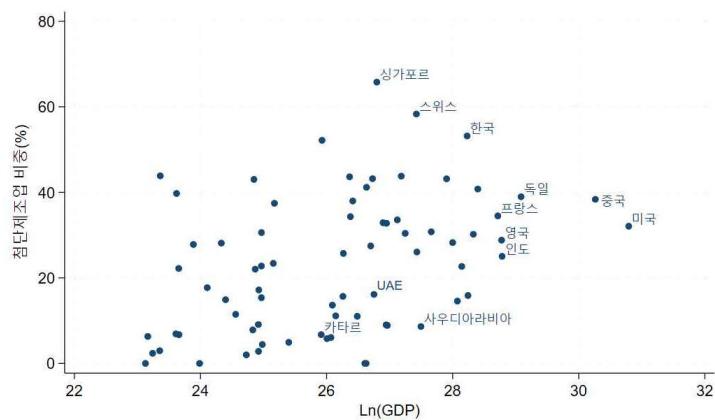
둘째,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15~64세 인구 비율이 높고 중동 내 실업률이 높다는 점 역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하는 요인이다. [GCC 통계청 \(2024\)](#)에 따르면 결프 국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1분기 실업률이 10.1%에 달하며 이는 2000년대 중반의 9.8%와 유사한 수준이다.<sup>6)</sup> 그러나 중동 국가가 2000년대 들어 직면했던 문제는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5~29세 인구 실업률이 17.2%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8%, 바레인은 27%에 달했으며 [GCC 6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선호도가 66.6%](#)에 달하면서 중동 지역 노동 시장 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 지역, 특히 결프 국가 내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유치를 통한 민간 부문 고용 창출을 필요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2000년대 아시아는 세계 제조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특히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산업 관련 일자리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과 스타트업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결프 국가도 자국 내 첨단산업 내 인구 유입을 통한 자국 노동 시장 내 실업률 개선을 노리고 있다.

셋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탈탄소화를 위한 화석연료 이용 감축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지속해서 쟁신하면서 결프 국가 역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산업 육성을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는 2010년 비전 2021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6) [GCCSTAT. 2024. Labor Statistics in the GCC, Q4. 2023; Forstenlechner and Rutledge. 2010.](#)

육성을 위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카타르(카타르 국가비전 2030), 쿠웨이트(비전 2035), 오만(비전 2040), 바레인(경제비전 2030)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산업 이외의 첨단 제조, ICT, 금융, 물류, 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 육성 기조가 본격화되었다. 다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CC 주요국은 높은 GDP 수준에도 불구하고 첨단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중동 주요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표 1 참고). 예컨대 첨단제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는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이며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어 중동 내에서도 미국의 경제가 이뤄질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다.

그림 1: 주요국 GDP와 첨단제조업 비중



자료: UNIDO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 2019~23년 주요 첨단 기술별 상위 5개국

기술	1위	2위	3위	4위	5위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제작	중국	미국	인도	독일	한국
자연어 처리	미국	중국	인도	영국	한국
양자 컴퓨팅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일본
고정밀 제조 공정	중국	인도	미국	영국	독일
첨단 항공 엔진	중국	미국	인도	튀르키예	영국
드론, 군집 로봇, 협동 로봇	중국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인도
전기 배터리	중국	미국	한국	독일	호주
태양광 발전	중국	미국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자 공학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첨단 무선 주파수 통신(5G 등)	중국	미국	인도	영국	한국

주: 아시아 주요국(중국, 인도, 한국, 일본)은 음영 표시.

자료: Leung et al(2024), pp. 20-38.

다음으로 외부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동에 있어서도 아시아는 안정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있다. IEA(2021)에 따르면 주요 원유 순수입국은 규모에 따라 중국, 인도, 미국, 일본, 한국 순이며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sup>7)</sup> 특히 중동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일본(91.8%), 인도(60.9%), 한국(60%), 싱가포르(56.4%), 중국(49%) 순으로 높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도 아시아 국가는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천연가스를 살펴보더라도 LNG 수입 상위 5개국이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대만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카타르, 오만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아시아-중동 간 에너지 협력은 두 지역 간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sup>8)</sup>

둘째, 비교적 최근 들어서 중동의 아시아 협력이 확대된 데에는 미·중 경쟁 하에 중동이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디지털 인프라, 첨단기술, AI,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분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면서 국제 사회 내 중국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부문(예를 들어 대만 문제, 신장위구르 자치구, 남중국해 분쟁 등)에 대한 중동 국가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Lons 2024). 또한 중국 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동 지역에 판매하고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동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동 지역 내 중국과 결프 국가 간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대중국 기술 협력 축소를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1년 미-아랍에미리트 간 230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구매 계약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AI 기업인 G42가 2024년 중국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5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결프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대중국 협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동의 대 중국 기술협력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태도는 달랐으나, G42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조건으로 대중국 협력을 줄였다는 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안보 동맹을 요구하면서 대중국 협력 축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 등은 결프 국가가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대미 협력 강화라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4. 실증 분석

##### (1) 가설 설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와 중동 간 협력은 쌍방 간 경제적 수요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중동 간 경제협력 확대 혹은 양 지역 간 밀착이 실제로

7) IEA. 2021. Key World Energy Statistics.

8) BP. 202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71<sup>st</sup> edition.

중동 국가의 아시아 중시 기조가 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무역 혹은 투자 관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교역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Bustos(2011), Acemoglu et al.(2015) 등은 무역이 한 국가의 기술 수준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걸프 국가는 산업 다변화와 경제 다각화를 위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과 투자가 주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걸프 국가는 수출 고도화 지수가 높은 국가와 더 많은 협력을 하였다.

가설 2: 걸프 국가는 아시아 국가와 더 교역을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다.

가설 3: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교역 경향은 산업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usman, et al.(2007)이 고안한 수출고도화 지수를 이용하였다. 수출고도화 지수는 수출 국가의 수출특화도를 고려한 생산성 수준을 지수화한 값이며 1인당 GDP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usman et al.(2007)이 고안한 수출고도화 지수를 바탕으로 걸프 국가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즉, 걸프 국가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무역 규모를 확대했다면, 수출 고도화 지수가 더 높은 국가와의 교역을 선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걸프 국가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면, 수출고도화 지수가 더 높은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걸프 국가가 아시아 국가와 교역을 확대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걸프 국가가 다양한 이유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가설이 기각된다면 기술적 비교우위 이외의 요인으로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교역이 다른 지역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뒤를 이어 세 번째 가설은 교역 분야를 농업, 광업 및 에너지업, 그리고 제조업으로 분리함으로써 산업 분야에 따라 아시아-걸프 간 교역 수준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에 포함된 걸프 국가는 GCC 6개국이며 GCC 6개국으로 상품을 수출한 176개국이 GCC 6개국의 국가 쌍으로 포함되었다.

## (2) 실증 분석 모형 및 결과

교역대상국 간 교역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모형을 중력 모형(Anderson and Windcoop 2003)이다. 그러나 국가 간 교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쌍이 자료에 포함된다면 기존 중력 모형에서는 해당 관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이

이뤄지기 때문에 편향 추정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연구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결프 **6개국**으로 상품을 수출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향 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는 포아송 유사 최우도 방법(**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이하 **PPML**)을 이용하였다. 다만, 국가 간 거리, 국경 인접 여부 등의 독립변수는 패널 **PPML** 모형을 활용할 시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Yotov et al.(2016)**, **Santos Silva and Tenreyro(2022)** 등과 같이 횡단면 **PPML** 모형을 통해 아시아-결프 간 교역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sup>9)</sup> 더미 변수( $Asia_i$ ), 중국 더미 변수( $CN_i$ ), 국가 별 수출고도화 지수 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수출대상국은 **176개국**이며 수입대상국은 결프 **6개국**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국가  $i$ 와 국가  $j$ 간 교역 규모는  $x_{ij}$ 이며 국가  $i$ 가  $j$ 로 수출하는 수출총액(로그 형태) 혹은 국가  $j$ 의 수입총액에서 국가  $i$ 의 수출액 비중이다. 독립변수는 국가  $i$ 와  $j$ 의 **GDP**( $\ln y_i$ ,  $\ln y_j$ ), 국가 간 유클리드 거리( $d_{ij}$ ),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 관련한 변수(국가  $i$ 와  $j$ 의 **FTA** 체결 여부, 국가  $i$ 와  $j$ 가 모두 **WTO**에 가입했는지 여부, 동일 언어 사용 여부, 동일 식민종주국 여부, 국경 접경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결프 국가의 교역 규모가 국제유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 평균 국제 유가를 독립 변수로 추가하였다. 이 외에 고정효과인  $\gamma_{ij}$ 도 포함되었다.

$$x_{ij} = \alpha_1 + \alpha_2 \ln y_i + \alpha_3 \ln y_j + \alpha_4 \ln d_{ij} + \alpha_5 \Gamma_{ij} + \alpha_6 XPY_i + \alpha_7 Asia_i + \alpha_8 CN_i + \gamma_{ij} + \epsilon_{ij} \quad \text{식 (1)}$$

본 연구에서는 **BACI Gravity** 데이터베이스와 **CEPII BACI** 무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Conte et al.(2022)**을 참고하도록 한다. 중력 모형에 활용되는 변수 중에서 국가 간 관계에 관련한 변수는 **BACI Gravity**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시간적 범위는 **2000~2019년** 사이이다. 분석에 이용된 종속 및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21,952개**의 국가 쌍 관측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간 평균 교역 규모는 약 **32억 달러** 수준이다. 결프 국가 중에서 **FTA**를 체결한 사례는 전체 국가 쌍의 **6%**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국  $i$ 와 수입국  $j$ 가 모두 **WTO**에 가입되어 있는 사례는 전체 국가 쌍의 **8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수출 국가 **176개국**의 평균 **GDP**는 **GCC** 수입 국가 **6개국**의 **GDP**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2000~2019년** 사이 유가는 평균 **64달러** 수준이었다.

9)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표 2: 종속 및 독립변수 기술 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교역 규모(10억 달러)	21,952	3.19	15.73
교역 비중	21,952	0.01	0.02
FTA 체결	21,952	0.06	0.24
로그(거리)	21,952	8.58	0.73
국경 접경 여부	21,952	0.01	0.11
동일 언어 사용 여부	21,952	0.10	0.30
동일 식민종주국	21,952	0.19	0.39
WTO 가입 여부	21,952	0.80	0.40
수출 국가의 로그(GDP)	21,952	16.99	2.47
수입 국가의 로그(GDP)	21,952	18.43	1.16
국제유가	21,952	64.06	28.20
로그(수출고도화 지수)	21,952	9.26	0.59

자료: CEPPI BACI database.

### (3) 분석 결과

먼저 회귀 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프 6개국의 수입은 FTA 체결 여부, 접경 여부, 동일 언어권 등보다는 결프 지역으로 수출하는 수출국의 GDP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출국의 GDP가 높을수록 결프 6개국의 수입은 약 96.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이러한 경향은 독립변수를 추가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프 국가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프 국가는 대체로 소비재를 많이 수입하는데, 6개국의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입되는 상품의 품질 역시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치재 수입 수준 역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프 국가의 수입대상국의 소득 수준이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출 특화지수는 오히려 결프 국가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수출국의 기술적 수준이 결프 국가의 수입량 증가로 꼭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국의 GDP 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는 결프 국가 수입 구조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소비되는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기술을 가진 국가보다 내구재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표 3-(1)항 참고). 다만,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가 2020년 이후 결프 국가의 교역 경향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프 지역은 코로나19 이후 자국 내 산업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으나, 본 연구에는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 특화지수가 결프 국가의 상품 수입과 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국가 여부와 중국 여부가 결프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일수록 걸프 국가의 수입 총계가 약 59.1%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3)항 참고). 그러나 중국 더미는 걸프 국가의 수입 총계 혹은 교역 비중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국의 **GDP** 수준과 수출특화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데에는 걸프 국가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즉, 수출국가의 소득 수준이나 기술 수준 이외에도 상품 수입에 따른 아시아 국가의 기술 전수 및 패키지 형태의 경제협력이 걸프 국가가 아시아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게 만든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GCC6의 수입 요인 분석(2000~21년)

	(1)	(2)	(3)	(4)
	PPML	PPML	PPML	PPML
	교역액	교역비중	교역액	교역비중
FTA 체결 더미	0.051 (0.261)	-0.214 (0.231)	0.125 (0.197)	-0.062 (0.208)
로그(거리)	-0.661*** (0.124)	-0.767*** (0.099)	-0.642*** (0.115)	-0.765*** (0.093)
국경 여부	0.636 (0.402)	0.515 (0.437)	0.539 (0.364)	0.416 (0.423)
동일 언어	-0.001 (0.334)	0.569** (0.257)	0.112 (0.258)	0.585** (0.244)
동일 식민종주국	0.777** (0.365)	0.097 (0.207)	0.544* (0.286)	-0.131 (0.185)
WTO 가입 더미	0.418** (0.167)	0.340** (0.135)	0.404*** (0.156)	0.334*** (0.129)
수출국의 로그(GDP)	0.947*** (0.057)	0.975*** (0.031)	0.887*** (0.043)	0.940*** (0.030)
수입국의 로그(GDP)	0.885*** (0.057)	-0.045 (0.042)	0.878*** (0.054)	-0.038 (0.040)
국제 유가(달러)	-0.002*** (0.001)	-0.006*** (0.001)	-0.002*** (0.001)	-0.006*** (0.001)
수출국의 수출고도화 지수	-0.195 (0.202)	-0.309** (0.137)	-0.174 (0.178)	-0.329*** (0.128)
아시아 더미			0.611*** (0.178)	0.658*** (0.106)
중국 더미			0.488* (0.291)	0.183 (0.158)
상수	-26.941*** (2.129)	-13.816*** (1.411)	-26.064*** (1.994)	-13.155*** (1.308)
관측치	21,952	21,952	21,952	21,952
R-squared	0.638	0.613	0.675	0.637

주: \*\*\*  $p<0.01$ , \*\*  $p<0.05$ , \*  $p<0.1$ ; 아시아4는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지칭함.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는 동일한 분석 식을 가지고 연도별로 걸프 6개국의 수입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표 4 참고). 패널 분석은 걸프 국가의 교역량 결정 요인의 평균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들어 아시아 혹은 중국이기 때문에 대아시아 및 중국 수입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획단면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걸프 6개국의 교역량 결정 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와 중국 수입 총액은 아시아 국가 여부 혹은 중국 여부에 따라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2010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2010년대 들어 중국 더미와 걸프 국가의 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 4개국 여부에 따라서는 여전히 수입 총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걸프 지역에서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협력국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중국보다 오히려 대아시아 교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표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걸프의 대인도 수입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표 4: GCC6의 수입 요인 분석(2000~21년)

연도	(1)	(2)	(4)	(5)
	아시아4	중국	아시아4	중국
	수입 총액 기준		국가별 수입 비중	
2000	0.413*	0.834**	0.451**	0.711**
2001	0.457*	0.578**	0.437***	0.344
2002	0.561***	0.752***	0.572***	0.460*
2003	0.597***	0.853***	0.768***	0.505*
2004	0.599***	0.938***	0.587***	0.561*
2005	0.505**	0.712*	0.614***	0.460**
2006	0.568***	0.815**	0.713***	0.581***
2007	0.706***	0.817*	0.763***	0.539**
2008	0.743***	0.686*	0.821***	0.472**
2009	0.723***	0.719*	0.706***	0.380*
2010	0.594**	0.655*	0.564***	0.385**
2011	0.668**	0.642*	0.613***	0.226
2012	0.629**	0.501	0.601***	0.197
2013	0.754***	0.371	0.826***	0.098

10) 다만 걸프 국가의 교역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여전히 중국이다.

2014	0.726***	0.463	0.822***	0.193
2015	0.567**	0.436	0.612***	0.196
2016	0.395	0.319	0.446***	0.031
2017	0.372	0.364	0.398***	-0.005
2018	0.423*	0.369	0.434***	0.055
2019	0.446*	0.582*	0.427***	0.250
2020	0.431*	0.845**	0.361**	0.466**
연도별 관측치	1,056	1,056	1,056	1,056
수출 국가 수	176	176	176	176

주: \*\*\* p<0.01, \*\* p<0.05, \* p<0.1; 아시아4는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지칭함.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분야별(농수산업, 제조업, 광업 및 에너지업) 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GCC 6개국의 수입총액 결정 요인에 있어 아시아 혹은 중국 더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분야는 제조업이다. 걸프 국가의 제조업 분야 수입 총계는 2015년까지 아시아 혹은 중국이기 때문에 수입 수준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6년부터 사라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2012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걸프 국가는 2000년대 들어 대중국 및 아시아 주요국과의 제조업 수입을 확대하면서 아시아 국가 혹은 중국이면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래 경제 다각화 전략 발표와 함께 지역 균형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정치외교 및 무역·투자 통계 추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심 현상은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수입 추이는 추세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으나 아시아 국가에 한정해서 걸프의 수입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수입 규모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표 5: GCC6의 분야별 아시아 및 중국 요인 분석(2000~21년)

연도	(1)	(2)	(3)	(4)	(5)	(5)
	아시아4	중국	아시아4	중국	아시아4	중국
	제조업 수입 총계	광업/에너지 수입 총계	농업 수입 총계			
2000	0.452*	0.949**	-1.071*	-2.030**	0.266	-1.437***
2001	0.488*	0.659**	-1.102	-2.224***	0.369	-1.205**
2002	0.567**	0.847***	-0.893	0.501	0.52	-0.649
2003	0.536**	0.948***	2.899**	-0.036	0.649	-0.660*
2004	0.605***	1.030***	-0.545	-0.608	0.703	-0.544
2005	0.588***	0.792**	-0.235	-0.003	0.634	-0.48
2006	0.596***	0.917**	-0.002	0.409	0.547	-0.411
2007	0.752***	0.788***	-0.048	-0.035	0.449	-0.431

2008	0.772***	0.689**	-0.100	-0.481	0.775*	-0.734*
2009	0.742***	0.775**	-0.403	-0.197	0.844	-0.723
2010	0.632**	0.750**	-0.960	-1.297	0.582	-0.781
2011	0.667**	0.770*	-0.867	-1.802*	0.649	-1.042*
2012	0.536*	0.507	0.129	-0.307	0.578	-1.265**
2013	0.626***	0.310	0.303	-0.863	0.7	-1.335**
2014	0.553***	0.411*	0.040	-1.244	0.828*	-1.438***
2015	0.553***	0.396*	0.223	-0.870	0.753*	-1.619***
2016	0.398*	0.299	0.079	-0.458	0.488	-1.351***
2017	0.408	0.609	0.109	-0.768	0.506	-1.362***
2018	0.426	0.488	-0.402	-0.739	0.737*	-1.297***
2019	0.512*	0.645*	-0.579	-1.437	0.727*	-1.310***
연도별 관측치	1,056	1,056	1,056	1,056	1,056	1,056
수출 국가 수	176	176	176	176	176	176

주: \*\*\* p<0.01, \*\* p<0.05, \* p<0.1; 아시아4는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지칭함.

자료: 저자 작성.

##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결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중동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아시아-중동 국가 간 교역 패턴에서도 드러나는지에 관해 논하였다. 결프 국가는 정치외교적으로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경제적으로도 에너지 의존도 감소, 노동 시장 내 고용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산업 다각화를 꾀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는 중국과, 2010년대 들어서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로부터 수입액이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결프 국가는 첨단 산업 유치 및 기술 흡수를 위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의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아시아 국가의 기술적 수준이 뛰어나다는 점이 결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강화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중동에 수출을 하는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결프 국가의 해당 국가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결프 국가가 교역대상국이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을 확대하는 측면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곧 결프 국가가 리스크 헛징 혹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결프의 대 중국 수입은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 역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일방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아시아 여러 국가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와 중동의 경제적 밀착은 한국에도 기회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프 국가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 네트워킹을 주도 할 수 있는 주체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시아 주요국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종합상사를 통해, 인도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 및 인적 자원을 통해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및 EU와 비교했을 때에도 대규모 인프라 등과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어 결프 국가에서 중점을 두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진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시사점은 기술협력 확대의 필요성이다. 결프 지역은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바탕으로 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몇 안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결프 국가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문적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기술 인력의 유입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결프 지역 내 청년층의 민간 기업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기술 교육 확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중동 간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뿐만 아니라 현지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중국 선전지역 주요 교육 기관(선전 **InnoX** 아카데미, 남방과기대 등)이 사우디 아라비아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KAUST**)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첨단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기로 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역시 카이스트, **UNIST** 등을 통한 대중동 기술협력 추진에 나서고 있어 한-중동 기술 협력 기반 조성 및 인재 양성에 나선으로써 중동 지역 내 한국의 입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cemoglu, D., Aghion, P., & Zilibotti, F. (2006). Distance to frontier, selec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4(1), 37-74.
- Al Naimi, Sarah M. 2021. "Economic Diversification Trends in the Gulf: the Case of Saudi Arabia."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ility*.
- Anderson, J. E., & Van Wincoop, E.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170-192.
- Azmi, Rafiullah. 2006. "GCC 'Looks East': Saudi Arabia's Engagements with India." *India Quarterly*. 62(4).
- Blarel, N. (2022). Modi looks West? Assessing change and continuity in India's Middle East policy since 2014. *International Politics*, 59(1), 90-111.
- Bustos, P. (2011). Trade liberalization, exports, and technology upgrading: Evidence on the impact of MERCOSUR on Argentinian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1(1), 304-340.
- Forstenlechner, Ingo and Emilie Jane Rutledge. 2010. The GCC's "Demographic Imbalance": Perceptions, Realities and Policy Options. *Middle East Policy*. 18(4). Middle East Policy Council.
- GCCSTAT. 2024. Labor Statistics in the GCC, Q4. 2023
- Hausmann, R., Hwang, J., & Rodrik, D. (2007). What you export matter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1-25.
- Houghton, B. (2022). China's balancing strategy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the view from Riyadh. *Asian Affairs*, 53(1), 124-144.
- Janardhan, N. (2022). Asia in an emerging Gulf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In *Asian perceptions of Gulf security* (pp. 157-178). Routledge.
- Kateb, A. (2024). "BRICS+ and the Arab Gulf: The Perks of Membership." sada.
- Leung, Jennifer W., Stephan Robin, and Danielle Cave. 2024. ASPI's two-decade Critical Technology Tracker: The rewards of long-term research investment.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Lons, Camille. 2024. East Meets Middle: China's Blossoming Relationship with Saudi Arabia and the UAE.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Mishrif, Ashraf. 2018. "Challenges of Economic Diversification in the GCC Countries." *Economic Diversification in the Gulf Region, Volume II*. Ashraf Mishrif and Yousuf Al Balushi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iddle East*.
- Mueller, Karl P., Becca Wasser, Jeffrey Martini, and Stephen Watts. 2017. *U.S. Strategic Interests in the Middle East and Implications for the Army*. Rand Corporation.
- Nonneman, G. (2006). EU-GCC Relations: Dynamics, patterns and perspectives.
- Qian, X., & Fulton, J. (2017). China-Gulf economic relationship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ian Journal of Middle Eastern and Islamic Studies*, 11(3), 12-21.
- Santos Silva, J. M., & Tenreyro, S. (2022). The log of gravity at 15. *Portuguese Economic Journal*, 21(3), 423-437.

- Santos Silva, J. S., & Tenreyro, S. (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641-658.
- Young, K. E. (2019). The Gulf's eastward turn: The logic of Gulf-China economic ties. *Journal of Arabian Studies*, 9(2), 236-252. <https://doi.org/10.1080/21534764.2019.1768655>.
- Yotov, Y. V., Piermartini, R., & Larch, M. (2016). An advanced guide to trade policy analysis: The structural gravity model. WTO iLibrary.

# 튀르키예어(터키어) 페르시아어 차용 양상 연구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튀르키예어(터키어) 페르시아어 차용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양희

yangheelee@hufs.ac.kr

본 연구는 2024년 공동연구지원사업 '페르시아어의 차용 양상 분석과 교육적 활용: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접근'  
(과제번호 2024S1A5A2A03030330)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튀르키예어 관련 연구 가운데 일부임을 밝힙니다.

### 연구 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 튀르키예어에 나타난 페르시아어 차용 양상

본 연구에서는 튀르키예어에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어 어휘를 선별하고 이러한 차용어의 어휘의 의미, 음운 및 구조적 특징을 파악 후 파생어, 합성어를 비롯하여 관용구, 속담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는 양상을 알아보기 한다.

본 연구는 튀르키예어 어휘 속 페르시아어 차용 현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튀르키예어 어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파일럿 연구로, 궁극적으로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어휘가 튀르키예어에 어떻게 흡수되고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튀르키예어 어휘 교육 및 언어 연구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알아본다.

# 연구 주제 - 공동연구 과제 내 튜르키예어 연구

## 2024년 공동연구 (과제번호 2024S1A5A2A03030330)

### 페르시아어의 차용 양상 분석과 교육적 활용: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접근

- 페르시아어 어휘가 페르시아어권 국가와 영향을 받은 언어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변화했는지 연구
- 튜르키예어(터키어), 우르두어를 중심으로 연구
- 데이터 선별 및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발음, 형태, 품사, 의미 등을 통시적·공시적 분석
- 디지털 인문학 기반 및 활용 가능한 언어 교육 자료 구축

## 연구 방법

 한국외국어대학교

### 자료 구축

- 코퍼스 기반 터르키예어 빈도수 사전(Aksan 외 2017)을 활용하여 페르시아어 어휘 선별
- 자주 사용되는 페르시아어 차용어 목록화
- 문헌 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터르키예어-페르시아어 사전 분석

### 차용어 분석

- 의미론적 측면: 원어와의 의미 비교 분석
- 형태음운론적 측면: 차용어의 발음 변화 및 터르키예어 음운 체계에 적용된 특징 연구
- 페르시아어 차용어로 확장되는 파생어 및 합성어 분석

## 연구 방법

 한국외국어대학교

### 터르키예어 교재 분석

- 외국어로서 터르키예어 교육 관련 초급 교재에 나타난 페르시아어 어휘 분석
- 어휘 수, 의미, 관련 표현 제시 방법

### 터르키예어 어휘 교육 측면에서의 의의

- 외국어로서 터르키예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에서의 사용
- 차용어의 어원 학습을 통한 어휘 및 연어관계, 고정표현 등 의미적 확장의 이해도 상승
- 문화 및 역사적 교류의 이해를 통한 언어 학습의 흥미도 고취

## ▣ 자료 분석 : 고빈도 페르시아어 어휘 선별

한국외국어대학교

### Adjective

1   57 yeni <b>new</b>	(ج) <i>i.</i> (Fars. <i>zūr</i> )
2   65 büyük <b>big; great</b>	Kuvvet, güç, zor
3   83 iyi <b>good</b>	
4   95 aynı <b>the same</b>	
5   96 önemli <b>important</b>	
6   102 doğru <b>correct</b>	
7   154 fazla <b>much; excessive</b>	
8   162 ilgili <b>related</b>	
9   165 güzel <b>beautiful</b>	
10   175 genel <b>general, common</b>	
11   183 küçük <b>small, little</b>	
12   186 açık <b>open; clear</b>	
13   188 zor <b>hard, difficult</b>	(ج) <i>i.</i> (Fars. <i>zūr</i> )
14   195 uzun <b>long</b>	Kuvvet, güç, zor
15   200 eski <b>old; former</b>	
16   224 farklı <b>different</b>	
17   230 genç <b>young</b>	
18   236 yüksek <b>high</b>	
19   252 özel <b>special; personal,private</b>	
20   271 ikinci <b>second</b>	

21   280 yakın <b>near, recent</b>	41   457 yalnız <b>alone; only</b>
22   288 kısa <b>short</b>	42   462 birinci <b>first</b>
23   302 gerçek <b>real, true,genuine</b>	43   476 gereklî <b>necessary, needed</b>
24   309 belli <b>obvious</b>	44   485 toplumsal <b>social</b>
25   316 mümkün <b>possible</b>	45   503 geniş <b>wide, broad</b>
26   333 hangi <b>which</b>	46   508 doğal <b>natural</b>
27   338 uygun <b>appropriate</b>	47   523 uluslararası <b>international</b>
28   340 sosyal <b>social</b>	48   543 ağır <b>heavy</b>
29   354 ekonomik <b>economic</b>	49   555 siyasi <b>political</b>
30   380 kötü <b>bad</b>	50   560 millî <b>national</b>
31   391 uzak <b>remote, far</b>	51   561 yavaş <b>slow</b>
32   402 yabancı <b>strange; foreign</b>	52   565 ciddî <b>serious</b>
33   405 kolay <b>easy</b>	53   585 beyaz <b>white</b>
34   412 ayrı <b>separate, apart</b>	54   598 siyâsal <b>political</b>
35   413 çeşitli <b>varied, various</b>	55   600 dolu <b>full, filled</b>
36   424 duru <b>clear</b>	56   612 güçlü <b>strong, powerful</b>
37   432 sürekli <b>continuous</b>	57   636 değişik <b>different, unusual</b>
38   443 yanlış <b>wrong, false</b>	58   645 ters <b>adverse, reverse</b>
39   447 ortak <b>common</b>	59   646 üçüncü <b>third</b>
40   453 tabii <b>natural; of course</b>	60   651 derin <b>deep; profound</b>

- 튀르키예어 고빈도 사전 5000개 어휘 품사별 분류
- 동사 (732), 명사(3186), 형용사(830), 부사(124), 대명사(29), 후치사(32), 접속사(40), 기타 (27)
- 형용사 830개 단어 가운데 페르시아어 (50)

## ▣ 자료 분석 : 고빈도 페르시아어 어휘 선별

한국외국어대학교

### Adjective

71   719 hoh <b>pleasant</b>	(خوش) <i>sif.</i> (Fars. <i>hōš</i> )
72   721 hasta <b>sick, ill</b>	(خسته) <i>i.</i> (Fars. <i>hasten</i> “yaralanmak, incinmek”ten <i>haste</i> “yaralı”)
73   724 normal <b>normal</b>	
74   733 rahat <b>comfortable, relaxed</b>	
~	
86   804 canlı <b>living; animate</b>	(جان) <i>i.</i> (Fars. <i>cān</i> )
87   814 ünlü <b>famous</b>	
88   817 ince <b>thin; slim</b>	
~	
94   869 serbest <b>free</b>	(سریس) <i>sif.</i> (Fars. <i>ser</i> “baş” ve <i>best</i> “bağlı”dan <i>ser-best</i> “başı bağlı”)
95   873 zengin <b>rich, wealthy</b>	<i>sif. ve i.</i> (Fars. <i>sengīn</i> “taşlı, değerli taşlarla süslü, pahalı”dan) [Kelime Türkçe'den Arapça, Bulgarca ve Sırıç'a ya da geçmiştir]
109   1013 siyah <b>black; dark</b>	(سیاه) <i>i.</i> (Fars. <i>siyāh</i> )
110   1037 kalabalık <b>crowded</b>	

## ▣ 자료 분석 : 고빈도 페르시아어 어휘 선별

한국외국어대학교

종사내 고빈도 순위	페르시아어 티르키예어	월어 종류	월어 표기	뜻	전체 고빈도 순위
1 13	zor	페르시아어	zür زور	어려운	188
2 35	çeşitli	페르시아어	çeşid (çeşit) چیز	다양한	413
3 71	hos	페르시아어	hos خوش	기쁜, 즐거운	719
4 72	hasta	페르시아어	haste خسته	아픈	721
5 86	canlı	페르시아어	cān (can) چان	살아 있는; 활기찬	804
6 94	serbest	페르시아어	serbest سرست	자유로운, 자유의	869
7 95	zengin	페르시아어	sengin سنجین	부유한, 부자의	873
8 109	siyah	페르시아어	siyāh سیاه	검은, 검은색의; 어두운	1013
9 117	sert	페르시아어	serd سرد	거친, 난폭한; 강경한, 셴	1092
10 132	köylü	페르시아어	kūy (köy) کوی	시골 출신의; 농민의	1160
11 159	renkli	페르시아어	reng (renk) رنگ	색깔이 있는; 형형색색의	1338
12 210	kör	페르시아어	kūr کور	눈먼, 장님의	1780
13 219	dürüst	페르시아어	durst درست	정직한	1821
14 244	taze	페르시아어	tāze تازه	신선한; 세로운	1975
15 274	cırkin	페르시아어	cırkin چرکن	못생긴	2176
16 279	pembe	페르시아어	penbe بننه	분홍색의, 분홍빛의	2203
17 283	sahte	페르시아어	sāhte ساخته	가짜의	2231

빈도 수 순위	단계구분
1-1500	초급
1500-2500	중급
2500 이상	고급

## ▣ 자료 분석 : 고빈도 페르시아어 어휘 선별

한국외국어대학교

335	çaresiz	페르시아어	çāre (çare) چار	무기력한, 절박한, 해결책 없는	2537
359	parasal	페르시아어	pāre (para) پاره	금전적, 통화의	2694
376	pis	페르시아어	pīs پیس	더러운	2757
378	sarhoş	페르시아어	ser + ḥos سرخوش	술에 취한, 만취의	2761
383	şirin	페르시아어	şīrīn شیرین	귀여운, 호감이 가는, 매력적인	2783
386	sade	페르시아어	sāde ساده	단순한, 간단한, 섞이지	2797
410	pişman	페르시아어	peşimān پیشمان	후회하는, 유감스런	2949
431	zorlu	페르시아어	zür (zor) زور	어려운, 힘든	3063
458	ham	페르시아어	ḥām حام	의지 않은, 멀 음은, 가공하지 않은	3183
475	perişan	페르시아어	perişān پریشان	불쌍한, 가련한, 비참한	3276
498	bedava	페르시아어 + 아랍어	bād باد + hevā حوا	무료의, 공짜의	3412
514	zehirli	페르시아어	zehr (zehir) زهر	유독한, 독성 있는	3486
526	kel	페르시아어	kel کل	대머리의	3573
562	nazik	페르시아어	nāzuk نازک	공손한, 정중한, 친절한	3783
566	nışanlı	페르시아어	nışan (nişan) نشان	약혼한	3806
570	berbat	페르시아어	berbād برباد	나쁜, 영망인	3826
589	cansız	페르시아어	cān (can) چان	무생물의, 생명이 없는, 죽은	3911

596	beter	페르시아어	bedter بذرتر	더 나쁜, 아주 나쁜	3933
616	parasız	페르시아어	pāre (para) پاره	무일푼의, 빙본더리의; 무료의	4039
640	ateşli	페르시아어	ātesh (ates) اتش	불이 붙은, 타는 듯한, 엉궐한	4145
641	lacivert	페르시아어	lācverd لاچورندي	남색의	4147
642	nazlı	페르시아어	nāz (naz) ناز	수줍은, 성세한 까다로운	4150
648	serseri	페르시아어	serserī سرسری	부황하는, 방황하는, 떠돌아다니는	4170
653	nemli	페르시아어	nem (nem) نم	축축한, 습기 진	4193
687	turuncu	페르시아어 + 아랍어	turunc ترنج - + تی	주황색의	4322
691	hoşnuttu	페르시아어	hoşnūd خشنود	기쁜, 만족한	4332
692	tembel	페르시아어	tenbel تبل	계으른	4334
755	cōmert	페르시아어	cēvān + merd جو مرد	관대한, 너그러운	4639
767	çapraz	페르시아어	çep + rāst چپ راست	교차하는, 엇갈린	4667
768	huysuz	페르시아어	ḥūy (huy) خوی	성동(성적)이 좋지 못한, 실술궂은	4672
794	paralı	페르시아어	pāre (para) پاره	유로화; 돈이 많은, 부자의	4830
802	şahane	페르시아어	şāhāne شاهاته	훌륭한, 장관의 친환경	4874
829	babacan	튀르키예어 + 페르시아어	baba + cān (can) چان	온화한, 아량 있는, 사법 좋은	4997

## ▣ 자료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 A 의미 변화

페르시아어 원어의 의미와 터르키예어  
에서 사용되는 의미 변화 분석

### 음운론적 적응

페르시아어 차용어가 터르키예어 음운  
체계에 적응되는 과정 연구

### 페르시아어 어휘 파생어/합성어

페르시아어 차용어의 터르키예어 어휘 내  
의미 확장 양상을 살핌

## ▣ 페르시아어 어휘의 특징

한국외국어대학교

### 터르키예어 내 페르시아어 어휘의 특징

- 약 1,300개의 단어가 터르키예어에 포함
- 터르키예어의 문법과 발음 구조에 맞춰 변형됨
- 의미 변화 : 의미 확장, 축소, 새로운 의미 추가

## ▣ 연구 분석 단계 요약

한국외국어대학교

1

고빈도 차용어

튀르키예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페르시아어 차용어 목록 제시

2

의미 변화

페르시아어 원어와 튀르키예어에서 사용되는 의미 변화 분석

3

음운론적 적응

튀르키예어 음운 체계에 적응된 페르시아어 차용어의 음운론적 특징 분석

4

파생어 및 합성어

페르시아어 차용어에서 파생된 튀르키예어 파생어 및 합성어 연구

## ▣ 자료 분석 : 페르시아어 어휘

한국외국어대학교

1 can

튀르키예 언어원 TDK (Türk Dil Kurumu)

표제어 표기 : 장모음 미표기

어원 정보 : 원어 정보

관용구/속담

합성어

용례 제공

페르시아어사전 

전체 | 단어 | 뜻풀이 |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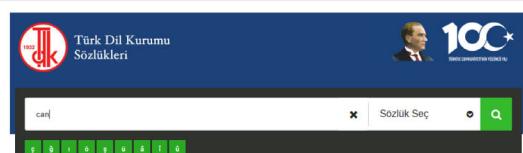
جان

1. 생, 영 2. 원 3. 본질

발음 [jan]

Atasözleri, Deyimler, Birleşik Filler veya Kalp Sözler

Birleşik Kelimeler



can ► ⓘ

Farsça can

1. isim İnsan ve hayvanlarda yaşamayı sağlayan ve ölümle vücuttan ayrılan madde dışı varlık; can kuşu, ruh: "Canı yok edecek olan yine kendisidir." - **Nezahat Özcan**

2. isim İnsanın kendi varlığı, özi:

"Bir kedî yavrusunu kurtarmak için ipे sarılıp kuyuya iner, canımı tehlîkeye koyardım." - **Reşat Nuri Güntekin**

3. isim Canlı olma durumu:

"Her seyde bu mevsimine mahsus bir can, bir dirilik kendini gösteriyordu." - **Memduh Şevket Esendal**

4. isim ► kişi:

"Bemimle beraber dört canız." - **Falih Rıfkı Atay**

5. isim İnsanın dudularını taşıyan iç içem:

"Çırık bana kurban, ben de güzelle / Can sever güzel, maldan ziyade

6. isim Bekâşılık ve Mevlevilikte tariikhî kardeşi

"Seyh cıckına oradaki canlar da sırasıyla yüzüyüp kapıya döndüp baş kestikten sonra dışarı çıkarlar." - **Asaf Halet Çelebi**

7. sıfat Sevgi ve yakınlık duygusu ile kendisine bağlanılan:

"Alphonse Daudel ilk gençliğimde can yazarlarından biri idi." - **Tanrı Buğra**

## ▣ 자료 분석 : 페르시아어 어휘

한국외국어대학교

### 1 can جان

#### Kubbealtı Lugati

표제어 표기 : 장모음 미표기

어원 정보 : 원어 정보

관용구/속담

합성어

용례 제공

KUBBEALTI LUGATI 

CÂN 🔍

can



CAN 🔍

(不死) i. (Ar. *cānn*) Cin tâfesi: *Onun için yaratıldı bu âlem / Onun için düzüldü ins ile cân* (Ahmed Fakih). *Pişvâmîz pîrîmîz Sîddîk-i a'zamîndır bizim / Fahr-i ins ü cân ile hem-rîh olan Nakşîler'iz* (Leskofçâlı Gâlib).

1. İnsan ve hayvanların yaşamasını sağlayarak ve ölümle bedenden ayrılan madde dışı varlık, ruh: "Can çıkar, huy çıkmaz." Dahi cânnin Hakk'a teslim etti hog (Süleyman Çelebi).
2. İnsanın kendi varlığı, yaşama, yaşıyış, hayat: "Canım ortaya koymak." "Canımı fedâ etmek." Ben de seni canımdan ziyâde seviyorum (Nâmk Kemal). *Kuyuya iner, canımı tehlîkeye atardım* (Reşat N. Güntekin).
3. İnsanın duygularını taşıyan iç âlemi, gönül, iç, yürek: *Ol beni cân ile seven ümmetim* (Süleyman Çelebi). *Bilmek istersen seni / Cân içre ara cân / Gec canından bul am / Sen seni bil sen seni* (Haci Bayram Veli'den). Kadın kadıncığa benzeyenler. *İkisini de canum sevi* (Hüseyin R. Gürpinar).
4. Kişi, kimse, fert: *Vatan ki kirk milyon can besliyor...* (Nâmk Kemal). *İşte bu üç canı çekip çevireceksin* (Hüseyin R. Gürpinar).
5. meç. Kuvvet, güç: "Can çokluktır." "O kadar ağır iş yapamaz, ne kadarcık can var ki!" *Bütün canı gözlerinde* (Yusuf Z. Ortaç).
6. Sevgili, dost, kardeş: *İmam Mîsî Kâzım canlar cânîndır* (Pir Sultan Abdal). *Benim dünyâda senden başka canım olmadığını bilmeyor musun?* (Nâmk Kemal). *Can sanırken düşmen-i canı oldu yâr* (Muallim Nâci).
7. (Bektaşî ve Mevlevîler'de) Tarîkat kardeşi, dervîş [Bu anlada kelime çoğul şekliyle veya tarîkata mensup kimselerin isimlerinin sonuna getirilerek de kullanılır]: "Ali can" "Ahmet can." Ahmed Yesevi Hazretleri'ne bir tâlib can gelse kurban kesilip ve lokması yenip... (Velâyetnâme-i Haci Bektaş – T. S.). *Gelin sorulam canlara süretinden n'oldu gider* (Yûnus Emre'den). *Mukâbeleden sonra, Şeyh Efendi ile mutriphâne erkânı ve dergâhın bütün canları niyâz-i şâhâne ile mazhar-ı âtfît olmuşlar.* (Rauf Yekta).
8. sıf. Çok sevimi, tatlî, şirin, cana yakın: "Cân çocuk."

## ▣ 자료 분석 : 페르시아어 어휘의 확장 (1) - 파생어

한국외국어대학교

### 페르시아어 어휘 - 파생어 및 합성어 연구

페르시아어 차용어의 터르키예어 어휘 내 의미 확장 양상

페르시아어 어휘는 터르키예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그리스어 등과 결합 하여 새로운 구조를 형성 또는 페르시아어 접사 또는 접사 역할을 하는 단어로 파생된 단어

• *bağ* (خان): "정원"을 의미하며, "bağ-çık" (작은 정원) 등으로 확장.

• *bahçe* ← *bağçe* (باغچه): 정원

BAHÇE 🔍

i. (Fars. *bâğçé*'den)

BAĞÇE 🔍

(باغچه) i. (Fars. *bâğ* ve küçültme eki -çé ile *bâğ-çé*) Bahçe sözünün eskiden kullanılan asıl şekli.

• *bahçivan* ← *bahçevan* (باغچه‌بان): 정원사

i. (Fars. *bâğçé* ve -bân ekiyle *bâğçé-bân*'dan *bâğçé-vân* > *bahçevan* > *bahçivan*)

باغچه‌بان [bâğçé-bân/bâğ-bân]

정원사, 원예가, 농사꾼

한국외국어대학교 신 페르시아어-한국어 사전

## 📘 튀르키예어 어휘 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외국어대학교



### 페르시아어 차용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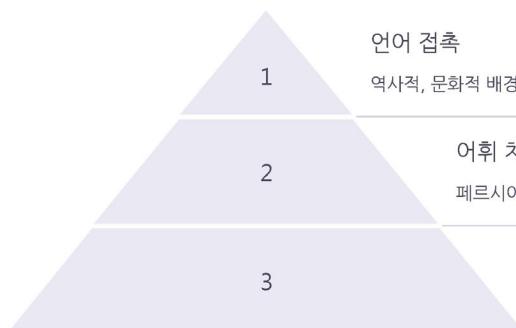
1 튀르키예어 어휘 교육에서 페르시아어 차용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교육

### 문법적 특징 이해

2 기존 문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페르시아어 차용어의 문법적 특징 재해석  
튀르키예어 이해도 및 통찰력 증가

## 📘 페르시아어와 튀르키예어 간 언어 상호작용

한국외국어대학교



## ▣ 향후 연구 방향 및 제언

한국외국어대학교



1

### 시대별 변화

시대별 페르시아어 차용어 변화 분석:  
역사적 변천 연구 필요

2

### 문화적 영향

페르시아어 차용어가 튜르키예어  
언어 및 문학에 미친 영향 연구

## ▣ 참고 문헌

한국외국어대학교

- Aksan, Y., Aksan, M., Mersinli, Ü., ve Demirhan, U.U. (2017). *A frequency dictionary of Turkish: Core vocabulary for learners*. Londra/New York: Routledge.
- Aksan, Y. ve Yıldır, Y. (2012). A corpus-based word frequency list of Turkish: Evidence from the Turkish National Corpus. E. Kincses-Nagy ve M. Biacsi (yay.), *The Szeged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urkish linguistics* (ss. 47–58) içinde. Szeged, Hungary: Studia Uralo-Altaica.
- Aksoy, Ö.A. (1936). *Bir dili öğrenmek için en lüzumlu kelimeler ve bu kelimelerin belirtme usulü*. Gaziantep: Gaziantep Halkevi Dil, Edebiyat, Tarih Şubesi Yayınları.
- Balçı, Mustafa(2014). *Türkçe–Farsça ilişkileri Türkçenin Farsça Üzerindeki Etikelerine Dair Bir İnceleme*, Konya: Çizgi Kitabevi Yayınları.
- Dursunoğlu, Halit (2009). Türkiye Türkçesindeki Farsça Sözcükler ve Kullanım Şekilleri, *Atatürk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13(1), 131-142.
- Özkan, Gülsah(2022). *Dil ilişkileri sonucu Türkçe–Farsça yapısal benzerlik ve ortaklıklar*, Yüksek Lisans tezi, Marmara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 Özlük, Doğan (2019). *Türkiye Türkçesinde Farsça kökenli kelimeler*, Yüksek Lisans tezi, İstanbul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 한국이슬람학회 세션 1

## <취향, 계급, 구별, 혐오에 대한 저항과 해체>

장소: 10116호

[ 좌장 ] 박재양 (부산외국어대학교)

### ■ 레바논 기독교 언론에 나타난 시아파 관련 보도행태

발 표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김은지 (한국외국어대학교)

### ■ 이븐 타이미야의 저서에 나타난 기독교와 시아파 유사성 비교

발 표 김정명 (명지대학교)  
토 론 김형훈 (한국외국어대학교)

### ■ 레반트 지역 시아 공동체 현황과 순니파 무슬림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발 표 안정국 (명지대학교)  
토 론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 시리아 내전에서 나타난 시아파 정체성의 안보화와 정권 유지

발 표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이주성 (한국외국어대학교)



# 레바논 기독교 언론에 나타난 시아파 관련 보도행태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 레바논 기독교 언론에 나타난 시아파 관련 보도행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 수 완

### Contents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이론적 배경
3. 레바논 정치적 다양성과 미디어
4. 레바논 기독교 미디어에 나타난 시아파 관련 담론 분석



# 01

## 연구배경과 목적

There are three sets of ideas that are particular and important

One is the question of the power of the new means of communication; a second the question of social integration or disintegration that they might cause; and the third the question of public enlightenment, which they might either promote or diminish.

### 01. 연구배경

레바논 사회의 특수성과 다양성

다양한 종교와 종파 공존

기독교, 이슬람의 갈등과 협력 반복

사회적 불안정 + 정치적 긴장 → 미디어를 통해 증폭



레바논의 언론, 종파주의적 성향 반영 혹은 조장

## 02. 연구 목적



- 기독교 언론의 시아파에 대한 보도 편향성
- 기독교 vs. 시아파 종파 간 갈등 조장 및 사회적 불화 심화 요인
- 특정 종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레바논 기독교 언론의 시아파 관련 보도행태
- 이러한 보도행태가 레바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03. 연구질문

- 1) 레바논 사회에 기독교와 시아파 갈등의 배경이 되었던 주요 사안은 무엇인가?
- 2) 기독교 언론은 주요 사안별로 시아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3) 기독교 언론의 시아파 보도행태가 레바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01. 이론적 배경

### 프레이밍 이론 Framing Theory

- 미디어가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 중요한 영향
-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어떠한 관점에서 다를 것인지 선택, 대중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형성
- Erving Goffman - <Framing Analysis> 'Frame' 개념 처음 제시
- Robert Entman – 'Framing' →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적으로 강조, 이를 보다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
- **Framing Theory: '미디어'**
  - 1) 특정 이슈를 강조하거나 특정 집단을 **부정적**하거나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 2) 특정 내러티브를 형성, **사회적 담론을 구조화**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

## 01. 이론적 배경

### 배양 이론 Cultivation Theory

- George Gerbner
- 미디어 노출의 장기적 효과 탐구
- 언론매체가 **대중들의 현실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 반복적 미디어 메시지가 수용자의 세계관을 '배양'한다고 주장
- '위험한 세계 증후군 mean world syndrome'
- 미디어가 특정 집단이나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이미지 반복 전달 → **대중의 인식 왜곡**
- 미디어가 특정 집단에 대한 **장기적 편견과 인식을 어떻게 강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틀 제공

## 02. 선행연구

Safa, H.(2013) "Sectarianism and Media in Lebanon: Role of the Press in Political Division"

→ 종파적 선호와 이념에 따라 언론 보도가 대립적으로 이루어짐

Kraidy, M.J. (2009) "Arab Media and Political Contestation: The Case of Lebanon"

→ 레바논의 다원적 미디어 환경과 종파적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

El-Rawi, A. (2015) "Framing the Other: Sunni and Shi'a Representation in Middle Eastern Media"

→ 시아파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아랍 언론의 보도 패턴 분석 (레바논 미디어 사례 포함)

El-Richani, S. (2016) "The Lebanese Media: Anatomy of a System in Perpetual Crisis"

→ 레바논 미디어 시스템이 종파적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갈등이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분석

# 03

## 레바논 정치적 다양성과 미디어

Freedom of speech is the political right to communicate one's opinions and ideas. The term freedom of expression is sometimes used synonymously, but includes any act of seeking, receiving and imparting information or ideas, regardless of the medium used.



### 01. 종파주의 역사적 배경



## 02. 레바논 정치체제

- 국민협약: 1943년 독립 당시 기독교와 무슬림간 권력 분배 규정
- 타이프 협정: 1989년 내전 이후 정치적 균형 조정
  - 대통령: 마론파 기독교인
  - 총리: 순니파 무슬림
  - 국회의장: 시아파 무슬림
  - 국회 의석: 기독교와 무슬림 1:1로 배분
- 종파주의 기반 정치적 실용주의 → **Confessionalism**(권력 분점주의)



종파주의 제도화, 정치적 정체성을 종파 중심으로 고착화

2

## 03. 레바논의 종파주의

- 18개 공식 종파 → 중동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다양한 국가

구분 <sup>o</sup>	2017(%) <sup>o</sup>	2018(%) <sup>o</sup>	2023(%) <sup>o</sup>
기독교 <sup>o</sup>	36.2 <sup>o</sup>	33.7 <sup>o</sup>	32.4 <sup>o</sup>
이슬람교 <sup>o</sup>	57.7 <sup>o</sup>	61.1 <sup>o</sup>	67.8 <sup>o</sup>
	순니파 <sup>o</sup>	30.6 <sup>o</sup>	31.9 <sup>o</sup>
	시아파 <sup>o</sup>	30.5 <sup>o</sup>	31.2 <sup>o</sup>
드루즈파 <sup>o</sup>	5.2 <sup>o</sup>	5.2 <sup>o</sup>	4.5 <sup>o</sup>
기타 <sup>o</sup>	이슬람(알라우파, 이스마일파 등 소수종파), <sup>o</sup> 유대교, 바하이교, 불교, 힌두교 등 소수 <sup>o</sup>		

<출처: The World Fact Book 2023><sup>o</sup>

- Clientelism → 자신들의 종파 공동체에만 충성, 국가자원의 불공정한 분배와 부정부패 야기
- 정치적 교착 상태 → 종파간 합의 없으면 의사 결정 마비
- 지역 및 국제 세력의 개입 → 이란, 사우디(시아파 순니파), 프랑스, 미국(기독교 및 순니파 세력)

## 04. 레바논 미디어

매체유형	매체명	종파적 성향	설립연도	주요언어	기타
TV방송	LBCI	기독교(마론파)	1985	아랍어	마론파성향
	Al-Manar	시아파 (헤즈볼라)	1991	아랍어	헤즈볼라 공식채널
	Future TV	순니파	1993	아랍어	라피크 하리리 가문소유
신문	An-Nahar	기독교(마론파)	1933	아랍어, 영어	가장 오래된 일간 지, 자유성향
	L'Orient-Le Jour	기독교(마론파)	1971	프랑스어	프랑스어 독자증 탁깃
	Al-Akhbar	시아파 (헤즈볼라)	2006	아랍어	헤즈볼라 입장대변
	Al-Mustaqbal	순니파	1999	아랍어	라피크 하리리 가문소유



## 04. 레바논 미디어

언론도 정치적, 종교적 다양성 반영

각 주요 정치 세력과 종교집단(마론파 기독교, 시아파, 순니파)의 지원받고,  
후원자들의 이익과 메시지 대변

World Press Freedom Index : 130위(2023) → 119위(2024)로 아랍국가 중 상위

언론 자유 법적으로 보장, 실제로는 정치적 압력과 자가 검열 존재

외부 세력(이란, 사우디, 미국, 프랑스 등) 종교적, 정치적 담론 조성 시도



정치적 종속성과 선전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 약화



# 04

## 레바논 기독교 미디어에 나타난 시아파 관련 담론 분석

Freedom of speech is the political right to communicate one's opinions and ideas. The term freedom of expression is sometimes used synonymously, but includes any act of seeking, receiving and imparting information or ideas, regardless of the medium used.



### 01. 분석



분석대상 마론파 기독교 신문 An-Nahar(발행부수 약 45,000부)

분석기간 2005년 하리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주요 사건  
(기독교와 시아파 간 갈등사안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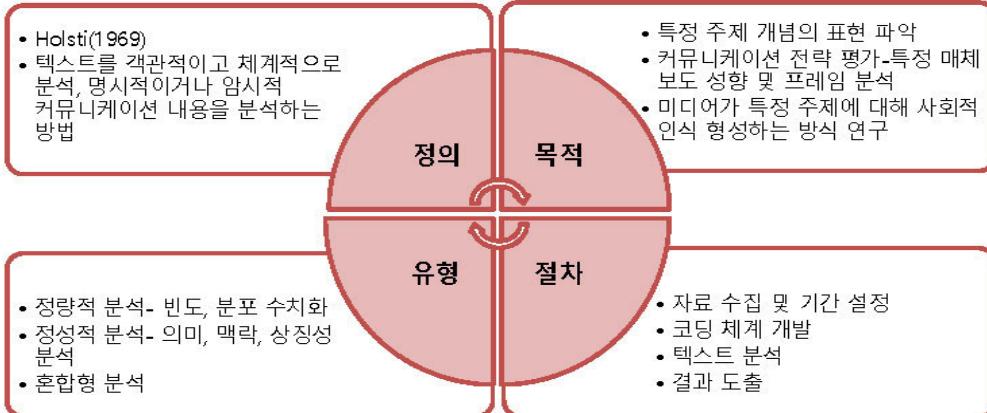
분석방법 Content Analysis

레바논 기독교 언론의 시아파 관련 보도 행태

## 02. 분석 기간

분석 기간	주요 정치적 사안
2005. 2.14-3.31	하리 리 대통령 암살사건
2006. 7.12-8.31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2014. 5.1-6.30	시리아 내전에 헤즈볼라 개입 심화
2020.8.8-9.30	베이루트 항구 폭발
2022. 5.15-6.30	레바논 총선
2024. 9.1-10.31	하마스 사태 이후 최근 보도 중심

## 03. 분석방법- Content Analysis



# 이븐 타이미야의 저서에 나타난 기독교와 시아파 유사성 비교

김정명\* (명지대학교)

## I. 서론

이 글은 중세 맘루크조 시대의 순니 법학이자 교리 논쟁 이론가였던 이븐 타이미야(Ibn Taymiyya, 1263~1328)가 시아파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시아파와 기독교의 연관성을 부각함으로써, 시아파가 이슬람 공동체 일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도와 유사성이 더 많다는 점을 부각하는 타자화 전략을 구사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타자화(Othering)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적 기준이나 규범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낙인찍는 현상을 가리킨다. 타자화는 나이, 인종, 성, 국적, 언어, 직업, 정치성향, 종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내부 집단에 속한 자와 외부 집단에 속한 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타자화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지닌 특성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정상적인 집단과 다른 열등한 존재임을 부각한다.<sup>1)</sup>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를 이슬람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열등한 타자임을 낙인찍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시아파가 이슬람 공동체의 내부의 일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기독교와 동일시하는 전략을 취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의 교리와 의례를 비판할 때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유래했거나 영향을 받았음을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와 의례를 비판할 때마다 그것이 시아파와 유사한 공통점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아파는 종교적 타자라는 사실을 당대의 순니 무슬림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조로아스터교, 사비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알라를 중심으로 한 유일신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이 유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슬람의 여러 종파 가운데 순니파야말로 알라를 향한 진리를 안내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이슬람 세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일부 무슬림들이

\* 이 발표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3S1A5A2A030854641113582110600101)

1) Kendra Cherry(May 01, 2023).

이교도의 종교, 사상, 철학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기독교가 이슬람에 가장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가 위협적인 이유가 무슬림 대중들이 기독교의 교리와 의례를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당시 무슬림들 사이에서 기독교도는 유대교도와 함께 쿠란에서 언급된 ‘성서의 백성(ahl al-kitāb)’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가 더는 유일신 신앙을 공유하는 일원이 아니라는 타자화 전략을 내세웠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쿠란에 언급된 유일신 신앙 공동체로서의 원래 기독교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이방인들로부터 이단적인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유일신 신앙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븐 타이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아파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타자화 전략을 내세웠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시아파 교도는 순니 무슬림과 같은 유일신을 믿고, 쿠란을 공유하며, 같은 종교적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교도로부터 이단적인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도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유일신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듯이, 시아파 역시 이슬람 공동체의 일원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아파는 이슬람 공동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상기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이븐 타이미야가 저술한 주요 저서 및 파트와 문헌을 분석했다. 그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고찰하기 위해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과 『올바른 길의 필요성』 등 두 권의 저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의 시아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 저서인 『예언자 순나의 길』과 파트와 문헌인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II. 시대적 배경과 주요 저서

### 2.1. 일칸국의 종교 및 군사 외교 정책

이븐 타이미야의 반(反)기독교와 반(反)시아파 담론은 그가 살았던 13~14세기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전개된 복잡한 종교 및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븐 타이미야는 맘루크조(Mamluk Sultanate, 1250~1517) 시절 이집트와 시리아를 오가며 활동했던 한발리파 출신의 법학자였다. 당시 맘루크조는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십자군 및 몽골군과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었다.

몽골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정복 시도는 아인 잘루트 전투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13~14세기 무렵 이집트의 맘루크조와 몽골이 세운 일칸국(Illkhanate, 1256~1335)은 중동 지역의 세력을

양분했다. 양 진양 간의 대결은 60년 이상 지속하였고, 그 와중에 일칸국은 1281년~1312년 동안 대략 6차례에 걸쳐 맘루크조가 장악하고 있었던 시리아에 군사 원정을 감행했다. 하지만 일칸국은 맘루크조를 상대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맘루크조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세에 맞서 이슬람 세계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리아와 이집트의 무슬림들로부터 견고한 지지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다.

일칸국은 맘루크조를 견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정책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슬람화를 단행하고 외부적으로 십자군과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1295년 일칸국의 7대 통치자 가잔 칸(Ghāzān Khān, 1295~1304 재위)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스스로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임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8대 통치자였던 올제이투(Öljetü, 1304~1316 재위)는 시아파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종교 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당시 올제이투의 시아파로의 개종은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경쟁 구도를 이용하여 이슬람 세계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외적으로 일칸국은 아인 칼루트 전투 패배 후부터 유럽의 십자군과 군사 동맹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십자군과의 군사 동맹 추진은 3대 통치자 아바카(Abaqa Khan, 1265~1282 재위)의 통치 시절에 처음 시작했다. 아바카는 즉위 직후인 1266년 여름 혹은 1267년 초에 교황 클레멘스 4세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친기독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맘루크조에 대한 유럽의 십자군 전쟁에 자신도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이듬해인 1268년 여름 아바카는 교황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내 다시 한번 유럽의 기독교 군대와 합세하여 맘루크를 공격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5대 통치자 아르군(Arghun, 1284~1291 재위)도 부친이었던 아바카의 정책을 계승하여 십자군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1285년, 1287년, 1289년, 1290년 등 네 차례에 걸쳐서 교황, 비잔틴 황제, 프랑크 국왕, 영국 국왕 등에게 사신을 보내어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맘루크의 세력을 격파하자고 제안했다.<sup>2)</sup>

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했던 가잔칸과 올제이투의 재위 시절에도 일칸국은 십자군과의 군사 동맹 시도를 지속했다. 가잔 칸은 1295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1299년, 1300년, 130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시리아를 침공했다. 그리고 1302년에 그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1294~1303)에게 서한을 보내어, 군사 합동 작전을 제안했다. 올제이투 역시 시아파를 국교로 선포한 후, 맘루크와의 군사적 대결을 위해 십자군과의 동맹 정책을 이어갔다. 그는 1305년 프랑스의 필리프 4세에게 서한을 보내, 일칸국과 유럽 기독교 국가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의 적에 대해 맞서자고 제안했다.<sup>3)</sup>

## 2.2. 반(反)기독교 및 반(反)시아 저서와 파트와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과 『올바른 길의 필요성』을 그리고 시아파를 비판하기 위해 『예언자 순나의 길』과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을 저술했다.

2) 김호동(2003). pp.250-257.

3) 김호동(2003). pp.264-266.

첫째,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Al-Jawāb al-Šahīh li-Man Baddal Dīn al-Masīh)』은 기독교-이슬람 교리 논쟁 역사에서 가장 분량이 방대하고 상세한 문답 내용을 담은 저서 가운데 하나다. 이 저서는 12세 말 무렵 시돈(Sidon)의 멜키트파(Melkite) 주교였던 안티오크의 바울(Paul of Antioch, 1180년 사망)이 아랍어로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저술되었다. 안티오크의 바울은 「무슬림 친구에게 보내는 서한(Risala ila Aḥad al-Muslimīn)」이란 제목이 붙은 서한에서 무함마드가 단지 아랍인을 위한 예언자일 뿐이라는 점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한 기독교의 주요 가르침이 옳다고 입증하는 구절이 쿠란에 명백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sup>4)</sup>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여섯 가지 주제에 걸쳐 안티오크의 바울이 펼쳤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① 예언자 무함마드가 인류의 예언자가 아니라 자힐리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의 예언자일 뿐이라는 주장, ② 꾸란에 언급되었던 대로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존중해야한다는 주장, ③ 토라, 시편, 복음서 등과 같은 경전에 삼위일체와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관한 구절이 있다는 주장, ④ 삼위일체 교리가 이성에 부합한다는 주장, ⑤ 삼위일체의 교리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는 유일신 신앙을 믿고 있다는 주장, ⑥ 그리스도는 모세의 계승자로서 종교를 완성했으며, 그리스도 이후의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sup>5)</sup>

둘째, 『올바른 길의 필요성(Iqtidā’ al-Širāṭ al-Mustaqīm)』은 이븐 타이미야가 인생 말년에 해당하는 1321년과 1326년 사이에 집필한 저서이다. 이 저서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당시 무슬림 대중 사이에 만연해 있었던 무함마드 탄신일, 성인 승배, 성인의 묘지 방문 등과 같은 기념일과 행사 중 상당수가 쿠란, 순나, 살라프(믿음의 선조)의 행동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단적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칫 우상숭배(shirk)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교도 가운데 특히 기독교도가 이슬람의 순수한 신앙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당대 이슬람 사회에서 기념되고 있는 예언자 탄신일이 기독교의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무슬림들이 기독교의 의례를 모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셋째, 『예언자 순나의 길(Minhāj al-Sunna al-Nabawīyya)』은 1201년 시아파 신학자였던 알힐리(Al-‘Allāma Al-Hillī, 1250~1325)가 저술한 『이맘론의 지식 속에 있는 은사의 길(Minhāj al-Karāmah fi Ma‘rifat al-Imāma)』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저술된 방대한 분량의 신학 논쟁서이다. 알힐리 13세기~14세기 무렵 명성을 떨쳤던 시아파 학자로서, 신학, 철학, 논리학, 법학, 문법학, 하디스학, 주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저서를 저술했다. 그는 1311년 무렵 일칸국의 통치자 올제이투의 요청에 따라 『이맘론의 지식 속에 있는 은사의 길』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sup>

이븐 타이미야는 알힐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예언자 순나의 길(Minhāj al-Sunna al-Nabawīyya)』을 저술했다. 그가 『예언자 순나의 길』을 언제 저술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체로 1313년과 1317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 저서에서 그는 시아파가 말하는 이맘 제도는 이슬람 초창기에 없었던 것으로

4) David Thomas(2010). pp.247-248.

5) Thomas F. Michel(1999). p.141.

6) Tariq al-Jamil, “Ibn Taymiyya and Ibn al-Muṭahhar al-Hillī: Shi‘i Polemics and the Struggle for Religious Authority in Medieval Islam”, Yossef Rapoport and Shahab Ahmed(ed.), Ibn Taymiyya and His Times, Karachi,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231.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쿠란의 가르침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리가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긴 하지만 무함마드의 교우(사하바) 가운데 한 명일 뿐이며, 오직 알리만을 오류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특별한 인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시아파가 이맘을 신성화하여 송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으며, 알라와 예언자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무슬림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이맘의 중재는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sup>7)</sup>

넷째,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Jawāb ‘An al-Rāfiḍa al-Imāmiyya)」은 1304년 무렵 맘루크조가 시아파를 토벌하기 위해 카스라완으로 군사 원정을 감행한 직후에 발표한 파트와(fatwa)이다. 이 파트와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가 하디스를 위조하거나 가짜 하디스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고, 신앙 활동과 경전 해석에서 ‘자히르(zāhir)’와 ‘바틴(bātin)’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 교도가 이맘의 무오류성을 강조하고, 그를 신성이 임했거나 신과 합일하는 경지에 이른 인물로 여기고 마치 우상처럼 송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8)</sup>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기한 저서와 파트와는 다른 시기에 저술되었고, 기독교와 시아파라는 겉보기에 서로 다른 별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유일신 신앙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무슬림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상기한 저서와 파트와에서 기독교의 오류와 모순을 비판할 때는 그것이 시아파의 무엇과 닮았는지 그리고 시아파를 비판할 때는 그것이 기독교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매우 자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과 『올바른 길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반(反)기독교 교리 논쟁서이지만 동시에 반(反)시아 교리 논쟁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언자 순나의 길』과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반(反)시아 교리 논쟁서이지만 동시에 반(反)기독교 교리 논쟁서라고 말할 수 있다.

### III. 기독교와 시아파의 유사성

#### 3.1. 이단적 교리 및 의례 창안과 이교도 사상 수용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비드아(bid‘a, 복수형: bida‘)<sup>9)</sup>, 즉 경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단

7) Tariq al-Jamil(2010). pp.235-236.

8) Thomas F. Michel(1999). pp.57-58.

9) 아랍어에서 비드아(bid‘a)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 즉 혁신(innovation)을 의미한다. 신학적 논쟁에서 비드아는 쿠란이나 순나에서 선례를 찾아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생각이나 주장을 가리킨다. 비드아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비드아는 이단(heresy)에 해당하는 행위나

적 교리와 의례를 만들고 따름으로서 진리의 길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지나 목적이 긍정적이고 유익해 보이고 특별히 금지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더라도, 쿠란, 하디스, 살라프(salaf)의 행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비드아이며 따라서 이를 삼가야 마땅하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무함마드의 탄신일을 경축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도 예언자를 기념하는 좋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무함마드가 살아생전에 성인 승배를 금지한 바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할 비드아에 해당한다고 여겼다.<sup>10)</sup>

이븐 타이미야의 견해에 따르면, 과거에 유대인들이 모세가 전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랐듯이, 초창기 시절 기독교도들도 예수가 전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종교를 따랐다. 하지만 예수의 사후 기독교들은 마음대로 이단적인 사상과 의례, 즉 비드아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진리로부터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교는 알라와 그의 사도가 명한 것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도는 그리스도가 사망한 후 비드아(bida‘)를 창안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이 아니며, 복음서나 그 이전의 계시 경전에서도 언급된 바 없다.”<sup>11)</sup>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시아파 역시 쿠란이나 순나의 가르침을 원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바꿈으로써 이단적인 교리나 의례(비드아)를 새롭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시아파 교도를 진정한 무슬림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유대교도, 기독교도, 우상 승배자와 더 닮은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아파 교도들은 여전히 무슬림인 척 행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위선자(munāfiqūn)’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이맘주의자 라피다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들(시아파)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자 외에 다른 누군가 진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마음대로 말씀의 원의를 바꾼 후 이를 따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피트르(fitr) 시간이나 일몰 예배 시간을 마음대로 연기하기도 한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희생한 제물 외의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한 인간을 극도로 송상하고, 이단적인 의례를 지키며, 우상승배(shirk)에 빠졌다는 점에서 기독교도와 닮았다. 즉, 그들은 무슬림보다 차라리 유대교도, 기독교도, 우상승배자를 지지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위선자의 특징이다.”<sup>12)</sup>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순수한 유일신 종교의 길에서 벗어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

사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순니 학자들은 비드아를 ‘세속적인 문제에서의 비드아’와 ‘종교적인 문제에서의 비드아’로 구분한다. 일부 순니 학자들은 더 세부적으로 ‘허용된 비드아’와 ‘금기된 비드아’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븐 타이미야는 종교적 사상과 실천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혁신을 비드아라고 칭했다. Faris Al Ahmad(2015). p.8.

10) The Humble I(Oct 5, 2020).

11) Ibn Taymiyya b(2008). p.81.

12) Abd al-Rahmān b. Muḥammad b. Qāsim and Muḥammad b. ‘Abd al-Rahmān ibn Muḥammad(ed.). pp.479-480.

그리스 철학과 같은 이교도의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와 시아파는 겉보기에 유일신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교도의 종교와 사상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에서 이단적 교리와 의례가 생겨난 원인은 이교도로부터 우상숭배 교리와 의례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겉으로만 받아들인 후 마음대로 바꾸어 이단적인 교리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와 로마의 기독교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이교도의 종교 및 사상을 혼합한 후 변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기독교도들은 두 개의 종교를 혼합한 형태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유일신을 믿는 예언자들의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이다. 기독교도들의 종교에는 예언자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상숭배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스스로 새롭게 창안한(ibtada‘ū) 이단적 견해와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그들은 위격(位格)에 관한 용어들을 새롭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용어들은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sup>13)</sup>

여기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유사한 사례가 당대의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거론하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시아파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했다.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그는 『순수형제단의 서한(Rasā’il Ikhwān al-Safā)』의 저자들을 시아파의 대표자로 그리고 이븐 아라비(Ibn ‘Arabī)나 이븐 사브인(Ibn Sab‘īn)을 수피주의자의 대표자로 내세운 후, 이들이 예언자와 말씀과 철학자들의 말씀을 동등하게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교도의 사상을 함부로 수용하는 자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배교자와 다름없다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사도들의 말과 철학자들의 말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과 철학자들이 말한 바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유일신 종교의 가르침을 버린 유대교와 기독교의 배교자(malāḥida)이거나 『순수형제단의 서한(Rasā’il Ikhwān al-Safā)』의 저자들, 이븐 아라비(Ibn ‘Arabī), 이븐 사브인(Ibn Sab‘īn)처럼 시아파 또는 수피주의자에 속한 자들뿐이다.”<sup>14)</sup>

### 3.2. 경전의 왜곡과 자의적 해석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진리의 길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된 또 다른 공통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전의 왜곡, 변조, 위조, 자의적 해석 등을 꼽았다. 그는 기독교도가 복음서 자체를 변조하

13) Ibn Taymiyya b(2008). p.643.

14) Ibn Taymiyya b(2008). pp.647-648.

거나 그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했듯이, 시아파 역시 하디스를 위조하거나 쿠란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경전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비드아, 즉 이단적인 교리와 의례를 가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너무나 닮았다고 주장했다.

중세 시기에 많은 무슬림 학자들은 토라와 복음서의 왜곡(tahrīf) 문제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다. 무슬림 학자들은 예언자들이 전한 원(原)경전은 후대에 이르러 우연히 또는 고의로 기독교도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교리 논쟁에서 ‘경전의 왜곡’은 크게 ‘텍스트의 왜곡(tahrīf al-lafz)’과 ‘의미의 왜곡(tahrīf al-ma‘nā)’ 두 가지를 의미한다. 전자는 경전의 텍스트 자체가 실제로 변질(tabdīl)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며, 후자는 텍스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경전의 의미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sup>15)</sup>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텍스트 자체의 왜곡 문제는 부차적이고 오히려 의미의 왜곡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만일 후대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설명하고 율법의 내용을 바꾸었다면, 경전의 텍스트가 온전히 보존되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후대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복음서의 의미를 얼마나 왜곡되게 해석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등과 같은 표현의 해석 문제를 상세하게 고찰했다.

이븐 타이미야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 성서에서 예언자들이 신을 칭하기 위해 사용한 ‘아버지’란 낱말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었다. 창조주 하느님(알라)은 인류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과 다양한 도움을 주셨고, 이러한 이유에서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아버지에 비유하여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븐 타이미야는 복음서에서 예수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예수가 신(알라)의 보살핌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라고 여겼다.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신의 아들로 불릴 수 있으며, 신은 인류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토라와 복음서에서 언급된 성령은 가브리엘 천사 또는 신이 예언자나 의로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조력과 안내를 칭할 뿐이며, 성부 또는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는 위격(uqnūm)이란 의미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떻게, 기독교도들이 주장하듯이, 아들(al-ibn)과 성령(rūḥ al-quds)이란 표현이 알라(하느님)의 말씀 또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인가?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알라(하느님)의 말씀, 생명, 지식 등과 같은 속성을 칭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예언자들의 가르침에서 아들이란 용어는 단지 피조물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만 사용되었다. 또한, 성령이란 용어는 알라(하느님)에 내재하는 속성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들>과 <성령>이란 표현과 관련하여, 아들은 양육의 대상자를 칭하고 성령은 예언자들에게 강림하는 그 무엇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을 따름이다. … 그들은 경전의 의미를 그릇되게 이해했고, 자신들 마음대로

15) 성경의 변질 또는 왜곡을 뜻하는 용어로는 타흐리프(tahrīf)가 주로 사용되며, 그 외에 타브딜(tabdīl) 또는 타그이르 (taghyyīr)란 용어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용어들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사람들에 따라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두기도 한다. Thomas F. Michel(1999). p.89.

경전에 그릇된 의미를 덧붙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알라의 경전을 왜곡한 자들(muḥarrifin)이며 알라에 대해 거짓을 만든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다른 주제에서도 잘 드러난다.”<sup>16)</sup>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도들이 토라와 복음서를 왜곡되게 해석했던 점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단적 교리를 따르는 무리(ahl al-bid‘a)인 시아파 역시 쿠란의 원의를 마음대로曲해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해석한다는 점에서 기독교도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도 시아파에 의해 왜곡된 쿠란의 해석 문제를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다 상세하게 열거했다. 그는 시아파가 쿠란의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석한 후, 알리가 무오류의 이مام이며 무함마드의 후계자라는 언급과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성스러운 예언자 가문의 일원이라는 내용이 이미 쿠란에 적혀 있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알라께서 이르시되, <(알라께서) 두 바다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나게 하셨다(쿠란 55:19)>. 라피다는 이 구절에서 두 바다가 알리와 파티마를 지칭한다고 말한다. 또한, 알라께서 이르시되, <그 두 곳에서 진주와 산호초라 나온다(쿠란 55:21)>. 라피다는 이 구절에서 진주와 산호초는 하산과 후세인을 지칭한다고 말한다. ... 또한 알라께서 이르시되, <알라께서 너희에게 암소 한 마리를 희생하라고 명하신다(쿠란 2: 67)>. 라피다는 이 구절에서 암소가 아이사를 지칭한다고 말한다. 또한 알라께서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또 하나의 신을 섬긴다면, 너희의 일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39: 65)>. 라피다는 이 구절에서 ‘또 하나의 신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알리와 더불어 아부 바크르를 사랑하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말한다.”<sup>17)</sup>

이와 더불어 이븐 타이미야는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 시아파 교도가 쿠란뿐만 아니라 하디스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위조까지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아파는 알리를 비롯한 시아 이맘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이자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하디스에 명확하게 수차례에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출처가 불분명한 하디스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이다.

“너(알리)는 나의 형제이며, 나의 조력자이며, 나의 대리인이며, 나의 상속자이며, 나 이후에 나의 후계자(khalīfa)이다.”

“내가 누구와 동반자가 된다면, 알리도 그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알라여. 그(알리)와 동반자가 된 자에게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그와 적이 된 자에게 적이 되어 주시고, 그를 돋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를 버린 자를 버려 주시옵소서.”

16) Ibn Taymiyya b(2008). p.322.

17) Ibn Taymiyya e(n.d.). pp.404-405.

“알라여. 이 사람(알리)은 저한테서 나왔고, 저는 이 사람한테서 나왔습니다. 저와 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론과 모세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븐 타미이야는 시아파가 증거로 제시하는 하디스의 전달 계보가 취약(da‘īf)하거나 심지어 그 내용이 위조(mawdū‘)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시아파는 전승된 무함마드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는 그른 것인지조차 구분할 능력이 없고, 말씀의 전달 계보가 신뢰할 만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가 알리와 이맘에 관해 주장하는 바는 하디스에서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 3.3. 극단주의와 신성화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진리의 길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된 또 다른 공통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극단적인 교리와 의례(ghulūww, ghāliyya)를 꼽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도들은 자비와 용서의 교리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율법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이 명한 율법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행하지 않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 한편 시아파는 아슈라 기념일에 후세인에 대한 애도를 과도할 정도로 격하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의례는 자힐리야 시대의 관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와 시아파가 예수나 이맘처럼 특정한 인간을 신성화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교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닮았다고 강조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를 비교하며, 이슬람이야말로 극단에 치우친 유대교나 기독교와 달리 양쪽 모두의 입장을 수용하는 중용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란 무릇 적절히 엄격하면서 동시에 적절히 선을 베푸는 중용의 길을 걷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의 견해에 따르면, 유대교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강조한 나머지 신이 허용한 것까지도 금지하는 극단에 치우쳤고, 이와 반대로 기독교는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신이 금지한 것까지도 허용하는 극단에 치우쳤다.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에서 발견되는 극단적인 교리의 대표적 사례는 오직 인간 예언자일 뿐인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신성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도들은 신이 예수에게 강림하는 방식(al-ḥulūl) 또는 신과 예수가 위격적으로 연합하는 방식(al-ittihād)을 통해, 결국 예수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위격의 하나로서 신격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격화된 예수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성부와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도가 우상숭배(shirk)의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도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도 성령이 임했다는 이유로 신성화하거나 무오류한 인물로 믿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븐 타이미야는 알라로부터 무오류의 은총을 받은 인물은 예언자뿐이라고 언급하며, 기독교도들이 예수는 물론 그의 제자까지도 신성화하는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독교도들은 그리스도(al-masīḥ)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 극단주의적(ghlūww) 성향을 보이는 데 반해, 다른 예언자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간혹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al-ḥiwāriyūn)을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든다. … 경전은 그들의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신(알라)의 경전을 해석한다.”<sup>18)</sup>

한편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에서도 특정한 인물을 신성화하는 극단적인 교리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도가 예수를 신성화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시아파 역시 자신들의 이맘을 신성화함으로써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도들이 신성의 강림(al-ḥulūl) 또는 신과 인간의 위격적 연합(al-ittihād)의 개념을 사용하여 예수를 신격화했듯이, 극단적 성향의 시아파 교도들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맘을 신성한 인물로 여기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누사이르파, 이스마일파, 파티마조 추종자 등과 같은 극단적 사상을 지닌 시아파가 예언자를 신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매우 유사하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칭 이슬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자들(al-muntasibīn 'ila al-Islām) 가운데 이단론자(ahl al-bida')와 방황하는 자(ahl al-ḍalāl)는 그들(기독교도)과 닮았다. 이들은 기독교도들처럼 말하며, 예언자, 예언자의 가족, 세이크 등에 관해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도처럼 신인 합일(wahīda), 신성의 강림(ḥulūl), 특별한 위격 연합(ittihād)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알리와 예언자의 가족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시아파나 누사이르파의 견해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알리가 신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자들, 알하킴(al-Ḥākim) 또는 무함마드 빈 이스마일 빙 자으파르의 후손(파티마조)이 신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이스마일파의 견해를 주장한다.”<sup>19)</sup>

이븐 타이미야는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도 시아파가 자신들의 이맘을 무오류한 존재로 여기고 신격화하는 매우 극단적인 교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와 유사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시아파가 알리, 파티마, 하산, 후세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언자 무함마드까지도 신격화함으로써 이슬람의 경계를 벗어나는 극단주의(al-ghāliyya)에 치달았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또한 그들(시아파)은 허황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인류에서 어느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 알라의 속성 중 일부를 공유하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선조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즉, 그의 지식과 능력은 알라의 지식 및 능력과 일치하며, 따라서 그는 알라께서 아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알라께서 행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도 또는 알리를 신격화하는 극단적인 교리(al-ghāliyya)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하지만 무슬림 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허황된 것에 불과하다는 데에 만장일치로 동의한다.”<sup>20)</sup>

18) Ibn Taymiyya b(2008). p.662.

19) Ibn Taymiyya b(2008). p.312.

## IV. 결론: 타자화와 순니파 정체성 확립

이븐 타이미야가 기독교와 시아파 간의 유사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궁극적으로 시아파와 기독교를 동일시함으로써 시아파가 이슬람 공동체 내부의 일원이 아님을 낙인찍고자 하는 타자화 전략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순니파와 시아파의 관계는 마치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등식을 제시함으로써, 시아파가 이슬람 공동체에서 벗어나 기독교와 같은 무리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븐 타이미야의 시아파 타자화 전략은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 다음과 같이 확연히 엿보인다.

“순니파(ahl al-sunna)와 라피다(al-rāfiḍa=시아파) 사이의 관계는 무슬림과 기독교도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그리스도가 신(알라)의 종이자 사도라는 사실은 믿지만, 기독교도들처럼 극단적 교리(ghuluww)에는 치우치지 않았고 유대교도처럼 그를 부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가 무함마드, 아브라함, 모세보다 훌륭하다고 말한다. 라피다의 무리(al-rāwāfiḍ)도 이와 같다. 그들은 알리의 편에 서서 싸웠던 무함마드 빈 아비 바크르(Muhammad bin Abī Bakr)와 알아슈타르 알나크이(Al-Ashtar al-Nakhī)가 아부 바크르, 우마르, 오스만을 포함한 무하지르나 안사르 같은 사하바(무함마드의 교우)보다 훌륭하다고 말한다.”<sup>21)</sup>

상기 언급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순니파/시아파(라피다), 무슬림/기독교를 이항대립 시킨 후, 시아파와 기독교를 동일시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순니파와 무슬림을 동일시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시아파를 타자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으로 이맘주의자(Imāmiyya =12이맘파), 누사이르파, 이스마일파 등 당대에 통용되고 있었던 중립적인 용어 대신 고의적으로 ‘라피다’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 『올바른 길의 필요성』, 『예언자 순나의 길』,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 등에서 시아파를 지칭하기 위해 라피다를 비롯하여 ‘이단론자(ahl al-bida)’, ‘경전을 왜곡한 자(muḥarrifūn)’, ‘극단주의자(ghulāt)’, ‘위선자(munāfiqūn)’, ‘메카를 향해 절하는 자(ahl al-qibla)’, ‘스스로 이슬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자(al-muntasibūn ilā al-Islām)’, ‘방황하는 자(ahl al-dalāl)’ 등 부정적 의미를 담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타자화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지닌 특성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정상적인 집단과 다른 존재임을 부각한다. 이때 특정 집단에 대한 타자화가 위험스러운 이유는 타인이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지닌 존재임을 부정하게 만들고, 결국 타자화된 인물이나 집단은 존중할 필요가 없는 열등한 존재로 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타자화는 특정 개인을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게 하거나 집단 전체를 비인간화하기도 한다. 그 결과 타자화는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들에 대한 박해와 폭력의 사용을 쉽게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20) Ibn Taimiyya c(n.d.). pp.95-96.

21) Ibn Taimiyya d(n.d.). p.55.

러한 이유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 내부의 타자인 시아파(라피다)가 기독교도나 유대교도보다 훨씬 더 위험하므로 이들에 대해 지하드를 수행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는 두 가지 점에서 라피다보다 더 낫다. 만일 유대교가 <당신들의 종교 공동체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은 누구입니까?>란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모세의 교우(*aṣḥāb Mūsā*)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리고 만일 기독교도가 <당신들의 종교 공동체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은 누구입니까?>란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예수의 사도(*ḥiwārī ‘īsā*)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런데 만일 라피다가 <당신들의 종교 공동체에서 가장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란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무함마드의 교우(*aṣḥāb Muḥammad*)입니다>라고 답한다. 라피다는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어야 한다고 명령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모욕했다. 따라서 부활의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을 향해 칼을 뽑아야 한다. 그들의 깃발은 서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그들의 선교 활동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전쟁의 불을 붙일 때마다 알라께서는 그 불을 꼬실 것이다.”<sup>22)</sup>

타자화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만일 누군가를 타자화했다면, 그 주체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normative)’인 가치와 행동 규범을 지닌 내부 집단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얻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복함으로써 누군가를 비합리적인, 신뢰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옳바른 길에서 벗어난 열등한 타자라고 낙인찍는 데 성공했다면, 이와 대비되는 자신은 합리적인, 믿을만한, 도덕적인, 옳바른 길을 걷고 있는 우월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를 이슬람 내부의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타자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순니파를 이와 대비되는 우월한 존재로 각인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전략은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옳바른 답변』의 서두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 그는 기독교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과 유사한 현상이 이슬람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순니파의 등장 덕분에 이슬람 세계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시아파와 대조되는 순니파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옳바른 길로 인도하는’, ‘승리하는’, ‘진리를 추종하는 집단’이란 표현을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

“예언자 무함마드(알라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길)께서는 이 같은 일(기독교와 유대교가 진리로부터 멀어진 일)이 이슬람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신 바 있다. 하지만 예언자께서는 여전히 이슬람 공동체 내에 진리를 추종하는 집단이 있을 것이며, 그 어떤 적대 세력이나 배반의 세력도 종말의 시간이 올 때까지 그 집단에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언자께서 이르시길, 이슬람 공동체는 오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집단도 이슬람 공동체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슬람 공동체는 옳바른 길을 인도하며 승리를 거두는 예언자를 추종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 공동체 내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비잔틴 제국의 로마인, 조로아스터교도 등을 따르는 집단이 반드시 생겨난다.”<sup>23)</sup>

22) Ibn Taimiyya c(n.d.), pp.27-28.

23) Ibn Taymiyya b(2008). p.17.

## 참고문헌

김호동(2003).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서울, 까치.

- Abd al-Rahmān b. Muḥammad b. Qāsim and Muḥammad b. ‘Abd al-Rahmān ibn Muḥammad(ed.)(n.d.). *Majmū‘ fatāwā Shaykh al-Islām Aḥmad ibn Taymiyya*, vol. 28. Riyadh, Matābi‘ al-Riyād.,
- Al Ahmad, Faris(2015). “Corruptions, Imitations, and Innovations: Tropes of Ibn Taymiyya’s Polemics”, Masters’s Thesis,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Al-Jamil, Tariq(2010). “Ibn Taymiyya abd Ibn al -Muṭahhar al-Hillī: Shi‘i Polemics and the Struggle for Religious Authority in Medieval Islam”, in Yossef Rapoport and Shahab Ahmed(eds.), *Ibn Taymiyya and His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Cherry, Kendra(May 01, 2023), “How Othering Contributes to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https://www.verywellmind.com/what-is-othering-5084425#:~:text=Othering%20is%20a%20phenomenon%20in,part%20of%20the%20out%2Dgroup>. (검색: 2024년 8월 1일)
- Cucarella, Diego Sarrió Cucarella(n.d.), “Corresponding across Religious Borders. The Letter of Ibn Taymiyya to a Crusader in Cyprus”, 2010, p.3.,  
<https://pluriel.fuce.eu/article/the-letter-of-ibn-taymiyya-to-a-crusader-in-cyprus-2/?lang=en>
- Michel, Thomas F.(1999). *A Muslim Theologian’s Response to Christianity*, Delmar & New York, Carvan Books.
- Thomas, David(2010). “Apologetic and Polemic in the *Letter from Cyprus* and Ibn Taymiyya’s Jawāb al-ṣahīḥ li-man baddala dīn al-Masīḥ” in Yossef Rapoport and Shahab Ahmed(eds.), *Ibn Taymiyya and His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Ibn Taymiyya a(1998). *Iqtidā’ al-ṣirāṭ al-mustaqīm li mukhālafa aṣḥāb al-jahīm*, Nāṣir bin ‘Abd al-Karīm al-‘Aql (e.d.), vol. 2, Al-Riyād, Dār al-Ishbīlīyah.
- Ibn Taymiyya b(2008). *Al-Jawāb al-Ṣahīḥ li-Man Baddal Dīn al-Masīḥ*, Bairūt, Dār Ibn Ḥazm, 2008, p.81.
- Ibn Taimiyya c(n.d.), *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d Kalām al-Shī‘a al-Qadariyya*, vol.1, Bairūt, Dār al-Kutub al-‘ilmīyya.
- Ibn Taimiyya(n.d.), *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d Kalām al-Shī‘a al-Qadariyya*, vol.2, Bairūt, Dār al-Kutub al-‘ilmīyya.
- Ibn Taimiyya d(n.d.), *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d Kalām al-Shī‘a al-Qadariyya*, vol.3, Bairūt, Dār al-Kutub al-‘ilmīyya.
- Ibn Taimiyya(n.d.), *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d Kalām al-Shī‘a al-Qadariyya*, vol.6, Bairūt, Dār al-Kutub al-‘ilmīyya,
- Ibn Taimiyya e(n.d.), *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d Kalām al-Shī‘a al-Qadariyya*, vol.7, Bairūt, Dār al-Kutub al-‘ilmīyya.

The Humble I (Oct 5, 2020). “Ibn Taymiyyah’s Golden Rule On Bid‘ah”,  
<https://thehumblei.com/2020/10/05/ibn-taymiyyahs-golden-rule-on-bidah/>



# 레반트 지역 시아 공동체 현황과 순니파 무슬림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안정국 (명지대학교)



## 레반트 지역 시아 공동체 현황과 순니파 무슬림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명지대학교

안정국

### 레바논과 이라크의 종파 구조

#### 레바논

레바논은 1943년 독립 이후 종파 간 권력 분담을 명문화한 국민 협약에 따라 대통령직은 마론파 기독교도가, 총리직은 순니파가, 국회의장직은 시아파가 맡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1989년 타이프 협정을 통해 재확인되었으며, 종교별 인구 비율(무슬림 61.1%, 기독교 33.7%, 드루즈교 5.2%)과 무관하게 기독교와 무슬림이 5:5의 비율로 정치권력을 분담하고 있다.

#### 이라크

이라크는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다수파인 시아파(64%-69%)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소수파인 순니파(29%-34%)는 과거 후세인 정권 시기의 지배층에서 폐지배층으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소외감은 ISIS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발흥하는 배경이 되었다. 비록 대통령직은 쿠르드계가, 총리직은 시아파가, 국회의장직은 순니파가 맡는 권력 분담 체제가 관행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시아파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 레바논의 종파 체제

1 1943년 독립

레바논은 독립 이후 종파 간 권력 분담을 명문화한 국민협약을 채택했다.

2 1989년 타이프 협정

종파 간 권력 분담 체제가 재확인되었다.

3 현재

기독교와 무슬림이 5:5의 비율로 정치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 이라크의 정치 구조 변화

2003년 이전

순니파 중심의 후세인 정권이 통치했다.

2003년 이후

다수파인 시아파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1

2

3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미국 주도의 침공으로 정권이 붕괴되었다.

## 레바논의 종교 인구 비율

1 무슬림

전체 인구의 61.1%를 차지한다.

2 기독교

전체 인구의 33.7%를 차지한다.

3 드루즈교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 이라크의 종교 인구 비율

1 시아파

전체 인구의 64%-69%를 차지 한다.

2 순니파

전체 인구의 29%-34%를 차지 한다.

3 기타

기독교, 야지디, 바하이교, 조로아스터교 등이 1-4%를 차지 한다.



## 레바논의 정치 권력 분담

### 대통령직

마론파 기독교도가 맡는다.

### 총리직

순니파가 맡는다.

### 국회의장직

시아파가 맡는다.

## 이라크의 정치 권력 분담

### 대통령직

쿠르드계가 맡는다.

### 총리직

시아파가 맡는다.

### 국회의장직

순니파가 맡는다.



## 레바논의 종파 간 긴장

- 1 2005년 2월 14일  
라파크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사건 발생
- 2 암살 사건 이후  
종파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 3 현재  
종파 간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 이라크의 종파 간 긴장

- 1 2003년 이전  
순니파 중심의 후세인 정권 통치
- 2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미국 주도의 침공으로 정권 붕괴
- 3 2003년 이후  
시아파 중심의 정부 수립, 순니파의 정치적 소외감 증가



## 레바논 순니파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 1 헤즈볼라에 대한 인식

2018년 조사에서 순니파 응답자의 67%가 헤즈볼라의 행동이 레바논에 해를 끼쳤다고 답했다.

### 2 이란에 대한 인식

2018년 조사에서 순니파 응답자의 72%가 이란이 레바논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 3 이웃 관계

2018년 조사에서 순니파 응답자의 53%가 시아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41%는 정치적 긴장 시 이웃 관계가 악화된다고 응답했다.



## 이라크 순니파의 시아파에 대한 인식

### 1 정치적 소외감

많은 순니파들은 2003년 이후의 질서가 그들을 회생시키면서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다.

### 2 이란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

상당수 순니파가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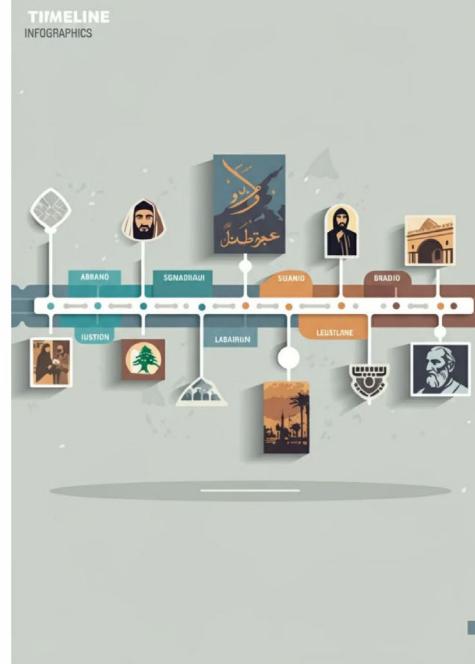
### 3 경제적 불평등

순니파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레바논의 종파 간 관계 변화

- 1 1943년 독립  
국민협약을 통해 종파 간 권력 분담 체제 수립
- 2 1989년 타이프 협정  
내전 종식 및 종파 간 권력 분담 체제 재확인
- 3 2005년 하리리 암살  
종파 간 긴장 고조
- 4 현재  
종파 간 불신 지속, 정치 개혁 요구 증가



## 이라크의 종파 간 관계 변화

- 1 2003년 이전  
순니파 중심의 후세인 정권 통치
- 2 2003년 미국 침공  
후세인 정권 붕괴, 정치 구조 재편
- 3 2003년 이후  
시아파 중심의 정부 수립, 순니파 소외감 증가
- 4 현재  
종파 간 갈등 지속, 국민통합 요구 증가



## 레바논의 종파주의적 정치 구조의 문제점

### 1 부정부폐

종파주의적 정치 구조로 인한 부정부폐가 만연해 있다.

### 2 비효율

종파 간 권력 분점을으로 인한 정치적 비효율이 존재한다.

### 3 사회 분열

종파 간 갈등이 사회 전반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 이라크의 종파주의적 정치 구조의 문제점

### 1 정치적 소외

순니파를 중심으로 한 소수 집단의 정치적 소외감이 증가하고 있다.

### 2 극단주의 발흥

정치적 소외감은 ISIS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발흥하는 배경이 되었다.

### 3 국가 통합 저해

종파 간 갈등이 국가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 레바논의 종파 간 화합 노력

### 시민 운동

2018년 조사에서 순니파 응답자 61%가 종파를 초월한 시민운동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다.

### 정치 개혁 요구

2018년 조사에서 순니파 응답자 72%가 현행 종파별 권력 분점 체제의 폐지를 지지했다.

### 교육 현장의 노력

일부 교육자들이 종파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라크의 종파 간 화합 노력

### 국민통합 운동

종파를 초월한 국민통합 운동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다.

### 정치 개혁 요구

종파에 기반한 정치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제 재건 노력

경제 재건을 통해 종파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레바논의 종파 간 결혼 문제

### 1 비종교혼 지지

1998년의 시베이에서 29%의 레바논인이 비종교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2 비종교혼 반대

같은 조사에서 69%가 비종교 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3 법제화 노력

1960년대부터 비종교적 선택혼(al-zawaj al-madani al-ikhtiyari)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이라크의 종파 간 결혼 문제

### 1 종파 간 결혼의 어려움

이라크에서도 종파 간 결혼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 2 사회적 압력

종파 간 결혼을 하는 커플들은 종종 가족과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는다.

### 3 변화의 조짐

일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종파 간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 레바논의 종파주의 극복을 위한 과제

1

### 정치 개혁

종파에 기반한 권력 분점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2

### 시민 의식 강화

종파를 초월한 시민 의식의 강화가 요구된다.

3

### 경제 발전

종파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 교육 개혁

종파 간 이해와 화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이라크의 종파주의 극복을 위한 과제

1

### 정치적 포용

모든 종파와 민족을 포용하는 정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 경제 재건

종파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 제진 노력이 요구된다.

3

### 안보 강화

극단주의 세력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4

### 국민 통합 교육

종파와 민족을 초월한 국민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



## 레바논과 이라크의 종파주의 비교

항목	레바논	이라크
정치 체제	종파 간 권력 분점 체제	다수파(시아파) 중심 체제
주요 갈등	순니파-시아파-기독교 간 갈등	순니파-시아파 간 갈등
외부 영향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영향	이란, 미국 등의 영향
극복 과제	정치 개혁, 시민 의식 강화	정치적 포용, 경제 재건



## 레반트 지역의 종파주의 극복을 위한 제언

### 정치 개혁

종파에 기반한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 경제 발전

종파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교육 개혁

종파 간 이해와 화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국제 협력

지역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 결론

### 1 복잡한 종파 구조

레바논과 이라크는 복잡한 종파 구조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 3 화합의 필요성

종파주의로 얼룩진 레반트 지역의 분쟁사를 둘이켜 볼 때, 시아-순니 간 화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2 종파 간 갈등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은 여전히 두 나라의 주요 문제로 남아있다.

### 4 미래를 위한 노력

레바논과 이라크가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도전을 감당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차 커뮤니티 간 소통과 이해증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 시리아 내전에서 나타난 시아파 정체성의 안보화와 정권 유지\*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그렇듯, 시리아 역시 2011년 아랍의 봄과 반정부 시위 확산의 영향으로 시리아 내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 되었다. 당시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는 수십 년 간 소수의 알라위파 중심의 통치를 통해 수니파 대다수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상황이었다. 과거 시리아의 권위주의 정권은 대다수의 수니파 국민들<sup>1)</sup>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에 대한 엄격한 제한, 정치적 반대 세력과 활동가들에 대한 강력한 억압과 구속을 지속해 왔다. 일례로 과거 하마(Hama)에서バス당과 하페즈 알 아사드(Hafez al-Assad) 정권에 대항한 무슬림 형제단의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군은 하마지역을 포위, 대규모 학살을 단행하였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직전 다라야 시위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수니파가 대다수인 다라야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소년들이 고문당한 사건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었다. 아사드 정권은 무력 진압을 통해 수니파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는 더욱 과격해졌으며, 시리아 자유군(Syrian Free Army)과 같은 조직이 결성, 시위는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내에서 소수집단이자 시아파의 한 갈래인 알라위파에 속해 있다. 내전이 격화되면서 수니파 반군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와 알라위파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수니파 다수의 반군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묘사, 외부 ‘수니파 국가들(사우디와 카타르 등)’로 부터의 침략으로 묘사하며 소수 종파인 시아파-알라위파의 정체성의 수호를 정권의 보호막으로 내세웠다. 본 연구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아사드 정권의 수니파 탄압과 정권의 생존 수단으로서 정체성의 안보화를 살펴본다. 특히 아사드 정권과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시아파-알라위파의 정체성을 ‘위협받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묘사함으로서, 종파 정체성을 안보화 한 사례를 통해서 생

\* 본 발표문은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3S1A5A2A030854641113582110600101).  
\*\* 전임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soojin0323@hufs.ac.kr

1) 시리아의 수니파 인구는 전체 국민의 약 74%, 시아파(알라위, 이스마일리)는 약 13%, 드루즈파를 약 3%로 추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존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안보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

본 연구에서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 관점에서 시리아 내전 당시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시아파 정체성의 안보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코펜하겐 학파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탈피하여 비군사적인 위협을 설명하기 위해 안보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안보 문제가 주로 군사,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코펜하겐 학파에서 안보 문제의 분야를 확장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안보 문제를 분석함으로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위협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존문제에 있어서 안보의 주체는 ‘국가’이기에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안보론과 의미를 함께한다.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안보화(Securitization) 행위자와 안보의 대상, 수용자의 역할과 세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비판적인 안보 연구 학자들은 (특히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국가의 생존이나 영토 보전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주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보화”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따라서 코펜하겐 학파는 정치인들이 이민자, 종교, 민족, 언어 다양성, 도시화, 교육받은 시민들에 대한 요소들을 안보화 시키고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정당화 한다고 여긴다. 위의 요소들은 국가를 더욱 강하게 만들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이 요소들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 집단은 강력한 제재와 감시·억압을 받을 수 있고, 억압받는 집단은 극도로 과격해지거나 국가 내의 유사 집단과 결탁, 혹은 유사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변국가와의 동맹·연대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국가를 위협한다(Buzan, Waever, de Wilde, 1998). 안보화 단계는 정치적 요소들이 안보화 행위를 통해서 안보 문제로 규정되고 안보 행위자는 이미 정치화된 이슈를 안보 대상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각시킨다. 코펜하겐 학파는 사회를 국민보다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안보 대상은 집단과 집단의 정체성이며, 다양한 종교나 언어, 혹은 인종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된 국가보다는 동일 정체성을 가진 그룹을 사회집단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이 구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위협에 노출된 집단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협에 대처하거나 해당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격상시켜 정치적 안보 혹은 군사적 안보 분야로 이를 옮겨 관리한다(Buzan, Waever, de Wilde, 1998; 122). 다시 말해, 안보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안보 행위자에 의해 현존하는 위협의 대상, 즉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안보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제시하는 것이다(김상배, 2016).

안보화 이론의 관점에서 종파 분쟁을 연구할 때, 정치 엘리트들이 종파적 담론을 정당성과 설득력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종파라는 ‘정체성’이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안보화를 실천하고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안보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Malmvig, 2016), 시리아 내전에서 발생한 시아파-수니파 담론과 IS의 반(反) 시아파 선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은 분석의 초점을 안보화로 돌릴 때, 역내에서 수용자들이 체득하고 있는 정체성을 이용하여 안보 행위자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구화 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 그리고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불안감 고조를 조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Malmvig, 2014, p. 147).

## 정체성과 안보

1980년대에 안보의 개념에 대한 고전적 해석방식의 확대와 이를 넘어서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냉전 기간에도 정체성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정체성을 ‘미리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가꾸거나 새롭게 구축할 수 없다고 여긴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조적 이해는 권력 균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다른 설명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는다.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방식에서는 정체성을 인종과 종교나 기타 ‘분류’를 통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자신-타자’의 역학을 포함하고 있다(Bilgin, 2010, p.81).

정체성은 매우 모호한 용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Brubaker and cooper, 2000, p.6-7). 때문에 정체성을 적절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와 ‘다른 사람’의 차이이며, 개인 또는 집단의 자아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정체성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지칭하며, 사회적 범주에 대한 관념을 제공한다. 정체성이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자’라는 개념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엘리트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개인은 종교를 비롯하여 언어, 성별,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현실을 인식하는 렌즈로 작동한다. 집단 정체성은 특정한 민족적, 종교적, 여타 특징을 가지는 집단을 의미하며, 코펜하겐 학파가 설명하는 안보화 이론에서 중요한 기준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안보화 이론은 안보 상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안보이론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안보화 이론은 언제, 어디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안보화가 발생할지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를 안보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안보 공간은 안보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정치적, 상호주관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안보화가 어떤 사회나 국가 내에서 특정 문제나 이슈가 위협으로 간주되고, 위협이 정치적·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제로 다뤄지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물리적 조건보다는 행위자들이 속해있는 환경에서 특정 문제를 어떻게 ‘안보화’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다. 안보 공간은 특정 안보화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를 규명하는 틀을 제공하고, 사회에서 안보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규정하는 요소들을 나타낸다.

Ted Hopf는 정체성이 사회적 인식구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삶의 질서와 패턴을 형

성하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Hopf, 2002, 23). Anderson은 민족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상상된 공동체’인 국가의 공유된 정체성에 답이 있으며, 사회를 국가 아래 끓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Anderson, 1991). 이는 국가의 상상의 공동체가 가진 힘은 정체성의 영향을 이해하지 않고는 안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Rodney Hall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발전했으며, 과거에는 국가의 정당성이 왕조 계승에 기반을 두었지만, 19세기 이후 영토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적 자아를 집단적으로 상상하는 국민 국가로 진화, 이러한 자아에 대한 지지에 의존하게 되었다(Hall, 1999). 이는 특정 국가의 유형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보편성을 띠며, 민주주의와 왕정국가의 구분 없이 작동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역시 정체성은 국가-사회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 시리아: 시리아 내전과 시아파 정체성의 안보화

레반트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분할 통치 방식에 따라 레반트 지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으로 나뉘었으며, 시리아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리아 뿐 아니라 중동 지역 내에서도 역내 다양한 정체성과 구성원에 대한 인식 없는 국경 형성은 오늘날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프랑스의 통치 당시 프랑스의 분할통치(divide and rule)정책<sup>2)</sup>은 시리아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 시켰으며, 정치적 안정과 국가 형성에 대한 노력에 방해가 되었다(Zisser, 2006, p.182). 이는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의 경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시리아의 집단 정체성 형성에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 했을 뿐 아니라, 독립 이후에도 국가 형성에 어려움을 주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동안 스스로를 안보화 행위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에서)을 국가의 생존(시아파와 알라위파)에 대한 위협으로 설정, 이를 정당화 하려 했다. 그는 이러한 위협들이 시리아 시민들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대 세력 뿐 아니라 시리아 국민들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고, 강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으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과 내부 반대 세력을 구분,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리아 내전 초기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이 아사드 정권을 비판하면서, 시리아 내부의 수니파 반정부 세력과 외부의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이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양상을 띠었다. 반면

2) 프랑스는 분할통치(divide and rule)정책을 통해서 시리아 내의 다양한 민족(쿠르드, 아랍)과 종교 집단들(수니, 알라위, 드루즈 등)을 상호 경쟁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알라위파를 지지하고 정치적 권력을 의도적으로 강화 했고 향후 시리아 내 알라위파 중심의 정권이 형성되는 기초가 되었다(White, 2011).

시아파 집단, 특히 아사드 정권에 지지를 보낸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의 개입은 종종 종교적 측면에서 설명되지만, 자주적 생존과 방어와 같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Shanahan, 2014). 내전 당시 아사드 정권은 정부에게 가해진 위협에 직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종파 카드를 사용했다.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내 종교적 소수 집단들 (알라위파, 기독교인, 시아파, 드루즈 등)에게 수니파 반정부 시위대가 위협적인 존재라고 묘사함으로서, 반정부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치적 요구와 불만에서 종파간의 충돌로 전환 시켰다. 이를 통해 정권 안보를 위협하는 종파적 갈등을 강조하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Anand, 2023).

이러한 종파적 정치성의 강조는 시아파를 비롯한 소수 종파가 ‘위협’ 받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는 시리아 국영 언론인 SANA를 통해 내무부 장관의 연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사건들은 ... Homs와 Banias에서 일어난 살라피스트 조직에 속해있는 무장집단에 의한 무장봉기임을 보여준다(The latest incidents have shown that... armed Salafist groups, particularly in the cities of Homs and Banias, have openly called for armed revolt).

출처: France 24

살라피즘은 수니파 이슬람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알카에다와 같은 무장단체와 연결짓고 있다. 내무부는 이러한 단체들이 군인과 경찰관, 민간인을 살해하고 공공재·사유재를 공격했다고 비난함과 동시에 시리아 내의 안보를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할 것을 명령했다(France 24). 또한 아사드 정부는 폭력을 종교적 무장 폭력으로 규정하며, 시위자들을 ‘박멸해야 할 세균’에 비유했다(Ibrahim, 2024). 이후 정권은 반정부 시위를 수니파 폭력에서 시작된 종파적 기원을 가진 것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지었으며, 시아파 알라위 소수 집단이 ‘타자’인 수니파에게 박해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 연설은 아사드 대통령과 정부 기관의 발언을 통해 안보화를 진행하는 사례로, 시리아가 항상 국경 안팎의 외부 세력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내 반정부 시위대를 적으로 묘사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사드는 시위 배후에 외부의 공통된 적(수니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적을 이용하여 정부의 위협은 부당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안보화 행위자는 성공적 안보화를 위해 청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보화 행위자는 청중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행위 자체가 대상이 되는 대중의 습관, 이념, 역사와 관행을 반영해야 한다. 청중의 지지는 국가 기관일 수도 있고, 대중일 수도 있다.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은 알라위파와 시아파, 수니파 엘리트를 주요 직위에 배치하면서 공식적인 정권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내전의 진압 과정에서 시아파 정권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며 이들(주요 직위에 올라있는 시아파 엘리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위협세력을 제거함으로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 4. 결론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이 시아파 정체성을 안보화 한 과정은 정치적 생존 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아사드 정권은 반정부 시위 초기 단계부터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외부 및 내부의 적을 강조하면서, 시아파를 포함한 소수 종파를 일종의 ‘보호받아야 할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반정부 세력을 급진 수니파 무장 세력, 혹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특정 종교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할 안보적 대상이자 상징으로 설정, 자신을 시아파를 위시하는 보호자로 설정하였다.

아사드 정권은 안보화 전략을 통해 이란과 헤즈볼라와 같은 시아파 행위자의 지원을 정당화 하고 국내적으로 정체성 기반의 충성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안보화 담론은 정권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고, 수니파 반정부 세력을 국가적 위협으로 묘사하며 진압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시리아 내전에서 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사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정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시아파 정체성을 안보화 함으로서 아사드 정권이 단순히 종교적 정체성을 넘어 국가적 안보와 정치적 생존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아사드 정권의 통치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상배 (2011).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비전통 안보론을 넘어서』,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베네딕트 앤더슨 (2018).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서지원 역), 서울, 도서출판 길.
- Anand, Akshita (2023). “Syria: How has Identity been Weaponized?”, Utblik Magazine, <https://www.utblick.org/2023/03/19/syria-how-has-identity-been-weaponized/>.
- Bilgin, Pinar (2010). Identity/Security. Burgess Peter(Ed),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New Security Studies, Routledge.
- Brubaker, Roger and Cooper, Frederick (2000). Beyond “Identity”, *Theory and Society*, 29(1), 1-47.
- Bouzan Berry, Wæver Ole, de Wilde, Jaap (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CO:Lynne Rienner.
- Black, Ian (2013). “Hezbollah is helping Assad fight Syria uprising, says Hassan Nasrallah”,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apr/30/hezbollah-syria-uprising-nasrallah>.
- Benedict Richard O’Gorman Anderson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 France 24, Syrian Security Forces ‘Open Fire’ on Mass Protest, <https://www.france24.com/en/20110419-thousands-anti-government-protesters-swarm-syrias-homs-bashar-al-assad>.
- Hall, Rodney (1999). National Collective Identity: Social Constructs and International Systems,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pf, Ted (2002). Social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 Malmvig Helle (2014). “Power, Identity and Securitization in the Middle East: Regional Order after the Arab Uprising”, *Mediterranean Politics*, 19(1): 145-148.
- Malmvig Helle (2016). “Coming in from the Cold: How We May Take Sectarian Identity Politics Seriously in the Middle East without Playing to the Tunes of Regional Power Elites”, POMEPS Studies, Washington DC: POMEPS 16: 32-36.
- Ibrahim, Hassan (2024). “Why does al-Assad Rely on Insults in His Speech Against Opponents?” Enabbaladi, <https://english.enabbaladi.net/archives/2024/05/why-does-al-assad-rely-on-insults-in-his-speech-against-opponents/>.
- Radio Free Europe (2011). “Syria Ministry: Unrest is ‘Armed Insurrection’”, Radio Free Europe, [https://www.rferl.org/a/syria\\_9497613.html](https://www.rferl.org/a/syria_9497613.html).
- U.S. Department of State (2022). 2022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yria,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reports/2022-report-on-international-religious-freedom/syria/>.

White, Benjamin Thomas (2011). *The Emergence of Minorities in the Middle East: The Politics of Community in French Mandate Syria*, Edinburgh University Press.

Zisser, E., (2006). Who's Afraid of Syrian Nationalism? National and State Identity in Syria, *Journal of Middle Eastern Studies*, 42(2), 179-198.

##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세션 2

### <통합적 언어 교육, 이주 문학, 문화적 다양성 및 언어 교육>

장소: 10119호

[ 좌장 ] 장세원 (단국대학교)

#### ■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변화과정

발 표 구미란 (선문대학교)

토 론 윤현호 (단국대학교)

#### أزمنة الفعل النحوية في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لغسان كنفاني - دراسة أسلوبية .

(간산 카나파니의 소설 『태양 속의 남자들』에 나타난 동사의 시제에 대한 문체적 연구)

발 표 Nagwa Khodiri Ahmed (명지대학교)

토 론 Salaheldin Abdelaziz Ali Elgebily (한국외국어대학교)

#### سردية الهجرة في الأدب المصري .

(이집트 문학 속 이주의 서사)

발 표 Mohamed Talaat El-Gendy (시안대학교, 중국)

토 론 Abdul Rahman Ballo (한국외국어대학교)

#### ■ 근대 아랍, 서구 문학의 조화 및 발전 - "무hammad 무웨일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발 표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김정아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변화과정

구미란 (선문대학교)

##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변화과정

구미란(선문대학교)



# 목차

- 
1. 기하학적 문양이란?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4. 현대의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
  5. 결론

## 1. 기하학적 문양이란?

- 
- 직선이나 곡선의 교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문양.
  - 나침반과 자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원과 선이 디자인의 기초이며, 이 위에 디자인한 형태를 반복하여 무한한 패턴을 만들어 낸다.
  - 그리스-로마 시대 발달

##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 1) 이슬람 예술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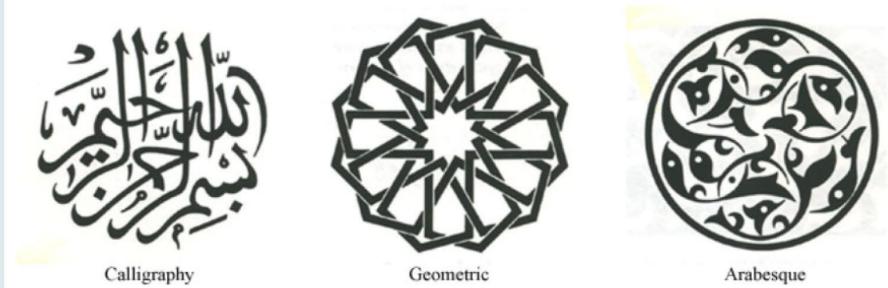
이슬람은 종교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간이나 동물의 형태 등을 묘사하는 그림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이슬람 예술가들은 비구상 예술을 탐구, 수학적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을 창조해 사원이나 왕궁 등 건축물의 장식과 꾸란 등 서적 장식에 응용하였다.

### 2)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

이슬람 영역이 아라비아 반도 외로 확대되었던 우마위야 시대 건축물에서부터 기하학적 문양이 나타나며, 이후 압바스 시대를 거쳐 맘루크조, 셀주크 투르크, 그라나다 우마위야왕조, 무굴제국 등 이슬람 왕조시대의 건축물들에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이 사용되었다.

##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 3) 이슬람의 3대 예술 : 칼리그라피, 기하학적 문양, 아라베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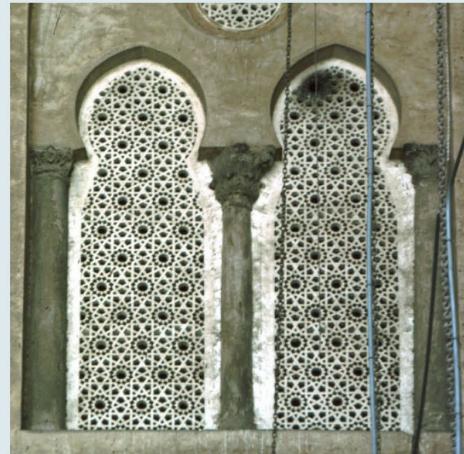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theories-problems-evidence>

##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 4) 이슬람의 기하학적 문양의 특성

#### - 무한 반복

대부분의 패턴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오각형, 육각형과 같은 다각형 격자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디자인이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Mosque of Sultan Hassan, Cairo, 1356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egyo626](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egyo626)

##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 4) 이슬람의 기하학적 문양의 특성

#### - 대칭

이슬람 기하학적 패턴은 반복과 대칭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는 패턴이라도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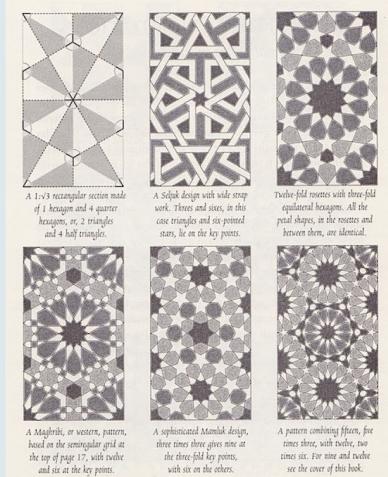
Mosque of Sultan Hassan, Cairo, 1356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egyo626](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egyo626)

##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 4) 이슬람의 기하학적 문양의 특성

#### - 2차원

대부분의 이슬람 기하학적 패턴이 응용된 디자인은 2차원적이다. 패턴 자체에 음영을 넣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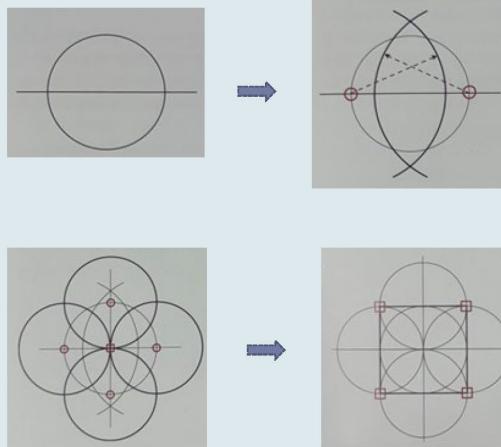
<https://kr.pinterest.com/pin/67694800642662642/>

##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 5) 이슬람의 기하학적 문양의 기본 구성 원리

#### -정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정사각형과 모든 기하학적 패턴은 직선과 원에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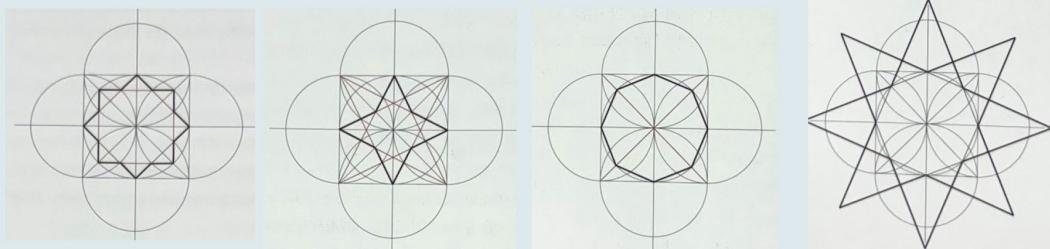
자료출처: 『별과 패턴의 발견: 이슬람 지오메트릭 디자인』, 애너 브루그

##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 5) 이슬람의 기하학적 문양의 기본 구성 원리

-정사학형과 원이 4등분되어 만들어지는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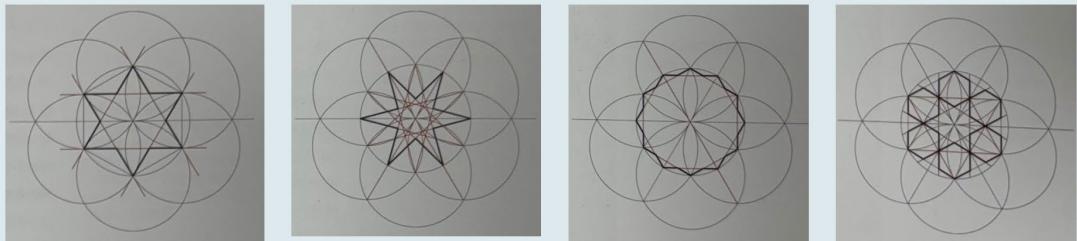
자료출처: 「별과 패턴의 발견: 이슬람 지오메트릭 디자인」, 에릭 브루그

##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 5) 이슬람의 기하학적 문양의 기본 구성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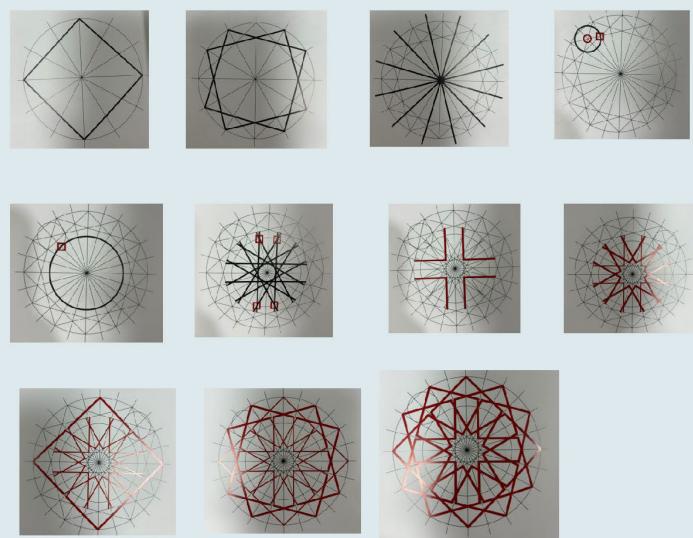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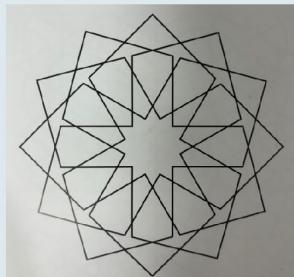
-육각형을 기본으로 원이 6등분되어 만들어지는 패턴



자료출처: 「별과 패턴의 발견: 이슬람 지오메트릭 디자인」, 에릭 브루그

## 2. 이슬람 예술과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작과 특성

### 5) 12꼭지점 별문양 패턴의 구성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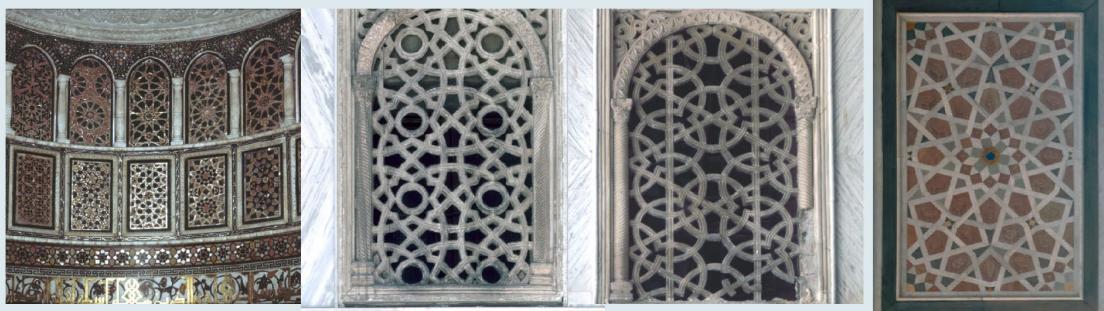
자료출처: 「별과 패턴의 발견: 이슬람 지오메트릭 디자인」, 에릭 브루그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은, 7-8세기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동서로 널리 전파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비잔틴 제국과 사산 제국의 예술을 전수받았던 예술가들에 의해 다양한 패턴과 디자인이 발전되었다.
- 우마워야 시대는 이슬람 예술이 형성되는 시기로 간주된다.
- 이슬람의 높은 수학적 지식은 예술에 접목되어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들이 탄생되었다. 이슬람 예술에서 기하학적 장식의 보급은 예술, 수학, 철학, 종교적 사고의 융합을 보여준다.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D.715년, Great Mosque,(Damascus, Syria)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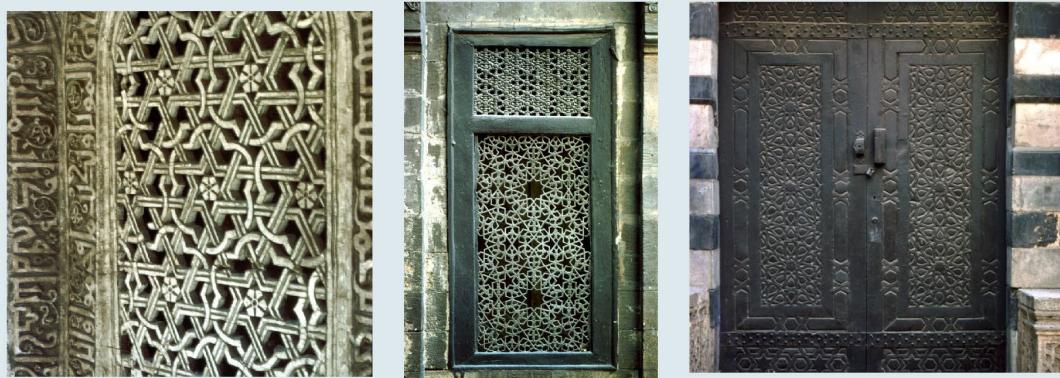
-A.D.879년, Ibn Tulun Mosque(Cairo, Egypt)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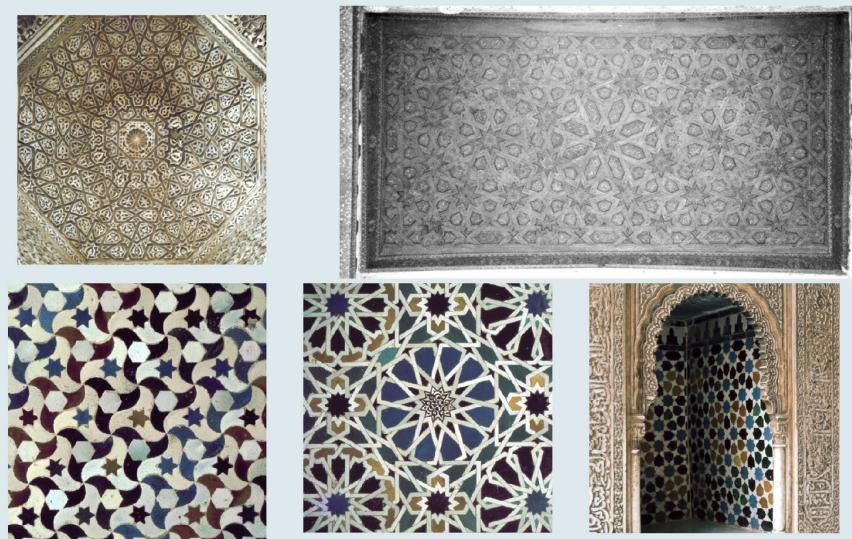
-A.D.972년, al-Azhar Mosque(Cairo, Egypt)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D.1238-1358년, Alhambra(Granada, Spain)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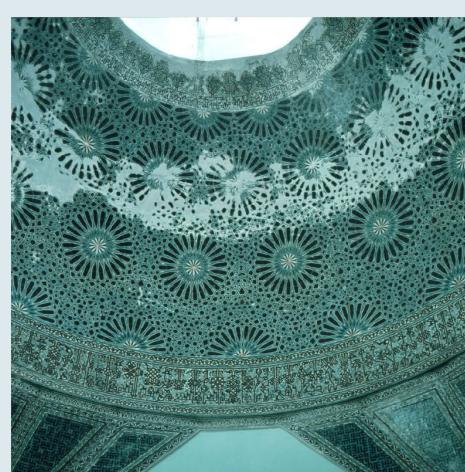
-A.D.1245년, Madrassa Halawiye(Aleppo, Syria)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D.1260년, Karatay Medrese(Konya, Turkey)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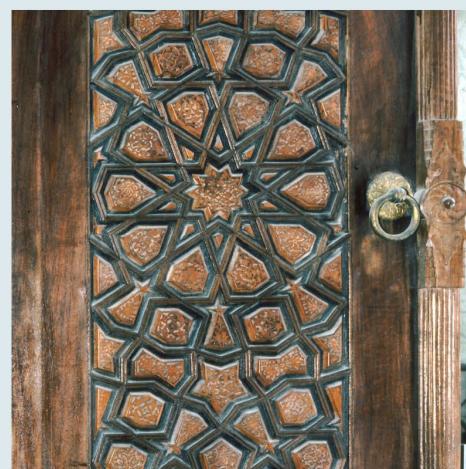
-A.D.1405년, Gur Amir Mausoleum (Samarkant, Transoxiana)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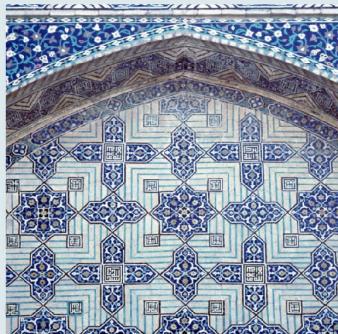
-A.D.1459년, Topkapi Saray, Istanbul, Turkey)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D.1522년,  
Masjid Ali (Isfahan, Iran)



-A.D.1595년,  
Ali Kapu Palace (Isfahan, Iran)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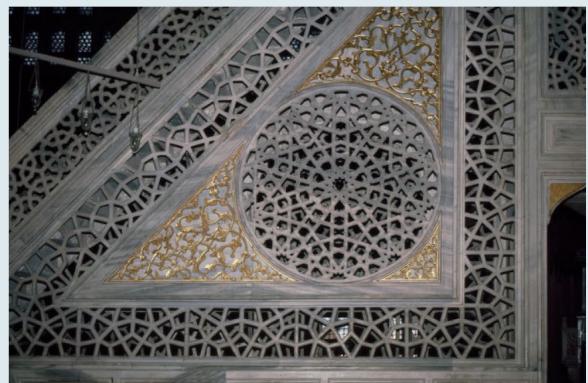
-A.D.1565년, Medersa Ben Youssef (Marrakesh, Morocco)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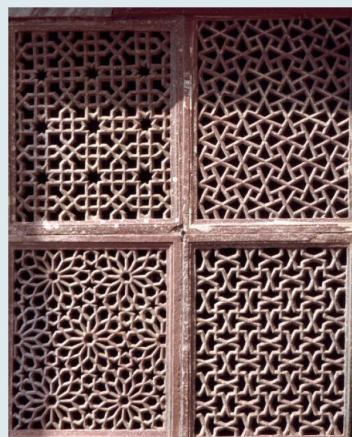
-A.D.1574년, Selimye Mosque (Edirne, Turkey)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D.1571년, Fatepur Sikri Complex(Fatepur Sikri, India)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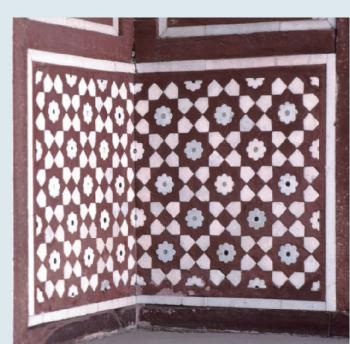
-A.D.1611년, Royal Mosque(Isfahan, Iran)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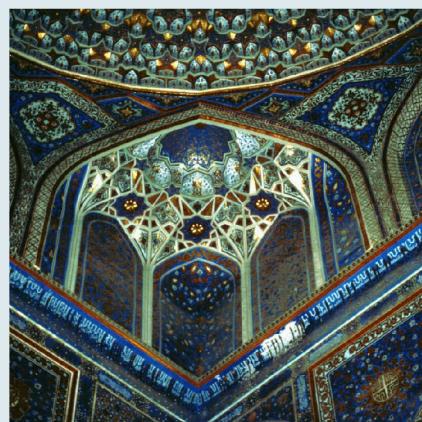
-A.D.1626년, Tomb of Itimud ad- Daula (Agra, India)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3.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의 시대적•지역적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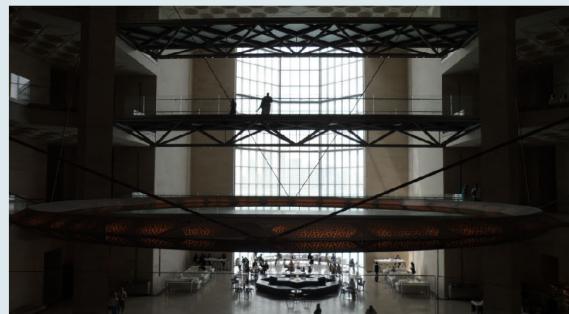
-A.D.1660년, Tillya-Kari Madrassa (Samarkand, Transoxiana)



자료출처: [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https://patterninislamicart.com/s/collections/main-archive/piia_image)

### 4. 현대의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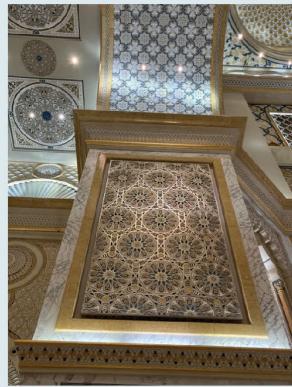
- 2008년, Islam Art Museum (Doha, Qatar)



자료출처: 구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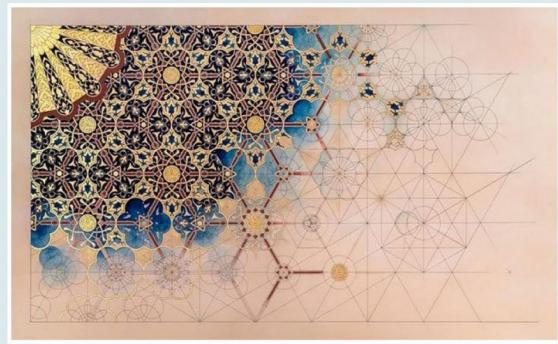
## 4. 현대의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

- 2017년, Qasr AlWatan (Abu Dhabi, U.A.E)



자료출처: 구미란

## 4. 현대의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



*This work by artist Gillian Turnham shows the underlying geometric structure of the Islamic art tradition. (Photo: Michael Morri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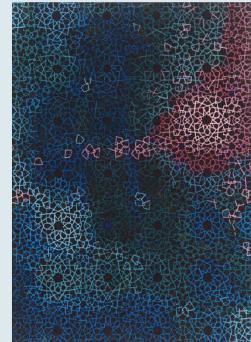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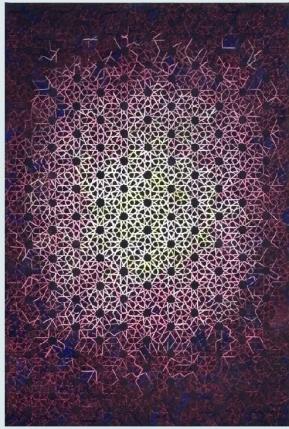
<https://kawarthanow.com/2022/02/02/artist-gillian-turnham-explores-islamic-geometric-art-during-her-trent-radio-artist-residency/>

<https://sandykurt.com/>

## 4. 현대의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



- 2024년, 구미란 작품(한지위에 한국화 채색)



자료출처: 구미란

## 5. 결론



-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은 규칙과 창의력의 결합의 산물이다. 선과 원에서 출발한 규칙은 동일하지만 문양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은 예술가 개인의 능력이다.
-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은 유사한 패턴들이 오랜 세대를 통해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예술가들의 이동에 따른 전파와 학습의 결과로 유추될 수 있다.
- 이슬람 기하학적 문양 중 다양한 별패턴이 많은 이유는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들이 아랍인들에게 끝없는 영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이슬람의 기하학적 문양은 과거에는 주로 건축분야에 응용되었으나 현재에는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분야와 예술 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 أزمنة الفعل النحوية في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لغسان كنفاني

## - دراسة أسلوبية -

Nagwa Khodiri Ahmed (명지대학교)

### أزمنة الفعل النحوية في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لغسان كنفاني

#### دراسة أسلوبية

أ.د. نجوى خلف خضيري

أستاذ دكتور بجامعة ميونخ جي،

قسم الدراسات العربية،

[nagwa\\_105@yahoo.com](mailto:nagwa_105@yahoo.com)

• إن الدراسات الأسلوبية في الرواية من الدراسات التي تلقى استحساناً كبيراً بين الباحثين المعاصررين، ليس لأنها تلقي الضوء على خصوصية الكاتب وأدواته التي استخدمها في كتاباته فقط، لكن لأنها أيضاً تكشف عن مدى النطور اللغوي الذي تعكسه لغة الرواية، باعتبارها عملاً شديداً لارتباطها بواقع الاجتماعي الذي أفرزها.

• وفي هذا الشأن لا نستطيع أن ننكر أن الدراسات الأسلوبية للرواية من الدراسات التي تحتاج إلى المزيد من العناية وجعلها في بورة الدراسات، حيث إن معظم الباحثين يفضلون دراسة الشعر من الناحية الأسلوبية أكثر من دراسة الرواية، نظراً لتمكنهم من حصره بسهولة، وانطلاقاً من ذلك يأتي أهمية هذا البحث الذي يحاول دراسة الفعل العربي بأيامته النحوية، فلطالما اهتم المستشرقون الفعل العربي بالجمود، ظناً منهم أن الفعل العربي ليس به مدلولات كبيرة على الأزمنة المختلفة التي تتمتع بها لغات أخرى كالإنجليزية مثلاً، مرجعين ذلك لل فعل معناه الصريفي، فكثيرون يعرفون أن النحاة منذ القدم قاموا بتقسيم الفعل تقسيماً فلسفياً لا نحوياً، ماضٍ وحاضرٍ ومستقبل، وهذا التقسيم يكاد يكون واحداً في الكتب النحوية القديمة، ولكن عند الاستخدام اللغوي لل فعل العربي تجد أن فيه العديد من الأنواع الأخرى التي لا تتفق عند حد الشكل الصريفي، ويوضح هذا الاختلاف بين الشكل الصريفي والشكل النحووي لل فعل العربي في فن أدبي يعكس الواقع اللغوي المعاش كالرواية.

• ومن خلال ما سبق يتضح أن المسألة لها وجهان، وجه صرفي تناوله النحاة القدامى يشكل مفصل، وآخر نحوى قد جاء في إشارات خاطفة لبعض النحاة لتوضيح الفرق في المعنى بين الجمل، والجدير بالذكر أن بعض النحاة المحدثين قد اهتموا اهتماماً بينا بالفعل العربي وأزمنته المختلفة أمثال قام حسان وأخرون حين قاموا بتقسيم زمن الفعل إلى نوعين، هما:

• أولاً: الزمن النحوى وظيفة في السياق يوධها الفعل أو الصفة أو ما نقل إلى الفعل من الأقسام الأخرى للكلم كالمصادر والحوالف، والزمن بهذا المعنى يختلف عما يفهم منه في الصرف إذ هو وظيفة صيغة الفعل مفردة خارج السياق.

• ثانياً: الزمن الصرفي: يدو قاطعاً في دلالة كل صيغة على معناها الزمني على النحو التالي:

- صيغة " فعل" وقبيلها تفيد وقوع الحدث في الزمن الماضي.
- صيغة "يُفعل" وقبيلها تفيد وقوع الحدث في الحال أو الاستقبال.
- صيغة "أُفعل" وقبيلها تفيد وقوع الحدث في الحال أو الاستقبال.

انطلاقاً مما سبق يأتي هدف هذا البحث الذي يحاول أن يرصد الأفعال العربية بصيغها المختلفة في زمنها النحوى من خلال واقع لغوي مكتوب يعكس الاستخدام الجى للغة، وذلك اعتماداً على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لحسان كتفانى، ولابد أن نشير أن هدف هذا البحث لا ينصب فقط على إبراز أنواع الفعل العربي بمعناه النحوى فحسب، بل ينطوي إلى كشف دوره في تشكيل الحدث الرواى وكيف تم توظيفه في تامي الأحداث، وماهية مساته الأسلوبية.

#### • أزمنة الفعل العربي: الإطار النظري

• لا مناص من أن النحو ما هو إلا نظام العلاقات في السياق، فالكلمات ترتبط بعضها بعض عن طريق السياق والنظام النحوى، أما الصيغة الصرافية فتتعلق بالكلمة في حد ذاتها، ولا دخل لها في علاقات السياق، فإذا كان الفعل العربي له ثلاثة صيغ من حيث الزمن الصرفي (فعل- يفعل- أُفعل)، فإن هناك سبع عشرة صيغة من حيث الزمن النحوى.

• كما اتضح أن النحاة العرب القدامى لم يهتموا إلا بالجانب الصرفي من الفعل حتى وإن تعرضوا لأنواعه المختلفة من الناحية الوظيفية، إلا أنهم كانوا يصيرون جل اهتمامهم بالجانب التعليمي الصرفي لا الجانب الوظيفي باعتبار العرب يفهمون المعنى جيداً، ولم يتطرقوا إلى ابتكار أسماء جديدة لأنواع الأزمنة المختلفة للفعل الماضي أو غيره، في حين أنهم تعرضوا لأنواع منه. كما أن مشكلة النحاة المحدثين حاولوا أن يؤصلوا لهذا النوع، ولكنهم اختلفوا في تسمية كل زمن، كما اختلفوا في تحديد هذه الأزمنة وعدها وصيغها، لكنى حاولت في هذا البحث أن أستفيد مما ذكره النحاة المحدثون لحصر هذه الأزمنة وتحديدها وشرح معناها واستخدامها مع تقديم الصيغة، لتسهيل عملية حصر الأفعال في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والتعرف على استخدامها الفعلى في الواقع اللغوى المعاصر. ويمكن توضيح أزمنة الفعل المختلفة في الجدول التالي:

صيغة الإثبات	ال فعل	
كان فعل	البعيد المنقطع	1
كان قد فعل	القريب المنقطع	2
كان يفعل	المتجدد	3
قد فعل	المنتهي بالحاضر	4
ما زال يفعل / فاعلا	المتصل بالحاضر	5
ظل يفعل	المستمر	6
فعل	البسيط	7
كاد / أو شك يفعل	المقارب	8
كان سيفعل	المستقبل	9
طقى يفعل / أخذ يفعل / بدا يفعل	الشروعى	10
يفعل	العادى	11
يفعل	التجددى	12
يفعل	الاستمرارى	13
يفعل	البسيط	14
سيفعل	القريب	15
سوف يفعل	البعيد	16
سيظل يفعل	الاستمرارى	17

- من خلال الجدول السابق يتضح لنا أن الفعل النحوى قيّم إلى سبعة عشر نوعاً، وستقدم فيما يلي هذه الأنواع وكيفية صياغتها.
- **أولاً: الفعل الماضي**

1. **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نقطع:** يتكون هذا الفعل يتكون من: كان + فعل، معنى الانقطاع أنه حصل مرة، ولم يكرر، نحو: كان كذب، وهو قوله تعالى: {ولقد كانوا عاهدوا الله من قبل} سورة الأحزاب 15، ولم يرد هذا النوع في الرواية أبداً.

2. **الفعل الماضي القريب:** يتكون هذا الفعل من صيغة: كان + قد + فعل، ومعنى أن هذا الفعل حصل في الماضي القريب، لكنه حصل مرة واحدة، نحو: كان قد التقاطه بعد الغروب بقليل بعد أن لوح لها وهو ما في سيارتها الصغيرة، ص 30، وقد ورد هذا النوع ثلاثين مرة في هذه الرواية.

3. **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ستقبلي:** يتكون هذا الفعل من صيغة: كان + سي فعل، ومعنى أن هذا الفعل كان سيحدث في الماضي، لكنه لم يحدث، وقد ورد مرة واحدة في الرواية، نحو: كنت سترى الكبير منها لو مشيت مع المهربيين، ص 65.

4. **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تجدد:** يتكون هذا النوع من كان + فعل مضارع، ويفيد الدلالة على انتشار الأمر في الماضي وتكرار الحدث ووقوعه أكثر من مرة، وقد ورد (104) مرة؛ ليحمل المرتبة الثانية بعد الفعل الماضي البسيط، نحو: حين قال ذلك مرة لجارة الذي كان يشاطره الحقن، ص 11.

5. **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نتهي بالحاضر / الماضي القريب:** يتكون هذا الفعل من (قد + فعل)، قد حرف معناه التقارب، وقد ورد هذا النوع ثمانى وعشرين مرة، نحو: أحس رأسه كله قد امتلاً بالندع من الداخل، ص 22.

6. **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تصل بالحاضر "ما زال يفعل" ، ما زال فاعلا،** وتعنى استخدامه "للتعبير عن وقوع الحدث واستمراره في الزمن الماضي بلا انقطاع إلى وقت الحديث، نحو: ما زال الطائر يحوم وحيدا.. ص 12، وقد ورد هذا النوع أربع عشرة مرة.

7. 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ستمر: هذا النوع يتكون من (ظل + فعل مضارع) ويدل هنا الفعل على حدوث الفعل في زمن الماضي، واستمرار حدوث بلا توقف، وانتهاء في الماضي، ويمكن أن يستخدم بصيغة: كان + فعلًا (اسم الفاعل)، ولللاحظ أن غسان كنفاني لم يستخدم فعل "ظل" في روايته إطلاقا، وإنما استخدم فعل (بني) ليعطينا نفس المعنى، نحو: الفوهة المفتوحة بقيت تتحقق بالفراغ لحظة. ص 88، وقد ورد هذا النوع إحدى وعشرين مرة.

8. الفعل الماضي البسيط: هذا النوع هو أساس الفعل الماضي، ويتألف من الصيغة الأساسية للفعل الماضي (فعل)، وقد سمي بالماضي المطلق، وهو الزمن الذي مضى قبل زمن التكلم، فربما كان أو بعيدا، وهو مكان على (فعل)، واحتل هذا النوع المئوية الأولى في الورود في الرواية، حيث ورد 1116 مرة، نحو: خرج مروان أولا.. رفع ذراعيه. ص 72، ووروده بهذه الكثرة يشير إلى أهميته في عملية سرد الأحداث في الرواية، وسيتم توضيح هذا في الجزء التطبيقي لاحقا.

9. 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قارب: يتكون هذا النوع من صيغة (كاد أو شك + فعل)، ومعنى هذا الفعل أنه اقترب من المحدود، ولكن لم يحدث، لكنه لم يحدث، لكنه ابتكر فعلًا هذه الرواية أن غسان كنفاني استخدمهما بنسبة ضئيلة، حيث ورد أربعا وعشرين مرة، كما أنه أضاف إلى عبارة "على وشك"، نحو: على وشك أن يبكي. ص 12.

10. الفعل الماضي الشروعي: ومعناه أنه شرع في حدوث الفعل، وقد استخدم غسان كنفاني بدأ وأخذ وجعل، ولم يستخدم شرع وطلق، ولكنه ابتكر فعلًا جديدا بنفس المعنى (مضى بفعل)، نحو: ومضى يشرح مستعينا بيده الطويلتين.. ص 51، وقد ورد هذا النوع اثنين وسبعين مرة.

• ثالثا الفعل المضارع، وصيغة هذا الفعل "يُفعل"، ومن استعمالاته: وقوع الحدث في الحاضر، ويمكن أن يقترب بظرف يدل على الحال، كالآن، وال撒عة والحين أو عن حقيقة ثابتة، تدور الأرض حول الشمس، أو عن عادة تعودها شخص، أو عن تقليد سار عليه مجتمع أو شعب. واحتل هذا النوع المئوية الثانية في الورود بعد الفعل الماضي البسيط، حيث ورد تسعمائة وسبعين وثلاثين مرة، نحو: أتعرف؟ إنني أخاف أن تفطس البضاعة. هناك. ص 60.

#### • ثالثا فعل المستقبل

① فعل الاستقبال البسيط (يُفعل)، هذا الفعل يعبر عن زمن المستقبل البسيط، وصيغته، يُفعل؟ وقد ورد هذا الفعل مئة وستة وعشرين مرة في الرواية؛ نحو: وقد نشتري عرق زيتون أو اثنين.. وربما نبني غرفة في مكان آخر. ص 20.

② فعل الاستقبال القريب: هذا الفعل يعبر عن حدوث شيء ما في المستقبل القريب، وصيغته "سيُفعل"، ذكر المحاجة القدامى أن "السين" الداخلية على المضارع تخلصه للاستقبال، وقد ورد مئة وست مرات، نحو: هل تعرف ما الذي سيحدث؟ ستنزلون الخزان قبل نقطه المحدود. ص 54.

③ فعل الاستقبال البعيد سوف يُفعل، "سوف" حرف يختص بالفعل المضارع أيضا فيخلصه للاستقبال مثل "السين"، ومعناها التفيس في الزمان، إلا أنها تبلغ في التفيس من "السين"، وقد وردت هذه الصيغة (29) مرة في الرواية، نحو: سوف تأخذ مني خمسة دنانير وأنت ميسوط. والا.. ص 35.

#### السمات الأسلوبية لأدمنة الفعل العربي في الرواية

صدرت الطبعة الأولى ل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سنة 1963، قدم غسان كنفاني في هذه الرواية صورا حقيقة للواقع الفلسطيني في ذلك الوقت من خلال أربع شخصيات: أبو قيس - أسعد - مروان - أبو الخيزران، وقد أثار غسان كنفاني أن يقدم هذه الرواية في سبعة فصول مكونة من قسمين، يتشكل القسم الأول من لوحات ثلاثة تتمثل في أجيال مختلفة، أبو قيس الشيخ الكبير الذي يحمل بناءه غرفة في مكان خارج المخيم، وأسعد الشاب الذي يحمل بذلت الكويت وأطربه من زواج ابنة صمد، ومروان الصغير الذي يحاول أن يجعل أسرته بعدد مخلي عنده أبوه وأخوه، أما القسم الآخر فقد جاء بسميات مكونة من كلمة معرفة واحدة، وهي الصفة والطريق والغير، أو كلمتين بينهما حرف عطف (الشمس والظل)، وإذا حاولنا تتبع وورد الفعل في الرواية نجد أنه ورد كما هو موضح في الجدول التالي:

المجموع	القبر	الليل	الشمس والظل	الطريق	الصفقة	مروان	أسعد	أبو قيس	زمن الفعل
1116	75	219	243	112	183	123	161		الماضي البسيط
104	5	19	29	5	21	7	18		الماضي المتعدد (كان يفعل)
30	2	5	7	3	5	6	2		الماضي القريب المنقطع كان قد فعل
28	1	4	8	6	7	0	2		الماضي المنتهي بالحاضر قد فعل
72	12	14	16	12	10	1	7		الماضي الشروعي بدأ/ أخذ/ جعل/ ماضٍ + يفعل
24	6	6	4	3	3	0	2		الماضي المقارب على وشك / كاد + أن يفعل
21	1	5	9	0	3	1	2		الماضي المستمر كان فاعلاً/ يقى فاعلاً
1	0	0	1	0	0	0	0		الماضي المستقبل كان سيفعل
14	0	1	4	0	3	1	5		الماضي المتصل بالحاضر ما زال يفعل
937	73	128	213	140	177	93	113		المضارع البسيط
126	4	16	19	14	30	31	12		المستقبل البسيط
106	2	6	10	20	16	36	15		—
29	3	4	5	2	6	6	3		سوف يفعل

#### • أولاً: السمات الأسلوبية للفعل الماضي في الحديث الروائي

1. الفعل الماضي: السرد واسترجاع الماضي: بدأ غسان روائيه وسرده بالفعل الماضي مع الفاعل الظاهر: "أراح أبو قيس صدره فوق التراب الندي ص" 11، ليثن لنا أنه الشخصية الرئيسية في هذا الفصل، حيث لا يعرف "لماذا امتنأ فجأة بشعور أحسن من الغرابة وحسب لوهله أنه على وشك أن يبكي ص" 12، ومن هنا ينطلق بنا الكاتب ليسترجع الماضي لنعرف لماذا يشعر بالغرابة ولماذا يوشك على البكاء، وذلك من خلال قصة "أبو قيس" مع الأستاذ سليم الذي: كان قد أرسل لغزفهم في يافا كي يعلم الصبية، وكان قد أمضى شطراً طويلاً من حياته في التعليم. ص 12، كما يسرد حكاكية موت هذا الأستاذ "صحيح كانوا الرجال في شغل عن دفنك.... ولكنك على أي حال بقيت هناك! وفرت على نفسك الذل والمسكينة وأقلنت شيخوختك من العار"، وكان الشخصية الرئيسية في هذا الفصل في لحظة استرجاعه لقصته مع الأستاذ وموته، يريد أن يسرد لنا ما حدث له، فكأنه كان يفضل الموت في أرشه أفضل من الهجرة والذل والمسكينة، وهذا رفض واضح من تلك الشخصية للواقع المليئ الذي يعيش في الوقت الحالي، وقد ساعدته الفعل الماضي على سرد حكاكية.

وكل ذلك يبدأ سرد فصل "أسعد" ب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قترب بالفاعل الظاهر "أيضاً" إشارة إلى بطل هذا الفصل: وقف أسعد أمام الرجل السمين" ص 23، ولم يسترجع الكاتب ذكريات كثيرة حول تلك الشخصية التي يبدو من خلال زيها أنها لا تفكري في الماضي كثيراً، فالماضي الذي تم ذكره كان عن محاولة هروبه من الأردن إلى العراق، حيث: قال له أبو العبد هرمه من الأردن إلى العراق... ص 24، كما أن أسعد ليس عنده دافع إلى السفر إلا فكرة المخوب من زواج ابنته عمه، ورد فرض عمه، وهذا ما نعرفه من سرد الفعل الماضي على لسان الرواية: أحمس الإهانة... ورغم في أن يريد ليس ديناراً لعمه... من الذي قال له إنه يريد أن يتزوج ندي؟ لم يريد أن أباً قرأ معه الماقمحة حين ولد هو وولدت هي في يوم واحد؟ ص 29.

• وكذلك فصل "مروان" لم يغير فيه غسان كفاني أسلوبه في بده سرده بالفعل الماضي البسيط المفتون بالفاعل الظاهر "خرج مروان من دكان الرجل السميين... فوجد نفسه في الشارع" ص 34، فبطل هذا الفصل هو مروان كما ذكره الرواية، ونعرف من الفعل الماضي مدى إحباطه: تقطعت آخر خيوط الأمل التي شدت.. ص 34، كما نعرف أنه صغير السن " واستغل سنيه الست عشرة وجعل منه أفعوبة. ص 34، ويسترجع ما كتب في الرسالة إلى أمه: " صحيح أيام قام بعمل كريه ص 39، لكن: لقد مضى كل شيء الآن وراح. ص 40، فأبواه طلق أمه وتزوج بأخرى، حتى أخوه الذي كان يساعدهم انقطعت أخباره "منذ أن انقطعت عنا أخبار أخي ركريا اختفى الوضع تماماً.... ركريا ضاعت أخباره. ص 40، فأبواه كان يطبع في البيت له سقف فنزوج شقيقة التي "فقدت ساقها اليمنى أثناء القصف... التي رفضها الجميع ص 41، وهذه صورة واقعية لبعض الفلسطينيين الذين فضلوا أن يبقوا كما هم دون أي مقاومة أو تحمل مسؤولية، كل ما يمكن فعله هو المروء، والبحث عن بدائل مرحلة لهم، وهذا يعد نقداً لادعا يقدمه الكاتب غسان كفاني من خلال روايته.

• وبدأ سرد فصل الصفقة بالفعل الماضي البسيط كثيمة أسلوبية للكاتب: افتاد مروان زميله أسعد إلى موعده مع أبي الخيزران.. ص 48، وهنا يظهر لنا الفعل الماضي ودوره في السرد لنعرف من هو أبو الخيزران: كان أبو الخيزران سائقاً بارعاً، فقد خدم في الجيش البريطاني في فلسطين قبل عام 1948 أكثر من خمس سنين، وحين ترك الجيش انضم إلى فرق المحتلين. ص 51، وأنه: انضم إلى سائقي سيارات الحاج رضا في الكويت. ص 52، وكان بارعاً في القيادة، وقاد أبو الخيزران سيارته الضخمة طوال ست ساعات.. ص 52، و يأتي هنا دور الإفصاح عن كيفية التهريب: منذ أسبوع خرج الحاج رضا في قافلة من سيارته إلى رحلة قنص.. وقد كلف (أبو الخيزران) بقيادة سيارة الماء الكبيرة.. ص 53، إذن هم سيزكرون سيارة الماء.

• أما فصل الطريق الذي يعبر ذروة الأحداث في الرواية فقد سجل أعلى نسبة لورود الفعل الماضي، ولكنه بدأ ب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نفي المصحوب بالفعل الماضي المتجددة ليرسم لنا الكاتب صورة الطريق: لم يكن الركوب فوق ظهر السيارة الجبار مزعجاً كثيراً، فرغم أن الشمس كانت تصب جحيمها بلا هدف فوق رأسه إلا أن الماء الذي كان يهب عليهما بسب سرعة السيارة خفف من حدة الحر.. ص 59، وينظر لنا الفعل الماضي في استرجاع أبي الخيزران قصته المزينة، حينما سأله أسعد: لم تزوج أبداً؟... هز أبو الخيزران رأسه ثم ضيق حفنه كي يتلاشى ضوء الشمس الذي انصب فجأة... أحس بألم فظيع يتلاول بين فخذه.. ص 60، كان يرکض مع عدد من الرجال المسلمين حين تفجرت جهنم أمامه فسقط على وجهه.. ص 61، مرت عشر سنوات على اليوم الذي اقتحموا فيه رجولته. ص 61، وهكذا تعرف على سر عدم زواجه وقدانه رجولته للأبد.

• وبدأ سرد فصل الشمس والظل بالفعل الماضي أيضاً مبيناً حالة الجو القاسية، وذلك من خلال السرد على لسان الرواية: شق العالم الصغير الموهن طريقه في الصحراء.. كانت الشمس ترتفع فوق رؤوسهم مستديرة متوجحة براقة... كانت السيارة الضخمة تشق الطريق بجم.. ص 76، فالشمس حارقة شديدة قاسية، جعلتهم كلهم يصمتون ويفوضون في أحلامهم، وعندما توقفت السيارة: مد أبو الخيزران يده فأطلقاً الحرث، ثم نزل بيته قبعة مروان وأبواه فيس بينما يقي أسعد معلقاً فوق. جلس أبو الخيزران في ظل السيارة. ص 76. ومن هنا تأتي تسمية هذا الفصل بالشمس والظل، فيما ياخذون بختون في الشمس، يستظلون بظل السيارة خحد الموظفين الكويتيين في غرف مكيفة" احتاز أبو الخيزران سيارته الباب الكبير المفتوح في الأستانة الشانكة المشدودة حول مركب المطلاع وأوقف سيارته... وكانت أصوات مكبات الماء تملأ الساحة بالضجيج. ص 81، وهذه هي المقارقة الكبرى الذي يشير إليها غسان كفاني من طرف خفي. ويأتي دور أبي الخيزران في محاولته في الإسراع للحافق بالرجال قبل أن تضرهم الشمس فيقتلون، لكن الموظف لا يريد أن يوقع الأرواح: قرب الأوراق من جديد إلا أن أبي ياقر تحذها مرة أخرى... نظر الموظفون الثلاثة إلى بعضهم وضحكوا بخبيث.. وكان الآخر قد كف عن عمله وأخذ يتبع ما يحدث. ص 83. ويرفض التوقيع عدة مرات وبعد محاولات عديدة تم التوقيع، "وحين صفق وراءه الباب لسعه العين.. حدق إلى الخزان لحظة وخل إلهي أن حديده على وشك أن ينصله. ص 86، فكل شيء يوحى بوقع مصيبة كري: كان المعد الجلدي يلتهب تحنهه وكان زجاج الواجهة مغبراً يتوجع ببريق الشمس... وحين لامست كفاه السطح الحديدي أحس بهما تحترقان. ص 87. وقعت الكارثة. لقد مات الرجال. ماتوا بلا ثمن بلا فائدة بلا ملابس بلا أي شيء، وهذه دعوة صريحة من غسان كفاني بعد الانصياع وراء الأحلام الزائفة، فإذا كان ثمة موت فلا بد أن يكون دفاعاً عن الوطن.

• و يأتي فصل القبر الذي لم يغير فيه غسان كفاني أسلوبه في استهلاه بالفعل الماضي؛ حيث بدأ "قاد أبو الخيزران سيارته الكبيرة حين هبط الليل متوجهًا إلى خارج المدينة الناتمة... لقد قرر قراره منذ الظهيرة أن يدفنهم، ص 90، وهكذا انتهى الحال بالرجال الثلاثة إلى الدفن، لكن حتى الدفن لم يحظوا به؛ فقد تعب أبو الخيزران، لهذا قرر أن يلقي أجسادهم؛ حين لاحت أمامه أكواب القهوة..، كانت الرائحة النتنة قد ملأت الجو حواليه، ولكنه ما لبث أن اعتادها، ص 91، لقد انتهت الأحلام يلقيها في القهوة، ولكن أبو الخيزران " شعر بأن رأسه على وشك أن ينفجر، وصعد كل التعب الذي كان يحسه فجأة إلى رأسه وأخذ يطن فيه حتى أنه احتواه بين كفيه ويداه يشد شعره لزيز الفكرة، ص 92، وهذا تصوير رائع لغسان كفاني في التعبير عن وجود نعمة شيء ما في رأس أبي الخيزران، فما هي رأس أبي الخيزران، فما هي التي انتقت الفكرة من رأسه ثم تدرجت على لسانه: لماذا لم يدقوا جدران الخزان؟ ص 93، وكرر هذه الجملة أربع مرات؛ ليبين لنا أنه شعر بشيء من الندم أو الحزن أو بقلة الحيلة، فماذا كان سيحدث لو دقوا جدران الخزان؟ كان سيموتون أيضًا من الجندو أو يسجتون.

2. الفعل الماضي والتعبير عن الحركة: أما التيمة الأسلوبية الثانية التي اتسم بها الفعل الماضي في هذه الرواية هي التعبير به عن الحركات التي تقويمها كل شخصية في تصوير بارع لتحديد أدق التفاصيل ليخدم بما غسان كفاني على ذكره؛ فكان تقرأ سيناريو فيلم، فلم يهتم غسان بتفاصيل الشخصيات الجسدية إلا قليلاً فيما ذكره عن "أبو قيس وأبو الخيزران والرجل السمين"، وإنما يذكر كل اهتمامه بحركات كل شخصية، فقد صور بالفعل الماضي البسيط حركات "أبو قيس": دور جسده واستلقى على ظهره حاضنا رأسه وأخذ يقطل إلى السماء، ص 11، قام وفضح الزباق عن ملائمه ووقف بجذب إلى النهر، ص 18. كما صور حركات الرجل السمين مع مروان "قام الرجل السمين ودار حول مكتبه ثم وقف.. حدق فيه.. رفع يده الشفافة في الهواء.. هوت اليد الثقيلة فوق خده، فضاعت الكلمة.. ووصله صوت الرجل السمين مبحوحًا، ص 35. كما صور حركة فتح الخزان بعد موته الشخصيات، فهو: دور القفل المضلع بيده ثم شد الفرسن الحديدي إلى فوق ففروع بصوت متقطع، ص 91. وانطلاقاً مما سبق يبدو من الوهلة الأولى عند تحليل الفعل الماضي أسلوبياً في الرواية أن غسان كفاني استطاع أن يوظفه توظيفاً يتم عن تمكنه في اللغة العربية، فاستطاع أن يصف حركات الشخصية بأفعال بسيطة مقتنة بالفاعل العايب الذي جاء على لسان الرواية.

3. الفعل الماضي عامل مساعد في الحوار: أما التيمة الأسلوبية الثالثة للفعل الماضي فكانت عملية المساعدة في الحوار، حيث اعتمد الكاتب على الفعل الماضي لربط الحوار بعضه ببعض، وذلك في حوار الأستاذ سليم والجاسين في الديوانية، نحو: "سأله أحدهم.. وأجاب الأستاذ.. قال له المختار.. ص 13، زار الجميع فاكمد الأستاذ سليم مجدداً.. تبادل الجلوس نظرات الاستغراب، ص 14، وعندما يسترجع أبو قيس حواره مع زوجته حول رأيها في السفر إلى الكويت نجد أن الفعل الماضي انحصر في: نظر إليها ثم قال، ص 19، وفكرة هو.. ولكنه قال، ص 20، عاد فنظر إلى زوجته.. ص 20. وتعد هذه تيمة أسلوبية خالل فصول الرواية، نحو: ابتسם أبو الخيزران ابتسامة واسعة.. ثم قال، ص 42، قال أسعد.. ص 48، ضحك أسعد بسخرية ثم قال بيده.. قال أبو الخيزران بصوت حاسم.. قال أسعد.. ص 49، قال أسعد محدثاً نفسه.. ص 59، وقف أبو باقر وصاح كالثور، ص 85.

ثانياً: السمات الأسلوبية للفعل المضارع في الحديث الروائي: لقد ورد الفعل المضارع في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937) مرة، حيث اتسم بعدة سمات أسلوبية، وهي:

1. في الجمل الحوارية بين شخصيات الرواية: حيث جاءت معظم هذه الجملات على ألسنة الشخصيات في الزمن المضارع، سواء التي حدثت في زمن الاسترجاع أو في زمن حدوث الرواية، فعلى سبيل المثال نجد الحوار الذي دار بين الأستاذ سليم والجاسين معه في الديوانية، حينما طلبوا منه أن يؤمنهم في الصلاة ملياناً بالزمن المضارع؛ حيث قال الأستاذ سليم: طيب، أنا لا أعرف كيف أصلني، الجالسون: وماذا تعرف إذن؟ أشياء كثيرة.. إنني أجيده إطلاقياً ص 14، وهذه مقارقة كبيرة للأستاذ الذي ينبغي عليه أن يعلم الطلاب كل شيء يتعلق بأمور دينهم ودنياهم لا يعرف الصلاة، ولكن يعرف إطلاقي الرصاص. وفي حوار أسعد مع أبي الخيزران على كثيئية المرووب إلى الكويت: يبدوا لي أن الحج رضا وجانبك تعلمان بالتهريب.. الحج رضا يعتقد أن قريب الأشخاص في طريق العودة أمر تافه، لذلك يتركه لك، أما أنت فتترك له بالمقابل تهريب الأمور الأهم.. أم تراه لا يعرف أنك تهرب أشخاصاً في طريق العودة، ص 58، وفي حوارها عن التهريب، أسعد: لماذا تعمل إذن في التهريب؟ ... أبو الخيزران: أنا لا أعمل في التهريب... أسعد: إذن ماذا تسمى هذا؟ ص 65، ومكنا عبر الفعل المضارع عن النحوتين الآتية التي تغير بما الشخصية، وقد اعتمد عليه الكاتب في الحوار بإسناده إلى ضمير المتكلم أو المخاطب.

2. في السرد: الوصف والحال: أما النسخة الثانية للفعل المضارع في الرواية هي الوصف والحال، حيث استطاع غسان كفاني أن يوظف الفعل المضارع في الرواية بوعاء فائقة، وذلك من خلال تصوير حال الشخصيات ووصفهم اعتماداً على الجمل الفعلية ذات الفعل المضارع، نحو قول الروي عن "أبو قيس" الشخصية الأولى في الرواية" ضربات قلب متعب تطوف في ذرات الرمل مرتعة ثم تغير إلى خلاباً... في كل مرة يرمي بصدره فوق التراب يمس ذلك الوجيب، ص 11، وفي وصف مهارة أبي الحيزران في القيادة، نحو: إلا أنه لم يحيط آمال أولئك الذين وقوا على جانبي الطريق يغزون عليه وهو يدخل من الباب المضف وغيب لحظات، ص 52، وقد أستخدم أيضاً في وصف ساحة الحمرك: ساحة الحمرك ساحة رملية واسعة في صفوان تتوسطها شجرة كبيرة يتيمة تنهل أوراقها المنشطاولة فرمي طلاً واسعاً، وعلى الأطراف تتصبب حجرات ذات أبواب حشبية، ص 70. واللاحظ على هذه الأفعال إسنادها إلى الضمائر الغائبة (تنتصب- يحاول- يغزون- يدخل- تسير).

ثالثاً: السمات الأسلوبية للفعل المستقبلي في الحديث الرواقي: على الرغم من أن الفعل المستقبلي بأنواعه الثلاثة (البسيط والقريب والبعيد) قد ورد بنسبة ضئيلة، إذاً ما قومن بالفعل الماضي بأنواعه أو الفعل المضارع إلا أن الكاتب غسان كفاني استطاع أن يعبر من خلاله عن حيرة شخصياته في هذه الرواية، وقد ورد في السرد والمحوار على حد سواء، وإن كان وروده الأبرز في المحوار، فالداعم القوي الذي جعل "أبو قيس" يفك في السفر إلى الكويت هو ابنه قيس، متى سيعود للمدرسة؟ وغداً سوف يكبر الآخر.. كيف ستنتهي إليه وأنت لم...؟ ص 19. أما فصل أسعد فقد كان من أكثر النصوص التي استخدمت الفعل المستقبلي بأنواعه الثلاثة وإن ورد الفعل المستقبلي البسيط أكثر، وقد استخدمه في حواره مع الرجل السمين، فهو يريد أن يدفع النقود مقابل التهريب عند الوصول: خمسة عشر ديناراً سادفعها لك؟ لا.. لا.. ولكن بعد أن أصل وليس قبل ذلك فقط، ص 23، لأنه يشك في الدليل: لأن الدليل الذي سترسلونه معنا سوف يهرب قبل أن يصل إلى منتصف الطريق، ص 23، لذلك في هذه المرة يريد أن يعطيه المبلغ بعد الوصول: ساعطيك المبلغ إذاً ما وصلنا إلى الكويت، ص 26، وهذا إن دل فليدل على أن غسان كفاني يغزو أن يعبر من خلال شخصية أسد الشاب دائماً ينظرون إلى المستقبل القريب ولا يفكرون في المستقبل البعيد؛ لأنهم لا يستطيعون أن يفكروا أبداً من اللحظة المستقبلي؛ وذلك لشعورهم باليلأس من الحياة. كما استخدمه مروان في حواره مع الرجل السمين: سوف تأخذ مني خمسة دنانير وأنت واثق.. ولا.. ص 35، ويدعو أن غسان كفاني يغزو بين الفعل المستقبلي القريب والبعيد، وقد كرر في حوار أبي الحيزران، ومروان عن كيفية دفع النقود: ساعطيك النقود في ساحة الصفوة في الكويت، ص 43.

#### دور أزمنة الفعل العربي في تطور الحديث الدرامي في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 استطاع غسان كفاني أن يعبر من خلال أزمنة الفعل النحوية عن تطور الأحداث، حيث إن من خلال عملية الإحصاء لأزمنة الفعل يمكن أن نلاحظ بعض الملاحظات:

• **الملاحظة الأولى:** أن غسان كفاني أفرد الجزء الأول من روايته لشخصيات ثلاثة، حيث جاء كل جزء منها تحت اسم صاحبها، وكان ترتيبه حسب أعمارهم، فبدأ بـ "أبو قيس" العجوز ثم "أسعد" الشاب، ثم مروان الصغير، ولكن في اعتماده على الفعل اختلاف عدد مرات الورود، حيث جاء الفعل الماضي البسيط في الجزء الخامس مروان أكثر تواتراً (183)، تلاه أبو قيس (161)، ثم جاء أسعد في المرة الأخيرة (123)، وكان غسان كفاني كان يريد أن يقول إن الماضي يغزو جزءاً لا يتجزأ من حياة الصغار لأنهم شابوا بسبب ما رأوه من ذل الاحتلال وأصبحوا شيوخاً كـ "أبو قيس" الذي استخدم الماضي بشكل مقارب لمروان، أما الشباب فأصبحوا بالماضي ولا يريدون أن يكلموا عنه بسبب ما أصاهم من اليلأس في الرجوع إليه. أما الفعل المضارع فقد ورد بنسبة كبيرة في فصل مروان (177)، أكثر من أسعد (93)، وأبو قيس (113)، وهذا يفسر أن الجيل الصاعد الذين هم في طور المراهقة يهتمون أكثر بحاضرهم، ويريدون أن يعيشوا فيه. في حين أن فصل أسعد سجل أعلى نسبة ورود في الفعل المستقبلي (73)، أكثر من فصل "أبو قيس" (20)، وفصل مروان (52).

• **الملاحظة الثانية:** تناول ورود الفعل الماضي (243) والفعل المضارع (213) مع تطور الحديث الدرامي، حيث سجل فصل الطلاق الذي يغزو ذروة الحديث أعلى نسبة ورود، في حين سجل الفعل الذي ينتهي به الرواية بمقتل الشخصيات الثلاث أقل نسبة ورود (الفعل الماضي 75، الفعل المضارع 73). وهذا إن دل فإنه يدل على أن ثمة علاقة طردية بين تطور الحديث وتواتر الفعل الماضي والمضارع، فكلما تطورت الأحداث توالت الفعل الماضي أكثر، وإن قاربه الفعل المضارع.

• **الملاحظة الثالثة:** ورود الفعل المستقبلي في فصل الصفحة أعلى نسبة ورود بالمقارنة بالفعل الماضي بأنواعه المتعددة والفعل المضارع، وهذا ينم على أن غسان كفاني كثف وروده بحثرة الحديث، ففي هذا الفصل يتم التركيز على كيفية الاتفاق على افروز إلى الكويت، لذا وجد الكاتب في الفعل المستقبلي خير معين له.

• من خلال ما سبق يمكن القول إن غسان كفاني استطاع أن يصور مأساة جيله من خلال النقد الذي قدمه في هذه الرواية اعتماداً على الفعل النحوية، كما أن النقطة الجوهيرية في الوعي ليست في اعتماده على الواقع الموضوعي، بل في التوجيه الذي يقدمه إلى الناس، وما يعلمهم إياه وامكان، أن يصبح دليлем للعمل.

#### I. الخلاصة: من خلال هذه الدراسة التي أجريت على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اتضح لنا ما يلي:

- ✓ من ناحية اللغة: استخدام غسان كتفاني الفعل الماضي بأنواعه المختلفة لوضع لغة أن الفعل الماضي ليس له معنى صرفي فقط، وإنما له معنى نحووي يعبر عن اللحظة التي يتم تناولها في الرواية، فقد تم توظيفه واستخدامه بشكل يخدم المعنى الذي كان يريد توصيله، فقد استخدم الفعل الماضي البسيط، والمتعدد، والقريب المقطوع والمتغير بالحاضر والشروعي والمقارب والمستمر والمستقبل، كما استخدم الفعل المضارع والفعل المستقبلي بأنواعه، ومن ثم فإن هذا يؤكد ثراء الفعل العربي، كما ابتكر غسان أنواعاً جديدة للتغيير عن الماضي الشروعي باستخدام (مضى + يفعل)، فضلاً عن استخدامه عبارة (على وشك) للتغيير عن الماضي المقارب، كما أنه لم يستخدم فعل (ظل يفعل)، ولكن استخدم (يتي يفعل)، وقد يكون هذا بسبب تأثير العامية على أسلوبه، وبعد هذا تطوراً لغويًا رصده هذا الدراسة اعتماداً على الرواية.
- ✓ من ناحية الأسلوب: اتسم الفعل النحووي في هذه الرواية بعدة سمات أسلوبية، فقد اتسم الفعل الماضي بالتغيير عن الاسترجاع الماضي واستخدامه في السرد، بالإضافة إلى أن غسان كتفاني اعتمد عليه ليعبر به عن حركات الشخصيات داخل الرواية ليرسم لنا الصورة بشكل دقيق حتى يصل لنا المعنى كما يريد، فضلاً عن دوره كعامل مساعد في الحوار. أما الفعل المضارع فقد اتسم بالتغيير عن اللحظات الآتية، حيث اعتمد عليه في الحوارات التي أجريت في هذه الرواية سواء في زمن الاسترجاع أو في زمن حدوث الرواية، كما تم استخدامه في التغيير عن وصف الشخصيات والأحداث وتبسيط حاليهم.
- ✓ من ناحية الأحداث والشخصيات: تميز الفعل الماضي والمضارع بدورهما في تطور الحدث الدرامي؛ حيث سجلا أعلى نسبة ورود في فصل الطريق الذي يعتبر ذروة الأحداث، وسجل أقل نسبة في فصل القبر الذي يعتبر نهاية الحدث الدرامي. أما الفعل المستقبلي فغير عن آمال الشاب أسعد في المستقبل القريب الذي يرغب في تحقيقه بسرعة.

#### I. المصادر والمراجع

##### أولاً: المصادر: غسان كتفاني، رجال في الشمس، مؤسسة الأختارات العربية، الطبعة الثانية، 1980.

##### ثانياً: المراجع العربية

- ابن بعشن المؤصل (ت 643هـ)، شرح المؤصل للزعرني، قدم له ووضع هواشنه وفهارسه إميل بديع بعقوب، دار الكتب العلمية، بيروت، الجزء الرابع، ط 1، 1422هـ-2001م.
- أبو عيسى محمد بن زيد المبرد، المقصتب، ج 2، تحقيق محمد عبد الحق عصبة، وزارة الأوقاف، مجلس الأعلى للشئون الإسلامية لجنة إحياء التراث الإسلامي، القاهرة، ش 1415-1994م.
- ابن هشام الأنصاري (ت 761هـ)، معنى الليب عن كتب الأغواريب، دار الفكر، بيروت، الطبعة الخامسة 1979م.
- أبو الفتح عثمان بن جوي، الخصائص، الجزء الثالث، دار الهداية والنشر، تحقيق محمد علي التجار، الطبعة الثانية، (د.ت).
- قاسم حسان، اللغة العربية معناها ومبناها، دار الثقافة، الدار البيضاء، 1994، ص 240-241.
- غازى مختار طليمات، في علم اللغة، دار طلاس، دمشق، دمشق، الطبعة الثانية، 2000.
- مهدي المخزومي، في النحو العربي، نقد وتجزيه، دار الراند العربي، بيروت، لبنان، الطبعة الثانية، 1406هـ-1986م.
- فاضل صالح السامرائي، معانى النحو، الجزء الثالث، دار الفكر عمان، الطبعة الأولى، 2000.
- علي جابر، المتصورى، الدلالة الزمنية في الجملة العربية، الدار العلمية والدولية، عمان، الطبعة الأولى، 2002.
- روح المداني في تفسير القرآن العظيم واسع المدى، حسون الألوسي، دار إحياء التراث، بيروت.
- إبراهيم إسماعيلي، الفعل زمانه وائيته، طبعة العاشر، بغداد، 1966م.
- جمال الدين بن هشام الأنصاري (ت 761هـ)، شرح فقر النبي قبل الصدري، تحقيق عبد الله بن صفيه، إشكالية الأغواريب في رواية رجال في الشمس "غسان كتفاني، سبوره السردار ومسؤول الكتبونية، مجلة آفاق للعلوم، العدد السادس، مارس، 2017.
- الغازى عبد الطيف، شيكرا أبو ياسين، العالم الرواى عبد غسان كتفاني من خلال: رجال في الشمس، دار الثقافة، الدار البيضاء، الطبعة الأولى، 1407هـ-1987م.
- غالي شكري، أدب المقاومة، دار المعرفة، 1970.
- شكري عياد، الأدب في لم متعز، الهيئة المصرية العامة لتأليف ونشر، القاهرة، 1971.
- فاتلا المراجع الأجنبية:

Nozar Niazi, A Stylistic Analysis of D.H. Lawrence's 'Sons and Lovers', Australian International Academic Centre, • Australia, IJALEL 2 (4):118-126, 2013



# سردية الهجرة في الأدب المصري

Mohamed Talaat El-Gendy (시안대학교,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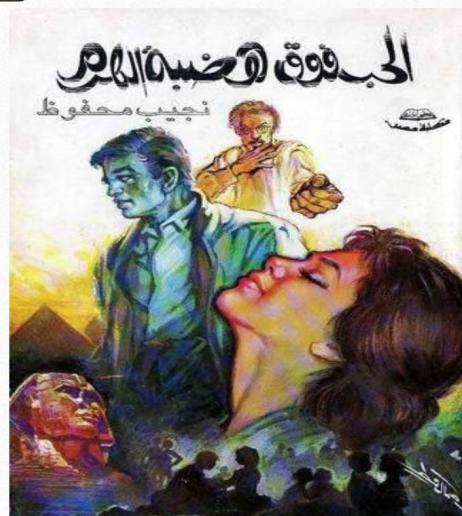
## سردية الهجرة في الأدب المصري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أنموذجاً

د. محمد طلعت الجندي

جامعة ميونغ ج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نجيب محفوظ



#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 نجيب محفوظ

### عناصر البحث

- 1. صور الهجرة في النص
- 2. تأثير الهجرة على الشخصية
- 3. نقد سردية الهجر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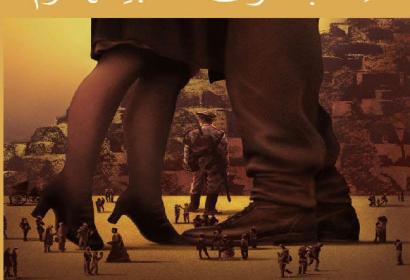
الخاتمة

مقدمة

### مقدمة

- 1. نبذة عن سردية الهجرة في النص
- 2. أهمية النص
- 3. جذور الهجرة في السردية العربية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نجيب محفوظ**

**نبذة عن سردية الهجرة في النص**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 تقع الرواية القصيرة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في حوالي خمسين صفحة
- تتناول قصة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عدة أطر، وهي:
  - ✓ مشكلة المجتمع المصري في حقبة السبعينيات أو ما يسمى بعصر الانفتاح
  - ✓ هجرة المصريين للعمل إلى دول الخليج
  - ✓ أزمة البحث عن العمل المناسب سواء داخل مصر أو خارجها في دول الهجرة العربية.
  - ✓ البطالة المقننة أو الرسمية أي العمل بلا عمل.
- تدور كل الأطر السابقة حول حكاية الشباب في عدم القدرة على الزواج وقلة الدخل وعدم العثور على عمل مناسب أو السكن، من خلال قصة شاب وفتاة يتزوجان سرا نظراً لعدم القدرة على تكاليف الحياة الباهظة، وحين حاولا ممارسة الحياة الزوجية الطبيعية لم يجدا أفضل من جدران الأهرامات ساتراً لهما...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نجيب محفوظ**

**أهمية النص:**

**ارتباط زمن النص بزمن التغيرات الاجتماعية في السبعينيات.**

- صدرت مجموعة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لنجيب محفوظ عام 1979م
- المتأمل في زمن النشر وأحداث هذه الحكاية يجد توافقاً تماماً بين الأحداث الزمانية بين النص والزمن الواقعي للنشر أي أن أحداث النص جسدت التغيرات الاجتماعية لمصر في حقبة السبعينيات المعروفة بعصر الانفتاح في عهد الرئيس أنور السادات (1970-1980).
- في تلك العشرينية الساداتية اجتاحت المجتمع المصري مفاهيم وعادات وسلوكيات غيرت من تركيبته النفسية وطبقته الاجتماعية
- وفي تلك العشرينية ظهرت فكرة الهجرة إلى دول الخليج كحل بديل وجوهرى للقضاء على مشاكل الشباب في مصر.
- وهذا ما يرصده النص بقوة

##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 نجيب محفوظ

#### 1. أهمية النص:

##### ✓ ارتباط زمن النص بزمن التغيرات الاجتماعية في السبعينيات.

• قلة الدراسات النقدية والتحليلية لهذا النص تحديداً حيث لم يلتفت إليه النقاد بشكل جاد وعلمي.

• على الرغم من أنه تمت معالجة النص سينمائياً إلا أنها كانت معالجة قائمة على رؤية قاتمة لم تقرب إلى نزعة الهجرة كما أقرّها النص الروائي.

• يعد النص من أوائل النصوص العربية التي تناولت مسألة الهجرة بنظرة نقدية ساخرة.

• وفي ضوء ما سبق، تم اتباع المنهج الوصفي التحليلي مع طرح جملة من التساؤلات:

✓ ما هو مفهوم الهجرة كظاهرة اجتماعية وكيف تبناها النص فنياً.

✓ وما هي صور الهجرة التي بدأ بوضوح في الحب فوق الهرم.

✓ كيف انعكسَت آثار الهجرة مادياً ومعنوياً على الشخصيات في النص

#### • إرث الهجرة في الأدب العربي أثر كبير وله ظلال نفسية أثرت في العديد من الأنواع السردية:

###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 نجيب محفوظ

✓ السردية الشفوية مثل مضرب الأمثال الشعبية التي عبرت بدلالات مختلفة لرواية الشعوب العربية كلاً حسب منظوره لمفهوم الهجرة

✓ ثم يتوج إرث الهجرة السردية الأدبية المكتوبة وعلى رأسها بلا شك جنس الحكاية المروية التي أغنت التراث العربي القديم

✓ على سبيل المثال حكايات ألف ليلة وليلة، ومقامات الهمذاني والحرير إضافة إلى الملحم والسير الشعبية فضلاً عن حكايات المغامرات والرحلات إلى العالم الأخرى.

## ♦ جذور الهجرة في السردية العربية

##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نجيب محفو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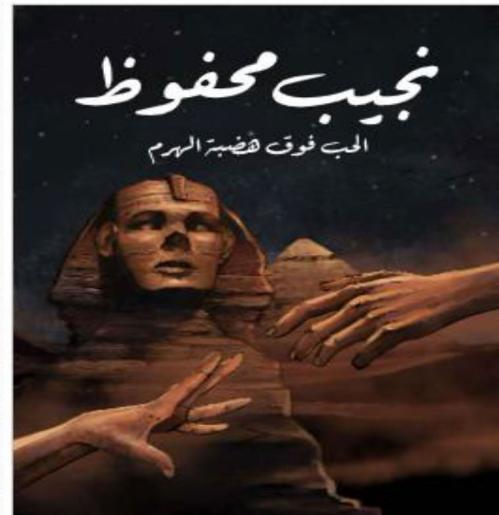
تأثير إرث سردية الهجرة تأثير بلا شك نفسي وحيوي في إنتاج جيل الكتاب منذ مطلع القرن التاسع عشر وحتى وقتنا المعاصر فلا يخلو جيل من الكتاب عبر هذه العقود إلا وأنتج وأبدع بشكل ملهم سردية خاصة عن مفهومه للهجرة المعاصرة مستنداً على ميراث الأجداد من الكتاب الكبار في أزمانهم البعيدة وإبداعاتهم العميقه ومنهم استمدوا رؤيتهم الخاصة لحالة الهجرة :

### ◆ أثر الهجرة في السردية الحكائية العربية المعاصرة

- ✓ سردية المهاجر العربي وأزمته النفسية في التناقض الذي يعيشه مثل حكاية عصفور من الشرق لتوفيق الحكيم وقديل أم هاشم ليحي حقي
- ✓ سردية صراع الهوية بين قيم الشرق والغرب مثل حكاية موسم الهجرة إلى الشمال لطيف صالح
- ✓ سردية النقد الذاتي لحالة الهجرة، وهي صلب موضوع بحثنا في حكاية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 صور الهجرة في النص

1. التحرير على الهجرة
2. توظيف لفظ ومعنى الهجرة في سياقات جديدة
3. الرضوخ للهجرة
4. التنازل عن حلم التحقق في الوطن بالغتراب



## صور الهجرة في النص

- لا شك أننا هنا في هذه الورقة البحثية نزعم تقديم تعريف أو مناقشة مفردة الهجرة في المعاجم والقواميس سواء اللغوية أو النفسية كمصطلحات متباعدة ومعقدة ومختلف حولها الآراء إنما ما يهم هذه الورقة تقديم معنى للهجرة كما تخيله النص السردي في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 وفي ضوء ذلك سنقوم بإثبات مفردات الهجرة في النص وتبين استخداماتها لتعطي لنا صورة كاملة حول فهم الشخصيات لمعنى الهجرة كما فهمته العقلية المصرية التي تتجلى في شخصيات النص كلا حسب موقعه وموقعه من مسألة الهجرة.

## التحريض على الهجرة

- تعبيرا عن لحظة إدراك أن لا فائدة من إصلاح أحوال الوطن ومن ثم أبنائه فلا خلاص لهم إلا بالهجرة..
- الأب يقول لابنه "أن تعلموا ذات يوم في الخارج، إنه حلم وما هو بالحلم..." (الرواية 154)،
- الكاتب للشاب "ألم تفكر في الهجرة؟" (الرواية 157)،
- على لرجاء: "أمل أبي متعلق بهجرة ثلاثتنا إلى بلاد العرب" (الرواية 163)

## توظيف لفظ ومعنى الهجرة في سياقات جديدة

- على يقرر عدم مواجهة رجاء: "ولاهجر الإدراة مبكرا عن العادة" (الرواية 166)،  
رجاء لعلى: "أين أنت؟ كأنك هاجرت من البلد!" (الرواية 169)
- على لنفسه" إني انتظر معجزة، أنتظر عونا من الخارج
- على يحدث نفسه: ".. الهجرة أو... أو مغامرة لا تخطر بالبال" (الرواية 166)،
- تعبيرا عن الغضب الداخلي وقلة ما في اليد من حيل وهذا يفسر تدهور الطبقة الوسطى في المجتمع المصري على الرغم من مؤهلاتهم العلمية والوظيفية

## الرضوخ للهجرة

- على لرجاء: "الأمل في الهجرة" (الرواية 175)
- على لرجاء يقعنها: "لا مستحيل بعد اليوم، ممكן تقنعي نفسك بالتعليم وأقنع نفسك بالقانون ثم نهاجر.." (الرواية 185)
- على لرجاء: "الهجرة هي طريقنا الواضح" (الرواية 186)
- تعبيرا عن.. فقدان الأمل، و Yas شباب الطبقة الوسطى المتعلمة

## التنازل عن حلم التحقق في الوطن بالاعتراض

- تلميحات بقبول الهجرة على مضض، فيقول على: "سأجد الإعلان الذي أبحث عنه في الصحف، لابد أن أثر عليه ذات يوم" (الرواية 190).
- وتجيب عليه رجاء: "ومن ناحيتي فالتعليم أحب إلى من هذه الدنيا"،
- فيرد عليها على ياصرار على الهجرة: "لو افترضى الأمر أن أتعلم حرفة فسأتعلم حرفة.." (الرواية 190).
- تعبرًا عن حالة الاعتراض وفقدان بوصلة الطبقة الوسطى في العيش بالحد المالي والتحقق الذاتي الذي يحفظ كرامة الطبقة الوسطى، ومن واقع اليأس بدت التلميحات الساخرة والقاسية بقبول على على مضض للهجرة، بل والسعى إليها في تقديم تنازلات إنسانية في القبول بأقل الأعمال الدونية

## تأثير الهجرة على الشخصية

1. الشخصيات الرئيسية
2. ملامح الشخصية المغتربة
3. أزمة الشخصية المغتربة



## تأثير الهجرة على الشخصيات الرئيسة

- **الشخصية الأولى** : على عبد الستار، شاب في السادسة والعشرين ، ليسانس حقوق، يعمل موظفاً في شركة حكومية بقسم العلاقات العامة، وهو شخصية البطل الرئيس الأول والمحرك للأحداث. يرى في الهجرة إلى البلاد العربية الحل لكافة مشاكله الأسرية .
- **الشخصية الثانية** : رجاء محمد، متخرجة حديثة من كلية الآداب قسم تاريخ ، تعمل موظفة في نفس الشركة الحكومية مع على عبد الستار، وفي نفس القسم أيضاً. ترفض الهجرة فكرة، ولكنها قبلتها كموضوع وعاش حياتي لتوسّس بيت الزوجية مع على عبد الستار.
- **الشخصية الثالثة** : أحمد عبد المقصود، في الثلاثين من عمره، يعمل سباكاً. يحمل شهادة صناعية متوسطة، عمل في السعودية، يملك شقة في المعادي (حي راقٍ بالقاهرة)، وسيارة نصر

## تأثير الهجرة على الشخصيات الرئيسة

● **الملمح بين الشخصية الأولى والثانية** : إنهم من نفس المرحلة العمرية أي يعني قمة ذروة الشباب والعطاء. وكذلك يحلمون نفس الحلم بواقع معاش أفضل لهم، ونفس الأحلام ونفس الحيوية لكن وضعهما ظروف المجتمع المتغيرة في عمل روتيني حكومي لا جدوى منه وغير مناسب لمؤهلاتهما الدراسية فزاد شعورها بالاغتراب واتحدا حول فكرة الزواج والهجرة معاً

● **أما الشخصية الثالثة** فهي تتقدّم بحالة شائعة ومنتشرة في الوسط الاجتماعي المصري ذلك العامل الحرفي أو نصف المتعلم الذي حصل على عقد عمل بدول الخليج ضمن صفقات الوكيل للأعمال اليدوية والحرافية وزراعية والعمالية وما شابه ذلك . تعود هذه الشخصية محملة بالأموال فقط لا غير لغير طبقه وجلده و هيئته، فهو رجل مناسب من كافة الاتجاهات وتزغب فيه الأسر كزوج لفتياً لهم بغض الطرف عن مضمونه ومؤهله العلمي و هيكله الاجتماعي. الأهم أنه كان يعمل في الخليج ومعه النقود وكان هذا بمثابة صك اجتماعياً جديداً لتقدير الأفضل لتنقل المنظومة الاجتماعية لتهار قيم وأعراف الطبقة المتوسطة

## ملامح الشخصية المفتربة ظواهر الاغتراب

الاغتراب بين التمرد والرفض المتعايش واللامعقول

اللامعقولية

الرفض  
المتعايش

التمرد

أحمد عبد المقصود

رجاء محمد

على عبد الستار

## الشخصية المفتربة

### • التمرد

- وصل تمرد على عبد الستار إلى **كل القيم وثوابت الطبقة الوسطى** في تلصصه على فتاة الجبران والنساء في شوارع وسط المدينة وسعيه لمضاجعة فتيات الليل، ورغبته الجنسية في الحصول على أية امرأة.
- على عبد الستار عبر عن ازدواجية نظام الدولة في شأن التعيينات الوظيفية كنموذج مثالى لازدواجية المجتمع **كل** حيث لا شخص مناسب في المكان المناسب. فعلى يمتلك القوة والشباب والطموح والعقل الناقد الذي إذا وظف بشكل إيجابي من قبل التعيينات الوظيفية فلكان له شأن آخر ومصير آخر عوضاً عن وصوله لحالة الكفر المبين بما يحمل من مؤهل عالٍ؛ فهو على أتم استعداد أن يتخلى عنه مقابل الحصول على أي عمل لو كان حرفياً في الهجرة إلى البلاد العربية. وهنا تكمن قمة السخرية لفكرة الهجرة عند المصري فقد يما كان الحلم للهجرة من أجل التعليم في أوروبا.
- العجز في عدم الحصول على عقد عمل مناسب لطبيعة المصري وتعليمه ومؤهله الدراسي يحفظ من خلاله كرامته.

## الشخصية المفتربة

### • الرفض المتعايش

- رجاء محمد: جسدت رجاء نموذج الفتاة الجامعية اينة الطبقة المتوسطة ميسورة الحال التي لحقت بالحياة الوظيفية بعد التخرج فيما يعرف بتعينات الوظائف الحكومية. وتم تعينها في وظيفة لا تتناسب طموحها ولا تستثمر ما تعلمته من دراسة التاريخ في الجامعة وكان هنا الصدمة لرجاء فكيف تعمل في وظيفة غير مناسبة لها كذلك هي ذاتها غير مناسبة للوظيفة وكان هذا أول رفض نفسي من رجاء، ولكنها **وافتلت بالوظيفة الحفاظ على الدخ الاجتماعي الأدنى**
- تطور شخصية رجاء في اختراقها الذاتي في محيط عملها وأسرتها ومجتمعها ككل فترفض الزواج من شاب تقدم لها لأن ظروفه المادية لا تسمح بتأسيس بيت ثم تقبل نفس المكررة من على عبد المستار للزواج على الرغم من أنه لا يمتلك أي شيء. أي أنه قبول للتعايش مع رفضها لكثير من رغبات على عبد المستار إلا أنها تتعايش مع رغباته الجنسية المسرورة، وتقبل هذا الشطط الجنسي بغير الفنادق الرخيصة أو تحت سفح الأهرامات تعويضاً عن عدم وجود بيت يجمعهما لعدم قدرتهما المالية لتأسيس بيت للزوجية.
- تعايش رجاء مع ما كانت ترفضه دليلاً على اختراق شخصيتها الذي وجدت لها مبرراً في أنها تقبل في نهاية الأمر أن تبحث عن فرصة الهجرة لتقوم بعمل مدرسة للتاريخ.
- الملمح الأقوى في رفضية رجاء هنا كان منذ بدايتها في التحاقها بالجامعة فكما يبدو أنها ترفض دراسة التاريخ لكراهيتها الشديدة لمسألة التعليم أو يكونها ستصبح معلمة تاريخ، **يعكس هذا شخصية رجاء العاقلة اينة الواقع فيما أهمية التاريخ في مجتمع يبيع كل ما هو تاريخي من قيم ومبادئ ، أي أن سمة رجاء هنا أنها حالة من التناقضية كأغلب فتيات جيلها في السبعينيات ما بين الرفض شيء والقبول به للتعايش والتحايل على واقع مجتمع مغرب عن تاريخه وإرثه الحضاري .**

## الشخصية المفتربة

### • اللامعقولية

- أحمد عبدالمقصود يعد حالة من **حالات اللامعقولية في المجتمع الخارج من شعارات ثورة يوليو** ودعواه بأهمية التعليم والطبقة الوسطى والعزّة والكرامة والزواج المثالي والأسرة المترابطة.
- جاءت حالة عبدالمقصود **لتنسف كل دعاوى ثورة يوليو في عهد السادات بقلب الميزان** فجاءت من عبدالمقصود الحرف في البسيط السباق ابن طبقة دنيا لا حظ لها بالتعليم يتزوج من فتاة جامعية ذات أسرة متوسطة تحرص على التعليم لتوظيف والرقي بالمستوى الاجتماعي.
- هذا التزاج ضرب فكرة النمطية للطبقة المتوسطة ليتم اختراقها في الصميم تعبيراً عن التغيرات الاجتماعية والتغيرات العقلية في الفهم والادراك والقبول بالذى كان مرفوضاً ليصبح هو النموذج والمثال المقبول والجيد.

## الشخصية المفتربة

### • أزمة الشخصية

- الأزمة هنا يمثلها واقع على ورجلاء ومن في هنتما هي أزمة جيل كامل من الشباب درس وتعلم وتخرج في الجامعة شباب كل حماس ونضج القوة وتتوفر الطموح والرغبة في الجمود الذي ينهض بذاته ومن ثم وطنه.
- التغرب داخل وطن هذا أقسى شعور عصف بالشخصيات حين لا يقدم لهم الوطن الحق المشروع في الحياة الكريمة والعدالة الاجتماعية المنضبطة، وحين لا يمكن ثمن لتحقيق حلم زواجهما أو ثمن قضاء ليلة حب حلال كما رصد النص.
- تواطو القانون العرفي والقانون الرسمي لتدريب الشباب على أفعال اليأس والتطرف مثل موظف الفندق أو شرطي الأمن لأفعال الحب المحرومة أو المحرمة فلا خلاف ما دام تملك الثمن (الرخصة المناسبة)
- ما سبق وصل بالشخصية إلى **حضيض الامبالاة** والاستمرار في اجترار الفهلوة والتحايل وبيع القيم والشعارات المعلبة، وهذا تأتي قمة سردية الهجرة من الكل.
- السكوت على ذلك اجتماعياً وسياسياً وصل بنا إلى ظاهرة معروفة بالهجرة غير الشرعية المشهورة إعلامياً بـ"قوارب الموت" أو تغاضي الدولة عن أخذ حقوق العمال في بعض دول الخليج بما يعرف بقضية (الغافل).

## نقد سردية الهجرة مظاهر فعل الهجرة

1. الصراع مع فعل الهجرة
2. التنكر لقيم المجتمعية
3. نقض الوطن



## نقد سردية فعل الهجرة مظاهر فعل الهجرة

### المصير بين الصراع والتنكر للقيم ونقض الموطن

نقض الموطن      التنكر للقيم      صراع الفعل

### الصراع مع فعل الهجرة

- صراع الشخصيات خاصة على ورقاء مع تعاطي **مفهوم الهجرة المكاني** فن خلال سرديتهاما اتضح أن مكانهما (مصر) مكل طارد للأحلام والطموح . مكان معاند متكبر على إرادة الشباب وذلک اتضح من خلال الحوار بين على والكاتب ومن ناحية أخرى بين على ومدير الإدارة الحكومية حوارية اتسمت بالتعييز وتقهير الشباب.
- التخلّي عن القيم المجتمع وأعرافه التقليدية في رضوخ أسرة على ورقاء لجنون قرار زواجهم ومن ناحية أخرى موافقة أسرة عبد الستار أفندي على زواج ابنته المتعلمة الجامعية من سبّاك نصف متعلم. بين الحالين تكمن خطورة فعل الهجرة الذي فرض أمر واقع على الأسر المصرية ضيقة الحال.
- الصراع بين البقاء والهجرة يجسده حالة الصراع داخل عقل بطل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 بين رغباته المشروعة ومحاولاته التحايل بطريق غير مشروعة للوصول لهدفه .
- تحايل الشخصيات كما وضحت السردية يمكن في جرأة الشخصية المصرية على فعل الهجرة فقط **من أجل** وتكوين أساس مالي تستعين به الشخصية في قضاء حاجتها المفتقدة في موطنها الأصلي

## التكر للقيم المجتمعية

- التكر للقيم المجتمعية التليدة مثل أعراف الزواج والنسب والمصاهرة وتبني قيم فرضها فعل الهجرة على الشخصيات دراسة على عبد الستار ورجاء محمد لها من الأهمية كدليل قاطع على نقد ذاتي لسردية الهجرة في العقل المصري، فعلى درس القانون ورجلاء درست التاريخ وكلها دراسات إنسانية خاصة جداً بمكونات العادات والتقاليد والأعراف التي تذكر الناس بأهمية مكانهم وزمانهم وأفعالهم فالتاريخ قوة دافعة لثبات الشخصية أمام متغيرات الأوضاع والأنظمة الباهنة والقانون قوة رادعة لثبات الشخصية أمام أي ميل أو انجراف لكسر الثوابت الاجتماعية من التدعي على النفس والممتلكات.
- تبين عمق شخصية على ورجاء لنبذة فكرة الهجرة والبطالة والإرهاب والمكوث سلباً أمام المتغيرات التي ضرب ثوابت التاريخ وقلون المجتمع المصري
- ذلك جاءت شخصية أحمد عبد المقصود الذي استفاد من كل التغيرات الاجتماعية اللامعقولية لكن في حدود إمكاناته وتطلعاته البسيطة في حياة مستقرة بلا ضجيج ولا شعارات التاريخ والقانون المتلوية التي لا تعود بالنفع على أصحاب التاريخ والحقوق في مجتمع أمرضه سياسات نظامه الخاطئة.

## نقض الموطن

- عجز مدير المصلحة الحكومية عن استيعاب طافة الشباب والموظفين هو تلميح مبطن لنقض النظام وعجزه عن إدارة قوة الشباب الذي بات لا موطنه في موطنه الأصلي. وحصر الشباب بين أفكار منطرفة بين الهجرة أو البطالة أو الإرهاب ص 179
- مشهد النهاية (تطل علينا قرون سبعة آلاف عام) وهذا المشهد يحمل دلالتين:
  - الدلالة الأولى تكرس هزيمة الحضارة في قيمها المصرية عن نجدة أبنائها من توغل قيم الهجرة
  - الدلالة الثانية سخرية اسarde من الحضارة الرسمية التي استسلمت لفعل الشاذ (ممارسة فعل فاضح على سفح الهرم) أو لأن الدولة ركبت قرنين للتعرض أو في المعنى العامي ذات الدلالات الساخرة باللهجة المصرية (الحضارة رضخت في النهاية) لقوانين السوق والانفتاح وأفعال العرب ببناء البلد في شارع الهرم ...!
- تواطؤ الدولة المتجسد في الشرطي الذي تركهما لتوارع الهجرة والاغتراب الداخلي لممارسة حقهما المشروع على مصاطب الهرم ص 191
- تعكس سردية النص كل هنا سخرية المصريين المرة على الهجرة ما بين حال العجز وحال التحدى .

## الخاتمة

- التأكيد على نقض التعايش مع فعل الهجرة
- التأكيد على علاقة النص بالواقع والمجتمع الذي أنتجه



###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نجيب محفوظ الخاتمة :

- التأكيد على نقض التعايش مع فعل الهجرة

● توافق الزمن السريدي مع الزمن التاريخي لأحداث المجتمع في السبعينيات تلك العصرية الفاصلة في التاريخ المصري التي خرج منها المجتمع المصري أقرب إلى المسوخ بلا هوية.

● اقتربت سردية النص من جوهر هذه الهوية المصرية الضائعة بين الشعارات ومحاولات تطبيقها الفاشلة.

● نقلت سردية النص التحدي الرافض في قراره النفس المصرية للهجرة التي لم تتعد في ماضي حضارتها القديمة أو حتى لزمن قريب ما قبل الانفتاح في السبعينيات الزمن السريدي لحدث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أن يهاجر المصري إلى بلاد أخرى غير موطنه

● التحدي الذي كان يلعب على تيمته المصريون بشكل عام في عدم قبول فكرة الهجرة خارج مقر نشأته فحين كان يذهب إلى قرى المجاورة أو عاصمة الإقليم على سبيل المثال فكان يضرب المثل على مرار وقسوة الغربة (اللي خرج من داره انقل مقداره)!

● والمعنى أن المصري لم يعرف الهجرة خارج موطنه وأقصى وأقصى هجرة قام بها كانت ذهابه إلى العاصمة (القاهرة) للتعليم أو للعمل.

##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نجيب محفوظ

الخاتمة :

● التأكيد على علاقة النص  
ب الواقع والمجتمع الذي  
أنتجه

● يعالج النص موضوع الانحدار النفسي في بعديه الثقافي والاجتماعي لمضمون فكرة الهجرة.

● يتوجه النص بجملة من النقد الذاتي على لسان شخصياته أقرب إلى جلد الذات النظرة إلى الهجرة بنزعتين مختالفتين:

✓ **نظرة ساخرة** إلى فعل الهجرة الذي غير الأوضاع الاجتماعية للطبقات الدنيا.

✓ **نظرة المعجزة** التي تحقق أحلام البطلة المفتقنة في المجتمع المصري.

● إقرار التعايش السلبي مع مجتمع أفرز نظاماً أكثر سلبية مع قضايا الشباب

● النهاية المفتوحة للرواية تفتح عدة أبواب لتأويل فعل الهجرة، وماذا ستفعله في أحوال المصريين

● كانت سردية الحب فوق هضبة الهرم بداية فعل الهجرة وما فعلته في المصريين والمجتمع العربي بكل التي انتهت إلى ما يعرف الآن بقارب الموت في الهجرة غير الشرعية نتيجة للظلم الاجتماعي والاستبداد السياسي

## قارب الموت للهجرة غير الشرعية مأساة المجتمعات العربية الفقيرة



وأخيرا، السادة الأكابر  
من أهل العلم والأدب

شكرا جزيلا لحضراتكم





# 근대 아랍, 서구 문학의 조화 및 발전

## - “무함마드 무웨일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

### (Reflection of an era, *Hadith Isa bin Hisham*)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This research focuses on Egyptian author Muhammad al-Muwaylihi's *Hadith Isa bin Hisham* [A Period in Time], which is a work of literature that sits between the maqama—a traditional Arabic genre of narrative literature—and modern Western novels.

Various scholars have conducted research on *Hadith Isa bin Hisham*, but past research focused only on whether it fell in the category of the Arabic maqama or the Western novel genre. By contrast, this paper goes beyond that debate to delve into *Hadith Isa bin Hisham*'s literary traits, finding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y the author produced such a piece of writing, and what significance it has to its time.

First, this study introduces both Muhammad al-Muwaylihi and his *Hadith Isa bin Hisham* to the Korean audience, who are unfamiliar with theme. Then it goes on to analyze, from the perspectives of characters, events, conflicts, and narrative techniques each, what influences that the Arabic maqama and modern Western novels have had on the work of literature, resulting in its differences from the traditional maqama.

Lastly, this study spotl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its that *Hadith Isa bin Hisham* has and the historical setting of Egypt at the time in which it was written. Through this, the study will make inferences on the author's motivations for writing the work of literature, and at the same time, prove the cultural value of *Hadith Isa bin Hisham*.

※ **Key Words:** Maqama, *Hadith Isa bin Hisham*, Muhammad al-Muwaylihi.



## 한국중동학회 세션 2

### 다자주의 세계 질서와 중동의 변화: 도전과 미래 전망 (좌담회)

장소: 10120호

[ 좌장 ] 곽순례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 표 홍미정 (단국대학교)
- 발 표 안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 표 마영삼 (고려대학교)
- 발 표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 표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2024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홍미정 (단국대학교)

## □ 무엇이 문제인가: 땅 몰수, 원주민 축출

- ▷ 2023.09.22. 네타냐후 78차 유엔총회연설, 새로운 중동지도  
-One State, Israel: 팔레스타인 없음
- ▷ 원주민 팔레스타인인 다수: 2021/2023년 현재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의 전지역에서 유대인 비율은 47.6/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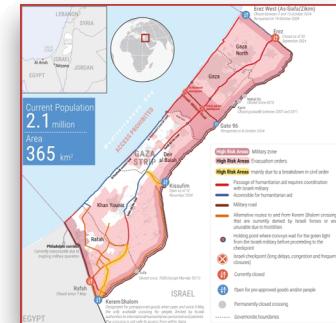
Netanyahu Shows Map of 'New Middle East'—Without Palestine—to UN General Assembly

By admin | September 23, 2023 | Uncategorized



## □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현황

- ▷ 가자지구: 가자: 길이: 41 km, 폭 6~12 km, 이스라엘 경계: 51 km, 넓이 365km<sup>2</sup>, 2024년 3월 네짜림 회랑 건설; 길이 6.5 km, 폭 2km, 7월 폭 4km로 확장-> 가자 남북분단
  - 2023.10.07.~2024.11.19. 'Al-Aqsa Flood: 알아크사 모스크 습격과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지속적인 봉쇄에 대한 보복' 작전과 'Swords of Iron: 하마스 제거와 인질 석방' 작전으로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 최소 43,972명이 사망. 이스라엘인+외국인들 1,576명 이상 사망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2023년 10월 7일 사망자들이며, 10월 27일 시작된 가자 지상전이후 사망한 이스라엘군인 376명 포함.
  - 2024.11.19. UNOCHA에 따르면, 가자 지구 전역에서 공중, 육상, 해상에서 이스라엘의 폭격 계속. 2024년 10월 6일부터 40일 이상 북부가자는 이스라엘군이 완전포위 공격, 물과 식량 및 연료 공급 거부당함으로써, 북부주민들이 남쪽으로 더욱 밀려남. 2024년 10월 6일 북부가자 소재 주민 약 40만 명 중, 11월 19일에는 6만 5천명~7만 5천 명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 중부가자, 남부가자 주민들도 심각한 기아 상태에 직면. 가자지구 전체가 인간 생존 조건에 부적합하다. 공공질서와 안전이 붕괴.
  - 2024.07.13.(282일차). 이스라엘이 안전지대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한 지중해안가에 위치한



2024.11.19. UNO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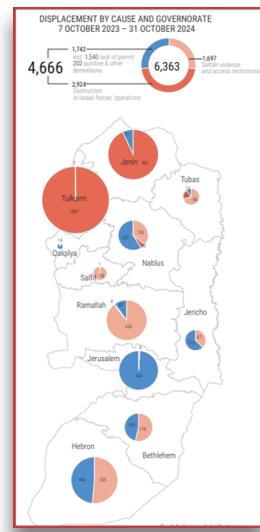
알 마와시 난민 캠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한 141명 사망-> 분노에 찬 알 마와시 피난민 여성은 알자지라 기자에게 “당신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찍고 있나요. 우리는 여기로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 왔다. 누가 우리에 게 관심이 있나요? 나는 폭격받기 위해서 여기로 도망 왔나요? 하나님이 유대인보다 아랍인에게 먼저 복수하기를 바란다.”라고 외침.

- 2023.10.13. 이스라엘 정보부 「정책문서: 가자 민간인에 관한 정책 옵션」 및 2023.10.17. 이스라엘 국가안보 및 시온주의 전략 연구소 보고서, 「가자지구 전체 주민의 이집트 재정착 및 최종 재활 계획: 경제적인 측면」: 하마스 정권 제거 및 가자 민간인들을 이집트 등으로 축출

#### ▷ 서안지구: 동예루살렘345㎢, 서안5,310㎢<sup>2</sup>

- 2024.10.31. UNOCHA에 따르면, 2023.10.07.~2024.10.31. 동예루살렘 및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 742명(제닌193명, 툴카렘182명, 나블루스80명, 헤브론65명, 투バス60명, 라말라58명, 예루살렘43명, 베들레헴24명, 칼킬리야23명, 제리코11명, 살피트3명)이 사망하였고, 이스라엘군이 파괴한 2,924건 중 제닌987건, 툴카렘1,887건이었다. 올해 8월 28일부터 이스라엘군이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제닌과 툴카렘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이곳 기반시설 대부분 파괴됨/ 이스라엘인 23명 사망.
- 2024.08.28.~2024.11.07.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제닌과 툴카렘에서 집중적으로 실행된 ‘Operation Summer Camps’ 작전,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Horror of the Camps’ 작전으로 대응: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무장 활동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 팔레스타인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영토에서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자지구 전쟁의 확장이라고 주장.
- 2024년 8월 28일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2024.11.05.~현재 국방장관)은 서안에서도 가자와 유사한 공격 촉구. “우리는 가자지구의 테러 인프라를 다루는 것처럼 서안 위협을 다루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일시 대피와 필요한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전쟁이며, 우리는 이겨야 한다.”

※ 2018년 6월, 트럼프 정부가 지지하는 이스라엘(하이파)-팔레스타인(제닌)-요르단 철도망-사우디아라비아 철도망-걸프 아랍 국가들을 잇는 철도 건설 계획 보도. 이 철도 건설 계획은 지중해를 페르시아만과 연결, 교역 증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임. 운송 물품들은 하이파 항구에서 배로 유럽으로 운송될 것임-> 새로운 운송로



2024.10.31. UNOCHA

####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2024.07.19,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정책 및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이스라엘 점령정책을 ‘전쟁지역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규정’한 1949년

제4차 제네바협약 및 1907년 ‘국제분쟁에 관한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협약 위반으로 규정 -> 19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과 가자 지역에 대한 57년간의 점령을 불법으로 선언,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 옹호.

## □ 이스라엘 의회 결정

### ▷ 2024.07.17. 팔레스타인국가설립 거부 결의안 통과

2024년 7월 17일, 이스라엘의회는 팔레스타인국가설립 반대 결의안을 찬성 68표, 반대 9표로 통과 “‘요르단 강 서쪽의 단 한 뼘에도 on any piece of land west of the Jordan River’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에 반대. 이스라엘 심장부에 팔레스타인국가의 존재는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실존 위협’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아랍 분쟁을 더욱 확대하고, 전체 역내 불안정성의 원천이 될 것임.”

### ▷ 2024.10.28. UNRWA 활동 금지 및 테러 단체 지정 법안 통과

이스라엘 의회가 ‘이스라엘 영토와 점령지에서 UNRWA 활동 금지’ 법안, 90일 이내에 발효: 92:10로 통과, UNRWA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관리들과 접촉 금지 법안: 89:9로 통과, 점령지에서 UNRWA 등록된 팔레스타인난민 250만 명.

## □ 1기 트럼프 정부 정책

### ▷ 트럼프의 이스라엘 강화 기획

- 2017.12.06. 트럼프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선언. 2018.05.14. 미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
- 2018.08.31. UNRWA 분담금 지급중단 선언: 미국은 UNRWA의 연간 예산 12억 달러 중 1/4이 넘는 \$3억 5천만 달러를 분담해왔음.
- 2018.09.10. 미국무부의 ‘PLO 위싱턴 사무소 폐쇄’ 선언
- 2018.12.31. 미국과 이스라엘 동시에 유네스코 탈퇴.
- 2019.02.01. 미국은 서안과 가자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모든 원조 중단선언: 팔레스타인 보안 대에 연간 6천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 중단. 이 자금을 받은 팔레스타인 보안대는 서안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협력. 팔레스타인 학생들에게 주는 정부장학금 및 원조 프로그램 지원중단.
- 2019.03.25. 트럼프가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주권’ 선언.
- 2019.04.05. Al-Akhbar(베이루트 기반, Pro-Hezbollah, Pro-Bashar al-Assad)와 Arutz Sheva(라 말라 근처 베이트 엘 이스라엘 정착촌 기반, Religious Zionism) 보도: 주변 아랍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 기획(세기의 거래) :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 원천 봉쇄 및 이스라엘 영토 확장; 요르단은 팔레스타인난민으로 등록된 100만 명(요르단에 거주하는 20만 명 포함, 나머지 80만 명의 현재 위치는 보고서에 나오지 않음)에게 요르단 시민권 부여 및 요르단에 영구 정착,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조약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임대한 요르단 영토(Al-Baqoura, Al-Ghamr)를 이스라엘에게 양도할 것.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요르단은 450억 달러 외국 원조와

다양한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 받음; 사우디는 요르단이 이스라엘에게 양도한 위 영토와 비슷한 크기의 사우디-요르단 국경지역 영토를 요르단에게 양도할 것; 유대아와 사마리아를 관리하는 3자 연합 결성: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서안), 이스라엘 서안 정착촌 행정부; 레바논은 레바논 거주 모든 팔레스타인인들, 약 45만 명에게 시민권 부여할 것; 이집트가 세기의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가자지역 근처 시나이반도에 가자 주민 급증을 위한 공업지대 건설하고, 이집트는 가자지구 노동자들이 시나이 북동부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그 대가로 이집트는 650억 달러 상당의 외국원조와 북부 시나이 공업지대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 받음.

▷ 아랍국가들 협력/ PLO 거부

- 2019.04.21.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랍연맹 회의에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에게 트럼프의 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 대신 아랍연맹은 재정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매달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
- 2019.06.25-26. 미국이 주도하여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된 ‘500억 달러 투자 유치 회의’에서 UAE 재무장관 오바이드 알-타이르 “우리는 이 계획을 수용해야 한다.” 사우디 재무장관 무함마드 알 자단은 “리야드는 팔레스타인의 번영을 가져올 경제계획을 지지할 것” 이렇게 트럼프 평화안의 기획 단계부터 UAE와 사우디는 트럼프 평화안에 찬성.
- 2019.06.26. PLO는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영구히 감금시킬 ‘경제적 번영이라는 신기루’를 팔려고 함. 위회의는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성취하고,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장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을 은폐시키기 위한 것”라고 거부 성명.

▷ 2020.01.28 트럼프 평화안, ‘번영을 위한 평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

[번영을 위한 평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수립
  1. 이-팔 양자 직접 합의: ‘번영을 위한 평화’에 기반을 둔 이-팔 평화협정 체결(국제사회 개입 불가)
  2. 이스라엘 안보를 위한 경계 재설정: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으로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돌려줄 의무 없음, 요르단 계곡은 이스라엘의 주권,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은 이스라엘 국가로 통합. 토막난 팔레스타인 영토는 다리, 도로, 터널로 구성된 최첨단 기반시설을 통해 연결됨.
  3. 예루살렘은 분할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임.  
팔레스타인의 수도는 카프르 아까브, 수파트, 아부디스 등 기존 분리장벽의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있어야 함
  4. 난민: 아랍-이스라엘 분쟁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와 유대난민 문제를 창출. 유엔총회결의 194호 적용불가. 유대 난민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수는 거의 같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은 난민 또는 이민 지위와 관련된 모든 청구권의 완전한 종료와 해제.

- 1) 팔레스타인 난민은 이스라엘 국가로 흡수하거나 귀환권 없음. 팔레스타인 난민의 다음 세 가지 선택권 있음 ① 팔레스타인 국가로의 흡수, ② 현재 거주국가로의 통합, ③ 이슬람 협력 기구 회원국들이 수용, 결국 팔레스타인 난민지위는 사라지고, UNWRA는 종료. 난민촌 해체.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팔레스타인 난민 신탁(The Palestinian refugees Trust) 창설.
- 2) 유대난민: 유대 난민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이나 다른 국가들에 영구적으로 이미 정착함. 출신 아랍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 빼앗긴(남겨둔) 재산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유대난민 문제가 해결되어야함. 이스라엘국가는 아랍국가나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유대난민들을 흡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함.
5. 팔레스타인 국가: 비무장 상태로, 보안대를 유지함으로써, 테러리즘과 맞서 싸움
6. 가자: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등 테러 단체의 무장해제, 완전한 비무장화
7. 협상과정에서 이스라엘 국가 및 PLO와 PA는 다음을 지켜야 함
  - 1) 이스라엘은 이 계획에서 이스라엘의 일부로 고려되지 않는 서안 지역에서 새로운 정착촌 건설, 기존 정착촌 확대, 새로운 건설 계획 등을 진행하지 않아야함.
  - 2)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국가의 동의 없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는 모든 시도 중단,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및 기타 모든 재판소에 이스라엘, 미국 및 그 시민들에 대한 모든 계류 중인 사항들을 모두 취소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 것, 인터폴이나 비이스라엘 또는 미국법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는 미국시민에 대항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됨, 이스라엘 감옥에서 복역하는 테러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사당한 테러리스트들의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 즉시 중단

## □ 새로운 경제회랑 중심 관문, 이스라엘

**: 네타냐후 발표: 이 새로운 운송로는 우리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이스라엘은 새로운 관문, 중심 교차점이 될 것**

- ▷ 2023.09.10. G20 정상회의 중,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 건설 MOU체결: 사우디, 미국, EU, 인도, 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서명. IMEC 서명한 8개국은 세계경제의 약 50%, 세계 인구의 40% 차지
- ▷ 2023.09.22. 78차 네타냐후 유엔총회연설-New Middle East: [인도-아라비아 반도- 이스라엘-유럽] 연결 환상적인 계획,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회랑 건설
- ▷ 2024.09.27. 79차 네타냐후 유엔총회 연설- New Order, 밝은 축복의 지도: 희망의 미래/어두운 저주의 지도: 절망적인 미래: 인도양과 지중해 사이, 아시아-유럽 잇는 육로, 철도, 에너지 파이프라인,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 지난 1년 동안, IDF는 테러리스트 4만 명 중 절반 이상 죽이거나 체포, 로켓 무기의 90% 이상을 파괴, 테러 터널 네트워크



의 주요 부분을 제거. 하마스 24개 대대 중 23개 파괴 완료. 전후 가자에서 하마스 역할 거부, 평화 공존 및 가자지구의 지역 민간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 준비가 되어 있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임.

# 트럼프 제2기 행정부와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

안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이번 전쟁의 중동에서의 의미

## 2. 미국의 대중동 정책 평가 (오바마, 제1기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 3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비고	제2기 트럼프 (공화당)	조 바이든 (민주당)
외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방주의 (?)</li><li>선별적 이익 추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교 중심의 다자주의 (우-러 전쟁 발발)</li></ul>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강력한 지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비판적지지 (이-미 관계 악화)</li></ul>
팔레스타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원칙적인 두 국가론 지지</li><li>선경제 후평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두 국가론 강력지지 (가자 전쟁 발발)</li></ul>
이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핵 협상 복원 ×</li><li>이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 or 대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핵 협상 재개 시도 (이란 핵개발 향상) (중동내 이란 억제력 실패)</li></ul>
사우디 및 대 아랍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스라엘-아랍간 관계 개선</li><li>이스라엘-사우디 수교 추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진전된 평화 체제 추구 (아브라함 확장 실패)</li></ul>

## 4.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한 평가

### (1) 비판적 시각

- 국내외 학자 및 언론들은 대부분 네타냐후를 혹화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함.
- 사법 개혁 등으로 민주주의 후퇴, 정착촌 건설 문제, 이스라엘의 우향화로 인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 등을 지적하며 네타냐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 (2) 긍정적 시각

- 1993년 오슬로 체제의 등장으로 좌파 진영의 우세화
- 2001년~현재까지 우파 시대
  - 2000년 캠프데이비드 협상 실패(클린턴, 예후드 바락, 야세르 아라파트)
  - 2001년 제2차 인티파다 발발
  - 2001년 리쿠드당 아리엘 샤론 집권
- 2009년 리쿠드당 네타냐후 재집권 성공: 소위 네타냐후 체제 등장
  - (1) 보수 우경화 심화: 보수 우파의 정치 아젠다 완성  
=> 서안 정착촌 문제/ 서안지구의 합병 (영토 문제 예민) => 아젠다 이슈화 성공
  - (2) 놀라운 경제 성장 (2001년 1인당 GDP 3만달러, 현재는 4만달러), 2011년 민주화 시위 시, 재벌개혁 법안 통과
  - (3). 안보적 측면 성공
    - (a)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관리 성공:  
=> 저강도전략 성공, 제한적인 도발 허용 및 효과적인 대응
    - (b) 2011년 중동의 대혼란기 이스라엘 안보 견인
    - (c) 아브라함 협정(2020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체결  
=> 팔레스타인 문제를 주변화시키는데 성공

### (3) 이번 전쟁에 대한 네타냐후에 대한 평가

- 중동 전쟁의 확장이 되면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연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
- 하마스에 의한 2023년 10/7 사태 이전에는 네타냐후의 국내 여론 지지도가 25%였다. 초기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국내적으로 상당.
- 그러나 지난 1년간 대하마스, 대헤즈볼라, 대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은 상당히 성공적. 그래서 지금은 네타냐후에 대한 국내 지지도가 45%에 육박.
- 이스라엘 전체 여론은 지금의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는 네타냐후가 유일하다

는 인식이 강함.

## 5. 기타 및 향후 전망: 이스라엘이 팔 국가 독립에 대한 본질적인 불신

### 1) 두 국가 해결방식의 실제적인 실현 불가능

- 1993년 오슬로 체제의 실패와 제2차 인티파다의 휴유증 심각
- 동예루살렘의 팔 수도화에 대한 안보의 불신 및 이스라엘 정착촌 철수의 문제
- 평화 좌파 진영의 몰락

### 2)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불신:

- 중동의 국가 건설 성공의 부재
- 팔 국가의 국가 발전 모델은? :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 레바논? or 이스라엘?
- 팔 국가의 민주주의 정착과 성공적인 경제 발전 불가능
- 하마스의 전략은 팔 국가를 제2의 레바논화 시킨다는 것



# 중동정세 전망과 한국의 정책 방향

마영삼 (고려대학교)

## I. 미국 대선 이후의 중동정세 전망

### 1. 트럼프 2기에서의 미국의 전략

- 미국 우선주의- 해외개입 축소 - 인태전략에 집중- 중동문제는 중동국가 손에
- 대이란 강력 압박 – 핵개발 억제, 경제제재 강화 -저항의 측에 대한 이란의 지원 축소
- 이스라엘의 강경정책 지속을 방관
  - 트럼프 당선자는 국무장관 등 주요 보직에 친이스라엘 인사 내정
  - 이스라엘 측도 국방장관, 외교장관 등 강경론자로 교체
- 사우디, UAE 등 GCC국가 세력 강화로 이란에 대한 견제 및 균형
  - 이스라엘-사우디 수교 지원

### 2.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초기 종결

- 헤즈볼라 지휘체계 붕괴, 군사력 대거 파괴
- 레바논 내 수니파/기독교파의 대 헤즈볼라 견제 – 휴전관련 의견 수렴이 비교적 용이
- 이란으로서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휴전을 지지
  - 대미 관계 고려, 헤즈볼라 병력의 재정비 필요, 재정지원의 부담

### 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 난망

-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휴전보다 저강도의 전투 지속 선호
  - 휴전(종전)시 10.7 하마스기습 방지 실패 책임조사 개시 – 개인의 정치적 생명과 연계
-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전 휴전 불가 입장
  - 하마스로서는 게릴라전 형태의 저항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
- 미국으로서는 당분간 이스라엘에 free hand를 허용할 가능성
- 문제는... 인질의 운명에 대한 우려 지속

#### 4. 이란의 핵무기 개발 문제

- 이란 측은 현재까지 신중한 행보
  - 2018 트럼프의 JCPOA 탈퇴 후 우라늄 농축 고도화 --- 그렇지만 60% 선을 넘지 않음
- 국내 정치적으로도 경제제재 해제가 급선무 -- 미국과의 협상 시도 예상
  - 트럼프로서는 강력한 압박과 핵시설 폭격 위협으로 이란의 양보를 유도할 가능성
  - 이란은 JCPOA 복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
-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란은 두 가지 목표(1. 핵무기 개발 2. 경제제재 해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할 것으로 예상

#### 5. 이스라엘-사우디 아라비아 수교 문제

- 트럼프로서는 Abraham Accords 확대 차원에서 동 수교를 적극 추진 예상
  - 트럼프는 업적 과시에 민감 (노벨 평화상?)
- 향후 이스라엘의 대 중동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사우디와의 수교 추진
  - 대 이란 견제, GCC 와의 실질협력 강화 기대
- 사우디로서도 이란 핵개발 저지,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서는 역내안전 및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긴요
  -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등을 위해서도 동 수교에 관심
  - 다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문제 및 Two-State Solution 진전 없이는 수교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 설령 수교가 되지 않더라도, 양국간 비공식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6.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

- 작년 10.7 하마스 기습공격 저지 실패에 따른 국내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끔 – 국민적 지지 회복
-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 미국 대선에서 네타냐후의 지지에 대한 트럼프의 고마운 감정
  - 기본적으로 트럼프 구상과 네타냐후 구상에 공통점이 존재
  - 당분간 네타냐후 의도대로 역내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 네타냐후 팀 - 트럼프 팀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정책 조율이 원활
-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파트너 정당도 네타냐후의 강경정책을 지지
  - 연정 붕괴의 위기는 일단 넘긴 것으로 관측
  - 2026 총선까지 연정 유지 가능성도 거론 – 심지어는 차기 총선 승리 예측도 부상
- 그러나 내부 저항요소를 어떻게 해쳐 나가느냐가 관건
  - 인질문제, 군인 사상자 증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국민 불만 고조
  - 10.7 사태 조사위원회 본격 가동 여부

## II. 한국의 정책 방향

### 1. 종전에 대비한 정책 검토 필요

- 전후 Gaza통치 문제, 평화유지 문제 관련, 아국의 역할에 대해 사전검토 필요
  - Wilson Center 보고서(2024.5)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 제시
  - Gaza에 UN평화유지군 파견하는 경우, 우리의 참여 여부 및 분야 검토 필요  
(남부레바논에는 UNIFIL의 일원으로 동명부대기 이미 참여 중)
- 전후 Gaza지구 및 남부 레바논 지역의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
  - 아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 팔레스타인, 레바논 ODA 확대 필요
  - 아국 기업에는 기회의 창: 대규모 복구 사업 참여 시 경제이익 창출 기대

### 2. 다자간(Multi-lateral) 협력사업 추진 검토

- Abraham협정으로 조성된 이스라엘-GCC국가간 협력사업에 아국기업 참여 검토
- GCC국가(자금)+이스라엘(기술)+한국(생산력)을 연합하는 구상을 구체화

### 3.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과 한국의 안보정책

- 자체 방위력 강화 시급
  - 제공권, 5중 미사일 방어망, 첨단장비, 장병훈련 -- 군사적 우위 확보
  -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안보정책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 강구
- 정보기관의 변신 필요
  - 표적 암살, 빼빼 폭탄 개발 등에 있어 정보기관의 역할 중요성 입증
  - 정치적 중립성: 정보기관 수장은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장기간 직책 유지



#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을 통해 본 이란의 정체성 정치\*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쉬아 이슬람을 국가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음. 구체적으로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의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Velayat-e Faqih)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토대가 되었는데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이 이론은 이슬람 법학자가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강조함. 또한, 이슬람 법학자는 이맘의 은폐기 동안 이맘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호메이니의 이론에 따라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사실상 12대 이맘의 대리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고 실권을 가지고 있음.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소수파로 분류되는 쉬아 이슬람은 억압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란은 이러한 쉬아파의 역사적 경험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전환시켰음.

## 2.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쉬아 이슬람

쉬아 이슬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순교와 저항 정신임. 카르발라 전투(Battle of Karbala)에서 예언자의 손자인 후세인 이븐 알리(Hussein ibn Ali)가 순교한 사건은 쉬아파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이는 불의에 맞서는 저항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러한 쉬아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정체성과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역내에서 이슬람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해 왔음.

이슬람 혁명은 이란과 미국의 관계도 변화시켰음. 구체적으로 이슬람 혁명 이후 발생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은 이란과 미국의 외교 관계를 단절시켰고 미국의 역내 최대 동맹국이었던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가 되었음. 이슬람 혁명의 승리는 또한 전략적 동맹국이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을

\* 본 발표문은 202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총서 (정치) 내용의 일부분임을 밝혀 둔다.

적으로 만들었음. 이란의 혁명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 무슬림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 수호를 강조했기 때문임. 모든 형태의 지배에 대한 거부는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됨.

### 3. 아랍의 봄 이후 강화된 쇄아파 연대

2010년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지형을 흔들어 놓았으며 이란은 이러한 변화를 이용해 쇄아파 연대를 강화하였음. 이란은 튜니지, 이집트와 같은 친미 국가에서 발생한 권위주의 정권 퇴진 운동에 암묵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랍의 봄을 '이슬람의 각성(Islamic Awakening)'이라고 표현하였음. 즉, 이란은 아랍의 봄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연장선으로 보았고 당시 이란 국민이 보여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2010년 아랍의 봄에서 재현된 것으로 이해하였음.

이란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친미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와 이슬람 정당의 권력 장악을 정치적 기회로 인식하였음. 하지만 동일한 상황이 시리아로 확산되자 이란은 역내 동맹을 잊지 않기 위해 아랍의 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하였음.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Bashar al-Assad) 대통령을 지원하였고 역내 혼란이 가중될수록 이란의 존재감도 함께 심화되었음. 구체적으로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이라크의 쇄아파 무장세력을 훈련시킴과 동시에 아사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리아 내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쇄아파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란이 국내 정치에서 내부 단결을 공고히 하고 외교 정책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써 이념적 수사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음. 즉, 이란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쇄아 이슬람을 이용하여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는 수니파가 지배하는 걸프 왕정 국가에 큰 위협이 되었음. 특히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은 쇄아파 연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를 잘 보여줌.

아랍의 봄은 여러 권위주의 정권들을 무너뜨리거나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특히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은 이란의 전략적 목표와 맞물려 쇄아파 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음.

### 4. 결론

아랍의 봄은 이란의 전략적 목표와 맞물려 쇄아파 연대를 더욱 강화시켰음. 이러한 쇄아파 연대 강화는 중동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재편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란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쇄아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만으로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에서의 이란의 영향력을 설명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실정치에서는 국익을 포함하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임. 일례로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수니파 무장정파 하마스(Hamas)도 지원하고 있는데 종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임.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쇄아파 연대 강화는 이란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이며 이란은 쇄아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통해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쇄아 이슬람은 이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프리즘이자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레바논의 국가적 위기

## ： 이스라엘의 침공, 경제위기, 정치 공백, 이주민 문제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주요 타임라인

- 1) 2023년 10월 가자 사태가 발생한 이후 헤즈볼라(Hassan Nasrallah)는 하마스(Hamas)를 지지한다는 명목 하에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와 이어진 접경지역인 셰바 농장(Shebaa Farms), 골란 고원(Golan Heights)에 대한 공격을 했으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은 지속적인 공격을 주고받음.
- 2) 2024년 9월 17일 헤즈볼라 대원 및 관련 인물들이 보유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 폭발 테러: 약 3천 명의 부상자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11월 11일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해당 테러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언급.
- 3) 2024년 9월 27일 헤즈볼라의 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며칠 후 공습으로 사망.
- 4) 2024년 10월 5일 나스랄라의 후계자인 하셈 사피엣딘(Hashem Safieddin)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
- 5) 2024년 10월 8일 이후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 지역을 포함해 레바논 북동부 베카(Bekaa) 지역,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집중적인 군사적 공격을 자행했으며 11월 18일 베이루트 중심부와 가까운 지역까지 공습을 감행.
- 6) 2024년 11월 17일 헤즈볼라 대변인인 무함마드 아피프(Muhammad Afif)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
- 7)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명분: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강제 이주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의 안전 귀환과 안정적 정착.
- 8) 11월 현재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제의하고 있으며, UN결의안 1701호에 근거한 휴전 협정을 요구: 이스라엘은 UNIFIL이 주둔하고 있는 국경 지역의 블루라인(Blue Line) 제거를 요구.
- 9) 미국 특사 아모스 호크슈테인(Amos Hochstein)가 11월 말 중재할 양측간 협의 성공 여부가 향후

레바논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것.

## 2.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거점지 공격으로 인한 이주민 대거 발생

- 1) 10월 기준 약 120만 명이 실향민이 됨: 레바논 인구의 약 1/4이며, 이스라엘 공습으로 마을 전체가 제거되거나 건물이 붕괴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예상되는 한 남부 레바논 지역 주민들은 북부로 대피한 상황이며, 고향 귀환이 불가능한 상황.
- 2) 베카 지역의 경우 시리아 국경과 맞닿아 있어 기존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 레바논 주민들도 시리아로 대피한 경우가 있음: 약 25만 명 정도의 난민 발생.
- 3) 레바논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 발생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확장 시킬 가능성성이 있음.

## 3. 레바논 경제위기 및 정권 공백

- 2) 2019년 가시적으로 불거진 레바논의 경제위기: 지배층의 부정부패, 전 중앙은행장 리야드 살라메 (Riad Salameh)의 장기적인 부정부패로 인한 중앙은행 자금 부족,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2) 2020년 8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로 인해 국가 주요 무역항이 파괴되고 국가 곡식창고의 폭발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 베이루트 항구 인근에 위치한 주요 병원의 물리적 피해로 의료 공백 가속화.
- 3) 2019년 10월 혁명 이후 내각 불안정 및 2022년 11월부터 발생한 정권 공백 지속으로 국가 위기 악화 및 지속.
- 4) 헤즈볼라 지도부 공백으로 인해 레바논 기성 정권 구성의 변화가 예상됨.

## 한국이슬람학회 세션 2

### 취향, 계급, 구별, 혐오에 대한 저항과 해체

장소: 10116호

[ 좌장 ] 윤용수 (부산외국어대학교)

#### ■ Iranian Identity and Ethnic Diversity:

National Unity in the Face of Modern Challenges

(이란의 정체성과 인종의 다양성: 현대 이란이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 국가 단합)

발 표 Motahare Mozafari (부산외국어대학교)

토 론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 ■ 중동지역 이주민에 대한 교사의 수용적 태도를 위한 수학교육의 방향

: 청동기 중동수학사를 중심으로

발 표 박제남 (인하대학교)

토 론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 ■ 레바논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

발 표 김성환 (명지대학교)

토 론 이은경 (선문대학교)

#### ■ 이슬람과 동성애

발 표 이지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강원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Iranian Identity and Ethnic Diversity: National Unity in the Face of Modern Challenges

Motahare Mozafari (부산외국어대학교)

## Introduction

Iran is a country with diverse ethnic groups and a history of various religions. Despite limited participation in power and the dominance of an official religion, ethnic groups in Iran have generally upheld their Iranian identity rather than seeking separation. Historical examples, such as the Sunni Afghan challenge to the Safavid monarchy, reflect the desire for political influence rather than anti-Iranian sentiment. Similarly, early 20th-century movements by figures like Sheikh Khazal and Sheikh Mohammad Khiabani sought national goals within the Iranian framework, not separatism. However, the lack of recognition of ethnic diversity has gradually fueled ethnic and religious discontent.

In recent decades, various ideologies have criticized Iran's national pride and historical achievements, leading some to distance themselves from an Iranian identity. For some young Kurds, Turks, and Arabs, this shift has fostered stronger ethnic nationalism, partly influenced by the independence of nearby regions such as Azerbaijan and Turkmenistan. However, this trend does not mean that all proponents of ethnic identity reject Iranian nationality; historically, Iranians have shown strong national loyalty while taking pride in their ethnic heritage. Figures like the poet Mohammad-Hossein Shahriar embody this dual sense of Iranian and ethnic identity.

Today, while there are still ethnic identity movements within Iran's framework, a new trend has emerged that openly opposes Iran's cultural and historical legacy. These anti-Iranian nationalists promote terms like "Kurdish nation" or "Azerbaijani nation" without historical basis, aiming to undermine Iran's unified identity. This rhetoric has not achieved social or political gains for Iranian ethnic groups but has instead contributed to conflicts that disproportionately affect these groups.

## Conceptual Framework

Iranian identity reflects the connection of Iran's people to their land, history, and shared cultural values such as customs, myths, and religious beliefs. Concepts like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imply a collective sense of belonging based on geography, culture, and a defined political system. This collective identity has been present since at least the Sassanian era, when Iranians recognized themselves as part of "Iranshahr" (Iranland), unified by customs, myths, and a shared sense of homeland defense.

While the cultural aspect of Iranian identity continued post-Sassanian in literature and art, its political aspect was solidified during the Safavid era in the 16th century. Later, in the 19th century, nationalist ideas centered on a nation-state blended with traditional concepts of Iranian identity, leading to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of 1906. This revolution redefined Iranian national identity on the foundation of shared heritage, promoting the term "nation" over "subjects" and underscor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its people.

Iranian identity is inclusive, embracing diversity without conflicting with individual ethnic identities. It transcends ethnicity, race, language, and religion, shaped collectively by various ethnicities and maintaining a unity in diversity. The Safavid and Constitutional periods highlight this trans-ethnic nature, where even non-Shia leaders affirmed their Iranian identity, and diverse ethnic groups, including non-Muslims, participated in nation-building efforts:

- Iranian identity predates modern nation-state identities and is deeply rooted in history, challenging the claim that "Iran" as a political term emerged only in modern times.
- Iranian identity is singular but inclusive, allowing for ethnic diversity without losing unity.
- Modern Iranian national identity, as redefined in the Constitutional era, is trans-ethnic, non-racial, and includes all Iranian groups.
- Recognizing this collective identity does not dismiss the challenges faced by some ethnic groups; rather, it seeks to strengthen national unity by addressing these realities.

## The Trends of Ethnic Nationalism in Iran and Their Foundations

Throughout history, ethnic interests among Iranian peoples have existed within the framework of Iran and have not had an "anti-Iranian" characteristic. In fact, each ethnic group has tried to present itself as more Iranian than the others, and Kurds, Azerbaijanis, and Khuzestani Arabs never considered themselves non-Iranian. However, in recent years, with the emergence of certain preconditions, ethnic

nationalism has shifted towards anti-Iranian ideologies. Anti-Iranian ethnic nationalism has four main propagandistic axes, which are addressed in this section, and their objectives are examined.

## Denial of Iranian Identity

The most important issue that Iranian propaganda focuses on is the denial of Iranian identity. In this framework,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ran is rejected, and efforts are made to present Iran as a concept created during the Reza Shah Pahlavi era. For instance,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request made by the Iranian government to include a Latin translation of the word “Iran” in 1314 (Persian calendar), with attempts to present this as a change of the country’s name (Ibid). Meanwhile, Pashtun nationalists outside Iran claim that before the Reza Shah era, their neighboring country was called “Fars,” and it was only later renamed Iran (Sistani, 1384). Iranian Pan-Turkists make more peculiar claims, arguing that due to the semi-centralized and traditional structure of Iranian governments like the Safavids and Qajars, Iran never had a specific name, but was instead known as “Mamalek Mahruba” (the protected lands), with the name of the ruling dynasty, such as Safavid or Qajar, added to it.

The aim of these claims is to deny the existence of a country with a cultural, civil, and political identity. By doing so, they attempt to turn Iran into a federative country composed of different nations, stripping away the rights of the nations that once formed the federative state. According to such arguments, Iranian ethnic groups are reduced to “nations of the fallen federative state,” leading to their demands being shifted from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claims to non-legal, secessionist desires. This not only justifies the repression of ethnic groups but also creates the potential for violence, threatening internal peace and security in Iran.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claims made by these separatists, it is important to briefly examine the views of those who argue for the ancient identity of Iran and its historical continuity. According to these individuals, Iranian identity dates back to ancient times, even to the era of legends. In the Shahnameh of Ferdowsi,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ultural document of Iranian civilization, both in its mythical and historical parts, Iran is mentioned as a country, and its people are referred to as Iranians. For instance, the Shahnameh refers to all people residing in Iran as Iranians.

Several instances from the Shahnameh that demonstrate the ancient concept of Iranian identity include references to Iran as a political entity, such as the reign of Zahhak and the election of Iraj as king, where terms like “Ianzamin” and “Iranshahr” are used. The text further elaborates on these references, showing how Iranian identity is described in the context of both myth and history.

The preservation of Iranian identity, especially after the Arab conquest and the advent of Islam,

remained strong, especially during the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of the Sho'ubiyyah. The Iranian nationalist sentiment grew significantly, influencing major political movements and uprisings, such as the ones led by Abu Muslim Khurasani and Babak Khorramdin. These movements contributed to the strengthening of Iranian identity within the Islamic world and sought to restore the lost rights of Iranians.

## **Devaluing the Ancient Civilization and Culture of Iran**

The attempt to devalue the ancient civilization and culture of Iran is another key point emphasized by Iran's detractors. The main foundation of such efforts lies in labeling Iran's history as fabricated, through the denial of historical accounts and writings left by historians, as well as claims of the falsehood of Iranian inscriptions and ancient artifacts. Such claims lack any documented evidence, and therefore, can only be seen as an implicit admission of the grandeur of what is narrated by historical records from Iran's past.

## **The Domination of the Persian Ethnicity**

A key claim of Iranian ethnonationalists is the alleged dominance of the Persian ethnicity over Iran throughout history, especially during the Pahlavi era. However, Iran's power structure has shifted over time, with different ethnic groups ruling at different periods, including the Medes, Persians, Parthians, and notably the Turks after the Islamic period. Even during the Pahlavi period, when accusations of Persian dominance are most prominent, the Turks held significant political power. For example, many prime ministers, such as Mohammad Saeed Maraghei and Mohsen Sadr al-Ashraf, were of Azerbaijani origin, and prominent Azerbaijani figures held high-ranking positions in the military, parliament, and government.

The royal family itself had Azerbaijani roots, as the mother of Mohammad Reza Shah and his wife were both of Caucasian descent, and many Azerbaijani figures were influential in the creation of the centralized Pahlavi government. Even after the Islamic Revolution, Azerbaijanis continued to hold key positions, including the Supreme Leader and the Speaker of the Assembly of Experts.

The claim that the Islamic Republic is Persian-centric, based on the official status of the Persian language, ignores the historical context. Persian has been the language of the Iranian court and government since the Turkic rule of Sultan Mahmud of Ghazni and throughout the Safavid period.

The argument that the Persian language equates to a Persian ethnicity is flawed, as Persian speakers belong to various ethnic groups, including Azeris, Kurds, and others, and cannot be classified as a single “Persian” ethnicity.

## Claims of the Conquest of Provinces During the Reza Shah Pahlavi Era

Another point of propaganda among some Iranian ethnonationalists, especially separatists from Khuzestan and Baluchistan, is the claim that regions such as Baluchistan and Khuzestan were “conquered” during the Reza Shah Pahlavi era. This claim is inconsistent with historical facts. Baluchistan has long been considered part of Iran, and during the reign of Nasser al-Din Shah, the central government was able to exercise direct control over Baluchistan, including parts of the region such as Gwadar, which is now in Pakistan. During this period, Iran’s borders in Baluchistan were clearly defined. From Nasser al-Din Shah’s reign, when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Ibrahim Khan Baluch (known as Sa’ad al-Dawlah), fully asserted control over Baluchistan, the region’s sovereignty remained largely intact, with no significant challenges to this control. Furthermore, throughout much of its history, Baluchistan was considered a province within various Iranian dynasties, such as during the Safavid period when the central government appointed rulers for the Makran region (southern Baluchistan).

The situation in Khuzestan has been similar to Baluchistan. Khuzestan has always been regarded as Iranian territory and was part of the Safavid, Afsharid, and Qajar empires. Under Nasser al-Din Shah, significant development projects took place in Ahvaz, and the ownership of Khorramshahr (previously known as Muhammarah) was firmly established. Additionally, during this period, development projects were also carried out in Khorramshahr.

The Khuzestan revolt led by Sheikh Khaz'al in the 1920s was not separatist in nature; rather, as acknowledged by those involved in the armed uprising, Sheikh Khaz'al’s aim was to defend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in Iran.

Considering the above,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claims of Iranian ethnonationalists based on historical documents and social realities. However, it should not be assumed that there are no ethnic grievances in Iran. Therefore, the next section will address the shortcomings related to ethnic issues.

## Ethnic Issues and Discontent in Iran

Throughout Iran's history, few national governments have ensured full participation of all people, or at least the majority, in power. As a result, marginalized groups, especially those with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from the ruling dynasty, have often joined the ranks of the discontented. This, along with the lack of attention to the identities of various ethnic groups and the centralization of power since the Pahlavi era, has been a source of hardship for many ethnic communities in Iran.

In the past 65 years, ethnic grievances have been exploited by external forces, posing threats to Iran's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Currently, there are groups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attempting to use certain ethnic demands to weaken Iran's national unity. Examining the role of these external actors in instrumentalizing Iranian ethnonationalists requires an independent discuss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For further understanding of this topic, Mr. Mohammad Sadegh Jokar's study titled "U.S. Foreign Policy and the Expansion of Ethnic Separatism in Iran" may provide valuable insights.

## Dynastic Structure of Political Power in Iran

Throughout Iran's history, power has been held by a ruling dynasty, with large families cooperating with the monarchy. Iran's governments have been semi-centralized, allowing local families to rule in various regions. During the Safavid era, local families such as the Kiani in Sistan, Khazimeh in Qaenat, and Ardalan in Kurdistan governed under the central Safavid monarchy but did not participate in the central power structure.

Under Nader Shah Afshar, efforts were made to integrate various ethnic groups into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Shia Qizilbash and Sunni Afghans. During the Qajar era, the central power was held by Turkic peoples and central Iranian families, while local families like the Serbandi, Khazimeh, Bani Kaab, and Ardalan continued to govern regions with support from Tehran.

Local leaders from other ethnic groups, including Baloch, Arabs, and Sistanis, were granted titles and power, with ties to the royal family.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increased national participation in governance, but centralization during the Pahlavi era and its persistence in the Islamic Republic has contributed to some ethnic discontent.

## Neglect of Ethnic Identities in Iran

Alongside the overarching Iranian national identity shared by all ethnic groups, each group has its own unique identity. In Iran, unlike countries like Turkey, ethnic identities have not been suppressed. Iranian governments have never denied the existence of distinct ethnic groups like Turks, Arabs, Kurds, Baluchis, and Turkmens. However, debates, such as those over Turkish and Azerbaijani identity or Arab and Arabic-speaking identities, have never been officially recognized.

Despite this, efforts by cross-ethnic elites to acknowledge the identities of Iran's ethnic groups have been lacking. The distinct aspects of Kurdish and Baluchi identities remain largely unknown, and there has been insufficient progress in addressing fundamental rights for ethnic groups,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ir native languages.

## Centralization during the Pahlavi Era and After

Before the Pahlavi dynasty (1304 SH), political power was decentralized across Iran, with local centers of power like Tabriz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the political destiny of the country. For instance, Tabriz was both the crown prince's seat and a center of resistance against dictatorship and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Similarly, the coup of March 1921 faced strong resistance in Mashhad and Shiraz. Economic power was also decentralized, with major economic centers in Tabriz and Mashhad.

However, with Reza Shah Pahlavi's ris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became concentrated in Tehran. This led to uneven development, with migration to Tehran and growing disparity between its development and that of other cities, fueling ethnic dissatisfaction. One of the reasons for the Democratic Party of Azerbaijan's discontent was Tabriz's lagging development compared to Tehran. The development gap was even more pronounced in regions like Kurdistan and Sistan-Baluchestan.

The significant underdevelopment in areas like Kurdistan, along with low development indicators and budgets, highlighted the economic and social disparity compared to central provinces like Tehran and Isfahan. This inequality fostered a sense of injustice among the people in peripheral regions, including the Lurs, Kurds, Khuzestanis (Arabs and Lurs), Baluchis, Sistanis, Qaenatis, and Hormozganis. Ethnic groups whose religion or language differed from the official state norms felt the inequality even more.

Thus, the central government must address this inequality through policies like positive discrimination to create a sense of fairness, focusing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cultural identity recognition for marginalized groups, such as the Kurds and Baluchis.

## Conclusion

Iranian identity is ancient, shaped by diverse cultures and with both civilizational and political dimensions. Iranian civilization is marked by unity amid diversity, created by various ethnic groups, including Persians, Arabs, Turks, Mongols, and others. From historical figures like Cyrus the Great to Dr. Mohammad Mossadegh, all have contributed to Iran's development. Iranian civilization stretches beyond Iran to include countries like Afghanistan, Tajikistan, Azerbaijan, and parts of Iraq and Turkey.

The political geography of Iran, established through the sacrifices of various ethnicities, is inclusive. To ensure fairness and justice,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essential:

- **Acceptance of Cultural Diversity:** Iranian identity is not based on ethnicity or language, so recognizing cultural diversity is vital. Debates about ethnic origins should remain academic and not influence political discourse to avoid racism.
- **Strengthening Unified Iranian Culture:** Despite the many ethnicities in Iran, all share a common culture, celebrating Nowruz and using Persian. Iran should be appreciated for all its people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s, not just for Achaemenid monuments.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Ethnicities:** No ethnic group is confined to one region. Kurds, Arabs, Baluchis, and Turks are spread across the country, highlighting the shared ownership of Iran's land by all ethnic groups.
- **Inclusive Definition of Iranian Identity:** Iranian nationality should encompass all people living within Iran's borders, regardless of their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ensuring equal opportunities for all.
- **Following Great Iranian Thinkers:** Figures like Ferdowsi have consistently promoted unity among Iranians of all ethnicities, honoring their shared identity as guardians of Iran. His reverence for all Iranians, regardless of ancestry, exemplifies the strength of Iran's collective identity.

This inclusive approach fosters unity and progress, allowing Iran to thrive as a diverse yet united nation.

## References

- Adamiat, Fereydoun (1977); The Idea of Progress and the Rule of Law in the Era; Tehran: Khwarazmi.
- Ahmadi, Hamid & Bayat, Kaveh (2005); "The True Origin of the Azerbaijan Democratic Party," Goftogo Quarterly No. 44, pp. 170-195.
- E'temad al-Saltaneh, Mohammad Hassan Khan (1979); Al-Mathar wa al-Athar; Tehran: Sanayi.
- Almasi, Najad Ali (2003); International Private Law; Tehran: Mizan.
- Entezar, Masoud (2007); "The Azerbaijani Issue and Intensified Satellite Combat in Iran," Islamic Baybak, 16/6/2007. Available at [www.baybak.com](http://www.baybak.com).
- Beren, Rahr (1978); The State System in the Safavid Period, translated by Keykavous Jahandari; Tehran: Translation and Publishing Institute.
- Browne, Edward (1950); History of Iranian Literature; Tehran: Javidan.
- Bahmani Qajar, Mohammad Ali (2002); "The Reflection of the Pishavari Rebellion in Turkish Press," Foreign Relations History Quarterly No. 12, pp. 120-150.
- Bahmani Qajar, Mohammad Ali (2006); Iran and Afghanistan: From Unity to Defining Political Boundaries; Tehr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rchives and Diplomatic History Center.
- Bayat, Kaveh (2004); "Kurds and Kurdistan: A Dialogue," Goftogo Quarterly No. 40, pp. 3-7.
- Bayat, Kaveh (2005); "Right and Wrong in Contemporary Ethnic Issues in Iran," Goftogo Quarterly No. 43, pp. 7-21.
- Tajbakhsh, Ahmad (2004); History of the Safavid Period; Shiraz: Navid.
- Thaqafi, Morad (2005); "Essays on Governance: A Re-examination of the Political Efforts of Iranian Elites in the Qajar Era," Goftogo Quarterly No. 44, pp. 45-60.
- Jafari Veldani, Asghar (1988); A Historical Review of Iran-Iraq Border Disputes; Tehran: Office of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tudies.
- Jokar, Mohammad Sadegh (2007); Iranian Identity and Nationality in the Context of History; Available at [www.rooznamak.bloyfa.com](http://www.rooznamak.bloyfa.com), 3/10/2007.
- Jokar, Mohammad Sadegh (2007); Analysis of U.S. Foreign Policy and the Expansion of Ethnic Separatism in Iran; Available at [www.rooznamak.bloyfa.com](http://www.rooznamak.bloyfa.com), 17/11/2007.
- Qajar, Jalal al-Din Mirza (1976); Khosrowan Letters; Tehran: Social Services Organization.
- Churchill, George P. (1990); Culture of Qajar Figures, translated by Gholamhossein Mirza Saleh; Tehran: Zarineh.
- Hojati Ashrafi, Gholamreza (1986); Collection of Constitutional and Civil Laws; Tehran: Ganj Danesh.
- Khazali, Mohammad (1974); Governance in the Iranian Empire (First Series of Lectures on Iranian Governance Methods); Tehran: Ministry of Culture and Art, Writing Department.



# 중동지역 이주민에 대한 교사의 수용적 태도를 위한 수학교육의 방향 : 청동기 중동수학사를 중심으로

박제남 (인하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 우리는 중동지역 이주배경 학생 지도에서 요구되는 수학 교사의 전문성을 추상적인 다문화교육에서 찾기보다는 초·중등 수학 교과에 내재한 기축시대(axial age) 이론을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동지역 수학문화의 깊은 이해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주 학생뿐만이 아니라 국내 학생들이 국제적 소양(international mindedness)을 갖추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유럽인들만이 수학 문화에서 창조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축시대 이론이 수학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내재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 없이 연구하고 학생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주제어]** 이주배경 학생(immigrant students), 중동 수학문화(middle east mathematical culture), 기축시대(axial age), 수학교육(mathematics education), 국제적 소양(international mindedness)

## 1. 도입

수학과 과학은 그리스인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흔히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 초중등 수학·과학교육에 규준으로 되어 왔고, 주요 수학·과학이론은 고대 그리스나 유럽인들의 독창적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Platon(429-347 B.C.E.)<sup>1)</sup>은 이집트 수학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시했다. Aristoteles는 “수학은 이집트에 탄생한 것”이라고 말하며, Herodotus는 그리스가 이집트로부터 기하학을 배웠다고 선언한다.<sup>2)</sup> 이와

1) 기원전 390년경에 이집트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에우독소스와 함께 이집트 지혜의 깊은 찬미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집트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이집트 사제로부터 배운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참고. W. Davis, *Plato on Egyptian Art*,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65 (1979), 121-127, p.122. 플라톤의 대화록 『파이드로스』에서 수학의 근원이 이집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한다. 플라톤, (조대호 옮김). *파이드로스*, 문예출판사 2011, 274d.

같은 고대 전승은 흥미는 있지만 조작된 것으로 1960년까지 꾸준히 주장되었다.<sup>3)</sup> 이암블리코스 (Iamblichus, 250-330)는 피타고라스가 22년 동안 이집트 신전에 머무르면서 천문학, 기하학 등을 수학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sup> 이에 대하여 1730년대에 W. Warburton의 동방의 고대성에 대한 공격에서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에서 수학했다는 고대 전승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피타고라스가 21년 동안 이집트에서 수학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일반 원리를 설계했다고 주장하며 이집트인이 가설을 세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sup>5)</sup> 이와 같은 주장은 현재 규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수학에 논리체계를 강조함으로써 수학이 고대 이집트나 고바빌로니아가 아닌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결론짓는다.

과학의 기원 역시 고대 이집트나 고바빌로니아가 아닌 고대 그리스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초 Martin Bernal과 Robert Palter의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sup>6)</sup> M. Clagett은 과학을 “자연현상에 대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이해, 기술, 또는 설명”으로 말하면서 “그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 특히, 논리와 수학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정의하에서 사물의 원인에 대한 탐구가 Thales<sup>7)</sup>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며 특히, Anaximander와 Anaximenes는 그리스와 비그리스의 초기 사상과 신념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들의 사색은 과거와 확연히 단절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처럼, 근대 유럽의 ‘과학’에 기반한 과학의 정의는 최초의 과학자를 그리스로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앙드레 보나르처럼 “그리스에서 막 태동하는 과학은 보기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훨씬 많이 닮았다.”라는 주장이 가능하다.<sup>8)</sup>

본 논문은 도입을 포함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에우독소스, 아르키메데스, 피타고라스, 뉴턴과 관련된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수학과 천문학 가치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기축시대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두 학자 탈레스와 피타고라스의 업적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플라톤의 대화록 《메논》에서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의 산술적, 기하적 대화를 이집트에서 널리 사용된 반복 테스트법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본 논의에서는 메논의 역설, 상기론, 그리고 소크라테

2) 사제들에 따르면 왕은 또 국토를 나누어 전 아이굽토스인들에게 같은 크기의 네모난 땅을 주고 해마다 소작료를 받아 세수를 충당했다. 받은 땅의 일부가 강물에 떠내려갔을 경우 당사자는 왕을 찾아가 신고했다. 그러면 왕이 조사관들을 파견해 할당된 땅이 얼마나 줄었는지 다시 측량하게 하여 땅이 준 만큼 소작료를 줄여주었다. 내 생각에, 그런 연유로 기하학이 창안되어 헬라스로 수입된 것 같다. 해시계와 해시계의 바늘과 하루를 12부분으로 나누는 지식은 헤라스인들이 바빌론인들에게 배웠기에 하는 말이다. Herodotos, (천병희 옮김), 역사, 도서출판 숲 2012, Book II, 109.

3) M. Bernal, (오흥식 옮김). 블랙 아테나 제1권, 소나무 2011, p.613.

4) 헤로도토스 또한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에 머물렀다고 쓰고 있다. Herodotos, o. c. (n.2), Book II, 81. 이암블리코스에 따르면, 기원전 525년 아케메데스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프삼티크 3세)를 차지한 후, 이집트에 체류 중이던 피타고라스는 캄비세스의 군대에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압송된다. 피타고라스가 바빌론에서 머문 12년은 주로 다리우스 1세가 다스리던 시기였다. 그는 수론, 음악, 수리과학을 배워 지식이 최고점에 도달한 56세에 사모스로 돌아가 학파를 설립한다. Iamblichus. (tr. & no, J. Dillon and J. Hershbell), On the Pythagorean Way of Lif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1, p.39, 45.

5) Bernal. o. c. (n. 3), p.289.

6) 참고. M. Bernal, (오흥식 옮김). 블랙 아테나의 반론, 소나무 2017, 제10장; 제11장 참고.

7) 탈레스는 이집트를 방문하여 거기서 이집트 수학과 칼데아 천문학을 접했다. H. Kitto, (김진경 역), 그리스 문화사, 탐구당, 2004, p.313.

8) G. E. R. Lloyd, Early Greek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1. A. Bonnard, (양영란 옮김), 그리스인 이야기 2, 책과함께 2011, p.108.

스와 노예 소년의 대화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가 보다는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의 산술·기하적 배경에 초점을 두었다. 끝으로 우리는 유럽 수학문화의 오만을 줄이기 위하여 교사들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그 고리를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과의 대화에서 찾고자 하였다.

## 2. 고대 중동 수학문화의 가치 추구

우리가 고대 이집트 수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Aahmes Papyrus, Moscow Mathematical Papyrus(MMP), Kahun Papyrus, Reisner Papyrus, Berlin Papyrus, Egyptian Mathematical Leather Roll 정도로 들 수 있다.<sup>9)</sup> 특히, Aahmes Papyrus와 MMP는 고대 이집트 중왕조(c. 2119-1794 B.C.E.)에서 사용된 수학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고대 이집트 수학의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들 파피루스가 높은 수준의 수학이 아니라 대부분 수습 서기를 위한 교육용 교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 이집트 사제들은 고급 수학을 비밀에 부치는 경향이 있어 복사본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수학 파피루스의 발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sup>10)</sup> Aahmes Papyrus와 MMP는 원의 넓이와 둘레를 각각 다룬다. 특히 MMP 10번 문제는 1930년 W. Struve, 1931년 T. Peet 이후 반구의 겉넓이 또는 반원기둥의 겉넓이로 서로 다르게 해석됐는데 최근 2010년과 2011년에 L. Cooper에 의하여 반원기둥의 겉넓이로 강하게 주장되었다.<sup>11)</sup> 따라서 MMP 10번 문제는 고대 이집트의 원주를 구하는 문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때, 원의 넓이와 원주를 구하는 데 사용된 원주율은 3.16으로 동일하게 정교한 값이 사용되고 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에 정교한 수학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많은 논란이 돼 왔다.<sup>12)</sup> 특히, 쿠푸 왕의 대피라미드에 황금비와 원주율이 내재하고 있다는 1883년 W. Petrie의 주장<sup>13)</sup>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현재는 피라미드 옆면과 밑면이 만드는 황금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최근 제출한 논문에서 황금비의 존재와 원주율의 존재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닌 종속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sup>14)</sup>

우리는 본 장에서 이집트의 정교한 수학과 그리스로의 영향의 가능성은 우리나라 중등수학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에우독소스, 아르키메데스, 피타고拉斯를 통하여 제기하려 한다. 또한, 참고로 바빌론에

9) H. Butler, *Egyptian Pyramid Geometry*, Benben Publication 1998, p.52.

10) 참고. Bernal, o. c. (n. 6), p.357; 387. Lauer의 주장을 Bernal<sup>10)</sup> 인용한다.

11) L. Cooper, A New Interpretation of Problem 10 of the Moscow Mathematical Papyrus, *Historia Mathematica* 37 (2010), 11-27; L. Cooper, Did Egyptian scribes have an algorithmic means for determining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Historia Mathematica* 38 (2011), 455-484; R. Gillings, *Mathematics in the Time of the Pharaohs*, The MIT Press 1972, pp.194-201.

12) C. Beard는 “실용 기하학의 이집트 거장들은 이러한 관계들에 관심을 두었을 것이다.”로 그 가능성을 표현한다. 참고. C. Beard, The Fibonacci Drawing Board Design of the Great Pyramid of Gizeh, *The Fibonacci Quarterly* 6 (1968), 66-68. p.66.

13) W. Petrie, *The Pyramids and Temples of Gizeh*, Histories & Mysteries of Man Ltd 1883.; W. Petrie, *A History of Egypt*, vol. 1, Elibron Classics 1885, 39.

14) J. Park, New Perspective of Petrie's Pi-Theory of the Khufu Pyramid, submitted

산길라의 천문학을 통하여 뉴턴의 미적분 역사가 왜 다시 쓰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1) 에우독소스(Eudoxus, 408-355 B.C.E.)와 MMP 14번

아르키메데스는 피라미드의 부피 공식<sup>15)</sup>을 에우독소스가 처음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6)</sup> 그러나 피라미드의 부피공식은 MMP 14번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 피라미드의 부피를 알 때, 피라미드 대 (truncated pyramid)의 부피<sup>17)</sup>를 구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는 고대 이집트 수학이 그리스에 영향을 끼쳤다는 ‘1차사료’에 의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에우독소스는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플라톤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사제들로부터 천문학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8)</sup> 만일 MMP가 발견되지 못했다면 피라미드의 부피공식은 아르키메데스의 주장으로 온전히 고대 그리스의 업적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에우독소스가 이집트의 지혜 없이 독립적으로 공식을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정황에서 본다면 에우독소스가 피라미드 부피공식을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전파한 최초의 그리스인일 수도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경쟁적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 구조에 근거하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300년경, ‘황금비<sup>19)</sup>의 도입’과 ‘다각형의 정사각형화’로 각각 알려진, 유클리드의 *The Elements*, Book II, Proposition 11과 Proposition 14<sup>20)</sup>를 이집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sup>21)</sup>

## 2) 아르키메데스(Archimede, 287-212 B.C.E.)와 Aahmes Papyrus 48번

Aahmes Papyrus는 고대 이집트 중왕조(c. 2119-1794 B.C.E.) 때, 사용하던 수학을 힉소스 왕조 아포피스(Apophis) 33년에 서기인 Aahmes가 87개의 문제로 저술한 것이다. 문제 48번은 원의 넓이를 외접하는 정사각형에서 시작하여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8각형으로 원의 넓이에 접근한다. 이때, 근삿값  $\sqrt{63} \approx 8$ 을 사용하여 지름이 9인 원의 넓이를 64로 구한다. 따라서 이집트 원주율은  $\pi_{Egypt} = 3.16$ 이

15)  $V = (1/3) a^2 h$  (여기서  $a$ 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h$ 는 높이).

16) Diop은 Paul Ver Eecke (1960)의 주장을 인용한다. C. A. Diop, Civilization or Barbarism, Lawrence Hill Books 1991, p.237, n. 5.

17)  $V = (1/3) (a^2 + ab + b^2) h$  (여기서  $b$ 는 윗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18) Diop은 Strabo (58 B.C.E-25 A.D.E.)의 주장을 이용하여 플라톤과 에우독소스가 이집트 헬리오플리스에서 13년을 체류했다고 주장한다. Diop, o. c. (n. 16), p.345. M. Bernal은 de Santillana의 주장을 인용한다. Bernal, o. c. (n. 6), p.385.

19) 플라톤의 대화록 《티마이오스》 32a-b를 현대적 수식으로 표현하면  $x : 1 = 1 : x - 1$ 이고, 따라서  $x^2 - x - 1 = 0$ ,  $x = (\sqrt{5} + 1)/2$ 이다. 고대 그리스 내에서는 플라톤이 황금비를 처음 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Bretschneider(1870)가 주장한 내용을 T. Heath는 인용한다. T. Heath, A History of Greek Mathematics, vol 1, Dover 1981, p.324.

20) 유클리드는 소위 ‘황금비’를 ‘the extreme and mean ratio’로 정의한다. 영어 ‘golden ratio’는 1898년 G. Crystal이 그의 저서 *Introduction to Algebra*에서 처음 사용한다. Book II, Proposition 11: To cut a straight line so that the rectangle contained by the whole and one of the segments is equal to the square on the remaining segment. Book II, Proposition 14: To construct a square equal to a given rectilineal figure.

21)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Great Pyramid of Khufu and Euclid’s ‘The Elements’” 를 AFMA 15차 콘퍼런스(2024. 12. 8)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22) 한편, 기원전 25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아르키메데스는 내접·외접 정육각형에서 12, 24, 48, 그리고 정96각형에 이르러 원주와 지름의 비  $C/d$ 를 부등식  $3\frac{10}{71} < C/d < 3\frac{1}{7}$ 로 구한다. 여기서 원주와 지름의 비가 원과 관계없이 상수인지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으며<sup>23)</sup> 현재,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원주율을  $3\frac{1}{7}$  ( $=3.14$ )로 정의한다. 아르키메데스 또한 단계가 바뀔 때, 예를 들어, 육각형에서 팔각형으로 넘어갈 때, 근삿값  $\frac{265}{153} < \sqrt{3} < \frac{1351}{780}$  등을 사용한다. C. A. Diop은 아르키메데스가 원주율 관련 논문에서 고대 이집트의 원주율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의 정직성을 지적한다.<sup>24)</sup> 이에 대하여 R. Palter는 Diop이 아르키메데스의 내용 전개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sup>25)</sup>

### 3) 피타고라스와 고바빌로니아 점토판 Plimpton 322

우리나라 수학교과에서는 직각삼각형의 크기, 예를 들면, (3, 4, 5)를 소위 ‘피타고라스 수’로 소개한다. 피타고라스학파는 기하학을 정수와 그들의 ‘합리적’ 비율에 대한 이론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 (3, 4, 5)는 합리적 비율의 빗변 5를 가지고 있다. 피타고라스에 속하는 일반적인 식은  $(2n+1, 2n(n+1), 2n(2n+1)+1)$ 이다. 여기서 (8, 15, 17)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는 표현되지 못한다. 한편, 플라톤은  $(2n, n^2-1, n^2+1)$ 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sup>26)</sup> 따라서 K. Popper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적인 공식은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27)</sup> 이와 같은 피타고라스 교단의 기하학을 산술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하는데, 이탈리아 남부에서 출토되던 십이면체 황철석의 한 면인 정오각형으로부터 대각선과 변이 만드는 무리수(incommensurability)  $(1 + \sqrt{5})/2$ 를 Hippasus<sup>28)</sup>가 발견함으로써 피타고라스 교단이 기원전 400년경에 붕괴했기 때문이다.<sup>29)</sup>

피타고라스 짹은 고바빌로니아(2000-1600 B.C.E.)에서 광범위하게 구해졌다. 점토판 Plimpton 322에는 15개의 피타고라스 짹이 실려 있다. 매우 큰 수, 예를 들면 (4961, 6480, 8161), (12709, 13500, 18541)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짹들을 원과 직선으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풀이로부터

22) 참고. 박제남, 고대 이집트, 고바빌로니아, 고대 그리스 수학에 나타난 원주율 논쟁,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33(4) (2020), 223-236, pp.225-226.

23) 외접하는 도형과 내접하는 도형으로 원넓이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의 직관은 잘못된 것으로 그가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 F. Lima, and P. Jordão, Why Is It That the Ratio of Any Circle's Circumference to Its Diameter Is a Constant? *The College Mathematics Journal* 53(3) (2022), 171-182.

24) Diop, o. c. (n. 16), p.243.

25) R. Palter, Black Athena, Afro-Centrism, and the History of Science, *Hist. Sci.* 31 (1993), 227-287. p.259.

26) D. Burton, *The History of Mathematics*, McGraw-Hill 2007, pp.109-110.

27) K. Popper, 열린사회와 적들 I, 민음사 2019, p.426.

28) Fritz는 “히파소스가 정오각형의 대각선과 변의 공약불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한다. 참고. K. Fritz The Discovery of Incommensurability by Hippasus of Metapontum, *Annals of Math.* 46 1944, 242-264, p.259.

29) Popper, o. c. (n. 27), p.427; Fritz, o. c. (n. 28), pp.256-259. 히파소스 시대에 흔히 수란 선분의 길이를 말하며 두 수(선분)의 비가 유리수가 아닌 수의 증명은 두 수(선분)에 적용한 ‘몫과 나머지’가 유한 변에 종료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  $\sqrt{2}$ 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증명은 상대적으로  $(\sqrt{5}+1)/2$ 보다 더 어렵다. 따라서 황금비가 먼저 증명된 것으로 여겨진다. 두 자연수  $a, b$ 에 대하여  $\sqrt{2} = a/b$ 로 시작하는 증명 방법은 유클리드의 *The Elements*, Book, X, Proposition 27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터 고바빌로니아인들이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이들 15개의 짹은 기울기(식으로  $(1/\cos \theta)^2$ )와 연관이 있으며 이들 직각삼각형은 대략  $44.76^\circ$ 에서  $31.89^\circ$ 에 이르기까지 약 1도 간격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건축용도의 삼각비표로 Plimpton 322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 중왕조 때, 사용된 수학으로 구성된 Aahmes Papyrus의 문제 57, 58, 59번은 직각삼각형 (3, 4, 5)과 관련된 피라미드의 문제이며<sup>30)</sup> Berlin Papyrus 6619는 (3, 4, 5)를 다루는 연립방정식 문제이다. 한편, C. Rossi는 피라미드 건축에 직각삼각형 (20, 21, 29), (3, 4, 5), (8, 15, 17), (5, 12, 13), 그리고 (7, 24, 25)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sup>31)</sup> 이에 대하여 R. Palter는 이집트 건축가들이 피타고라스 짹이나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sup>32)</sup>

#### 4) 뉴턴(I. Newton, 1643-1727)과 고대 바빌론 천문학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미적분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업적으로 소개된다. 고대 바빌론 시대 350-50 B.C.E.에 제작된 한 점토판은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두크를 상징하는 목성의 궤도를 120일간 관측한 기록으로 2016년에 판명되었다. 기원전 5세기에 바빌로니아인들은 황도12궁의 발견과 함께 360도에 기반한 각을 도입한다. M. Ossendrijver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목성의 각속도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120 동안의 이동각을 구하였다.<sup>33)</sup> 이는 미적분학의 시작을 말한다. 현대 수학·물리학으로 보면 구분적분법으로 속도를 적분하여 이동거리를 얻은 것이다.<sup>34)</sup> 유력 논문 Science지를 통한 발표로 우리는 미적분의 역사를 다시 기술해야 한다.

한편, 이븐 알 하이탐(ibn al-Haytham, 965-1039)은 파티마조 6대 칼리프 알 하킴의 초청으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구했으며 그는 최초로 포물선을 회전했을 때 만들어지는 회전체의 체적을 현대적 구분구적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sup>35)</sup> 이에 대하여 V. Katz는 “(...) 따라서 위험성은 없는데, 우리는 미적분

30) A. Chace, The Rhind Mathematical Papyrus, NCTM 1979, pp.51-52. 참고. 박민구 외, 고대 이집트인들의 원의 구적과 직각삼각형 인식,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30(4) (2017), 221-232, p.227.

31) C. Rossi, *Architecture and Mathematics in Ancient Egyp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220.

32) Palter, o. c. (n. 25), p.262.

33) M. Ossendrijver, Ancient Babylonian Astronomers Calculated Jupiter's Position From the Area Under a Time-Velocity Graph, *Science* 351 (2016), 482-484; R. Cowen, Ancient Babylonians took first steps to calculus, *Science*, 351 (2016), 435. 참고. 김상훈·박제남, 중등수학 교과서가 다루는 미적분 역사 서술의 비판과 대안,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E 31(2) (2017), 139-152.

34)  $s = \int_0^{120} v dt \approx \frac{\Delta t}{2}(v_0 + 2v_{60} + v_{120}), \Delta t = \frac{120-0}{2}$   
 $= \frac{60}{2} (0^\circ 12' + 2 \times (0^\circ 9'30'') + 0^\circ 1'30'') = \frac{60}{2} (0^\circ 32'30'') = 60 (0^\circ 16'15'') = 16^\circ 15'$

35) 식  $\sum_{i=1}^n i^4 = \left(\frac{n}{5} + \frac{1}{5}\right) n \left(n + \frac{1}{2}\right) \left[(n+1)n - \frac{1}{3}\right]$  을 바탕으로 이븐 알 하이탐은  $x = ky^2$  을 축  $x = kb^2$  으로 구간  $[0, b]$ 에서 회전체의 체적을 구분구적법으로 구한다. 현대적 기호를 사용하면  $\int_0^b \pi (kb^2 - ky^2)^2 dy = \frac{8}{15} \pi k^2 b^5$  이다.

이븐 알 하이탐이 처음으로 사용한 식들은 15세기에 모로코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사용되었다. 참고. V. Katz, Ideas of Calculus in Islam and India, *Math. Mag.* 68 (1995), 163-174.

학을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창안했다는 서술을 역사책에서 제거하고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기축시대(Axial age)의 피타고라스와 탈레스

우리나라 수학·과학 교육과정에서 최초의 수학자, 과학자를 그리스인으로 언급하는 데는 기축시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기원전 6세기와 5세기에 불가사의한 삼투현상에 의해 동시대적인 문화적 약진이 있었으며 바로 그때 진정한 종교, 철학, 과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공자와 노자가, 인도에서 부처가, 페르시아에서 조르아스터가 활동했고, 바빌로니아에서 유대교가 창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의 기적(Greek miracle)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본다.

K. Armstrong은 기원전 6세기 기축시대의 예로 피타고라스와 탈레스를 언급한다.<sup>36)</sup> 그녀는 피타고라스에 대해 매우 짧게 “과학과 수학 공부로 깨달음을 구했다는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이다.”라고 소개하며 최초의 과학자로서 탈레스를 “일식을 운 좋게 추측하였고, 그의 진정한 성취는 일식을 신성한 사건이 아니라 자연적 사건을 본 것이다.”로 평가한다. 또한, 앙드레 보나르(A. Bonnard)는 탈레스의 등장에 대하여 “인류의 역사에서는 마치 폭발처럼 갑작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행동이나 사고가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그리스, 그러니까 이오니아에서 기원전 7세기 말 무렵에 탈레스와 그를 따르는 학파와 더불어 과학, 즉 합리적인 과학 지식이 출현한 것도 그런 식이었다.”로 설명한다.<sup>37)</sup>

피타고라스<sup>38)</sup>가 소위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하고 증명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그 가능성이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초기 피타고라스학파는 바빌로니아로부터 본 정리를 얻어 이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sup>39)</sup> 한편, G. Allman에 따르면 탈레스의 기하학적 업적으로 알려진 것은 모두 6가지이다. 이들은 Proclus(기원후 5세기)(4가지), Pamphila(기원후 1세기)(1가지), Diogenes(기원후 3세기)(1가지)에 의하여 전해진다.<sup>40)</sup> 또한, Hieronymus(기원전 3세기)는 탈레스가 이집트에 머물렀을 때, 이집트 사제와의 교류를 제외하면 어떤 스승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스인으로 여겨지는 탈레스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기하학적 발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나중에 기록된 그에 대한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증거는 프로클루스를 통해 Eudemus(기원전 4

36) K. Armstrong, (정영목 옮김). *축의 시대*, 한영문화사 2011, pp.321-323.

37) Bonnard, o. c. (n. 8), p.107.

38) 수학자 D. Veljan은 피타고라스의 출현을 출처 없이 기축시대로 설명한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경 사모스섬에서 태어나 기원전 490년경에 세상을 떠났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문명권에서도 많은 유명한 철학자가 활동했다. 동아시아의 고타마 봇다, 중국의 공자, 페르시아의 조르아스터, 그리고 유대의 예언자 이삭을 언급할 수 있다. 이처럼 철학이 동시다발적으로 꽃을 피운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D. Veljan, *The 2500-Year-Old Pythagorean Theorem*, *Math. Mag.* 73(4) 2000, 259-272.

39) 참고. 박제남·장동숙, 중등 수학교과서가 다루는 수학사의 비판과 대안,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E, 29(2) (2015), 157-196. pp.166-167.

40) G. Allman, *Greek Geometry From Thales to Euclid*, Dublin University Press 1889, pp.8-9.

세기)에서 온 것이다.<sup>41)</sup> 한편, 최초의 과학자로서의 근거로 자주 이용되는 일식현상(기원전 585년 5월 28일) 예측은 이집트에서 칼데아 천문학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운이 따른 예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42)</sup> 2011년 M. 게르헤타는 그의 예측을 과학적으로 여길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sup>43)</sup>

## 4. 플라톤의 『메논』과 고대 이집트의 반복 테스트법

K. Popper는 진정한 ‘인식론’을 “어떻게 아는가?”로 시작하며 얇이란 추측(conjecture)과 논박(refutation)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이오니아에서 발생하여 현대과학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주장한다.<sup>44)</sup> 그러나 M. Bernal에 따르면 추측과 논박의 예로써 이집트에서도 소송을 둘러싸고 공개토론, 수사, 설득이라는 전통이 있었다.<sup>45)</sup> 또한, 고대 이집트 수학에서 일차나 이차방정식 풀이에서 추측과 논박의 방식이 자주 등장한다. 이를 우리는 ‘반복 테스트법(regular falsi method 또는 false position method)’이라 부른다. “시도-오류 발견-수정-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Aahmes는 빵의 분배 문제를 모두 8개로 다루며 문제 40번에서 등차수열을 다룬다. 이때, 그는 반복 테스트법을 사용하였다.

문제 40. 빵 100개를 5명에게 등차수열로 나누어 주려고 한다. 빵을 많이 받는 3명의 빵 개수의 합이 나머지 2명이 받는 빵의 개수보다 7배가 되도록 분배하여라.

Aahmes의 풀이를 현대적 기호로 알아보자. 빵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나열하면  $a + 4d, a + 3d, a + 2d, a + d, a$ 이다. 큰 세 수의 합이 작은 두 수의 합의 7배이므로  $3a + 9d = 7(2a + d)$ 이고,  $d = \frac{1}{2}a$ 이다. 이로부터 Aahmes는 “시도-오류 발견-수정-확인(test and debug evaluate)”의 과정을 거쳐 답을 구했다.

<시도> 아무런 설명 없이  $a = 1$ 을 시도한다. 이로부터 수열  $23, 17\frac{1}{2}, 12, 6\frac{1}{2}, 1$ 을 얻는데 이들의 합은 60이다.

41) Proclus, (tr. G. Morrow). *A Commentary on the First Book of Euclid's Elemen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65 (n. 24).

42) 박제남·장동숙. o. c. (n. 39), p.160. H. Kitto에 따르면 그는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이집트 수학과 칼데아 천문학을 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 Kitto, (2004) (김진경 역). 그리스 문화사, 탐구당, p.313. M. Bernal은 기원전 7세기에 아시리아가 이집트에 침입한 후 메소포타미아의 ‘과학적 생각’은 실제로 이집트의 수학과 천문학에 미쳤다고 주장한다. Bernal, o. c. (no. 6), p.390.

43) M. Querejeta, On the Eclipse of Thales, Cycles and Probability, *Culture And Cosmos* 15 (2011), 5-16.

44) K. Popper, (ed. D. Miller) (이한구 외 옮김), 포퍼 선집, 철학과 현실사 2018, p.36.

45) Bernal. o. c. (n. 6), p.372

<오류 발견> 주어진 합은 100이므로 맞지 않는다.  $100 = 1\frac{2}{3} \times 60$ 을 이용한다.

<수정> 앞서 구한 수열에  $1\frac{2}{3}$ 를 곱하여 수열을 구한다.

$$38\frac{1}{3}, 29\frac{1}{6}, 20, 10\frac{2}{3}\frac{1}{6}, 1\frac{2}{3}$$

<확인> 이들 5개 항의 합은 100이다.

Aahmes Papyrus 26번, 64번, 75번, 그리고 MMP 23번 등에서 반복 테스트법이 사용된다. 기원전 1800년경에 제작된 Berlin Papyrus 6619의 연립방정식  $x^2 + y^2 = 100$ ,  $4x - 3y = 0$ 에도 반복 테스트법이 적용된다. 이집트의 반복 테스트법은 고바빌로니아, 고대 그리스, 중세, 이슬람, 르네상스 시대에서도 사용되어 16세기 산술에 이르기까지 유럽 수학의 한 특징이 된다.<sup>46)</sup>

플라톤은 대화록 『메논』에서 진정한 암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그러한 암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논한다. 이집트의 반복 테스트법(시도-오류 발견-수정-확인)은 플라톤의 대화록 『메논』에서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 사이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과의 대화를 산술(82b-84a)과 기하(84d-85b)로 나누어 다룬다. 노예 소년은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알고 있으며 또한, 대화에 필요한 ‘두 정수의 곱셈’, ‘정사각형의 넓이’, ‘대각선’, 그리고 ‘정사각형은 대각선에 의하여 넓이가 이등분된다<sup>47)</sup>에 관한 부분적 암을 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노예 소년에게  $\sqrt{8}$ <sup>48)</sup>을 산술적, 그리고 기하적으로 지도한다.

먼저 산술적 대화(82b-84a)는

<시도>  $4^2 = 16$ 을 시도

<오류 발견>  $8 < 16$ 으로부터  $\sqrt{8} < 4$  발견

<수정> 4를 3으로 수정,  $3^2 = 9$

에서 대화가 <확인> 없이 일단락된다. 즉, 노예 소년은  $\sqrt{8}$ 을 산술적으로  $\sqrt{8} \approx 4$ ,  $\sqrt{8} \approx 3$ 을 상식<sup>49)</sup>에 근거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것들은 오답이 아니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노예 소년에게  $2\frac{1}{2}$ 과

46) Burton, o. c. (n. 26), p.47.

47) 유클리드의 5개 공준(five Common Notions) 중에 첫 번째로 “합동인 도형의 넓이는 같다”를 의미한다. 참고. Euclid, The Elements Book I, p.222.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노예 소년으로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해하고 서로 같다는 ‘상식’의 수준에서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필자는 노예 소년과 여건을 가능한 한 같게 하려고 수학을 접하지 않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번의 실험을 하였다. 이때, 필자는 정사각형 아크릴을 대각선으로 잘라 준비한 교구를 사용하였다. 필자는 조심스럽게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과의 대화는 실제로는 없었으며 가상적으로 이야기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48)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147d-e)에서  $\sqrt{8}$ 을 포함하여  $\sqrt{3}, \sqrt{5}, \sqrt{7}, \sqrt{10}, \dots, \sqrt{17}$ 이 무리수라는 것을 테오도로스가 작도와 함께 보였다고 주장한다.

49) ‘상식’이란 필자의 표현에 반하여 전현상은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 전현상, (2013), 플라톤의 『메논』에서의 『메논』의 역설과 상기설, 지중해지역연구 15(1), 31-58. 한편, R. E. Allen은 “Soc. Well, Meno, what do you think? Did he reply with any opinion not his own?”으로 ‘opinion’으로 표현한다. 한편 이상인은 ‘확신’으로 표현하며 전병

같이 좀 더 정확한 근삿값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frac{1}{2}$ 과 같은 분수를 모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sqrt{2}$ 가 아닌  $\sqrt{8}$ 을 소크라테스가 선택한 이유는 최소한 노예 소년이 두 번의 시도 즉, 4와 3을 시도하도록 사전에 의도한 것이다. 이 대화는 “ $\sqrt{8}$ 은 산술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플라톤이 보여 준 것이다. 이어진 대화에 플라톤이 주장하는 기하학의 중요성이 개입한다.<sup>50)</sup>

이제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과의  $\sqrt{8}$ 에 대한 기하적 대화(84d-85b)가 이어진다.  $\sqrt{8}$ 은 한 변이 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관한 질문을 한 변이 2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두 배로 작도(정사각형의 배적문제)하도록 변형하여 노예 소년에게 던진다.

<시도> 정사각형 각 변을 두 배로 한 정사각형을 그린다.

<오류 발견>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8이 아닌 16이다.

<수정>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넓이를 이등분된다는, 소크라테스가 도움을 준, ‘상식’에 의존하여 4개의 대각선으로 새로운 정사각형을 그린다.

<확인> 새로운 도형의 넓이가 8임을 노예 소년이 확인한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과의 대화와 고대 이집트 반복 테스트법과의 비교는 동지중해의 그리스와 이집트와의 수학문화 교류의 경쟁력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 5. 유럽 수학의 오만을 줄이자.

우리나라는 2025년 봄부터 고등학교 서·논술 평가 도입한다. 또한, 현행 중3 학생들이 보는 2028년 수능시험에서 수학(미적분 II, 기하)과 과학(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I, II)이 제외되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 이들 과목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의 변화가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교사의 교재연구는 기축시대 이론의 제거에, 그리고 교수법은 어떻게 질문(essential question)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교사의 암묵지(personal knowledge)와 질문은 소크라테스와 노예

---

회는 ‘의견’으로 표현한다. 참고. Plato, (tr & com R.E. Allen). The Dialogues of Plato vol. 1, Yale University Press 1984; 플라톤. (이상인 옮김), 메논, 이제이북스 2000; 플라톤, (친병희 옮김). 플라톤 전집 II, 도서출판 숲 2019.

50) 피타고라스 교단의 기하학을 산술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하학이 산술로 환연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방법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 과정에서의 플라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 Popper, o. c. (n. 27), p.427. 플라톤이 기하학을 중요시했다는 정황은 많이 발견된다. 플라톤 아카데미의 입구에 쓰여 있었다는 구절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로 부터 아카데미의 수학적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 구절은 아카데미가 문을 닫은 지 600여 년이 지난 12세기에 비잔틴 작가 J. Tzetzes가 처음으로 한 말이다. 아카데미 입구에 그와 같은 명판(plaque)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떠나 “플라톤은 기하학을 진정한 지식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여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로 피타고라스학파의 산술은 충분하지 않아 기하학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플루타르크(Plutarch, c.46 -c.119)는 플라톤이 신을 기하학자로 비유했다고 주장한다(Plutarch’s Moralia Book 8, Chapter 2, Section 1).

소년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85c9-d1에서 언급된다. 여기서 전현상의 번역을 사용하자.<sup>51)</sup>

소크라테스: 노예 소년 안에 있는 참된 믿음들은 아직 마치 꿈에서 일깨워진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면, 마침내 그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정확히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85c9-d1).

소크라테스는 노예 소년이 비록 얇은 아니지만 ‘상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사가 깊이 있는 암묵지를 기반으로 본질 탐구를 위한 질문을 잘하면 노예 소년도 탐구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깊이 있는 교사의 암묵지는 기축시대의 극복을 위해 필요하며, 이는 유럽의 수학문화의 오만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동지역의 난민 교육 관련 연구로서 이경수는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아동의 ‘레바논 커리큘럼’, ‘정치적 한계’, ‘현실적 한계’ 등을 지적했으며, 이양희는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에서 언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up>52)</sup> 필자는 교재 내용에 관심이 있다. 난민을 위한 수학·과학 교재가 따로 마련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기축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교재연구가 우리나라 수학·과학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작업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난민의 교육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국제적 소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연구이다. 필자는 11월 30일 학회 발표에서 최근 인천시내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

51). 전현상, o. c. (n. 48), p.44.

52) 이경수,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교육 정책의 한계,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2(2) (2022), 205-232, p.224. 이양희,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2024년 *한국중동학회(이스라엘-하미스 전쟁과 격동의 중동, 한국의 대응과 전략)*, (2024), 163-169.



# 레바논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

김성환 (명지대학교)

2024 추계공동학술대회

# 레바논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

발표: 김성환(명지대학교)

토론: 이은경(선문대학교)

## - 차 례 -

1. 레바논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2. 레바논 성소수자 운동
3. 결론: 레바논 성소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

\*성소수자 운동 “찬/반”이 아닌, 레바논 LGBTQ현상을 들여다 봄

### 1. 레바논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 LGBT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or questioning), and others**

아랍세계에서

성 소수자 커뮤니티를 뜻하는 용어

-> “밈” 사회

مجتمع الميم

아랍어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뜻하는 용어가  
모두 아랍어 글자 **밈(م)**으로 시작하기 때문.

مثلي ومثلية الجنس، مزدوج الجنس،  
متحول الجنس، متسائل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용어(레바논: 다소 경멸적, 모욕적)

- 1) 샷드(shādh, شاذ) - 샤왓드(shawādh, شواد)
- 2) 루띠(lūtī, لوطى) - 라와뜨(lawaṭ, لوط)
- 3) 사하끼야(sahāqīyāh, سحاقية)

\*2020년 6월 25일 발표된 <Pew Research Center>의  
Spring 2019 Global Attitudes Survey에 따르면  
-> 동성애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13%만이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응답

-> 2002년 조사 이래로 응답자 비율이 계속 감소(-8%)

2002	2007	2011	2013	2019
21%	18%	17%	18%	13%

### 성소수자(동성애) 처벌 근거

형법 534조(1943.03.01):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항문 검사를 통해 동성간 성행위 증거로 삼음

## 성소수자 처한 상황

1)정치·종교적 압박(이슬람/기독교/드루즈)

2)사회적 압박(Chutes and Ladders/Barbie/현혈/성소수자)

## 2. 레바논 성소수자 운동

## 레바논 성소주자 단체

<b>헬렘</b> <b>(Helem)</b> 	<b>렙마쉬</b> <b>(LebMASH)</b> 	<b>모자이크</b> <b>(Mosaic)</b> 
<b>프라우드 레바논</b> <b>(Proud Lebanon)</b> 	<b>꼬라스</b> <b>(Qorras)</b> 	<b>에스아이디시</b> <b>(SIDC)</b> 

1) 권리 보호(형법 534조 폐지 운동)

2) 인식 개선 활동(문화활동/연구조사)

3) 법률 지원

4) 의료 지원

### 3. 결론: 레바논 성소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

#### 성소자 운동의 성과

1. 2021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PR>의 성소주자 관련 권고안 레바논 정부 받아들임.
2. 레바논 의학 단체 동성애와 정신질환/항문검사 연관성 부정
3. 형법 534조로 기소된 성소수자 무죄 판결 사례
4. 해외 단체 지지(RSF/AMNESTY/HRW/Oxfam 등)
5. 2023년 레바논 국회의원 9명 형법 534조 폐지법 초안 제출

## 성소수자 운동의 한계

1.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및 정부의 미온적 태도

-> 형법 534조 여전히 존재, 성소수자 활동 감시/방해

2. 주로 해외 단체 및 외국 대사관의 후원

-> 레바논 전통가치 파괴시도, 외교문제 주권 침해 논란

3. 더 강력한 반동성애 법 제정 시도

4. 현 정세(헤즈볼라-이스라엘 갈등)에 따른 성소수자 권리문제 관심 약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슬람과 동성애

이지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이슬람의 동성애 탄압은 쿠란과 하디스의 해석에서 기원했다. 특히 이슬람 4대 법학파 중 한발리 학파는 동성애를 사형이나 투석형 등이 필요한 중범죄라고 보았는데, 이는 IS의 동성애자 박해에 드러났다. 사리아는 동성애 처벌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현대 국가 중, 동성애를 중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슬람권에서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요르단과 바레인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애에 보다 유화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구와 북미의 이슬람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열린 토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사회가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조망한다.

## 1. 서론

먼저 본 발표는 발표자의 동성애에 대한 애호나 혐오의 의견을 밝히고자 함이 아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권한 바와 같이 동성애를 존중받아야 하는 지향으로 인지하고 발표를 시작하고자 한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개 동성애를 형법상의 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효율성을 위해 이 발표에서는 동성애를 남성간의 행위로 국한하고, 수니파 이슬람에서의 동성애에 대해서만 다룬다. 이라크의 동성애 처벌법은 10-15년의 징역형이며, 한발리 학파의 샤리아를 법원으로 채택한 사우디에서 동성애는 태형, 종신 징역형은 물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다. UAE는 동성애 처벌에 최고형의 규정이 없으며, 카타르에서는 징역형과 태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시리아에서 동성애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스린다. 한발리와 하나파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 법상으로는, 동성애를 형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으나 도덕 법(morality law)에 의해 1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중노동형을 선고할 수 있다. 오만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동성애를 처벌하는데,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중동 이외의 이슬람 국가까지 포함한다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

는 나라는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본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쿠란에 나타난 동성애 관련 구절을 살펴보고, 쿠란이 어떻게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 다음으로, 중세 이슬람 사회에서 동성애 처벌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현대 극단주의 단체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세 번째로 동성애 처벌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현대 무슬림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조망한다.

## 2. 쿠란에 등장한 동성애

쿠란은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정죄하고 있는데, 구약 성서에도 등장하는 롯의 일화를 인용하여 동성애를 규탄했다. 쿠란에서 롯을 통해 동성애를 언급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 수라 7장 80절-84절: “또 롯을 보냈을 때의 일. 그는 그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세계에서 어느 한 사람도 아직 저지르지 않은 파렴치한 일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여자를 물리고 남자에게 욕정을 일으키다니. 그래서 너희들은 방종한 백성이다.’ 그의 백성은 단지 이 말뿐이다. ‘이자들을 너희들의 마을에서 쫓아내라. 스스로 깨끗한 체 하고 있는 족속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했다. 단지 그의 처만은 어름어름하다가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위에서 큰 비를 내렸다. 죄를 범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이었나 보아라.”
- 수라 11장 79절-82절: “그들은 말했다. ‘우리들에는 너희들의 딸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을 너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우리들이 욕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아, 내가 너희들을 억압할 만한 힘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지할 만한 억센 지주라도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자들은 말했다. ‘롯이여, 우리는 너희 주의 사자이다. 결코 너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어둠을 타고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너희들 중 한 사람도 되돌아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너희의 아내에게는 그들과 같은 화가 내릴 것이다. 그들에게 정해진 시각은 아침이다. 곧 아침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단이 내렸을 때 우리들은 그 거리를 뒤엎고 그 위로 진흙의 돌덩어리를 겹겹이 내리게 하였다.
- 수라 26장 161절-172절: “그들의 형제 롯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알라를 공경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 보내진 성실한 사도이다. 알라를 공경하라. 나를 따르라. 나는 그것에 대한 보수를 너희들에게 바라지 않는다. 나의 보수는 다른 아닌 만유의 주께서 주신다. 너희들은 그 참 사내들 한테만 가까이 하는가. 주께서 너희들을 위해 창조하신 아내들을 돌보지 않는가. 아니 너희들은 죄가 많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니, 그들은 대답했다. ‘너희들은 그만하지 않으면 축출당할 것이다.’ 롯은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증오하고 있다. 주여, 저와 제 가족들을 그들의 행위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다 구하였다. 그러나 뒤에 남은 한 늙은 여자만은 제외했다. 다음에 우리들은 다른 자들을 멸망시켰다.”
- 수라 27장 54절-58절: “롯 또한 그렇다. 그는 그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알면서도 파렴치한 짓을 하는가? 너희들은 정욕을 가지고 여자를 제쳐놓고 사내와 접하는가? 참 어리석은 백성이다.’

그의 백성은 ‘롯의 가족을 이 거리로부터 쫓자, 순결한 척하니’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롯과 그 가족을 구하였다. 그러나 롯의 처는 제외하였다. 그녀는 낙오자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 위에 비를 퍼부었다. 경고를 받은 자들에게 비는 최악의 것이 되었다.”

- 수라 29장 28절-35절: “이번에는 롯의 얘기로,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참으로 음란하다. 세상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곧 남색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냐? 길에서, 집회에서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자, 그들의 대답은 ‘그렇다면 그 알라의 벌을 여기서 내려 너의 뜻이 신의 뜻임을 증명하라’고 도리어 대든다. ‘신이여, 어쨌든 저를 도와 이 나쁜 자들을 벌 주소서’하고 그는 기도했다. 그리하여, 알라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와서는 ‘우리들은 이 고을(소돔)의 주민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주민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고을에는 롯이 있습니다’고 아브라함이 말하자 ‘거기에 누가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롯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내만은 이단이기 때문에 예외라’라고 대답했다. 사도들이 롯에게 이르자, 그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 힘이 미치지 못함을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었다. 그래 사도들은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와 너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이단자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큰 죄악에 물든 이 고을에 하늘의 노여움을 천벌로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천벌의 자취는 사려 있는 백성들의 명확한 징표로서 남겨졌다.

이처럼 쿠란에서는 동성애를 명백하게 죄로 명시했다. 그러나 인간이 동성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수라 7장에서는 비를 내려서 벌했다고 하나 이는 신의 영의이다. 수라 11장에서도 신이 돌덩어리를 내리게 하였다고 말했다. 수라 26장에서는 단순히 ‘멸망시켰다’고 표현했고, 수라 27장에서는 다시 한 번 ‘비를 퍼부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수라 29장에서는 ‘천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여 다시 한 번 추상적으로 처벌법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동성애 처벌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 다음 순서로 쿠란의 구절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처벌로 연결되었는지 알아본다.

### 3. 동성애 처벌의 구체화와 적용

수니파의 모든 법학파들이 동성애를 불법(unlawful)적인 일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파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는 상이하다.

이슬람의 여러 법학파 중 한발리 학파가 동성애 처벌에 대해 가장 엄격하다. 한발리는 쿠란에 언급된 비와 돌을 사용한 처벌에 주목했다.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한발리의 원류로 알려진 Ibn Abbas는 동성애자를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아래로 밀어버림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세기 한발리 학파의 Ibn-Jawzi는 예언자가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을 저주했다고 언급하며 투석형을 주장했다.

현대에 들어 한발리 학파의 해석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IS(이슬람국가)가 있다. IS

는 한발리 학파의 해석을 빌어 동성애자를 높은 빌딩에서 밀거나, 투석형으로 처형했다. 계다가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영상을 자신들의 매체에 동영상 혹은 사진으로 게재했다. 언론에 노출된 IS의 동성애 탄압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11월 23일, IS는 시리아 Mayadin에서 신원불상의 20세 남성을, Deir Ezzor에서도 18세 남성을 투석형으로 처벌했다. 이는 IS의 동성애 탄압 중 가장 먼저 보고된 사건이다.
- 2015년 4월 30일, 리비아 Derna에서 IS는 3명의 동성애자 남성을 처벌했다. 이들의 경우, 총살 형에 처해졌다.
- 2014년 12월 9일부터 2016년 5월 7일까지는 IS의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에서 41명의 동성애자 남성들이 처형되었다.
- 2016년 7월 22일, IS는 이라크 Kirkuk에서 동성애자 남성을 처벌했는데, 이 때는 높은 건물에서 해당 남성을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처형했다. 죽은 남성의 시신은 이후 다시 투석형에 처해졌다.
- 2016년 8월 10일, IS의 종교경찰인 ‘hisbah’가 이라크의 Wilayat al-Jazirah주에서 동성애자 남성을 처벌했다. 이번에도 높은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 2016년 8월 20일, 이라크 Nineveh로 추정되는 곳에서 IS는 4명의 동성애자 남성을 처벌했다. 이 중 둘은 IS의 전투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당했다. 이번에도 높은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 2016년 12월 5일에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동성애자 남성을 높은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처형했다.
- 2017년 1월 9일에는 이라크 모술에서 17세의 남성을 높은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처형했다.
- 2017년 3월 27일에 이라크 모술에서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동성애자 남성을 처형했으나, 그가 완전히 사망에 이르지 않자 재차 투석형으로 남성을 처형했다.

이처럼 IS는 투석형이나 높은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리기 등 중세 한발리 학파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나 IS의 판단과 처벌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데에는 큰 의문이 있다.

#### 4. 동성애 처벌 실제 적용을 위한 조건과 관용적인 해석

쿠란과 하디스에는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시각과 동성애 처벌을 어렵게 하는 제약이 명시되어 있다. 쿠란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 수라 4장 16절: 너희들 중에 둘이서 이와 같은 짓을 범한 자는 두 명 다 고통을 맛보게 해야 되지만, 둘이 다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대로 놓아 둬라. 참으로 알라께서는 관대하

시고 자비로우시다.

또한 상대적으로 관대한 하나피 학파는 "무슬림의 피는 간음, 배교, 또는 살인으로 인해서만 흘릴 수 있다"라는 하디스에 근거하여, 동성애 행위가 어떠한 신체적 처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나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신체적 처벌보다는 도덕적 비난을 강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쿠란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동성애 처벌을 간음과 같이 보고, 간음을 처벌하는 대로 동성애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간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수라 24장 4절-5절: "정숙한 부인을 중상하면서 네 명의 증인을 내지 못할 때는 이자에게 회초리로 여든 번을 때려라. 이후 이런 자들의 증언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자는 무뢰한이다."

이를 바탕으로 샤피이와 말리키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동성애를 간음에 준하는 죄로 처벌하지만 신중하게 검증해서 벌을 줄 것을 주장한다. 이들 학파는 큰 틀에서 처벌에는 동의하지만, 이 조건을 들이대면 실질적으로 동성애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중동 국가들도 동성애 처벌 조항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중동 국가 중 요르단과 바레인에서는 동성애를 형법상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5. 현대 무슬림 디아스포라 사회의 관용과 동성애

현대에 들어 이슬람 디아스포라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슬림 사이에서도 동성애를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무슬림LGBTQ 사회는 이슬람과 동성애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무슬림 LGBTQ 행사와 그들을 돋는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다.

- Queer Muslim Retreat: 이 행사는 LGBTQ 무슬림들이 신앙, 정체성, 공동체에 대해 자유롭고 안전하게 논할 수 있는 연례 행사로 미국에서 열린다. 2011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과 이슬람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 행사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며, 모금을 통해 성적 지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 MASGD(Muslim Alliance for Sexual and Gender Diversity): MASGD는 2011년에 퀴어 무슬림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2011년 이래로 현재까지 매주 주말 동안 700명 이상의 LGBTQ 무슬림들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이슬람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대면 행사를 개최했다. 이 조직은 2013년 1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대면 행사를 개최하며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2014년부터는 Queer Muslim Retreat의 주체 단체가 되었다. 특히 2016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LGBTQ 무슬림을 겨냥한 테러가 벌어졌을 때, 무슬림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의 대화를 주선하기도 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tajwid를 교육하고 라마단을 기념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는 다시 대면 모임을 진행 중이다.

- Hidayah: Hidayah는 2017년 영국에서 설립되었으며, 2020년에는 미국으로 확장되었다. Hidayah는 아랍어로 ‘인도’ 혹은 ‘지도’를 의미한다. 이 단체는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LGBTQ 무슬림들을 지원하고 복지를 제공하며, 차별과 편견, 부당함을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 MPV(Muslims for Progressive Values): 2007년에 설립된 무슬림 진보단체로, 무슬림 LGBTQ를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LGBTQ의 권리를 옹호하며, UN에서 경제 사회 이사회 특별 자문 지위(Economic and Social Council 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확보했다.
- Imaan: 1999년 런던에서 설립된 자원봉사 기반의 자선단체로 LGBTQ 무슬림을 지원한다. LGBTQ 무슬림이 가족이나 신앙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이슬람 신앙이 관용적이라고 주장하며, LGBTQ의 정체성을 관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여긴다.
- Al-Ghurbaah Foundation: 20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맘 무신 헨드릭스((Imam Muhsin Hendricks))에 의해 설립된 이 조직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및 신념을 이유로 소외된 무슬림에게 심리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아공에 기반했으나 전세계 무슬림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 하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위의 사례는 영어권 국가의 무슬림 LGBTQ단체에 국한되었으나,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에도 LGBTQ를 지향하거나 후원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다. 아직 무슬림 다수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활동하는 LGBTQ 단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무슬림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인 해석과 움직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Tedx 토크에서도 무슬림과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단체의 목적은 이슬람과 LGBTQ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며, 무슬림 LGBTQ가 무슬림 사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UN, AMNESTY등 국제기구들도 무슬림 LGBTQ의 인권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 6. 결론

사실 LGBTQ에 대한 문제는 무슬림 공동체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수 유대교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기독교 공동체의 주류 역시 LGBTQ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유대국가 이스라엘이나 기독교도가 다수인 국가들은 동성애를 형법상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주와 서구

를 중심으로 동성애 결혼도 인정되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3년 겨울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 사제들이 LGBTQ를 축복해줄 수 있다는 전향적인 발언을 남겼다. 21세기 현재, 이슬람은 여러 종교 중 동성애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종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슬람의 본류는 아니지만, 이슬람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LGBTQ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 학문후속세대 세션 자유주제

장소: 10118호

[ 좌장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스라엘 지정학적 위협이 한국-중동 무역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비선형 ARDL 접근법을 통한 분석

발 표 김호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토 론 노다솔 (한국외국어대학교)

- 카타르의 소프트파워: 독일 내 펀드 지원의 영향과 복합적 결과에 대한 고찰

발 표 안찬혁 (독일 에르푸르트대학교)  
토 론 안소연 (서울대학교)

-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현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포함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속이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Humanitarian Realities in Palestine: The Unending Impact of the Ongoing Israel-Palestine Conflict on Palestinians' Humanitarian Issues)

발 표 김도현 (성균관대학교)  
토 론 황의현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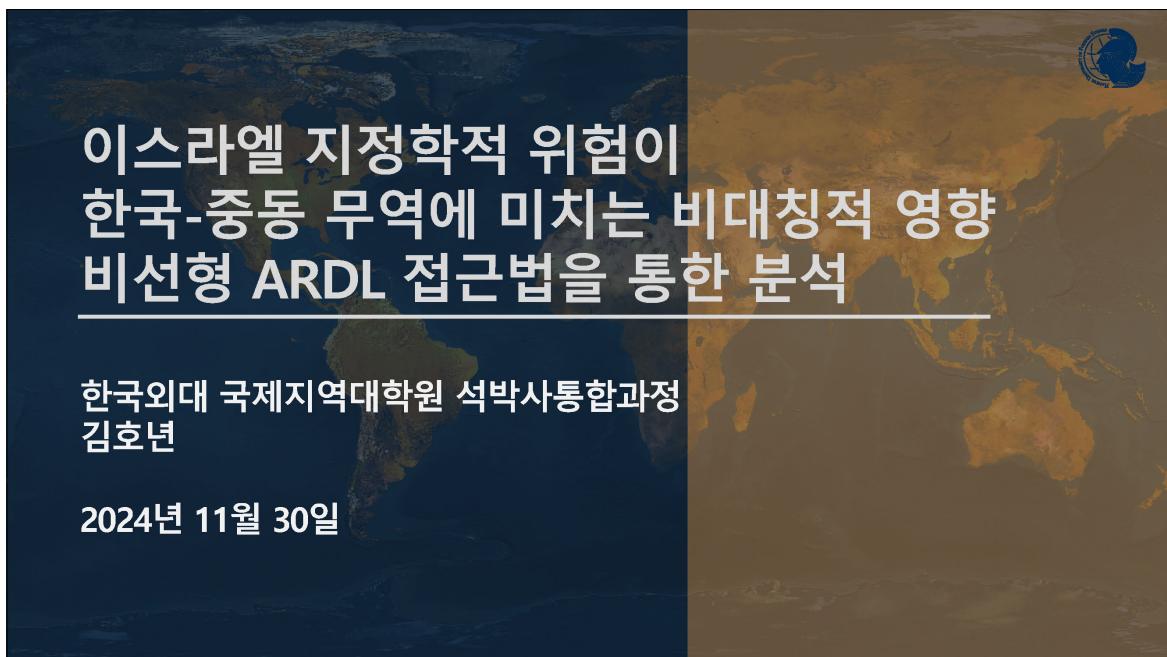
-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저항 방식 유형 - 『뜨거웠던 봄』을 중심으로 -

발 표 이슬아 (명지대학교)  
토 론 하주형 (단국대학교)



# 이스라엘 지정학적 위협이 한국-중동 무역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비선형 ARDL 접근법을 통한 분석

김호년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초록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험(GPR)이  
한국과 이스라엘 및 주요 중동 국가(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분석

비선형 ARDL(NARDL) 모형을 사용하여 단기 및 장기 비대칭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이스라엘의 GPR 감소 시 튀르키예 및 사우디아라비아향 수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이스라엘과의 직접 무역은 민감도가 낮았음.

### 연구목적

- 이스라엘의 GPR 변화가 한국과 중동 국가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지역 안정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 연구 배경

### 배경

- 지정학적 위험은 중동과 같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국제 무역 및 경제 활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이스라엘은 고도 기술 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선진국이며 높은 긴장 속에서 무역을 유지하는 특이한 사례

### 연구 초점

- 이스라엘 GPR이 한국과 중동 주요국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 방법론

- NARDL 모형을 통해 GPR의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에 따른 시간 흐름에 따른 비대칭 효과 분석



## 3. 선행 연구 검토

### 이스라엘 경제의 발전

- 이스라엘은 1980년대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도 기술 산업 중심으로 성장

### 한국-중동 무역 관계

- 한국과 중동 국가 간의 전통적 에너지 중심 무역이 자동차, 산업재 등으로 다각화 진행

### 기존연구의 한계

- 중동과의 한국 무역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에너지와 건설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종합적인 무역 연구가 부족



## 4. 데이터 및 연구 방법론

### 데이터

- 199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월별 데이터

### 주요 지표

- 이스라엘의 GPR 지수, 한국과 주요 중동 국가 간 수출입 데이터

### 변수

- 독립 변수: Caldara와 Iacoviello의 이스라엘 GPR 지수
- 종속 변수: 한국과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간 수출 및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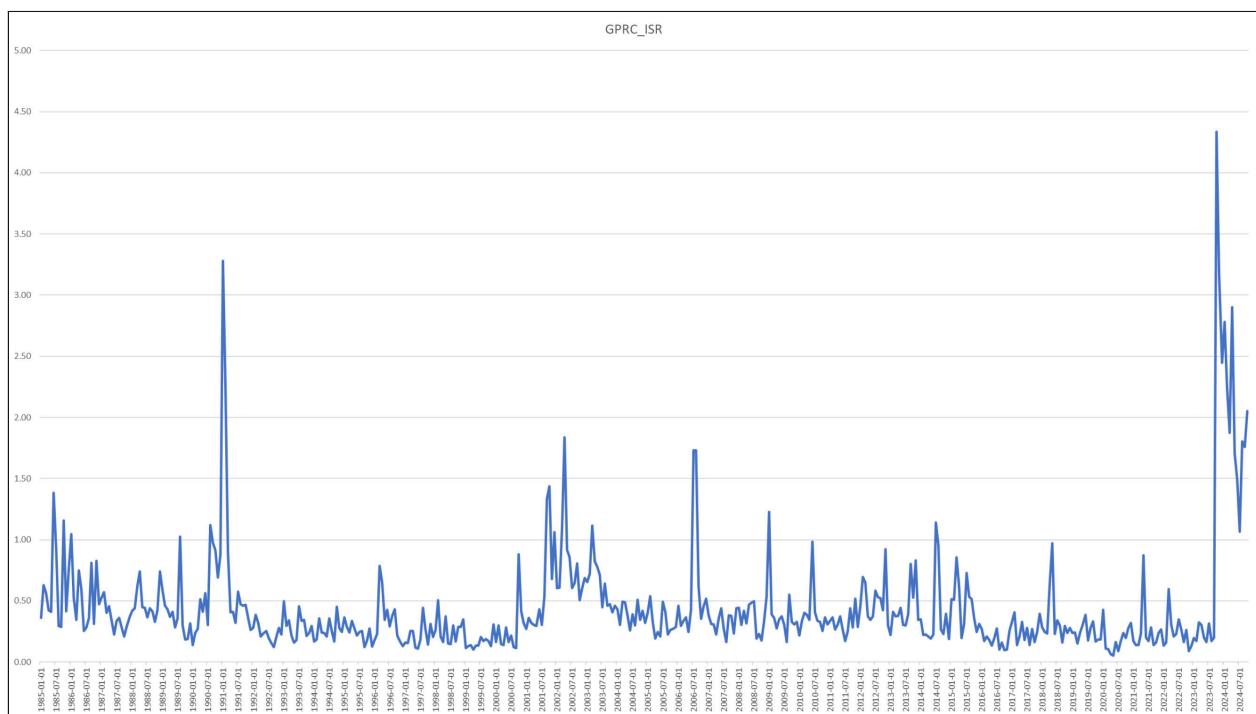
### NARDL 모형

- GPR의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가 수출입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분석
- 단기 및 장기 비대칭성을 포착하여 정치적 불안정성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해석

Fig 1. Export from South Korea to Israel (2015 constant Korean Won)



Top 10 Goods from th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Israel					
From South Korea to Israel			From Israel to South Korea		
Rank	Category of Good	Total Value (2023)	Rank	Category of Good	Total Value (2023)
1	automobile	\$1,093,851,622	1	equipment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	\$363,063,327
2	synthetic resin	\$81,400,678	2	electronic application apparatus	\$283,818,344
3	machine for construction or mining	\$51,237,423	3	instrument for metering or controlling analysis	\$159,773,465
4	part of automobile	\$46,682,606	4	articles of copper	\$80,276,145
5	semiconductor	\$45,760,251	5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	\$70,380,799
6	aircraft and parts thereof	\$42,680,249	6	agrochemicals or pharmaceuticals	\$64,567,549
7	favorite food	\$35,345,843	7	semiconductor	\$38,501,932
8	equipment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	\$32,843,904	8	aluminum	\$36,270,809
9	electronic application apparatus	\$28,974,301	9	computer	\$34,151,543
10	air conditioning, cooling-heating machine	\$27,747,233	10	fine chemical material	\$32,724,953



	Export to Israel		Import from Israel		Export to Turkey		Import from Turkey		Export to Egypt		Import from Egypt		Export to Saudi Arabia		Import from Saudi Arabia			
	LAG	Coefficients	P-Value	Coefficients	P-Value	Coefficients	P-Value	Coefficients	P-Value	Coefficients	P-Value	Coefficients	P-Value	Coefficients	P-Value	Coefficients	P-Value	
INTERCEPT		4.94	0.00 ***	3.77	0.00 ***	3.47	0.00 ***	3.78	0.00 ***	3.83	0.00 ***	3.85	0.00 ***	1.88	0.01 ***	1.92	0.00 ***	
GPRC POS		0.01	0.69	-.006	0.10	0.03	0.39	-.006	0.46	-.005	0.12	-.011	0.50	0.02	0.55	-.001	0.70	
GPRC NEG		0.03	0.40	-.003	0.30	0.06	0.03 **	0.01	0.93	0.03	0.38	-.003	0.83	0.05	0.08 *	0.01	0.77	
EXPORT/IMPORT	1	-.046	0.00 ***	-.038	0.00 ***	-.020	0.00 ***	-.057	0.00 ***	-.038	0.00 ***	-.039	0.00 ***	-.047	0.00 ***	-.024	0.00 ***	
EXPORT/IMPORT	2	-.028	0.00 ***	-.024	0.00 ***	0.03	0.63	-.036	0.00 ***	-.023	0.00 ***	-.032	0.00 ***	-.028	0.00 ***	-.007	0.28	
EXPORT/IMPORT	3	-.009	0.23	-.012	0.10	-.001	0.89	-.030	0.00 ***	-.014	0.05 **	-.013	0.14	-.005	0.47	0.04	0.56	
EXPORT/IMPORT	4	-.006	0.44	-.008	0.28	0.01	0.89	-.012	0.16	-.003	0.66	-.012	0.16	-.010	0.17	0.07	0.28	
EXPORT/IMPORT	5	-.001	0.94	-.008	0.29	0.09	0.16	-.009	0.28	0.04	0.54	-.008	0.36	-.008	0.23	-.001	0.91	
EXPORT/IMPORT	6	0.02	0.79	0.00	0.99	0.18	0.00 ***	-.009	0.29	0.03	0.70	-.007	0.41	0.01	0.85	-.005	0.37	
EXPORT/IMPORT	7	0.03	0.71	0.06	0.39	0.01	0.92	-.003	0.72	-.008	0.24	-.011	0.18	-.003	0.69	0.03	0.65	
EXPORT/IMPORT	8	0.12	0.12	0.03	0.72	0.07	0.25	0.04	0.59	-.002	0.71	-.008	0.29	0.03	0.70	0.06	0.35	
EXPORT/IMPORT	9	0.10	0.21	0.01	0.89	-.004	0.56	-.004	0.60	-.004	0.58	-.003	0.65	0.03	0.71	0.05	0.37	
EXPORT/IMPORT	10	0.02	0.79	0.00	0.95	-.007	0.27	-.003	0.69	-.001	0.90	-.008	0.24	0.07	0.31	-.002	0.71	
EXPORT/IMPORT	11	0.00	0.96	0.00	0.99	0.02	0.79	-.008	0.26	-.002	0.80	-.004	0.51	0.13	0.04 **	0.11	0.07 *	
EXPORT/IMPORT	12	0.04	0.45	0.03	0.64	0.04	0.49	0.05	0.39	-.004	0.45	-.001	0.92	0.05	0.41	0.05	0.40	
GPR +	1	-.012	0.01 **	0.05	0.31	-.002	0.59	-.004	0.68	0.02	0.64	-.001	0.97	-.003	0.44	0.01	0.72	
GPR +	2	-.006	0.22	0.07	0.15	-.001	0.75	0.11	0.31	0.08	0.09 *	-.001	0.95	0.08	0.03 **	-.002	0.58	
GPR +	3	-.008	0.14	0.05	0.28	-.002	0.59	0.01	0.95	0.11	0.02 **	0.30	0.18	-.002	0.56	-.004	0.25	
GPR +	4	0.03	0.62	0.07	0.13	-.001	0.85	0.04	0.73	0.07	0.15	0.02	0.07 *	0.00	0.98	0.03	0.49	
GPR +	5	-.003	0.60	0.02	0.76	-.003	0.46	0.06	0.61	0.006	0.23	0.24	0.30	0.02	0.65	0.03	0.41	
GPR +	6	-.002	0.76	0.08	0.09 *	0.02	0.65	0.11	0.30	0.05	0.28	0.30	0.19	0.00	0.93	0.00	0.90	
GPR +	7	0.00	0.98	0.07	0.15	-.005	0.22	0.13	0.21	0.04	0.40	-.006	0.78	0.00	0.90	0.00	0.99	
GPR +	8	0.04	0.46	-.001	0.82	-.004	0.41	0.06	0.61	0.04	0.41	-.013	0.55	0.01	0.82	0.01	0.75	
GPR +	9	-.002	0.66	0.02	0.66	-.003	0.52	-.010	0.35	0.11	0.01 ***	0.07	0.75	0.01	0.81	0.01	0.73	
GPR +	10	-.006	0.27	0.04	0.46	-.005	0.26	0.17	0.13	0.13	0.01 ***	0.04	0.87	0.05	0.20	0.07	0.06 *	
GPR +	11	0.03	0.59	0.06	0.23	-.005	0.29	0.16	0.16	0.06	0.21	0.047	0.04 **	0.02	0.59	0.02	0.53	
GPR +	12	-.004	0.49	-.002	0.66	-.009	0.03 **	-.003	0.75	-.005	0.56	0.08	0.72	-.005	0.20	0.01	0.70	
GPR +	Longrun	0.05	0.69	-.026	0.08 *	0.13	0.41	-.022	0.44	-.023	0.10 *	-.045	0.51	0.15	0.55	-.011	0.71	
GPR -	1	-.006	0.37	0.07	0.26	-.004	0.48	0.15	0.27	0.02	0.71	0.36	0.20	-.004	0.45	0.09	0.06 *	
GPR -	2	-.001	0.83	0.02	0.80	-.005	0.34	0.01	0.96	0.007	0.25	0.23	0.43	-.005	0.28	0.07	0.14	
GPR -	3	-.002	0.75	0.06	0.36	-.005	0.38	-.002	0.88	-.001	0.89	0.44	0.13	-.002	0.66	0.09	0.06 *	
GPR -	4	-.003	0.70	-.005	0.40	-.003	0.65	-.006	0.67	-.004	0.53	0.20	0.49	-.002	0.73	0.02	0.62	
GPR -	5	0.04	0.57	0.04	0.53	-.001	0.80	-.007	0.59	-.001	0.81	0.35	0.23	-.004	0.39	-.002	0.72	
GPR -	6	-.003	0.66	-.006	0.29	-.004	0.43	-.002	0.86	-.003	0.65	-.009	0.76	-.001	0.75	0.02	0.70	
GPR -	7	-.005	0.45	-.003	0.62	-.007	0.18	-.007	0.63	-.001	0.87	0.20	0.49	0.00	0.98	0.04	0.33	
GPR -	8	-.001	0.88	-.002	0.80	-.001	0.85	-.001	0.94	0.007	0.24	0.11	0.70	0.02	0.63	0.02	0.59	
GPR -	9	0.06	0.31	0.03	0.64	-.003	0.55	0.12	0.36	0.03	0.54	-.001	0.98	0.00	0.97	0.07	0.13	
GPR -	10	0.09	0.13	-.006	0.24	-.004	0.45	-.016	0.19	-.002	0.67	0.01	0.98	0.00	0.93	-.002	0.65	
GPR -	11	-.002	0.69	-.003	0.61	-.005	0.26	-.013	0.27	-.004	0.43	-.017	0.49	0.00	0.96	0.01	0.81	
GPR -	12	0.00	1.00	-.002	0.61	0.02	0.58	-.005	0.62	0.00	0.91	0.06	0.79	0.04	0.25	-.001	0.75	
GPR -	Longrun	0.11	0.40	-.015	0.28	0.33	0.03 **	0.03	0.93	0.12	0.38	-.014	0.83	0.05	0.04 **	0.09	0.76	
Longrun Asym		0.37	0.04 **	0.01 ***	0.02 **		0.00 ***			0.17			0.02 **			0.10		
Shortrun Asym		0.25	0.08 *		0.96		0.15			0.03 **		0.99		0.38			0.31	
BG SC Im test		0.45	0.21		0.11		0.08 *			0.00 ***		0.61		0.20			0.68	
LM ARCH test		0.19	0.70		0.00 ***		0.00 ***			0.24		0.00 ***		0.25			0.07 *	
Normality test		0.00 ***	0.00 ***		0.00 ***		0.00 ***			0.00 ***		0.01 ***		0.93			0.00 ***	

## 5. 한국-이스라엘 무역



### 이스라엘로의 수출

- 이스라엘 위험지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비대칭성도 제한적

###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

- GPR 지수 상승 시 장기적으로 수입이 감소, 부정적 GPR 변화는 영향력이 작음
- 장기적 비대칭성 존재 확인되었으며, 긍정적/부정적 변화의 영향이 다름

### 해석

- 이스라엘의 위험지수 변동에도 정치경제적 관계가 무역 안정성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 6. 튀르키예 및 사우디아라비아 무역 결과

### 튀르키예로의 수출

- 이스라엘의 GPR 감소가 장기적인 한국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인 비대칭성 존재.
- 긍정적 GPR 변화는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 튀르키예와 유사하게 GPR 감소가 장기 수출 증가와 연관, 긍정적 변화는 미미함

### 시사점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한국의 중동 수출 안정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7. 이집트 무역 결과

### 이집트로의 수출

- GPR 지수 상승이 장기적으로 수출 감소와 연관되었으며, 단기 및 장기 비대칭성 테스트 결과 유의미한 비대칭성 확인됨

### 시사점

- 이집트와의 무역은 이스라엘 GPR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으며, 장기적 비대칭적 영향



## 8. 주요 결과

- 이스라엘의 GPR이 한국의 중동 무역에 비대칭적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별로 차이 존재
- 이스라엘과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은 GPR 감소(이스라엘 위험성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받음
- 중동 지역의 안정성 확보가 무역량 증대에 기여하며, 한국의 중동 무역 전략 수립 시 이스라엘의 정치 안정성 고려 필요
- 이스라엘과의 무역 탄력성은 지정학적 위험이 양국의 경제 관계를 제한적으로만 영향 미침을 시사



## 9.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본 연구는 지정학적 위험의 비대칭적 영향이 한국의 중동 내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함
- 이스라엘 GPR 감소는 튀르키예 및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증가와 관련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이스라엘 GPR을 지역 대리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역학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중동 전체에 대한 GPR 지수 사용 및 추가적인 중동 국가를 포함한 분석 필요
- 더미데이터로 특정 지정학적 사건 또는 대체 모형을 활용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카타르의 소프트 파워: 독일 내 펀드 지원의 영향과 복합적 결과에 대한 고찰

안찬혁 (독일 에르푸르트대학교)

## 머리말

본 연구는 냉전 종식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와 경제 성장이 촉발한 국제 질서의 다층적 재편을 배경으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소프트 파워의 부상이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기존의 양극 체제(bipolarity)가 다극적 권력 구조(multipolar power structure)로 전환되고,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국가 간 관계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hard power, 경성권력)보다 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활용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연성권력)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Joseph Nye (2004)가 정의한 소프트 파워, 즉 “타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현대 국제 관계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요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카타르의 독일에 대한 펀드 지원을 사례 연구로 삼아, 소프트 파워의 역학과 그 복합적인 결과, 특히 독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카타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전략적 입지를 바탕으로, 군사력 투자 보다 소프트 파워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본 연구 사례로 대입하면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카타르의 펀드 지원은 이슬람주의 운동(Islamist movement)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독일 사회의 다문화적 결속과 이념적 조화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카타르의 지원이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의 자율성과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을 조명해 왔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넘어, 펀드 지원을 통해 강화된 이슬람주의 운동이 독일 사회 내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 극단주의 이념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독일 시민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 등, 다양한 부정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ierre Bourdieu의 자본 이론, 특히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 (conversion of capital)에 대한 분석과, Wiktorowicz의 사회운동 이론에서 제시된 자원 동원 구조(resource mobilization structure), 즉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이론적 틀로 활용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통해, 카타르의 펀드 지원이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네트워크 확장, 조직 강화, 그리고 정치적 발언권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

러한 변화가 독일 사회의 세속주의 전통, 사회 통합,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독일 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과 한계를 논의하고, 카타르발 유럽 외교가 독일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미치는 장기적인 함의를 제시하며 결론지을 것이다.

## I. 서론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자유주의이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각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국제 협력이 보다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는 각 국가의 문화적 및 정치적 특성을 존중하며,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교수는 '연성권력(soft power)'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2004년 나이 교수가 발표한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는 연성권력의 중요성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제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 개념의 확산을 이끌었다.<sup>1)</sup> 연성권력의 개념을 카타르에 적용해보면, 이 국가의 전략적 입지와 자원을 활용한 대외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덕분에 두 배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이점을 자국의 연성권력 강화에 활용해왔다.<sup>2)</sup>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정부의 장기 보증, 자본 투입, 은행 자산 매입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장 정책은 이러한 자원 기반의 강점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sup>3)</sup> 이는 카타르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며, 카타르의 연성권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sup>4)</sup> 이러한 정책적 배경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드러났듯이, 카타르의 국제적 이미지와 명성을 크게 향상시켰다.<sup>5)</sup> 카타르는 군사력보다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타국을 설득하는 연성권력을 적극 활용하며 국경 너머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왔다.<sup>6)</sup> 이와 더불어, 카타르는 이슬람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회에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강대국인 미국과 유럽 등과 구별되는 카타르만의 외교적 영향력과 전략적 목표를 형성한다.<sup>7)</sup> 이를 바탕으로 카타르는 다양한 이슬람 그룹 및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적 기반을 넘어서는 복합적 외교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sup>8)</sup>

1) Gomichon, 2013, p. 1. Nye(1990)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국가가 다른 나라에 강압하는 방식은 강경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권력 추세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현대 기술, 초국적 행위자 등 새로운 요소를 지닌 현대세계의 관계성에 힘입어 하드파워의 사용은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 Antwi-Boateng, 2013, pp. 1-4

3) Jung & Kim, 2012, p. 62

4) Antwi-Boateng, 2013, pp. 4-6

5) Ahn, 2023, pp. 100-103

6) Gomichon, 2013, p. 1

7) Antwi-Boateng, 2013, p. 7

카타르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슬람 커뮤니티 및 모스크를 비롯해 시리아, 리비아와 관련된 여러 단체와 연계해왔고, 하마스나 탈레반과 같은 단체들과의 관계도 형성해왔다.<sup>9)</sup> 이러한 지원은 리비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디 그룹과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물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자금 및 물자 지원은 중동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이슬람 운동에도 적용되고 있다.<sup>11)</sup> 이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성장에 카타르가 미친 영향을 더욱 주목하게 한다.<sup>12)</sup>

## 1. 연성권력(소프트 파워)과 공공외교의 중요성

연성권력(soft power)은 국제 관계에서 강제력 대신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타국에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려는 힘으로 자리 잡아왔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처음으로 연성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는 군사적 하드파워의 대안으로 다양한 국가의 외교 정책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카타르는 소프트 파워의 활용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주요한 전략적 도구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알자지라(Al Jazeera)와 같은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중동의 정치적 목소리를 서구에 전달함으로써, 카타르는 자국의 외교적 목표를 간접적으로 실현하고 있다.<sup>13)</sup> 카타르의 공공외교는 전통적 연성권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연성권력 전략이 타국의 정책 변화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카타르의 전략은 특정 이슬람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및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 증대에 기여하는 데 집중한다. 이 같은 전략은 독일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의 성장과 자율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맥락에서 카타르의 연성권력은 공공외교와 밀접히 연결되며, 전통적 연성권력의 범주를 넘어 독일 사회 내 종교적, 문화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2. 연구 배경 및 목표

기존 연구는 카타르의 연성권력이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주로 다뤄왔다. 예를 들어,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이 카타르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원주의와 같은 독일의 정책적 기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sup>15)</sup>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사회 내에서 카타르의 지원은 이슬람 공동체와의 문화적, 종교적 연결을 통해 사회적 융합과 다

8) Jung & Kim, 2012, pp. 60-63

9) Antwi-Boateng, 2013, p. 5

10) Ahn, 2023, pp. 104-107

11) Gomichon, 2013, p. 2

12) Ahn, 2023, pp. 108-110

13) Samuel-Azran, 2016, pp. 30-35, Al-Tamimi et al., 2023, p. 67, Eum, 2020, p. 86

14) Antwi-Boateng, 2013, pp. 3-4, Al-Tamimi et al., 2023, p. 67

15) Ahn, 2023, pp. 100-103

원주의적 조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sup>16)</sup>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넘어서, 카타르의 재정적 지원이 독일 사회의 결속력과 이념적 조화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성장과 정치적 발언권 증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카타르의 연성권력이 독일 사회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부정적 합의를 조명하고자 한다.<sup>17)</sup>

## II. 카타르의 소프트 파워

### 1. 카타르의 재정 및 미디어 지원

카타르의 연성권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 중 하나는 미디어 파워이다. 지정학적 맥락에서 연성권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교육, 미디어, 외교 전략,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공공 소통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카타르의 사례에서 특히 주목받는 요소는 강력한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로, 이는 자국의 입장과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는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6년 카타르 국왕의 주도로 설립된 알자지라(Al Jazeera)는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세계 주요 미디어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다. 이 채널은 아랍 세계의 목소리를 서방 국가로 전달하며 중동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sup>18)</sup>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알자지라의 보도는 그 역할이 돋보인 사례 중 하나다. 알자지라는 당시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을 비판하여 아랍 세계에서 중대한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카타르가 미디어를 통해 자국의 외교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타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sup>19)</sup>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 내 이슬람 커뮤니티에서도 알자지라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독일 내 다문화 사회와 이슬람 공동체는 알자지라의 보도를 통해 중동과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변화와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카타르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디어 채널로서 유럽 사회의 정치 및 종교적 담론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타르의 미디어 파워는 독일 사회 내에서 이슬람 공동체와 그 외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다.<sup>20)</sup>

카타르의 풍부한 지원은 이슬람주의 운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성권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천연자원을 통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카타르는 이러한 재정을 유럽 및 중동의 다양한 이슬람

16) Spenlen, 2009, p. 6, Light, 2004, pp. 1-3

17) Antwi-Boateng, 2013, pp. 5-6

18) Gomichon, 2013, p. 1; Samuel-Azran, 2016, pp. 30-35

19) Antwi-Boateng, 2013, pp. 1-4; Samuel-Azran, 2016, pp. 48-50

20) Samuel-Azran, 2016, pp. 40-45; Al-Tamimi et al., 2020, pp. 56-58

주의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독일 내에서 카타르의 자금 지원은 주로 이슬람 공동체의 활동과 이슬람주의 운동의 성장에 기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종교 및 문화적 자본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sup>21)</sup> 카타르의 자금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이슬람 및 이슬람주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적, 종교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며,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 이론에서 설명하는 자본 전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카타르의 경제적 자본이 독일의 이슬람주의 운동 내에서 사회적, 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조직적 확장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독일 사회 내 다문화주의와 종교적 다원성의 맥락에서 상호 관계와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22)</sup>

## 2. 독일내 이슬람주의 운동과의 공공외교

카타르는 독일 내 이슬람 단체와의 연계를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독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대상은 독일 이슬람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로, 대표적으로 IGD(Islamische Gemeinschaft in Deutschland)와 같은 조직이 있다. 카타르는 이러한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독일 내 이슬람 운동의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일 사회 내 이슬람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sup>23)</sup> 또한, 카타르의 공공외교는 재정 지원을 넘어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독일 사회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 이론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경제적 자본이 독일의 이슬람주의 운동 내에서 사회적, 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자원을 동원하는 역량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의 정치적 자립과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sup>24)</sup> 이러한 현상은 독일 사회 내에서 이슬람 공동체와 비이슬람 공동체 간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21) Antwi-Boateng, 2013, pp. 3-5; Ahn, 2023, pp. 100-103

22) Bourdieu, 2018, pp. 60-62; Chesnot & Malbrunot, 2020, pp. 23-31

23) Ahn, 2023, pp. 117-118; Antwi-Boateng, 2013, pp. 5-6

24) Bourdieu, 2018, pp. 64-65; Khatib, 2013, p. 423, Bourdieu & Wacquant, 1992, p. 119

### III. 이론적 틀

본 연구의 분석적 틀로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 이론과 자원 동원 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을 결합하여 카타르의 자금 지원이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부르디외의 이론은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카타르의 지원이 이슬람주의 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자원 동원 이론은 외부 자원의 동원이 사회 운동의 역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sup>25)</sup>

#### 1. 부르디외의 자본 이론

본 연구는 카타르의 연성권력이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 이론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사용한다. 부르디외의 자본 이론은 자본이 단순한 경제적 자산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자산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이러한 자산들은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 전환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sup>26)</sup> 이를 통해 카타르가 독일 내 이슬람 운동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 그들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카타르의 자금 지원은 경제적 자본을 이슬람 운동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수단이 되며, 이는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의 조직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카타르의 자금은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이 커뮤니티 센터,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본의 전환 과정을 통해 카타르는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의 자율성과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서의 이슬람 운동의 정체성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sup>27)</sup> 이와 같은 자본의 전환은 독일 사회 내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화적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카타르의 경제적 자본이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는 독일의 다문화주의적 가치와 충돌하거나 독일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이슬람 공동체의 성장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부르디외의 자본 이론은 카타르의 지원이 독일 사회에 미치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도구로 작용한다.<sup>28)</sup>

#### 2. 자원 동원 이론

이슬람주의 운동의 성장과 조직적 역량 강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원 동원 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을 추가적 이론 틀로 활용한다. 자원 동원 이론은 사회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5) Bourdieu, 2018, pp. 60-62; Jenkins, 1983, pp. 530-533

26) Bourdieu, 2018, pp. 60-62

27) Chesnot & Malbrunot, 2020, pp. 23-31; Bourdieu, 2018, pp. 64-65

28) Bourdieu, 2018, pp. 66-68

내부의 사회적 자본과 외부의 경제적, 물질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 운동의 성공은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이 자원을 동원하는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up>29)</sup> 카타르의 독일 내 이슬람 운동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자원 동원 구조를 강화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카타르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여 독일 내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조직을 확장하고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돋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sup>30)</sup> 또한, 카타르의 자금 지원은 단순히 자원의 제공을 넘어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네트워크 확장과 연계되며, 이는 해당 단체들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외부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자원 동원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카타르의 자원 동원은 독일 내 이슬람주의 단체가 물질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독일 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역학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sup>31)</sup>

### 3. 심화된 이론적 분석과 사례 대입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 전환 개념을 통해 카타르의 자금 지원이 독일 내 특정 이슬람 단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본 전환(conversion of capital)은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이 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네트워크와 조직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수니파 이슬람 단체들, 특히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과 연관된 독일내 IGD(Islamische Gemeinschaft in Deutschland)와 같은 조직은 수니파 이슬람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로 인해 독일 내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sup>32)</sup> 빅토르위츠(Wiktorowicz)의 자원 동원 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을 통해서는 카타르 자선기구(QC)와 같은 지원 구조가 개인의 불만을 조직화된 주장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QC는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여 단체들이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내부적으로 단결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안정성과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돋는다.<sup>33)</sup> 이러한 자원 동원 구조의 재원조달은 구조적 골자이자 원동력으로서 사회운동의 대내조건인 그룹 내 구성원 충원으로 인한 결속력의 증대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킨다.<sup>34)</sup> 같은 맥락에서 대외조건으로 작용하는 외부저항성의 조건을 수립하여 조직의 확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

29) Jenkins, 1983, pp. 530-531

30) Ahn, 2023, pp. 117-118; Antwi-Boateng, 2013, pp. 5-6

31) Jenkins, 1983, pp. 532-533; Ahn, 2023, pp. 119-120, Light, 2004, pp. 1-3

32) Bourdieu, 2018, pp. 60-62; Chesnot & Malbrunot, 2020, pp. 28-29; Ahn, 2023, pp. 100-103

33) Jenkins, 1983, pp. 530-531; Bourdieu, 2018, pp. 60-62; Ahn, 2023, pp. 104-107

이처럼 자원 동원 구조(resource mobilization structure)에서 나타나는 재원조달(financing)은 운영방식<modus operandi; 행위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건을 수립하고 결과를 도출>을 통해 분석할 때 외부적 저항 조건에 대한 대비와 내부적 단결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적 불안 요인을 억제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QC는 카타르의 연성권력(soft power)으로서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네트워크의 확장과 조직의 팽창을 촉진한다.

34) Diani, 1997, p. 130 53 Forret & Dougherty, p. 420, Wiktorowicz, 2004, p. 7, McCarthy & Zald, 1977, pp. 1212-1213

하며, 결과적으로 이를 사례에 대입하면 독일 내 특정 이슬람 집단이 강력한 조직 결속력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뿐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한다. 이러한 확대의 이면을 살펴보면 QC와 같은 카타르의 자선기구는 수니파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비 수니파 이슬람 단체들은 카타르의 펀드지원을 놓고 상대적인 차별감 및 소외감을 느끼고 이는 갈등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독일 사회 내에서 공동체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 개인적으로는 일탈의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카타르의 펀드지원이 야기한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과 가능성은 최근 급부상한 독일내 사회적 분열과 극우주의를 부추기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과 같은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와 세력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AfD는 반이민 및 반이슬람 정서를 그 가치로 내세우며 다문화적 이상과 충돌하고 있고, 카타르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슬람 단체들의 정치적 발언권 확대는 이와 같은 이념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sup>35)</sup> 이처럼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자본 전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 해당 주제를 통해 자본이 사회적 공간 (social space)에서 어떻게 관계론적 방식 (relational)에 의해 변환되는지를 이해하며, 이와 함께 Champ(장) 개념을 통해 독일 사회 내 특정 이슬람 집단의 확장이 자원 동원과 결속력 강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은 실재론적 방식(substantialist)이 아닌 관계론적 방식(relational)으로 발생하며, 행위자들이 지향성(directionality)을 가지지 않고도 전반성적(pre-reflective) 행위로 서로 연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권력을 구축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정 집단 내에서 불만이 조직화된 주장으로 승화되며 특정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문화적 성격을 내포하는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고, 카타르가 제공하는 자본은 외부 조건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원 충원과 조직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능하게 된다.<sup>36)</sup>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본 전환으로 인한 자원 동원의 구조화는 카타르의 연성권력(soft power)과의 교차점으로 나타나며, 이는 본 주제를 대입하여 볼 때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네트워크 확대와 조직화된 주장의 형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자본 전환과 자원 동원은 서로 공모(complicity)하며, 이는 독일 사회에서 특정 이슬람 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sup>37)</sup>

35) Ahn, 2023, pp. 108-110; Chesnot & Malbrunot, 2020, pp. 23-31

36) Bourdieu, 2018, pp. 64-65; Jenkins, 1983, pp. 532-533; Ahn, 2023, pp. 119-120

37) Bourdieu, 2018, pp. 66-68; Chesnot & Malbrunot, 2020, pp. 28-29. 또한 이는 내부적 통합과 외부적 저항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결과로서 행위자 (activists)들의 지향없는 (non-directive) 지향성(intentionality)을 함의한 전반성적(pre-reflective)인 모든 행위로 귀결되는 실천(practice)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실천은 <성사행위의 유효성, opus operatum;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행위 자체의 효력을 강조, 결과를 상정하고 조건을 추론>에 부합 및 기능하며, 이러한 자원동원과 자본의 전환이 가능한 교차 응용은 독일 사회 내에서 종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이어서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보다 고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IV. 독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본 연구는 카타르의 연성권력이 독일 사회에 미치는 복합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카타르가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독일 사회의 문화적 통합과 이념적 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기존 연구는 카타르의 지원이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의 자율성과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평가했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이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임을 제시한다.<sup>38)</sup> 최근 독일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득세하며 주요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슬람 공동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독일 사회의 민감성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한편, SPD와 녹색당과 같은 중도 및 좌파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독일 내 정치적 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up>39)</sup> 이러한 맥락에서 카타르의 자금 지원을 받은 특정 이슬람 단체들이 독일 사회 내에서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기존의 다문화주의적 이상과 충돌할 수 있으며, 특히 AfD와 같은 정당들이 주장하는 반이민 및 반이슬람 정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sup>40)</sup>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카타르의 연성권력이 독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분열과 이념적 갈등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카타르의 연성권력이 독일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의미와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조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독일 내의 정치적, 문화적 균형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카타르의 지원이 독일 사회의 정치적 극단화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고찰은 독일의 사회적 결속력과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sup>41)</sup>

### 1. 사회적 분열

카타르의 영향력은 독일 사회의 문화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다문화주의와 종교적 포용성을 중시해온 사회로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을 긍정적인 사회적 자산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카타르의 자금 지원으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은 특정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독일의 문화적 다원주의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sup>42)</sup> 이러한 종교적 및 문화적 결집력은 이슬람 커뮤니티 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타 종교 및 비종교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자금 지원은 특정 이슬람 단체들의 경제적 자립과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며, 이는 독일 사회 내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대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 지원의 결과는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

38) Ahn, 2023, pp. 117-118

39) Ansari, 2023, RMS(자원동원구조)는 사회적 문제와 불만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며 현재 상황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Jenkins, 1983, p. 532) & (Weissmann, 2008, pp. 39-40).

40) Chesnot & Malbrunot, 2020, pp. 23-29

41) Antwi-Boateng, 2013, pp. 3-4; Bourdieu, 2018, pp. 60-62

42) Ahn, 2023, pp. 117-119

다. 독일 사회의 일부는 이러한 현상을 외부 지원을 받은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적 부상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sup>43)</sup> 따라서 카타르의 영향력 확대가 독일의 사회적 결속력을 잠식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주의의 이상과 실제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sup>44)</sup>

## 2. 사회적 및 이념적 갈등

카타르가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강화된 이슬람주의 운동은 독일 사회 내에서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여 국가가 종교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프랑스의 *Laïcité*와는 다르게 독일은 세속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 배경과 헌법적 요소 때문에 종교와 국가의 협력이 일부 허용되는 문화적 기조와 연결되며 이슬람주의 운동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카타르의 자금 지원을 받은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은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독일의 세속적 가치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sup>45)</sup> 이러한 갈등은 독일 내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카타르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독일 사회 내에서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통해, 세속적 전통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독일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며, 이념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sup>46)</sup> 따라서 카타르의 재정적 지원은 독일 사회 내에서 이슬람주의 운동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사회적 분열과 함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 V. 카타르의 소프트 파워로 인한 부정적 결과

카타르의 자금 지원과 연성권력 활용은 독일 내 이슬람 커뮤니티의 자율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직간접적인 부정적 결과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자금 지원을 받은 이슬람 단체들은 독일 내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독일 사회 내에서 종교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다문화주의의 이상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sup>47)</sup> 둘째, 카타르의 지원이 독일 사회에서 특정 이슬람 단체들의 극단적 성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독일의 세속적 가치와 상

43) Chesnot & Malbrunot, 2020, pp. 28-29

44) Bourdieu, 2018, pp. 60-62

45) Jenkins, 1983, pp. 530-531

46) Antwi-Boateng, 2013, pp. 3-5; Bourdieu, 2018, pp. 66-68

47) Chesnot & Malbrunot, 2020, pp. 23-31

충하는 종교적 이념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독일 사회 내에서 이슬람 공동체와 비이슬람 공동체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sup>48)</sup>셋째, 독일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와 맞물려, 카타르의 지원이 독일 내 반이슬람 및 반이민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독일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카타르의 자금 지원이 독일 사회 내에서 이슬람 단체들에 대한 편견과 경계를 조성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sup>49)</sup>

## VI. 결론 및 한계점과 권고

본 연구는 카타르의 연성권력 행사, 특히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펀드 지원이 독일 사회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카타르의 펀드 지원은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성장과 정치적 발언권 확대에 기여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원 동원 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과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자본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카타르의 경제적 자본은 독일 내 특정 이슬람 단체들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이들이 독일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존의 세속주의적 가치에 도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카타르 자선기구(Qatar Charity, QC)는 카타르 소프트 파워의 핵심으로서 독일 내 모스크와 이슬람 센터 건립 등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의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50)</sup> Chesnot & Malbrunot (2020)은 QC를 "도하의 종교적 소프트 파워"라고 지칭하며,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한다.<sup>51)</sup> 또한 QC는 이슬람 선교 사업(missionary)에도 자금을 지원하며, 독일 내 이슬람 공동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sup>52)</sup> 이러한 자금 지원은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들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독일 이슬람 공동체(IGD, Islamische Gemeinschaft in Deutschland)는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타르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카타르의 펀드 지원이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카타르의 펀드 지원이 초래할 수 있는 독일 사회의 부정적 결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맥락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분석했다.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북독일 4개 주 정세동향 보고에 따르면 앤디 그로테 함부르크 내무장관(사민당, SPD)은 6.3(월) 2023년 함부르크

48) Antwi-Boateng, 2013, pp. 5-6

49) Bourdieu, 2018, pp. 64-65

50) Chesnot & Malbrunot, 2020, pp. 67-68

51) Chesnot & Malbrunot, 2020, pp. 21-22, 67-68, p.234

52) Steinberg, 2013, pp. 20-21, 57-59.

현법수호보고서를 발표하고 극우주의가 이슬람주의보다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이며, 독일 전국적으로 독일대안당의 급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이슬람주의 단체들을 필두로한 이슬람주의 시위 및 칼리프 체제 요구는 기본적으로 독일 헌법에 위배되며, 현재 독일에서 이슬람주의가 구조적으로 부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슬람주의의 폭력성을 고려하면 심각한 위험요소라고 언급한 부분, 그리고 독일 제 2의 도시인 함부르크 내 함부르크 이슬람센터는 극단주의 단체이며, 그 중 약 83%가 폭력 지향적이기에 폐쇄될 것을 예상한다고 언급한 부분들 이 본 연구의 맥락과 이어진다.

이어서 만하임에서 개최된 반이슬람주의 행사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경찰관을 비롯한 시민을 공격해 끝내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의 여파로 차기 연방-주 내무장관회의에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라도 지금부터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추방하는 방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부분, 다니엘 커터 솔레스비히-흘슈타인 주총리(기민당, CDU)도 같은해 6.5(수) 범죄자나 극단주의자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국적을 불문하고 일관적인 추방 원칙을 적용 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 솔츠 총리는 같은해 6.6(목)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중범죄자나 테러 위협을 가하는 자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일관적으로 본국 송환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에 연방국방부가 이미 아프가니스탄 주변국과 실질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들도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외부 자금 지원을 받는 이슬람 단체들이 독일 사회의 법적, 정치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의 정치적 발언권 확대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이러한 사건들이 카타르의 펀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카타르의 펀드 지원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sup>53)</sup>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카타르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독일 사회의 정치적, 이념적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외부 자금 지원, 특히 이슬람 단체에 대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사회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관용, 그리고 세속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슬람 공동체와 비이슬람 공동체 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기반한 분석을 진행했기에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유사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 결과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 교육, 문화 교류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 파워 전략이 독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제 관계에서 소프트 파워의 역할과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이해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결과는 카타르의 자금 지원이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성장과 정치적 발언권 확대를

53) Bourdieu, 1986, pp. 24-26, Nahapiet & Ghoshal, 1998, pp. 259-261, Ehlen et al., 2014, pp. 157-161

통해 독일 사회에 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독일 사회 내에서 종교적 분열과 이념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극단주의 이념의 확산과 사회적 긴장의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카타르의 연성권력은 독일 내에서 직간접적인 갈등과 반감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독일 사회 내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다.<sup>54)</sup>

## 2. 독일 정책 및 미래 연구에 대한 권고

독일 정부는 카타르의 연성권력이 독일 내 이슬람주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독일 내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외부 자금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 사회의 다문화적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중도적 가치와 세속주의에 기반한 포용적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카타르의 자금 지원이 독일 내에서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sup>55)</sup>

---

54) Chesnot & Malbrunot, 2020, pp. 28-29; Jenkins, 1983, pp. 532-533

55) Antwi-Boateng, 2013, pp. 3-5; Bourdieu, 2018, pp. 66-68

## 참고문헌

- Ahn, S. Y. (2023). An examination of Qatar's motivation to challenge the status quo of the regional order in the Gulf region: Based on the theory of the revisionist state. *Journal of Mediterranean Area Studies (JMAS)*, 25(1), pp. 97-127. <https://doi.org/10.18218/jmas.2023.25.1.97>
- Alraouf, A.A. (2018). *A-Holistic-Assessment-of-Education-City-in-Doha-The-Borderless-Knowledge-Hub. Knowledge-Based Urban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ER.*
- Al-Tamimi, N., Amin, A., & Zarrinabadi, N. (2023). *Qatar's Nation Branding and Soft Power: Exploring the Effects on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Stance*. Springer Cham. <https://doi.org/10.1007/978-3-031-24651-7>
- Antwi-Boateng, O. (2013). The Rise of Qatar as a Soft Power and the Challenges. *European Scientific Journal, ESJ*, 9(31), pp. 350-368.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G. (1986).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 Bourdieu, P., & Wacquant, L. J. D.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esnot, C., & Malbrunot, G. (2020). *Qatar Papers: How Doha finances the Muslim Brotherhood in Europe*. Averroes & Cie.
- Claridge, T. (2018). *Explanation of the different levels of social capital: individual or collective?*. Social Capital Research.
- Cussins, A. (1992). *The Limitations of Pluralism*. [In:] Charles, D., & Lennon, K. (Eds.). (1992). *Reduction, Explanation and Realism*. Oxford: Clarendon Press.
- Diani, M. (1997). Social Movement And Social Capital: A Network Perspective On Movement Outcomes.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 2(2), pp. 129-147. <https://doi.org/10.17813/maiq.2.2.w6087622383h4341>
- Ehlen, C. G., Van der Klink, M., & Boshuizen, H. P. A. (2014). *One Hundred Years of 'Social Capital': Historical Development and Contribution to Collective Knowledge Creation in Organizational Innovation*. Open University. Heerlen. The Netherlands.
- Eum, I. R. (2020). The Soft Power Construction Strategies of Gulf Countries and Its limitations: An Analysis of Cultural Industries of Saudi Arabia,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Qatar. *Korean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KJMES)*, 41(1), pp. 67-94.
- Forret, M. L. & Dougherty, T. W. (2004). Networking Behaviors and Career Outcomes: Differences for Men and Wome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pp. 419-437. <https://doi.org/10.1002/job.253>
- Gomichon, M. (2013). *Joseph Nye on Soft Power*. E-International Relations.

- Jenkins, J. C. (1983).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 pp. 527-553. <https://doi.org/10.1146/annurev.so.09.080183.002523>
- Jung, S. R. & Kim, J. K. (2012). An Analysis on the Financial Policy of Qatar. *Journal of Middle Eastern Affairs (JMEA)*, 11(4), pp. 51-76.
- Khatib, L. (2013). Qatar's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pragmatism. *International Affairs*, 89(2), pp. 417-431. <https://doi.org/10.1111/1468-2346.12025>
- Light, I. (2004). *Cultural Capital*. [In:] Horowitz, M. C. (Ed.). (2004) *The New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Vol. 2. Scribner's.
- Luerdi, L. (2022). *QATAR'S FIFA WORLD CUP 2022: SUSTAINABILITY AND FOREIGN POLICY*. Universiti Sultan Zainal Abidin | UniSZA. <https://doi.org/10.31219/osf.io/rqx47>.
- McCarthy, J. D., & Zald, M. N.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6), pp. 1212-1214.
- Mitchell, J. (2014). *What Money Can't Buy: Wealth, Status, and the Rentier Bargain in Qatar*. In APSA 2014 Annual Meeting Paper.
-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pp. 242-266. <https://doi.org/10.2307/259373>
- Samuel-Azran, T. (2016).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 a Clash of Civilizations: Al-Jazeera and Qatar's Soft Power*. Peter Lang Verlag.
- Singh, J.P., Hao Li, M., Kaptanoglu, N. & Childress, E. (2022). *SOFT POWER AND CULTURAL RELATIONS APPROACHES IN INTERNATIONAL HERITAGE PROTECTION*. Schar School of Policy and Government George Mason University 3351 Fairfax Drive, MSN 3B1 Arlington, VA 22201.
- Sommerfeldt, E. J. (2013). Online power resource management: Activist resource mobilization, communication strategy,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5(4), pp. 347-367. <https://doi.org/10.1080/1062726X.2013.806871>
- Spenlen, J. (2009). *Reflections on Muslim Extracurricular Religious Education in Germany*. [In:] *Living Islam in Europe: Muslim Traditions in European Context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Muslims in Europe and Their Societies of Origin in Asia and Africa". Zentrum Moderner Orient.
- Weissmann, M. (2008). The Missing Link – bridging between social movement theory and conflict resolution. *GARNET Working Paper*, 60/08, pp. 1-46.
- Wiktorowicz, Q. (2004). *Joining the Cause: Al-Muhajiroun and Radical Isla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Rhodes College.
- Ansari, S. (2023, September 18). German Muslims fear far-right swing aft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electoral wins. Hyphen News.

<https://hyphenonline.com/2023/09/18/german-muslims-fear-far-right-swing-alternative-fur-deutschland-electoral-wins/>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amburg.(2024, June 11). Northern Germany's 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May 27–June 9, 202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s://overseas.mofa.go.kr/de-hamburg-ko/brd/m\\_9687/view.do?seq=1340240](https://overseas.mofa.go.kr/de-hamburg-ko/brd/m_9687/view.do?seq=1340240) 북독일 4개주 정세 및 경제동향(2024.5.27-6.9) 상세보기|북부독일 주요동향 |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Steinberg, G. (2013). Germany and the Muslim Brotherhood. In L. Vidino (Ed.), *West and the Muslim Brotherhood after the Arab Spring*(pp. 86-96). Al-Mesbar Studies & Research Center and 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 Humanitarian Realities in Palestine: The Unending Impact of the Ongoing Israel–Palestine Conflict on Palestinians’ Humanitarian Issues

Doheo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David Chong\*\* (Capitol Technology University)

**Abstract:** Amidst the intens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lies a horrifying impact of the war on innocent civilians and vulnerable groups like pregnant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This work is a quantitative research utilizing data from the Humanitarian Data Exchange (HDX) website to unearth the unprecedented humanitarian impact of the conflict on Palestinians. Findings hold that Palestinians are experiencing unending humanitarian crises characterized by intensive attacks on health and education facilities and continuous deterrence of humanitarian aid programs from reaching them. In particular, a significant number of humanitarian health workers have been attacked, killed, injured, and arbitrarily arrested while making efforts to give humanitarian aid. Likewise, educators and students have been targeted and killed, injured, and arrested, and a notable number of children have been sexually assaulted. Various weapons, including aerial bombs, firearms, knives, and improvised explosives, have been employed to perpetrate these crimes. In this blight lies the issue of food insecurity, revealing the need for a peaceful approach to end the conflict.

**Keywords:** Palestine question, humanitarian issues, healthcare, education, food insecurity

## 1. Introduction

On 7<sup>th</sup> October 2023, Palestinian Hamas-led militants launched a sudden attack on Israel from the Gaza Strip (GS). Reports disclosed that utilizing a barrage of rockets, a neighborhood of 1000 Hamas militants approached Israel from sea, air, and land and stormed its military bases, music festival, moshavim, and kibbutzim. The attack resulted in the killing of 1200 people, primarily Israeli civilians, including foreign nationals, 373 security personnel, and 766 civilians.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 Full manuscript available at: <http://dx.doi.org/10.13140/RG.2.2.12921.07527>

Palestine took captive 253 Israelis as well as foreigners back to the GS (Boxerman, 2023; Samuel, 2023).

In response to the attack, Israel carried out intensive, extensive aerial bombardment on GS accompanied by a pronounced ground invasion 20 days later that embroiled Palestine. On 2nd November 2023, Israeli militants besieged Gaza City and later, on 3rd December, attacked Khan Yunis, and the conflict is ongoing to date (24th March 2024). Sources reveal that Israeli forces perpetrated a mass murder of approximately 13000 Palestinians, mostly children and women, destroyed homes, and displaced people (Irwin, 2023). As of March 2024, more than 30,228 Palestinians, including 89 journalists and over 136 UNRWA workers, have been killed (Omar, 2024; Shah, 2023). Statistics state that several thousands of Palestine people have gone missing, and a good number are presumed trapped under rubble and debris. Moreover, more than 2.3 million Palestinians in Gaza have been internally expelled. On the other hand, only 1,410 Israelis, including two journalists, have lost their lives (Aljazeera, 2023)

According to Dekel (2023), the goal of the Israel-Hamas attack is clear—to dismantle Hamas' government and military capabilities to force the return of Israel hostages and ensure that Hamas will not be able to regain its vigor. The conflict has resulted in unprecedented humanitarian crises in GS, with extreme water, food, medicine, and fuel shortages. As such, healthcare in GS is on the verge of collapse due to a blockade and electricity blackout. There is pronounced famine since Israel responded to the attack and maintained its ultimatum goal of crushing and destroying Hamas to strip it off the capability to mount further attacks.

Witnessing the unceasing hostilities, the United Nations, on 15th November 2023, called for a humanitarian pause as protests demanding a ceasefire occurred worldwide (United Nations, 2023; Zanotti & Sharp, 2023). This conflict was just an instance of the various intense conflicts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that have resulted in humanitarian crises for decades.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humanitarian realities in Palestine as a result of the ongoing Israel-Hamas conflict.

## 2. Methodology

This is a quantitative study utilizing secondary data from reputable online sources. Data was obtained by desk research. The process incorporated a systematic process of gathering data and information from studies and reputable sources on the humanitarian issues in Palestine.

These include concerns about healthcare access, displacement of Palestinians, violence, land confiscation, refugee condition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ducation. To obtain the most appropriate data, the researcher employed the following keywords and phrases:

*Keywords and Search Phrases*

Keywords	Search Phrases
Refugee crisis, Displacements, Refugee camps, Conflicts, Demolitions	Refugee crises in Palestine-Israel conflict Displacement of Palestinians Palestine refugee camps in neighboring countries Demolitions of Palestinian homes
Water, Healthcare, Education, Sanitation, Checkpoints, Military presence, Restrictions, Health care institutions, Movement	Access to the basic services in Palestine Israel's military presence and checkpoints in Palestine Restricted movements in Palestine Situation of healthcare institutions in Palestine Access to education and sanitation in Palestine
Gaza, Siege, Blockade, Goods, Humanitarian crises, Essential goods, Poverty, Unemployment, Power cuts, Livelihood	Gaza blockade and siege Humanitarian crisis in Palestine The flow of essential goods in Palestine Power cuts in Palestine Palestinian Livelihood destruction Poverty rate and unemployment rates in Palestine
Conflict, Violence, Arbitrary arrests, Hostages, Killings, Torture, Detentions, Civilians, Loss of life, Injuries, Trauma	Impact of conflict and violence on Palestinians Arbitrary arrests of Palestinians Killings and torture of Palestinians Loss of life in Palestine Injuries and trauma in the Israel-Palestine war
Land confiscation, Displacement, Fragmentation, Limited access to land, Trade barriers, Economic hardships	Palestine land confiscation Displacement of Palestinians Limited access to land in Palestine Trade barriers in Palestine Economic hardships due to war in Palestine
PTSD, Depression, Anxiety, Stress, Trauma, Children, Education, Violence	Israel-Palestine conflict and PTSD Depression in Palestine Anxiety levels in Palestine Stress levels in Palestine Impact of War on children in Palestine Education disruption in Palestine

Data preparation, preprocessing, and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Microsoft Excel. The researcher intensively used pivot t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large data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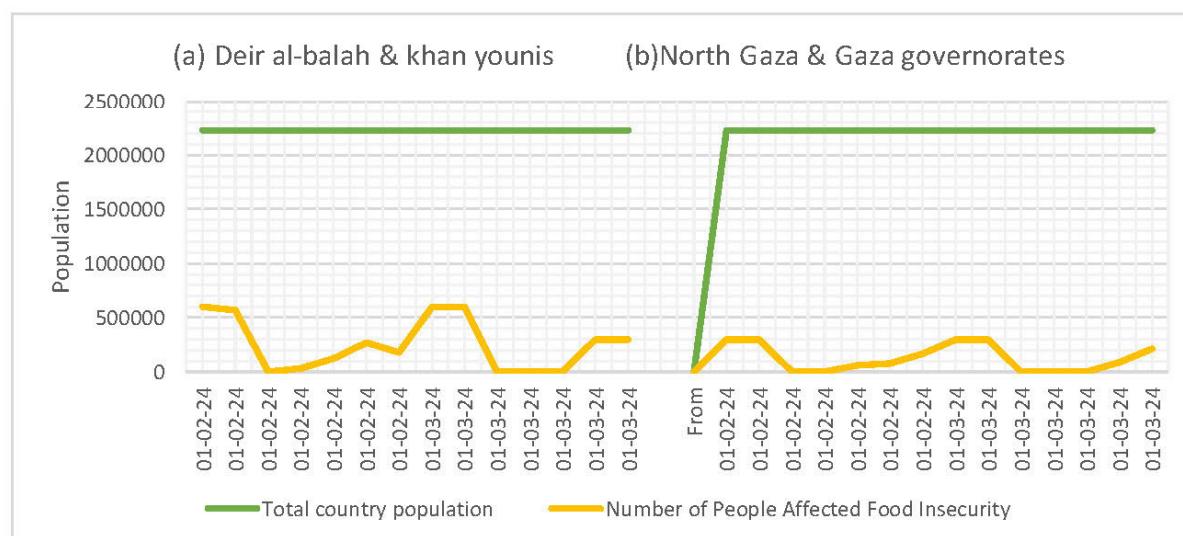
### 3. Results and Discu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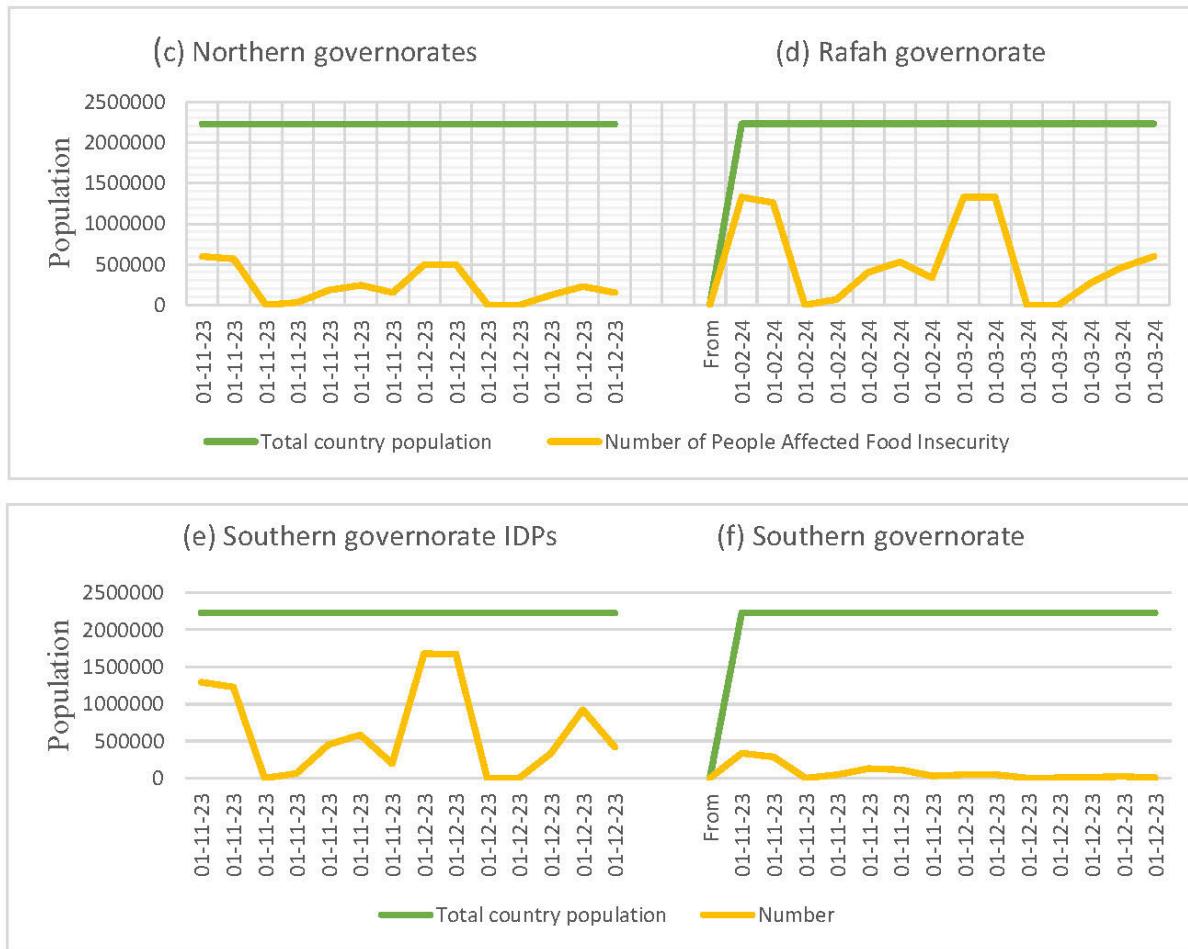
The data used in this paper is provided in the appendices section. The researcher obtained three datasets from Human Data Exchange (HDX), a service provid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Findings reveal that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incorporates the use of lethal weapons, including firearms, knives, shelling, missiles, aerial bombs, tasers, live bullets, and hand grenades. All these pose a detrimental impact, as discussed in the following subsection

#### 3.1 The Acute Food Insecurity

Findings revealed that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has bred economic downtown, loss of livelihoods, disruption of day-to-day operations, and destruction of properties and infrastructure. Moreover, the war has interfered with the country's supply chains, importation of food commodities, access to land, agricultural activities, and markets. All these have precipitated food insecurity, particularly in areas like Gaza. As such, the issue of malnutrition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and pregnant women, has been evident. This vicious cycle has persisted for decades as humanitarian programs continue encountering hurdles in terms of funding and access. The following charts show the affected areas.

**Figure 1:** No. of Palestinians Affected by Food Insecurity by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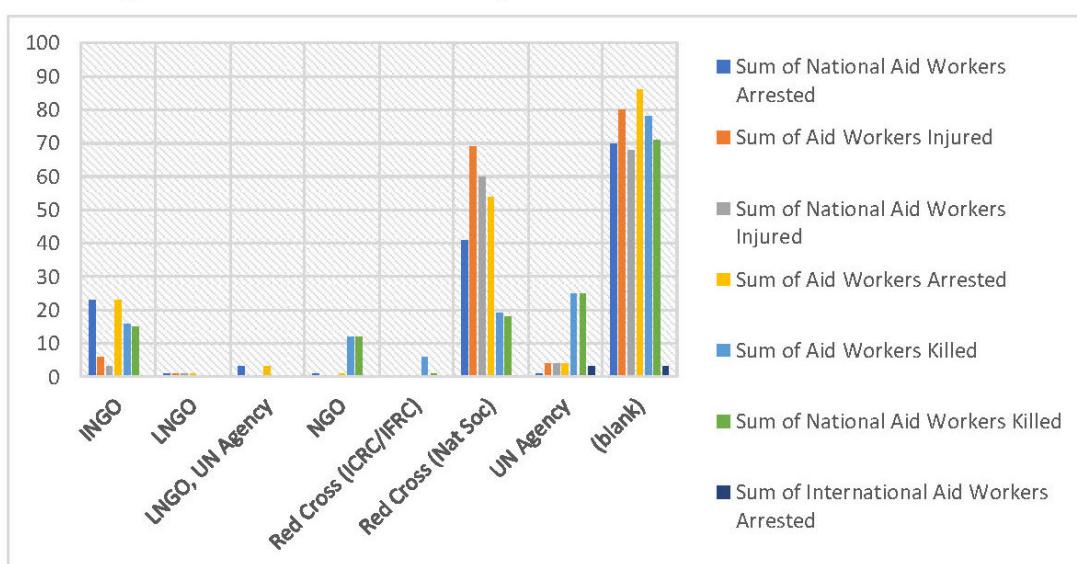
As shown in the charts above (see Figure 1), various areas of Palestine affected include the Deir al-Balah & Khan Younis governorates (see chart (a)), North Gaza and Gaza governorates (see chart (b)), Northern governorates (see chart (c)), Rafah governorates (see chart (d)), Southern governorates IDPs (see chart (e)), and Southern governorates (see chart (f)) as classified in our data. While all these areas are vulnerable to hunger and other food security issues, some areas are more vulnerable than others.

Rafah governorate and the Southern governorate IDPs were the most vulnerable to hunger and food insecurity, with over 1.5 million people affected, while the Southern governorate and North Gaza and Gaza governorates were less food insecure (see charts (a)-(f)). The situation is persistently worse for Rafah governorate, as a significant part of the population continues to face the issue of food insecurity for several months as the conflict deters humanitarian aid from reaching the communities.

### 3.2 Attack on Healthcare and Aid Operations (Jan 2020 - Feb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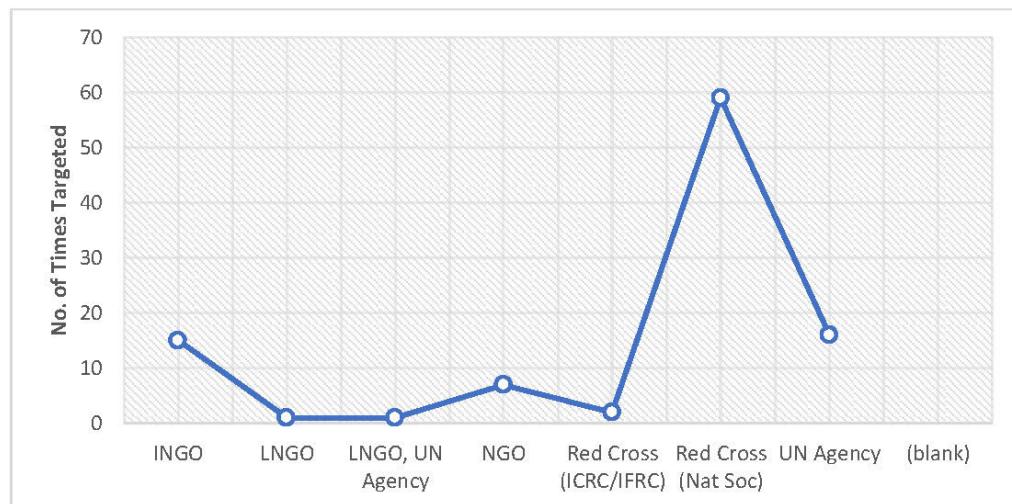
Findings show that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has leveraged all means possible to interrupt and disrupt healthcare and aid operations, especially in GS and WB: killing, injuring, and arresting national aid workers; arresting international aid workers; and disrupting healthcare and aid support operations and the organizations giving such operations. These have been carried out in various Palestinian areas and locations, including health buildings, project sites, roads, refugee camps, schools, checkpoints, homes, and open spaces. The following figure reveals the programs that have been affected.

**Figure 2: Programs Whose Workers Were Aff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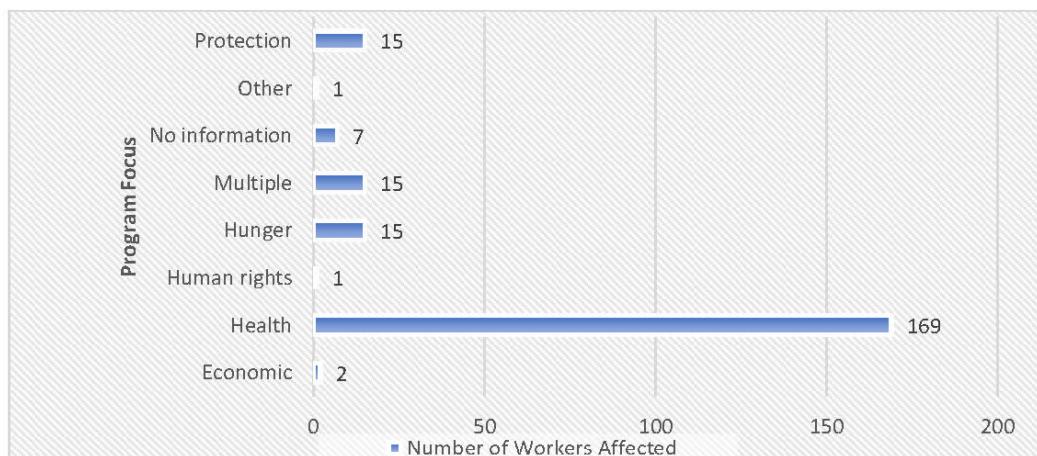


As shown in the figure above (see Figure 2), the humanitarian aid programs whose workers have either been killed, injured, or arbitrarily arrested are INGO, LNGO, UN Agency, Red Cross (ICRC/IFRC), and Red Cross (Nat Soc). Data on other programs whose workers were the most affected is missing. Red Cross (Nat Soc) workers were the second most affected, while LNGO were the least affected. Indeed, a closer look into the issue (see Figure 3) reveals that Red Cross (Nat Soc) workers encountered the highest number of attacks. LNGO was the least targeted.

**Figure 3: No. of Times Each Program Was Targeted**



**Figure 4: Humanitarian Issues the Programs Sol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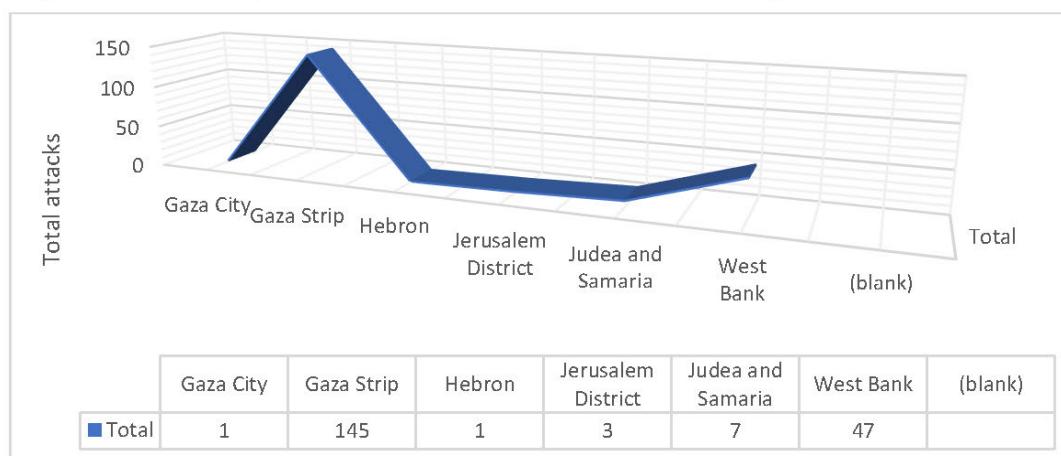
As shown in Figure 4, each program supports various humanitarian aspects: health, human rights protection, hunger, health, protection, and economics. Some focus on multiple humanitarian issues, but the majority specialize in health while a significant prioritize hunger, protection, and human rights. As shown in the graph above (see Figure 4), most workers affected by the conflict (169) were health workers, followed by hunger and protection workers and workers specializing in multiple humanitarian issues. There exists a data gap on seven of the affected workers.

### 3.4 Attacks on Education (Jan 2020 -Jan 2024)

Similar to healthcare, education in Palestine has faced tremendous attacks between January 2020 and January 2024 and hopes for reinstatement continue to vanish every day. Attacks have been executed targeting education buildings, homes, and private travel, endangering learners on the way to, at, and/or from school. Universities, colleges, secondary schools, and primary schools have been demolished. Primary schools and pre-primary schools have not been spared either. As analysis tells in the later parts of this subsection, education buildings have the highest number of attacks, and armed forces of government or self-declared government, police, and civilians have carried out the majority.

Like in the case of healthcare attacks, weapons such as aerial bombs (planes), firearms, tasers, and live and rubber bullets have been used to perpetrate the attacks. Shelling, missiles, unspecified explosives, artillery, arson, and knives form part of the weapons leveraged by the assailants. The following figure shows the number of attacks on education at GS, WB, Gaza City, Hebron, Jerusalem district, and Judea and Sama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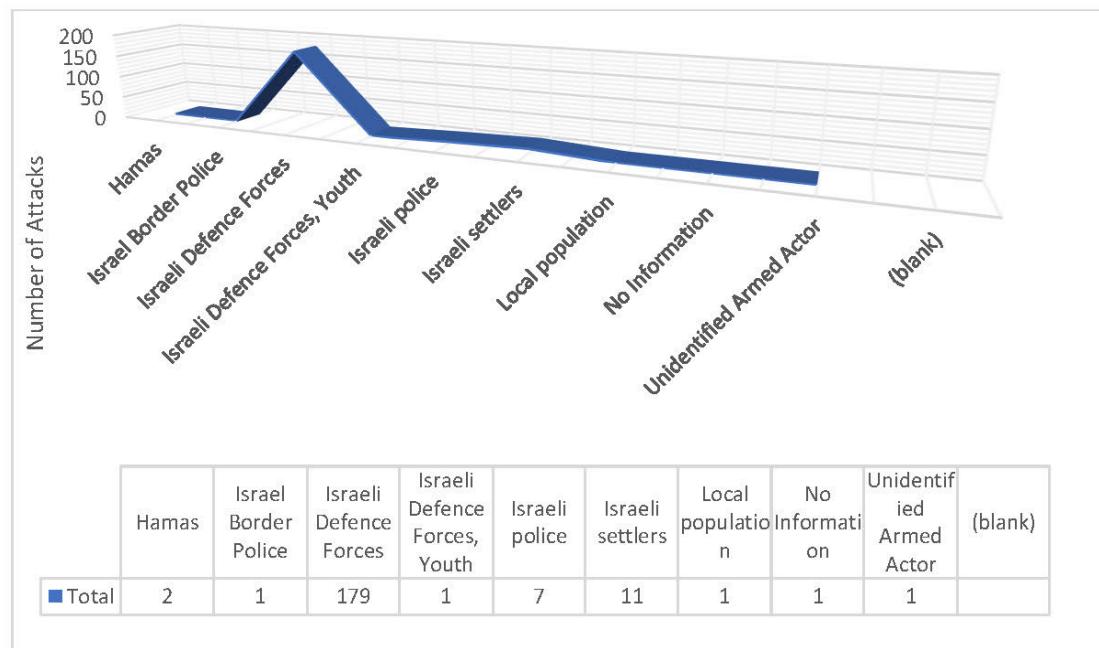
**Figure 5: Number of Attacks on Education in Various Areas of Palestine**



As shown in Figure 5 above, GS had the highest number of attacks, followed by WB, while Gaza City and Hebron had the lowest. These attacks, as shown in the figure that follows (see Figure 6), were perpetrated by various assailants, like Israel border police, Israel defense forces (IDF), IDF youth, Israel police, Israel settlers, local population, unidentified armed actors, and Hamas. This reveals that education in Palestine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institutions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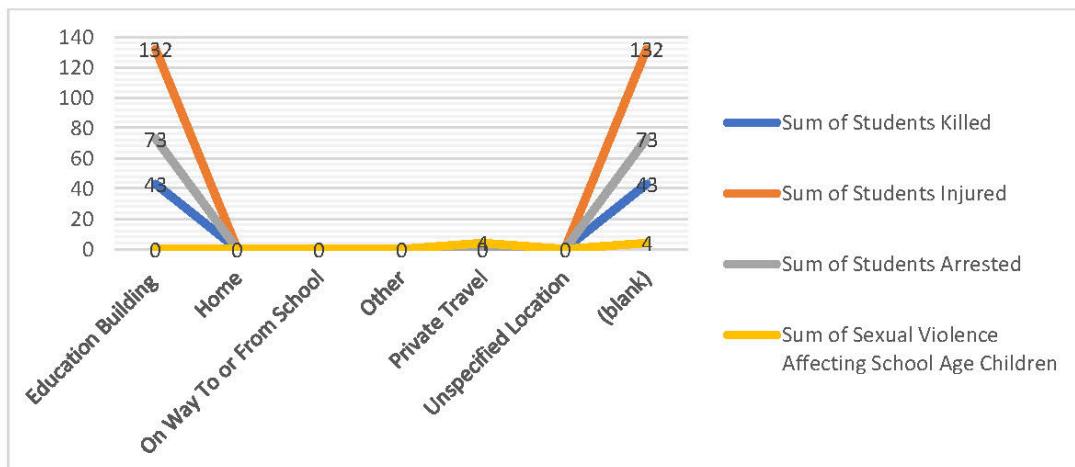
the land as it faces attacks from various perpetrators, including its local population. However, we cannot ignore the abhorrent fact that the attacks perpetrated by IDF are significantly the highest, having a difference of 168 against the attacks perpetrated by Israel settlers. The least number of attacks on education were carried out by unidentified armed forces (1), local population (1), Israel border police (1), IDF youths (1), and Hamas (2). The fact that IDF youths have carried less of the attacks than IDF is a sign of hope, but IDF's actions cause concerns.

**Figure 6: No. of Attacks Perpetrated on Education by Different Perpetr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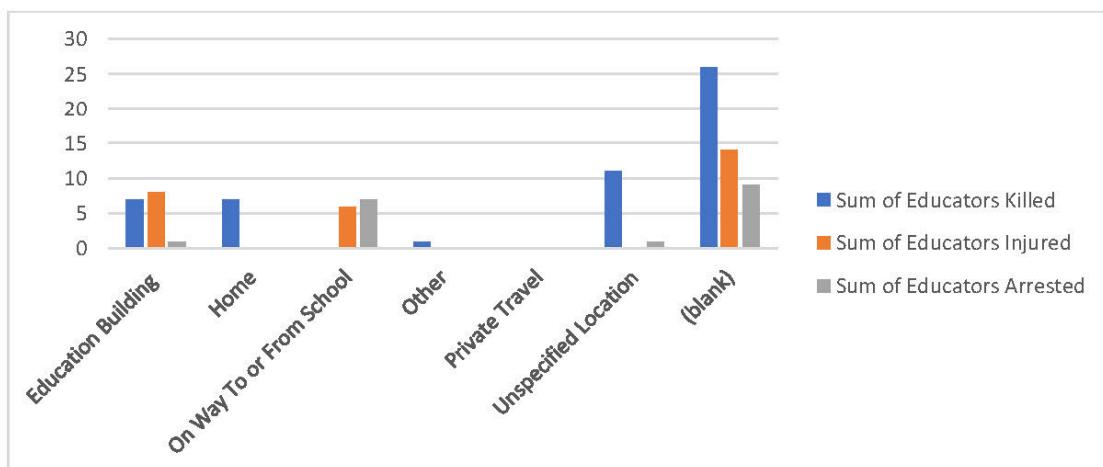
The attacks have affected students and educators in various ways. For instance, the majority of the attacked students sustained injuries, others were arrested, and a significant number were killed. Without a doubt, some students faced sexual violence. As shown in the graph (Figure 7), 132 students were injured, 73 were arrested, and 43 were killed. Four students we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dditionally, most of the incidents occurred at education buildings, homes, and unspecified locations. Sexual violence attacks occurred on private travels, but other attacks happened in unknown locations.

**Figure 7: Students Killed, Injured, Arrested, and Sexually Molested**



Like in the case of students, various educators were affected by the attacks: killings, injuries, and arbitrary arrests, as shown in the following chart (see Figure 8). As shown in the graph, the number of educators killed is the highest in all the attack locations. On the way to or from school, there were zero killings of educators, and the sum of arrests is higher than injuries. In education buildings, a notable number of educators were killed, and a significant number sustained injuries, while a few were arrested.

**Figure 8: No. of Teachers Killed, Injured, and Arrested**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apart from killing, arbitrary arrests, and injuries, the attacks on education in Palestine have led to the destruction of the education facilities in the

affected institution, forced entry into the facilities, arson attacks, and military occupation of the facilities.

#### **4. Conclusion**

Palestine continues to face a humanitarian crisis that calls for support. Conflict, military presence, restrictions, and checkpoints impede Palestinians from accessing essential resources like clean water, healthcare services, sanitation, education, and other basic needs. Consequently, the supply of goods, acute poverty, famine, reduced healthcare facilities, and frequent power cuts remain pervasive. At its pinnacle, violence has resulted in killings, torture, kidnapping and hostages, unwarranted and arbitrary arrests, torture, harassment of women and children, and intensive application of excessive force on civilians. These reveal a concer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women, and the elderly amidst the unending turbulences of deaths, injuries, and trauma,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While various humanitarian diplomats and programs have made efforts to bolst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support, there is a prompt need for diplomatic efforts to prevent further conflict, reduce casualties, and support the affected people. More importantly, diplomatic efforts to halt targeted attacks on health facilities, education institutions, children, women, and other vulnerable groups like the elderly can help enhance humanitarian support.

## References

- Al Jazeera. (2024, February). *Which of Gaza's hospitals is Israel threatening?*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1/10/which-of-gazas-hospitals-is-israel-threatening>
- Asrar, S., & Hussein, M. (2023, October 26). *How the US has used its veto power at the UN in support of Israel.* Www.aljazeera.com.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0/26/how-the-us-has-used-its-veto-power-at-the-un-in-support-of-israel>
- Boxerman, A. (2023, November 12). What We Know About the Death Toll in Israel From the Hamas-Led Attack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3/11/12/world/middleeast/israel-death-toll-hamas-attack.html>
- Dekel, U. (2023). The Israel-Hamas War: Israel Needs a Political Ide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http://www.jstor.org/stable/resrep54872>.
- Irwin, L. (2023, 11th November). *Nearly half of Gaza home have been destroyed, damaged by Israel-Hamas conflict: UN.* The Hill. <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4305328-nearly-half-of-gaza-home-have-been-destroyed-damaged-by-israel-hamas-conflict-un/>
- Samuel, M. T. (2023). The Israel-Hamas War: Historical Context and International Law. *Middle East Policy*, 30(4), 3-9.
- United Nations. (2023, 15th November). *Israel-Palestine crisis: Security Council calls for urgent, extended humanitarian pauses in Gaza | UN News.* News.un.org.  
<https://news.un.org/en/story/2023/11/1143632#:~:text=Audio%20Hub->
- Zanotti, J., & Sharp, J. M. (2023). Israel and Hamas 2023 Conflict in Brief: Overview, US Policy, and Options for Congress.

#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저항 방식 유형

- 『뜨거웠던 봄』을 중심으로 -

이슬아 (명지대학교)



##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저항 방식 유형

-『뜨거웠던 봄』을 중심으로 -

이슬아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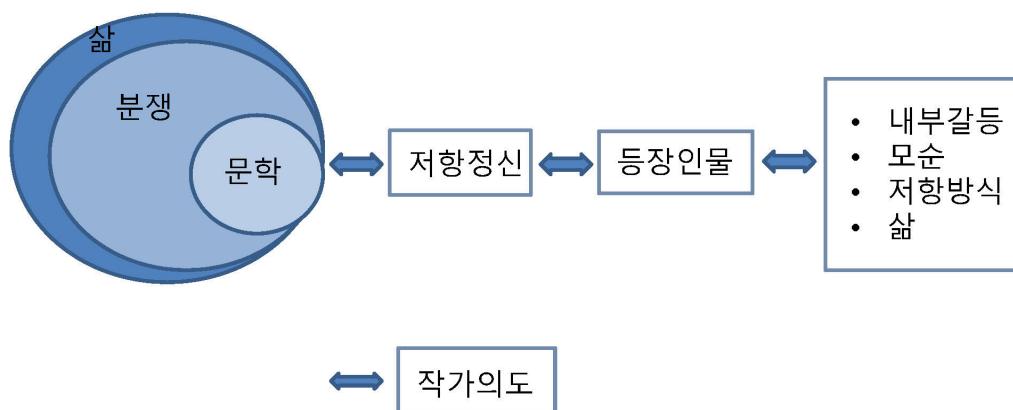
## 목차



1. 서론
2. 작가 및 줄거리 소개
3. 인물 분석
4. 저항 방식 유형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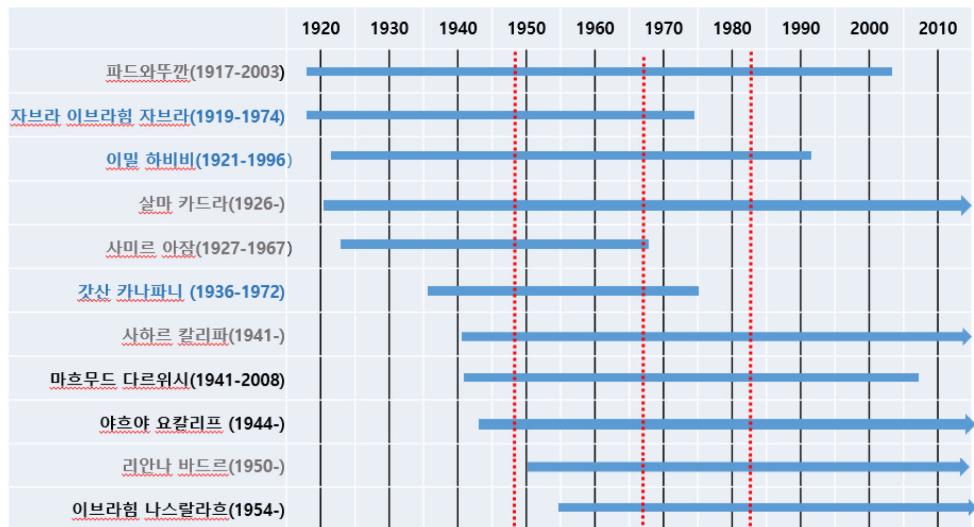
- 2 -

## 1. 서론



- 3 -

## 2. 작가 및 줄거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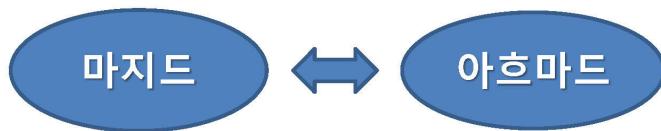
## 2. 작가 및 줄거리 소개

-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나블루스에서 1941년 출생
- 1988년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여성학 및 미국 문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 나블루스와 가자지구의 여성가족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 2. 작가 및 줄거리 소개

- 『뜨거웠던 봄(2004)』



- 2차 인티파다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정부 공격, 난민촌 파괴, 분리장벽 건설하는 2002년을 배경으로 함
- 마지드는 가수에서 혁명수비대 수장으로, 아흐마드는 문학소년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변모

- 6 -

## 3. 인물 분석

- **역할:** 주인공, 상대자(relative), 믿을 만한 친구, 작가인물, 남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
- **인물의 특성:** 평면적(정적), 다면적(역동적)
- **행동의 특성:** 예외적, 본보기적, 유형적
- **저항방식:** 비폭력적 vs 폭력적

- 7 -

### 3. 인물 분석

등장 인물	알와시미	알캇삼	수아드엄마	수아드/ 로라	아흐마드	마지도
인물 역할	상대자	작가 인물	작가 인물	믿을 만 한 친구	주인공	주인공
인물 특성	평면적, 정적				다면적, 역동적	
행동 특성	예외적	유형적	본보기적		예외적	
저항 방식	미참여	비폭력			폭력	

- 8 -

### 4. 저항 방식 유형

폭력		비폭력	
마지도	아흐마드	수아드엄마 로라 수아드	아흐마드, 알캇삼 마지도 외할머니
무력	종교적	여성	문화

- 9 -

## 4-1) 마지드

이렇게 마지드는 도망자, 용의자, 수배대상자가 되었고 혁명대원 무리에 들어갔다. 음악인이었던 청년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면서 그의 손에는 기타 대신 기관총이 들린 것이다.(사하르 칼리파:125)

소지품과 폭탄, 약간의 다이너마이트를 짊어지고 밤중에 산길을 걸었다. 마지드와 혁명대원들은 이따금 군용차를 폭파하거나 폭발물을 설치했고, 정착촌에 잠입해 발전소나 가스탱크를 폭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속으로는 이스라엘 군이 자기네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사하르 칼리파:126)

- 10 -

## 4-2) 아흐마드

오물과 점령, 감옥이라는 족쇄를 차고 살아온 젊은이들은 폭탄이 되었다. 희망을 찾지 못한 그들은 두 발 달린 폭탄이 되어 적지의 깊숙한 곳을 강타했다. 그렇게 안보군과 예비군, 검문소에 맞서며 일 년이고 삼년이고 넘도록 이어지는 숨 막히는 봉쇄에 맞섰다.’

점령이란 모순이었다. 혁명 대 타락, 앞잡이 노릇 대 희생양, 비열함이나 스파이 노릇 대 자폭에 이르는 극한의 희생과 같은 모순.(사하르칼리파:138)

아흐마드의 아버지가 울부짖었다. “내 아들이 순교자가 되었다!”  
다음날 뉴스에서 그들은 말했다.  
“테러.”(사하르칼리파:133)

우리에겐 핵이나 히로시마보다도 더 강력하고 조시 부시보다도 막강한 것 이 있다. 그것은 뭘까. 무엇이 부시보다도 훨씬 강력한 걸까? “신앙” 그들이 말했다.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신에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승리를 내리시고 그들을 물리치신다.(사하르칼리파:128)

- 11 -

### 4-3) 작품 속 여성

작품 속 인물	역할
수아드 엄마	가장의 역할, 정신적 지주
수아드/로라	소식통, 지식 전달
이웃 여인들	보호
수아드	길잡이, 멘토

움무 수아드는 집안의, 작업장의, 여공들의 밥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수아드의 아버지가 수감된 이후로 움무 수아드는 강인해졌다. 아이들의 아비라는 사람이 물려준 것은 걱정과 공포, 청구서와 생활비 부담뿐이었다.(사하르칼리파:211)

- 12 -

### 4-4) 알칸삼, 마지드 외할머니

이스라엘이 이 세대와 학생들을 조롱하고, 매춘과 협잡, 에이즈, 마약, 싸구려 무기로 어떻게 그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많은 글을 썼다. 그 짓거리는 우리네 시장에 그치지 않고, 아랍세계에까지 마수를 뻤었다.(사하르칼리파:54)

아버지는 얼이 빠져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가들과 기자들까지 학생들을 따라 “노래해! 노래해!”라고 외치고 있었다. 계단 뒤, 담벼락 위, 나무 위의 청년들의 얼굴로 희망에 찬 미소와 젊음의 열정이 비쳤다. 이는 희망에 찼던 과거를, 자유를 향한 열망을 일 깨웠고, 아름다웠던 지난 날들로 청년들을 이끌었다. 나크사가 있기 전처럼 오마샤리프의 청년 시절처럼, 둘도 없을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가말 암둘 나세르가 젊음이 넘쳐 마치 로켓 같았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사하르 칼리파:86)

할머니가 말했다 “신이시여, 하늘과 천사의 이름으로 마지드를 자유롭게 하소서, 마지드의 인생이 행복과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하소서.”(사하르 칼리파:193)

- 13 -

## 5. 결론

- 드라마 인물유형 분석 틀을 소설에 접목시켜 등장 인물을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인물 유형을 분석하면서 사하르 칼리파가 팔레스타인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당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인물들의 저항 방식을 세분화하여 팔레스타인 저항이 단순히 서구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라고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현실을 전달하고자 함
- 『뜨거웠던 봄』을 통해 본 팔레스타인 저항은 잔혹한 식민지 지배 경험이 누적되면서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종교에서 세속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14 -

## 참고문헌

### 가. 단행본

- 김용수(2019).『드라마 분석 방법론』, 서울, 집문당.  
사하르 칼리파(김수진 역)(2004).『뜨거웠던 봄』, 서울, 케포이북스.  
송경숙(2005).『팔레스타인 문학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سحر خليفة ، ربيع حار، الفلسطينيون ، الأدب العربي ، 2004

### 나. 학술논문

- 김인숙(2021), 「팔레스타인 장벽들을 사유하는 방식: 사하르 칼리파의 『뜨거웠던 봄』 연구」, 『인문과 예술』, 제10호, 인문예술학회.  
송경숙(1995), 「팔레스타인 여성작가 사하르 칼리파 연구: 탈식민주의 폐미니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4권 2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Priyanka and Shashikantha Koudur(2018). Multiple Resistance Strategies for Survival under Israeli occupation in the novels of sahar Khalife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arnataka, India

- 15 -